

## 2. 최근 3년간 보험사별 휴면보험금 현황 및 잡익처리 현황

(붙임 참조)

<휴면보험금 현황>

금융회사명	2003.4 ~ 2004.3				2004.3월말				2004.4 ~ 2005.3				2005.3월말				2005.4 ~ 2006.3				2006.3월말			
	발생		지급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한생명	309	569	307	576	1,720	571	134	844	191	734	1,663	681	137	890	153	782	1,647	789						
알리안츠	122	86	86	88	684	123	115	105	67	74	732	154	104	135	42	68	794	221						
삼성생명	384	819	357	720	1,306	477	331	2,418	349	1,839	1,289	1,055	398	3,605	345	3,709	1,341	951						
한국생명	55	59	33	45	538	72	44	71	13	23	569	120	77	129	30	106	615	143						
교보생명	229	354	347	427	1,723	407	283	961	243	803	1,763	565	406	1,290	206	1,282	1,962	572						
대진생명	-	-	-	-	-	-	-	-	-	-	-	-	-	-	-	-	-	-						
녹십자생명	4	13	0	2	4	11	6	14	2	11	8	13	7	19	3	14	12	19						
신한생명	89	52	360	44	522	94	95	65	37	22	580	137	119	120	55	53	644	205						
LIG생명	6	5	2	5	89	17	4	6	2	4	91	19	18	18	2	5	106	32						
금호생명	45	31	22	25	341	76	38	52	27	36	353	92	27	43	25	30	354	105						
미래에셋	63	51	39	63	719	157	60	65	41	61	739	161	62	71	24	33	777	199						
한일생명	2	2	2	2	54	12	-	-	-	-	-	-	-	-	-	-	-	-						
KB생명	-	-	-	-	-	-	5	3	0	0	5	3	2	4	4	4	3	4						
동부생명	67	11	9	19	222	34	4	11	16	6	209	38	5	16	33	8	182	50						
중앙생명	37	26	13	24	496	85	61	36	11	17	546	104	78	63	16	29	608	137						
메트라이프	7	27	9	36	151	16	9	40	7	17	153	39	13	36	7	28	159	46						
PCA생명	2	1	1	1	5	2	2	1	0	1	7	2	3	2	1	1	9	3						
뉴욕생명	1	1	1	1	14	2	1	1	0	1	14	2	2	3	1	2	15	4						
푸르덴셜	6	3	4	3	21	5	8	5	3	3	25	7	11	23	9	20	28	11						
ING생명	10	14	4	8	30	15	15	27	8	19	37	23	25	50	14	32	48	40						
하나생명	30	3	1	1	29	1	0	0	14	0	15	1	0	0	0	0	15	1						
라이나생명	20	5	3	2	54	13	72	20	2	2	124	30	116	38	4	4	236	65						
AIG생명	6	2	1	1	26	12	27	13	2	2	50	23	41	33	11	13	80	43						
합계	1,492	2,136	1,600	2,094	8,747	2,200	1,314	4,756	1,034	3,676	8,973	3,269	1,649	6,587	987	6,221	9,636	3,540						
메리츠화재	14	27	8	20	48	42	15	31	6	12	57	62	15	55	6	19	66	98						
신동아화재	7	17	3	13	34	38	5	12	4	13	36	38	5	17	2	6	38	49						
대한화재	5	13	4	10	20	40	4	14	1	5	23	48	4	15	5	23	22	40						
그린화재	4	7	3	7	15	13	3	8	2	3	16	17	3	6	2	2	16	20						
한국생명화재	9	11	1	5	44	35	13	14	3	9	54	41	16	19	3	9	65	44						
제일화재	11	23	7	18	45	38	12	25	3	11	54	52	12	30	4	11	60	68						
삼성화재	66	143	49	114	134	153	83	218	61	176	156	194	98	314	48	243	206	266						
현대해상	26	64	27	67	63	53	26	83	27	66	63	70	26	99	24	82	65	87						
LIG손해	20	48	15	37	66	74	21	64	14	43	74	95	20	80	15	63	77	105						
동부화재	25	43	25	46	100	75	32	65	12	26	119	115	27	79	11	35	134	159						
교보자동차	-	-	-	-	-	-	0	0	0	-	0	0	0	-	-	-	0	0						
합계	187	395	143	338	569	561	214	533	131	364	662	731	225	715	119	492	750	935						

주) 보험회사는 휴면보험금 발생시 집이의 처리하지 않고 회사 자체 경험률에 근거하여 휴면보험금의 일정비율을 부채로 처리하고 휴면보험금 지급시 부채를 없애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므로 집이의처리내역 대신 휴면보험금 발생과 지급내역을 기술함

3. 최근 5년간 금감원에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주가조작 등) 적발건수와 적발 사유, 적발된 임직원수 및 임직원 직급, 처분 결과

□ 최근 3년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로 적발된 시장별 건수는 다음과 같음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7월	
	유	코	유	코	유	코	유	코
시세조종	40	57	41	61	38	68	8	32
미공개정보 이용	8	19	22	17	41	17	6	10
계	48	76	63	78	79	85	14	42

\* 유=유가증권시장, 코=코스닥시장

□ 최근 3년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된 내부자의 직급별 수는 <붙임1>과 같고, 이들에 대한 조치내역은 <붙임2>와 같음

<붙임 1>

(단위 : 명)

구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7월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유	코	11	유	코	2	유	코	3	유	코	8	유	코	17	유	코	5	유	코	1	유	코	5
대주주	62	3			1					3			1						5			1			
대표이사	107	6		9	1		10	8		18	3		8	3		11	8		13	2		1	2		5
임원	115	10		11	2		9	7		16	8		5	7		14	10		8	1		3	1		3
부장/차장/실장	21				2		1	1		4	2		3	1		3	2								2
과장이하	46	1		1	1		5			3	17		1	5		3	7		1			1			
회사	25	1		2				3		2	2		2	2		4	3		2	1		1			
계	376	21		34	7		27	19		46	33		20	18		52	35		27	6		11	6		15

\* 유=유가증권시장, 코=코스닥시장



<붙임 2>

(단위 : 명)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7월	
	유	코	유	코	유	코	유	코
검찰고발	8	20	6	25	18	44	3	17
수사기관통보	19	40	31	39	29	33	9	6
경고 등	1	1	15	2	5	2		
총계	28	61	52	66	52	79	12	23

\* 유=유가증권시장, 코=코스닥시장

4. 최근 3년간 주가 조작 범죄 관련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상장회사 수와 건수, 혐의내용, 금감원의 조사  
결과 실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회사수(건수)

□ 최근 3년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에 대한 시  
세조종 혐의를 통보받거나, 자체인지한 건수와 실제 시세조종  
혐의를 적발한 건수는 다음과 같음

(단위 : 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7월
시세조종 혐의사건 접수	거래소통보	76	77	72	19
	자체인지	25	39	10	14
시세조종 적발사건		97	102	106	40

\* 사건 접수와 시세조종 적발 사이에 시차가 있어 각 연도별 사건접수건수  
와 시세조종 적발 건수에도 차이가 있음

5. 최근 3년간 적발된 증권거래법 위반건수와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내역

□ 최근 3년간 증권거래법 상의 공시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8.	합계
조사국	건수	17	13	2	-	32
	금액	3,368	2,808	51	-	6,227
공시 심사실	건수	73	32	46	8	162
	금액	11,732	2,022	1,670	239	15,663
회계 감독국	건수	5	22	8	8	43
	금액	1,102	12,210	2,763	5,300	21,375
총 계	건수	95	68	58	16	237
	금액	16,202	17,178	5,104	6,416	44,900

6. 최근 3년간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상장사 수와 적발된 인원수, 그에 따른 조치내용

구분	적발인원수 (적발된 상장회사수)	조치내용		
		검찰 고발	수사기관 통보	행정조치
2003년	63(1)	10	51	2
2004년	83(8)	12	53	19*
2005년	101(8)	30	63	13**
2006.6월	33(0)	14	19	

\* 수사기관 통보와 행정조치를 병과한 1인 포함

\*\* 수사기관 통보와 행정조치를 병과한 5인 포함

## 7. 최근 3년간 동일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와 컨설팅을 함께 받는 거래소 상장 결산 법인 수와 비율

### □ 회계법인의 직무제한에 관한 법령 대비표

\* '03.12.11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직무제한을 강화하도록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은 '04.4.1 개정)이 개정되어 컨설팅업무 수행이 상당부분 제한되었으므로 이전의 법령과 현행법령을 비교표시함

#### 【공인회계사법】

'03.12.11 이전	현 행
제21조 (직무제한) <신 설>	제21조 (직무제한) ② <u>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u> 1. <u>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u> 2. <u>내부감사업무의 대행</u> 3. <u>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u> 4. <u>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u>

'03.12.11 이전	현 행
<p>&lt;신 설&gt;</p> <p>제33조 (직무제한)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li> <li>2. 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li> <li>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자</li> </ol> <p>&lt;신 설&gt;</p>	<p><u>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다.</u></p> <p>제33조 (직무제한) ① 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li> <li>2. 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li> <li>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u>이해관계</u>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li> </ol> <p>② <u>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u></p>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04.4.1 이전	현 행
<p>제14조 (직무제한)</p> <p>&lt;신 설&gt;</p>	<p>제14조 (직무제한)</p> <p>② <u>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u></p>

'04.4.1 이전	현 행
<p>&lt;신 설&gt;</p>	<p><u>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특정 회사의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이하 “실사등의 업무”라 한다)를 말한다.</u></p> <p>③ 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 그 채권자협의체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출자전환 또는 대주주의 담보제공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산등을 공동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실사등의 업무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인회계사가 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산등을 공동으로 매도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li> <li>2.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li> <li>3. 공인회계사가 감사하거나 증명하는</li> </ol>

'04.4.1 이전	현 행
<p>&lt;신 설&gt;</p>	<p>업무를 수행 중인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등의 합계가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p> <p>제15조의2 (회계법인의 직무제한)</p> <p>②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으로 본다.</p> <p>④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공인회계사가 법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회사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감사등”이라 한다)와 그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등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말한다.</p> <p>⑤ 공인회계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감사등과의 협의사항 및 감사등의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8년간 보존한다.</p>



## 8. 2005년 이후 금감위 민원 접수 사항과 조치 결과

### □ 민원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5년	2006년 상반기
은행·비은행	36,627	14,763
보험	21,243	12,115
증권·투신	2,051	1,523
합 계	59,921	28,401

### □ 민원 수용률 현황

(단위 : %)

구 분	2005년	2006년 상반기
은행권	20.1	13.5
보험	39.5	35.0
증권·투신	22.0	16.0
합 계	<b>27.0</b>	<b>22.8</b>

주) 수용률=요청수용건수/처리건수×100

9. 각 시중은행(국내은행, 해외은행의 국내 지점) 최근 5년간 자산, 본점조직, 임원수

"붙임 참조"

**총자산\***

(단위 : 조원, 말잔)

은행명	2001/12	2002/12	2003/12	2004/12	2005/12	2006/06
시중은행	589.6	682.6	739.1	736.1	785.1	855.2
지방은행	51.8	57.7	61.8	66.9	74.8	79.4
특수은행	273.7	302.8	331.0	338.7	372.2	396.6
국내은행	915.1	1,043.1	1,131.8	1,141.7	1,232.1	1,331.2

\* 은행, 신탁, 종금 계정 합에 계정간 상호거래 차감

# 임원수\*

(단위 : 명)

은행명	2001/12	2002/12	2003/12	2004/12	2005/12
시중은행	206	197	197	205	210
지방은행	65	68	65	70	72
특수은행	47	49	46	49	50
국내은행	318	314	308	324	332

\* 임원수는 사외이사 및 이사대우 포함 기준

본점부서수

은행명	2001/12	2002/12	2003/12	2004/12	2005/12
시중은행	447	427	450	669	792
지방은행	117	141	145	150	151
특수은행	101	101	103	122	132
국내은행	665	669	698	941	1,075



김 영 주 의 원





# 1. 신탁의 04년 이후 분기별 자산건전성 현황

(단위 : 억원)

	'04 1/4	'04 2/4	'04 3/4	'04 4/4
정상	100,719 (89.2%)	103,609 (89.6%)	106,317 (89.5%)	111,913 (91.2%)
요주의	4,302 (3.8%)	4,047 (3.5%)	4,286 (3.6%)	3,532 (2.9%)
고정이하	2,550 (2.3%)	2,562 (2.2%)	2,736 (2.3%)	2,443 (2.0%)
회수의문	2,506 (2.2%)	2,519 (2.2%)	2,406 (2.0%)	1,978 (1.6%)
추정손실	2,728 (2.4%)	2,863 (2.5%)	2,996 (2.5%)	2,850 (2.3%)
계	112,805	115,600	118,741	122,716

	'05 1/4	'05 2/4	'05 3/4	'05 4/4
정상	111,390 (89.8%)	115,422 (90.1%)	118,697 (90.4%)	125,024 (92.3%)
요주의	4,641 (3.7%)	4,373 (3.4%)	4,187 (3.2%)	3,276 (2.4%)
고정이하	2,700 (2.2%)	2,863 (2.2%)	2,960 (2.3%)	2,539 (1.9%)
회수의문	2,120 (1.7%)	1,993 (1.6%)	2,029 (1.5%)	1,795 (1.3%)
추정손실	3,168 (2.6%)	3,387 (2.6%)	3,487 (2.6%)	2,828 (2.1%)
계	124,019	128,038	131,360	135,462

	'06 1/4	'06 2/4
정상	124,722 (91.6%)	129,413 (92.1%)
요주의	3,901 (2.9%)	3,444 (2.5%)
고정이하	2,681 (1.9%)	2,648 (1.9%)
회수의문	1,720 (1.3%)	1,626 (1.2%)
추정손실	3,082 (2.3%)	3,283 (2.3%)
계	136,106	140,414



## 2. 펀드직판 관련

### 2-1. 펀드 직판관련 정부대책 내역 및 관련 보도자료

#### □ 펀드 직판관련 정부대책 내역

-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접판매 근거 마련(04.1, 간투법 부칙§3)
  - 간투법 시행(04.1) 후 2년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접판매 방법·한도 등 규정(04.4, 간투법 시행령·시행규칙)
-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접판매 준비를 위한 감독기관·업계 실무자로 구성된 T/F 구성(05.4)
-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접판매 준비사항 및 체크리스트 마련(05.11)
-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접판매 준비관련 설명회 개최(05.11)
- 직접판매 체크리스트에 의한 준비상황 점검(05.12)
- 판매회사로 하여금 직접판매전에 판매행위준칙 및 전산설비 구축 등 전산설비를 보고토록 함(05.12)

☐ 펀드 직판관련 보도자료

	<h1 style="text-align: center;">정례브리핑자료</h1>		 금융감독원
·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총괄팀		
· 담당자	조국환 팀장 (☎ 3786-8312)		
· 배포일	2005. 10. 5.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10월 일( )조건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자산운용회사의 펀드 직접판매 준비현황 점검**

**주요 내용**

- ☐ 금융감독원은 06.15 시행예정인 자산운용회사의 펀드 직접판매\*와 관련하여 자산운용협회의 “직접판매 준비 T/F”에서 마련한 「자산운용회사 직접판매방안 검토」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자산운용회사를 대상으로 개최(05.9.28)하는 등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회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펀드를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서 수익증권 발행잔액의 20%까지만 판매 가능 (발행잔액이 2조원 이하인 경우 4,000억원까지 판매 가능)

- ☐ 펀드 직접판매제도 시행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의 주요 준비상황 및 진행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판매 및 자금수납**

- 자산운용회사의 직접판매시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 온라인 펀드판매에 따른 투자자보호를 위해 「온라인 펀드판매 절차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05.4)하여 시행중임

- 투자자가 자산운용회사 본점을 방문하여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계계좌 개설 등과 관련하여 자산운용회사별로 은행 등과 업무제휴 협의를 진행중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http://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② 직접판매 전산시스템의 구축

- 전산시스템 구축방법은 자체개발·자체운용, 외주개발·자체운용 및 아웃소싱이 있으나, 대부분의 자산운용회사들은 비용·운영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고려중임

\* 현재 코스콤(구 증권전산), 아이타스 등과 협의를 진행중

## ③ 직접판매 펀드 설정

- 직접판매 상품은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 기존의 판매회사가 판매하는 펀드는 판매할 수 없으므로
- 직접판매 전용펀드를 별도로 설정하거나 기존 펀드를 멀티클래스펀드\*로 전환하여 직접판매하는 방안을 추진중

\* 펀드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펀드

## ④ 예수금 처리방안

- 자산운용회사가 직접판매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예수금을 보유하게 되는 바, 동 예수금의 운용방안을 은행 등과 협의중이며
- 동 예수금을 당일 증권금융에 예치할 수 있도록 법상 근거 규정 마련을 추진할 계획

## ⑤ 운용업무와 판매업무의 정보차단(Fire Wall\*)

- 자산운용회사가 직접판매를 시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운용업무와 판매업무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보차단 방안을 내부통제규정 등에 반영

\* 동일직원의 판매업무와 운용업무의 겸직 금지, 다른 판매회사의 수익자 관련정보의 직접판매 이용 및 운용정보의 판매행위 이용 제한, 판매업무와 운용업무의 전산설비 독립 등



-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회사의 사전준비상황을 점검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직접판매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직접판매 관련 규제

(붙임)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직접판매 관련 규제

문항명	주요 내용
법 §4③ 법시행규칙 §3①	자기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증권에 한해 자산운용사의 수익증권 발행잔액의 20%까지만 판매 가능. 다만, 발행잔액이 2조원 이하인 경우 신탁원본 기준으로 4,000억원까지 판매 가능
법시행령 §12①	본점에 한해 영업창구,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전화를 이용하여 판매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판매업무와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동일 직원이 겸직할 수 없음</li> <li>• 펀드의 수익자·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간접투자자 정보를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할 수 없음</li> </ul>
법 §57④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판매회사를 통해 취득한 간접투자자 정보를 직판에 이용할 수 없음
법시행령 §60②1	판매회사는 MMF 판매규모의 5% 상당액 또는 10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직판하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러한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 환매할 수 없음
법 §60②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h1 style="text-align: center;">정례브리핑자료</h1>		 금융감독원
· 작성부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자산운용감독과		
· 담당자	전태원 사무관 (☎ 3771-5176)		
· 배포일	2005. 11. 10.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88~91)

※ 이 자료는 11월 16일(수)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접판매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06.1.5부터 시행예정인 자산운용회사의 自社 운용펀드 직접판매와 관련하여 업계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직접판매에 대비 자산운용업계는 자산운용협회를 중심으로 '직접 판매 준비 T/F'를 구성하여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9.28일 세부시행안\*을 마련하여 자산운용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 판매 및 자금수납 Process, 전산시스템 구축,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 등

☐ 자산운용사 직접판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하여 재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① 판매보수·수수료 취득 허용

- 자산운용회사가 자사펀드를 직접판매하는 경우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판매보수·수수료 취득을 허용

\* 전산시스템 구축·유지, 판매인력 채용, 계좌관리 및 각종 보고서 발송에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나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직접판매시 자산운용회사의 판매보수·수수료 취득을 금지

## ② 고객예탁금의 증권금융 예치

- 직접판매시 고객예탁금의 안전보장을 위해 고객예탁금의 증권금융 예치를 허용

\* 증권회사의 경우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치(증권거래법제44조의3)하여 同 자금의 안전성을 확보

- 앞으로도 감독당국은 자산운용회사의 직접판매준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 직접판매 제도가 펀드 구입비용 하락, 자산운용사의 독립성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자산운용사 직접판매 제도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http://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 자산운용사 직접판매 제도

###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직접판매관련 규제

☐ (조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한해서만 직접판매 가능

☐ (시행일) '06년 1월 5일

☐ (한도) 수익증권 발행잔액의 20% 이하 (발행잔액이 2조원 미만인 경우 4000억원)

☐ (판매방법) 본점(영업창구, 인터넷, 우편 또는 전화)

☐ 이해상충 방지규정

○ 판매업무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무를 동일한 직원이 겸직 금지

○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판매회사를 통해 취득한 간접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직판에 이용 금지

☐ 판매보수·수수료 취득 금지

### 2. 자산운용사 직판시 기대효과

☐ 상품개발시 투자자 수요의 적시 반영

☐ 운용사의 독립성 강화 및 수익구조 개선

☐ No-load(판매보수가 없거나 아주 적음) 펀드 설정 가능

## 2-2. 2006.8.말 현재 직접판매 펀드 운용현황

□ 첨부파일 참조

3-2. 2006.8.말 현재 직접판매 펀드 운용현황

펀드명	유형	판매잔액 (단위: 원)	수익률(%)		총보수 (단위: bp)	투자자		비고
			3월	1년		법인	개인	
대한투자신탁운용	채권	50,819,749,120	4.50	4.61	11	○		
대한투자신탁운용	채권	23,429,710,064	4.18	4.49	16	○		
대한투자신탁운용	채권	59,045,606,432	4.19	5.23	16	○		
대한투자신탁운용	채권	27,514,531,923	4.21	5.19	16	○		
대한투자신탁운용	MMF	75,521,169,873	4.33	5.77	10	○		
대한투자신탁운용	파생상품투자	4,597,530,053	-17.56	-17.56	33		○	민기원금보존형
동양투자신탁운용(주)	채권혼합	15,000,000,000	1.27	5.06	10		○	1년수익률은연환산
동양투자신탁운용(주)	채권혼합	10,000,000,000	1.16	4.65	10		○	1년수익률은연환산
동양투자신탁운용(주)	채권혼합	40,000,000,000	1.18	4.72	8.2		○	1년수익률은연환산
동양투자신탁운용(주)	채권혼합	40,000,000,000	1.18	4.71	8.2		○	1년수익률은연환산
동양투자신탁운용(주)	채권혼합	10,000,000,000	1.17	4.66	9		○	1년수익률은연환산
동양투자신탁운용(주)	채권혼합	10,000,000,000	1.17	4.66	9		○	1년수익률은연환산
동양투자신탁운용(주)	채권혼합	25,000,000,000	1.18	4.70	8.2		○	1년수익률은연환산
동양투자신탁운용(주)	채권혼합	5,000,000,000	1.18	4.70	8.2		○	1년수익률은연환산
동양투자신탁운용(주)	채권혼합	10,000,000,000	1.37	5.47	7.2		○	1년수익률은연환산
동양투자신탁운용(주)	채권혼합	10,000,000,000	1.40	5.60	7.2		○	1년수익률은연환산
랜드마크자산운용	주식형	9,376,254,668	-2.35	-23.68	50			1년수익률은연환산
맥쿼리IMM자산운용(주)	채권형	15,191,584,675	-	5.75	16		○	1년수익률은연환산
맥쿼리IMM자산운용(주)	채권형	10,498,893,854	1.03	4.41	10		○	1년수익률은연환산
맥쿼리IMM자산운용(주)	채권형	63,489,884,034	1.12	5.21	16		○	1년수익률은연환산
맥쿼리IMM자산운용(주)	채권형	31,776,501,149	1.13	5.49	16		○	1년수익률은연환산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혼합주식형	15,522,227,335	1.22	-2.45	9.5	○		연기금, 1년 수익률은연환산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형	7,195,075,988	1.53	-12.38	9.5	○		연기금, 1년 수익률은연환산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형	29,933,936,488	1.27	5.72	16	○		연기금, 1년 수익률은연환산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형	68,505,267,483	1.13	5.55	16	○		연기금, 1년 수익률은연환산
삼성투자신탁운용	채권형	27,797,502,789	1.09	5.57	16	○		연기금, 1년 수익률은연환산
삼성투자신탁운용	채권형	378,982,087,767	1.06	3.89	12	○		연기금, 1년 수익률은연환산
삼성투자신탁운용	채권형	103,573,375	0.93	3.37	12	○		
삼성투자신탁운용	단기금융간접기구	2,840,531,323,367	1.04	3.74	12	○		
삼성투자신탁운용	채권형	401,279,232,822	1.02	3.95	12	○		
삼성투자신탁운용	채권형	23,391,675,500	1.02	3.71	12	○		
삼성투자신탁운용	채권형	211,000,201,476	1.02	3.95	12	○		
삼성투자신탁운용	채권형	75,774,015,759	1.24	25.24	12	○		
삼성투자신탁운용	채권형	8,577,429,719	1.55	27.75	12	○		
삼성투자신탁운용	채권형	3,050,003,063	1.92	-5.65	12	○		
삼성투자신탁운용	채권형	50,919,201,515	1.44	13.19	12	○		
삼성투자신탁운용	채권형	5,101,855,503	1.36	11.55	12	○		
삼성투자신탁운용	채권형	11,764,761,351	1.10	5.92	12	○		
삼성투자신탁운용	채권형	15,366,402,783	1.70	3.04	12	○		
삼성투자신탁운용	채권형	5,117,144,313	3.67	5.53	12	○		
삼성투자신탁운용	채권형	8,161,145,780	2.01	10.21	12	○		

	연도별 연도별	유형	판매잔액 (단위: 원)	수익률(%)		총보수 (단위: bp)	투자자		비고
				3월	1년		법인	개인	
푸르덴셜자산운용	연기금 MMF투자신탁 제7호	MMF	289,854,373,872	1.10	4.04	1			
푸르덴셜자산운용	연기금혼합투자신탁 제D2호	채권혼합형	18,548,766,363	1.29	-1.82	1.45			1년수익률은 연환산
푸르덴셜자산운용	연기금주식투자신탁 제D2호	주식형	9,280,196,245	1.33	-9.44	1.45			1년수익률은 연환산
한국투자자산운용(주)	연기금공채채권 9-1	채권형	29,890,997,896	-	5.94	16	○		1년수익률은 연환산
한국투자자산운용(주)	연기금공채채권 D9	채권형	39,573,136,935	4.54	5.44	16	○		1년수익률은 연환산
한국투자자산운용(주)	연기금채권투자신탁 D7-3	채권형	20,803,534,747	4.42	5.33	16	○		1년수익률은 연환산
한국투자자산운용(주)	연기금 MMF 제6호	MMF	29,890,997,896	4.44	4.05	10	○		
한국투자자산운용(주)	연기금혼합투자신탁 D3	주식혼합형	17,293,685,881	5.66	-0.29	20	○		1년수익률은 연환산
한국투자자산운용(주)	연기금주식투자신탁 D3	주식형	8,617,947,446	11.98	-2.61	20	○		1년수익률은 연환산
한국투자자산운용(주)	한국시모오피스부동산10호	부동산	15,200,000,000	-	1.90	51	○		1년수익률은 연환산
한국투자자산운용	연기금공채채권투자신탁제D12호	채권형	52,842,772,852	4.19	5.23	16.0	○		1년수익률은 연환산
한국투자자산운용	연기금채권투자신탁제D7-6호	채권형	24,309,269,719	4.15	5.25	16.0	○		1년수익률은 연환산
한국투자자산운용	한화레드마운틴사모주식투자신탁D16호	주식형	983,654,130	-	-82.45	40.0	○		1년수익률은 연환산
CJ자산운용	CJ사모채권혼합투자신탁6-D1호	채권혼합형	20,000,000,000	1.15	4.67	13			1년수익률은 연환산
CJ자산운용	CJ사모채권혼합투자신탁6-D2호	채권혼합형	20,000,000,000	1.15	4.62	13			1년수익률은 연환산
KB자산운용(주)	연기금MMF8	MMF	317,146,459,584	1.10	4.05	10			1년수익률은 연환산
KB자산운용(주)	연기금공채D10	채권형	50,022,095,522	0.93	4.95	16			1년수익률은 연환산
KB자산운용(주)	연기금채권D7-4	채권형	22,505,490,135	0.88	4.83	16			1년수익률은 연환산
KB자산운용(주)	태국사모주식1호	주식형	10,000,000,000	-0.35	-14.94	50			1년수익률은 연환산
KB자산운용(주)	KB웰리안사모부동산10	부동산	8,041,000,000	-0.13	-0.25	55			1년수익률은 연환산
KB자산운용(주)	KB웰리안사모부동산9	부동산	900,000,000			50			*부동산 펀드 scheme상 일정 수익률과 실제 펀드의 운용 수익률이 상이하여 정보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수익률 미기재 함.
SH자산운용	SH 사모 주식투자신탁 1호	주식형	10,000,000,000	10.38	-7.31	50			1년수익률은 연환산

### 2-3. 판매사와 자산운용사간 자회사, 모회사 현황

☐ 별첨파일 참조

**판매사와 자산운용사간 자회사, 모회사 현황(06.6말 현재)**

회사명	주 주 명	소유비율(%)	비고
대한투자신탁운용	대한투자증권(주)	100	판매회사
	합계	100	
푸르덴셜자산운용	푸르덴셜투자증권	100	판매회사
	소액주주	0	
	합계	100	
CJ자산운용	CJ투자증권(주)	92	판매회사
	이재현	7	
	기타소액주주	1	
	합계	100	
삼성투자신탁운용	삼성증권(주)	65	판매회사
	삼성생명보험(주)	5	판매회사
	소액주주	16	
	합계	100	
	이부진	5	
	이재용	8	
동양투자신탁운용	동양종합금융증권(주)	86	판매회사
	동양생명보험(주)	14	
	합계	100	
대신투자신탁운용	대신증권	81	판매회사
	합계	100	
	Sumitomo Life Insurance Co.	19	
산은자산운용	대우증권	29	판매회사
	한국산업은행	64	판매회사
	기타	7	
	합계	100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우리금융지주	70	
	합계	100	
	CSAM International Holding	30	
교보투자신탁운용	교보생명보험(주)	15	판매회사
	우리투자증권(주)	5	판매회사
	(주)한국외환은행	9	판매회사
	(주)국민은행	7	판매회사
	교보증권(주)	64	판매회사
	합계	100	
신영투자신탁운용	신영증권	86	판매회사
	코리안리재보험	9	
	서울보증보험	5	
	합계	100	
신한BNP Paribas투자신탁운용	신한금융지주회사	50	
	BNP PARIBAS ASSET MANAGEMENT GROUP	50	
	합계	100	

회사명	주 주 명	소유비율(%)	비고
한화투자신탁운용	한화증권	89	판매회사
	국민은행	11	판매회사
	합계	100	
서울자산운용	서울증권	100	판매회사
	합계	100	
동부투자신탁운용	외환은행	9	판매회사
	기업은행	9	판매회사
	조흥은행	14	판매회사
	동부증권	55	판매회사
	부산은행	7	판매회사
	우리은행	6	판매회사
	합계	100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Templeton Investment Counsel, LLC	51	
	Templeton Asset Management (Labuan) Limited	49	
	합계	100	
SH자산운용	(주)신한은행	80	판매회사
	KGI증권(주)	19	판매회사
	우리사주조합	1	
	기 타	1	
	합계	100	
랜드마크자산운용	Landmark IMH AB	88	
	교보생명	11	판매회사
	최흥	1	
	합계	100	
KB자산운용	국민은행	80	판매회사
	ING INSURANCE INTERNATIONAL B.V.	20	
	합계	100	
홍국투자신탁운용(주)	홍국생명보험(주)	67	
	이호진	20	
	우리투자증권	5	판매회사
	이경훈외 3인	8	
	합계	100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박현주	56	
	미래에셋자산운용	34	
	소액주주	10	
	소액주주	0	
	합계	100	
아이투자신탁운용	정몽규	63	
	이웅열	13	
	한국외환은행 외	24	판매회사
	합계	100	
미래에셋투자신탁운용	박현주	69	
	코리아리얼이스테이트어드바이저스	21	
	합계	100	
	김미경	10	

회사명	주 주 명	소유비율(%)	비고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 운용주식회사	Allianz Global Investors AP GmbH	50	
	합계	100	
	Allianz AG	50	
PCA투자신탁운용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s Limited	100	
	합계	100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박현주	64	
	코리아리얼이스테이트어드바이저스(주)	30	
	기타	6	
	합계	100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	SEI Global Investments	50	
	Met Life International Holdings Inc	34	
	IFC	10	
	괏태선외 회사임직원	6	
	합계	100	
마이애셋자산운용투자자문	김은숙	8	
	기타	69	
	한별텔레콤	8	
	우리투자증권	7	판매회사
	이종환	8	
	합계	100	
굿앤리치자산운용	이경록	69	
	기타	31	
	합계	100	
KTB자산운용	KTB네트워크(주)	100	
	기타	0	
	합계	100	
유리자산운용	부국증권(주)	88	판매회사
	박승득 외 기타	2	
	국제나이론(주)	10	
	합계	100	
피닉스자산운용	(주)신텔정보통신	20	
	(주)선진씨엠씨	16	
	(주)한국문화진흥	16	
	세림제지(주)	13	
	이병구	6	
	흥화공업(주)	4	
	기타(양승인 외)	9	
	신동익	3	
	(주)메가마트	5	
	조동만	8	
	합계	100	



회사명	주 주 명	소유비율(%)	비고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국민은행	7	판매회사
	이재관	10	
	곽정환	7	
	최철수	5	
	기타	41	
	Lotus(Korea) Partners Ltd.	7	
	이탁기	6	
	현희헌	10	
	김정섭	7	
	합계	100	
플러스자산운용	홍지준	22	
	김기환	18	
	대우증권(주)	5	판매회사
	기타	25	
	서울증권	5	판매회사
	(주)영원무역	5	
	벽산건설(주)	20	
	합계	100	
맥쿼리아이엠엠자산운용	Macquarie Investment Management Ltd.	73	
	아이엠엠앤드컴퍼니(주)	27	
	합계	100	
현대와이즈자산운용	이광재	43	
	현대증권(주)	33	판매회사
	송준용	24	
	합계	100	
슈로더투자신탁운용	Schroder Investment Management Limited	100	
	합계	100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	(주)골든브릿지	79	
	우림건설(주)	16	
	기타	5	
	합계	100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증권	99	판매회사
	한국투자신탁운용	0	
	우리사주조합 외	0	
	합계	99	
도이치투자신탁운용	Deutsche Asset Management Group Limited	100	
	합계	100	
알파에셋자산운용	최곤	42	
	세종증권	18	판매회사
	기타	1	
	박승득	6	
	유화증권	10	판매회사
	국제나이론	23	
	합계	100	
농협CA투자신탁운용	농협중앙회	60	판매회사
	크레디아그리콜에셋매니지먼트	40	
	합계	100	

회사명	주 주 명	소유비율(%)	비고
칸서스자산운용	군인공제회	40	
	하나증권	15	판매회사
	한일시멘트	29	
	한국상호저축은행	5	
	보성건설	11	
	합계	100	
피델리티자산운용	Fidelity International Limited	100	
	합계	100	
기은SG자산운용	중소기업은행	50	판매회사
	합계	100	
	Societe Generale Asset Management S.A.	50	
한국인프라자산운용(주)	한국산업은행	90	판매회사
	우리은행	10	판매회사
	합계	100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자산 운용	맥쿼리인베스트먼트	80	
	신한은행	14	판매회사
	신한 캐피탈	6	
	합계	100	
한국밸류자산운용	한국투자증권	100	판매회사
	합계	100	
다올부동산자산운용	다올부동산신탁	100	
	합계	100	

\* 회사가 제출한 정기보고서상의 내역임

3. 1차, 2차, 3차 생보사 상장 추진에 대한 각각 경과, 상장무산 사유, 각 시기별 시민단체의견
4. 제3차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배당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회계법인명, 선정사유, 해당법인의 최근 3년간 기업회계 및 컨설팅 현황
5.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상장자문위원회별 상장에 대한 의견 (의견서 또는 발언)
6. 제1차, 제2차 상장위원회 상장방안(안)
7. 1990년 8월 재무부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 사본

- 자료 : 별 첨

1. 1차, 2차, 3차 생보사 상장 추진에 대한 각각 경과, 상장무산 사유, 각 시기별 시민단체의견

□ 경 과

시 기	내 용
'89. 4월	교보생명,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 실시
'90. 2월	삼성생명,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 실시
'90. 8월	재무부,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 제정
'90.12월	재무부, 기업공개 보류 결정
'99. 8월	금융연구원 및 보험학회는 각각 생보사 상장관련 1차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99. 9월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
'99.12월	금융연구원 및 보험학회, 각각 2차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00.12월	생명보험회사 상장논의 유보
'03.6월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
'03.10월	생명보험회사 상장논의 유보
'06.2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
'06.7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공청회 개최(06.7.13일)

☐ 상장무산 사유(1·2차 공통)

-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제시로 인해 논의가 유보됨

☐ 각 시기별 시민단체의견

< 첨부2 > 2003년 참여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의견

< 첨부3 > 2006년 참여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의견

4. 제3차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배당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회계법인명, 선정사유, 해당법인의 최근 3년간 기업회계 및  
컨설팅 현황

- ☐ 생보사 배당 적정성의 검증은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설치한 상장  
자문위원회에서 외국 유수의 회계법인에 의뢰한 상태임

5. 세미나 및 공청회자료, 상장자문위원별 상장에 대한 의견  
(의견서 또는 발언)

☐ 제1차, 제2차 상장자문위원회는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하지 않았음

<첨부4> 제3차 상장자문위원회 공청회 자료

※ 제 3차 상장자문위원회 공청회시 별도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6. 제1차, 제2차 상장위원회 상장방안

☐ 제1차, 제2차 상장자문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상장방안(안) 및 권고안을 마련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음

7. 1990년 8월 재무부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 사본

<첨부5>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발 신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담당 : 박근용 간사 (직통전화) 723-5052 (전자우편) pec@pspd.org )

제 목 : 금감위,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에 책임있는 자세보여야 (2003. 8. 14. (총 2 쪽))

## 논 평

### 금감위,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에 책임있는 자세보여야 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분 원칙을 권고안이 아닌 상장규정에 담아야 상장자문위원 선임의 기준 및 절차도 투명하게 밝혀야

1. 어제(13일) 금감위가 구성한 생명보험사상장자문위원회는 생명보험업계와 시민단체와의 개별 비공개간담회를 마친 후 양측의 주장을 절충한 권고안을 8월말까지 금감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상장자문위원회가 한편으로는 계약자 몫의 재평가차익 내부유보액이 지급여력비율의 산정에 포함되는 등 회사가치의 증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분 주장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힌 것에 지극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내부유보액이 사실상 자본의 역할을 했음을 인정한다면, 즉 계약자에 대해 준(準)주주적 지위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주식으로 상장차익을 배분하여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경실련 및 함께하는시민행동 등과 함께 생명보험사 상장차익의 주식배분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

2. 한편, 상장자문위원회가 제시할 권고안의 내용에 못지 않게 참여연대가 우려하는 것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극적인 태도이다.

상장자문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기초로 TV 공개토론 등 국민을 상대로 한 투명한 논의과정을 거친 후 금감위는 그 결과를 수렴하여 증권거래소로 하여금 생명보험사 상장규정을 만들도록 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금감위의 책임있는 자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은 건설업 등 개별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를 담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가 생명보험사의 성장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생명보험산업의 특수성, 특히 주주 몫의 자산재평가차익을 자본잉여금으로 내부유보한 삼성생명 및 교보생명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를 상장규정에 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물론 상장규정에 주식배분비율 및 배분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유보된 재평가적립금의 주식배분 원칙'을 상장규정에 담고,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자-주주-감독당국 간의 합의를 기초로 해당회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3.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금감위는 상장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만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고안 제시는 상장자문위원회의 역할이다. 금감위가 상장규정 반영 대신 권고안 제시에 그치는 것은 감독당국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금감위의 소극적인 태도는 사실상 상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며, 올 연말로 시한이 정해져 있는 재평가차익 법인세 납부만을 다시 연기시켜 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수년째 끌어 온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논란을 비생산적으로 반복할할 소지만을 남겨두는 것으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자산 70조(삼성생명), 30조(교보생명)에 이르는 대형 생명보험사를 비상장 상태에서 계약자 권익 보호 및 경영투명성 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은 감독당국의 직무유기이다. 금감위는 조속히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상장방안을 도출하여 이를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에 반영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4. 한편, 금감위가 위촉한 7인의 상장자문위원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절차를 거쳐 선임되었는지 전혀 알려진 바 없다. 심지어 위원장인 나동민 박사(KDI 선임연구위원)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의 위원들은 소속은 물론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상장자문위원회가 제시할 권고안의 공정성은 위원 구성의 투명성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금감위는 상장자문위원 선임의 기준 및 절차 및 구성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발 신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담당 : 박근용 팀장 (직통전화) 723-5052 (전자우편) pec@pspd.org )

제 목 : 생명보험사 상장관련 계약자몹의 주식배분 위법주장은 근거없다 (2003. 1. 16. (총 2 쪽))

## 논 평

### 생명보험사 상장관련

### 계약자 몹의 주식배분이 위법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다.

### 금융감독원의 졸속적인 생보사 상장방안 처리를 경계하며

1. 어제(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의 상장방안과 관련하여 상장차익을 주주와 계약자간에 분배하는 방식으로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하고, 이를 대통령 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러한 방안이 신정부 출범 전에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생명보험사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결코 계약자와 주주간에 정당한 이익배분방식이 아니라는 점과, 금융감독원과 인수위원회가 이를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 생명보험사 상장에 따른 이익은 사실상 상호회사로 운영되어 온 생명보험사의 특성에 따라 주주와 보험계약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계약자 몹을 정하고 이를 주식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가능한 일이다. 즉 금감원이 주식배분을 상장심사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생명보험사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면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가능한 방안이다. 즉 금감원에서 주식을 강제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주식배분을 상장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일 뿐이다. 생명보험사 주주의 입장에서 계약자의 공헌을 인정하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 수 있으면 상장을 신청하고 아니면 상장을 포기할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가 지난 12월 5일 발표한 논평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계약자 몹을 주식배분을 통해 분배하는 방식은 상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3. 이근영 현 금감원장은 취임 직후인 2000년 8월에 이현재 전 금감원장과 이용근 전 금감원장 시절에 금융연구원과 상장지문위원회가 제안한 계약자 몹에 대한 주식배분방식을 갑작스럽게 '상법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현재까지 생명보험사 상장문제를 덮여왔다. 물론 참여연대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막대한 자산을 운용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생명보험사가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공개기업화 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다만, 주주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공정한 이익배분 원칙이 견지되어야 하며, 삼성차 부채 처리 등 해당 생명보험사의 관련 현안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근영 금

감원장이 이를 무원칙하게 졸속으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발 신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담당 : 박근용 간사 (직통전화) 723-5052 (전자우편) pec@pspd.org )

제 목 : 무소신과 무책임의 결정판, 금감위원장 사퇴하라! (2003. 10. 17. (총 2 쪽))

## 성 명

### 무소신과 무책임의 결정판, 금감위원장 사퇴하라

삼성의 저항에 밀려 자기 역할을 포기한 금융감독당국을 규탄한다!  
법인세관련 재정부에 질의, 삼성차관련 서울보증에 법적조치 촉구할 터  
- 금감위의 생보사 상장방안 결정 포기 관련 성명-

1. 결국 오늘(1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생명보험사 상장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지난 90년부터 시작된 생보사 상장방안에 대한 논의는 결국 13년이 지난 올해에도 결론을 맺지 못한 채 흐지부지 덮여졌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연내 생보사 상장문제 해결을 공언했던 이정재 금감위원장이 공인으로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 위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나라 생보업계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그리고 생보시장의 포화상태 및 방카슈랑스 시행 등 산업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상장문제 해결을 통해 생보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재 위원장은 금융감독당국의 역할을 포기하는 무소신과 무책임의 전형을 보임으로써, 결국 생보산업과 보험계약자 전체를 피해자로 만들었다.

더구나 문제가 된 두 회사 중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이 이미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삼성생명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해서 상장방안 제시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은 금융감독당국이 전체 저축자의 권익보호자가 아니라 특정업체의 대변자임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음이 입증된 만큼, 이정재 위원장은 당연히 사퇴하여야 한다.

2. 오늘 금감위가 생보사 상장방안 제시를 포기하면서 내놓은 사유, 즉 정부안을 발표하더라도 해당기업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또한 정부안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참여연대는, 감독당국이 상장방안 제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특정 생보사가 이를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두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생보사의 경우 다른 업종의 기업과는 다른 상장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말해 생보사에 상호회사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상호회사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면, 불특정 다수 투자자간 주식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 이전에 계약자 이익배분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는 생보사 상장심사 기준을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에 반영하면 된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그동안 상장자문위원회의 검토 결과 자산재평가 차익 중 계약자 몫의 일부가 자본잉여금에 내부유보되어 결손보전에 사용가능하도록 했고 또 지급여력비율의 산정에 포함하는 등 사실상 자본의 역할을 해왔으며, 따라서 생보사의 성장에 계약자들이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위가 특정 업체의 반대를 이유로 상장방안 제시 자체를 포기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직무유기다.

3. 어찌되었든, 올해 생보사 상장문제는 해결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90년 상장을 조건으로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유예해주었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개별기업의 세금납부에 관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하나, 이 문제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포함한 15개 기업이 90년 이후 무려 13년이 지나도록 납부유예의 조건인 상장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어떤 기업이 어떤 이유로 상장을 못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따라서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에 의거하여 법인세 납부유예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리고 그 유예시킨 만료일인 올해 말 이후의 조치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물론 상장하지 못한 것의 귀책사유가 해당기업에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법인세 납부를 유예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법인세 납부유예 혜택은 더 이상 연장되어서는 안된다. 상장자문위가 일정한 절충안을 갖고 두 회사에 상장을 제안했으며, 교보생명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고 삼성생명은 완강한 거부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삼성은 스스로 상장을 거부했다. 따라서 상장을 하지 못한 것의 귀책사유가 이들 기업에 있는 만큼 당연히 법인세는 부과되어야 한다.

오늘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 법인세 납부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 재경부의 일관된 조치를 기대한다.

4. 한편 참여연대는 생명보험사의 상장문제는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와는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지만, 이제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와 관련하여 연내 삼성생명의 상장 가능성이 사라진 이상, 서울보증보험을 포함한 삼성자동차 채권단은 2조4천5백억원 중 아직 변제받지 못한 1조7천억원대의 손실금과 손실금 지급이행 합의시한을 초과하여 발생한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당장 착수해야 한다. 특히 서울보증보험 박해춘 사장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내 상장이 불가능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참여연대는 이 약속을 서울보증보험이 지킬 지 주시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발 신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담당 : 박근용 간사 (직통전화) 723-5052 (전자우편) pec@pspd.org )

제 목 : 금감위는 생보사 상장방안을 강제력있는 상장규정으로 제시해야 (2003. 9. 5. (총 2 쪽))

## 성 명

**금감위는 생보사 상장방안을 강제력있는 상장규정으로 제시해야**  
**단순한 권고안으로는 소모적 논란 재연 막을 수 없어**  
**계약자 기여분의 주식배분 원칙 담고, 상장규정으로 강제력 가져야**  
**참여연대, 경실련·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함께 금감위원장 면담요청할 예정**

1.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생명보험사 상장방안 마련 작업이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으나, 금감위는 이를 단순히 업계에 '권고안' 형식으로만 제시할 뿐 법적 강제력을 갖춘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생명보험사 상장방안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계약자 기여분 인정 및 주식배분 원칙을 금감위가 분명히 밝혀야 할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금감위가 법적 강제력없는 '권고안' 형식으로 발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2. 참여연대는 이미 99년 말에도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상장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하였으나, 결론을 맺지 못하고 지금까지 생보사 상장문제가 표류해온 사실에 주목한다. 당시 자문위원회의 안이 상장규정으로 확정되지 못함으로 인해, 3년반이 지난 지금 똑같은 논란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하한선으로 거론되었던 계약자 기여분이 지금은 마치 상한선으로 여겨지고 있는 분위기는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참여연대는 99년 이현재 금감위원장 시절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계약자 기여를 인정한 생보사 상장방안이 2000년 8월 금감위원장이 이근영씨로 바뀌고 난 뒤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캐비닛 속에서 잠자게 된' 과정을 현 금감위원장을 비롯한 금감위 책임자들이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3. 참여연대는 올해 금감위가 생보사 상장방안을 단순히 업계에 권고하는 형식으로 발표해서는 과거의 비생산적인 과정이 재연될 것이라고 본다. 강제력없는 방안에 대해 삼성생명 등 업계가 거부하고 상장문제를 덮어두었다가 2~3년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게 된다면 이는 얼마나 비생산적인가? 그리고 계약자 권익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 등 생보업계의 현안과제 해결이 계속 지연됨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다시 강조한건대, 이정재 위원장을 비롯한 금감위 책임자들은 생보사의 성장과정에 대한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과거 자산재평가차익 중 내부유보된 계약자 몫을 주식으로 배분하는 등의

기본원칙을 생보사 상장방안에 분명히 명기해야 할 것이며, 이를 단순한 권고안 형식이 아니라 강제력을 갖춘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오늘 참여연대는 경실련 및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과 함께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의 원칙을 재확인하기 위한 면담요청 공문을 이정재 금감위원장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 「생명보험회사 상장 방안」 의견 발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에서는 7월 21일(월) 「생명보험회사 상장 방안」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 「생명보험회사 상장 방안」에 대한 시민회의 입장

#### 1. 문제제기

최근 들어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에서 생보사 상장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견이 분분할 것 같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와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생보사의 상장 방안은 아주 단순 명료하다.

생보사 상장의 쟁점사항은 국내 생보사의 성격에 관한 사항과 이로 인한 상장이익의 배분, 즉 보험계약자 보상에 관한 이슈로 요약할 수 있다. 일부 지식인과 시민단체가 생보사의 상장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주식상장의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계약자가 생보사의 성장에 기여했고, 이러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상장이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주식회사의 기본원리,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 2. 주요쟁점 사항 검토

주식회사는 영리법인이다. 주식회사는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한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주주라 하고, 채권을 보유한 사람을 채권자라 한다. 대규모 자금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주식과 채권은 유사하지만, 주식은 자기자본이고 채권은 타인 자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채권은 기업의 이익의 발생과 관계없이 이자지급을 하는 반면, 주식은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이익을 배당한다. 따라서 주주(株主)는 이익이 발생하여야만 배당청구권을 갖는 반면, 채권자는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이자청구권을 갖는다. 그리고 회사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는 회사의 재산에 대해 일차적인 청구권을 갖는 반면, 주주는 재산이 다 처분되고 난 후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갖는다. 대신 주주는 의결권의 행사에 의한 경영참가권이 있지만, 채권자는 의결권의 행사에 의한 경영참가권이 없다.

국내의 모든 생보사는 주식회사이다. 생보사와 보험계약자들간의 관계는 개별적인 채권거래로 상호간 권리의무는 보험약관에 의해 정해진다. 생보사는 보험약관만 잘 이행하면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생보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채권자의 지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뿐이다. 생보사의 성과와 손익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의 생보사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상장이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논리에 맞지도 않고 근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국내 생보사의 경우 법률적 설립형태는 주식회

사이지만, (1) 유배당상품의 판매 (2) 주주와 계약자간 경영위험공유(risk sharing) (3) 부동산재평가차액을 계약자에게 배분한 점을 들어 “상호회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 생보사가 상호회사라면 위의 주장은 맞다. 상호회사는 보험계약자들이 기금을 각출해 상호보험을 운영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보험업법에 근거해 설립한 회사이다.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사원인 동시에 주인으로서 보험계약자간 협동조합 형태의 회사를 운영하며 이익발생시 보험계약자들끼리 공평분배한다. 상호회사 계약자는 납입보험료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지며, 보험회사의 자산상태가 부실해 파산, 해산의 우려 시 보험금을 삭감한다는 내용을 정관 상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보험업법(제56조)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사원의 지위를 차지하여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어 경영성과에 대한 손익분배에 참여하게 된다. 즉 상호회사의 사원관계는 보험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자인 사원은 주식회사인 생보사의 주주와 같은 권리를 동시에 갖는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생보사는 결코 상호회사가 아니며 그러한 성격도 지니고 있지 않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보자.

#### (1) 유배당상품의 판매

생명보험은 그 보험기간이 장기간이다. 그러므로 보험료산정의 기초가 된 예정사망률,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 등이 실제보다는 높거나 낮게 책정될 수 있다. 예정률과 실적 사의 차이로 이익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보험이 유배당상품이다. 주식회사인 영리생명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약관에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데, 생명보험회사가 유배당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해서 회사의 성격이 상호회사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영업정책의 문제이지 배당상품을 주로 판매한다고 해서 주식회사가 상호회사로 변질되는 것은 아니다. 생명보험회사가 유배당상품만을 취급하든 아니면 무배당상품을 취급하든 이는 경영자의 자유 판단에 따른 것으로 어떤 구속이나 의무사항이 아니다.

주식회사가 유배당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상호회사가 무배당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주식회사에서 생명보험 계약의 장기성과 경영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책정하고 추후에 이익이 발생하면 계약자에게 보험료 정산의 형태로 환원하는 배당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주식회사로서 상장회사인 손해보험회사도 유배당상품인 개인연금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보험관련 법과 규정에서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라는 회사의 형태에 따라 판매상품을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 미국, 일본 등 외국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주식회사 형태의 생보사가 유배당상품을 상호회사가 무배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생보주식회사의 유배당상품의 계약자는 보험약관 및 이익배분 기준에 따라 배분된 이익 외의 다른 경제적 이득을 상장의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상장차익의 인위적인 계약자 배분은 자본주의 하에서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에 반하며 해외투자자의 불신을 가중시킨다. 주주 고유의 몫인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 일부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본주의 하에서 증권시장의 기본원리와 재산권보장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글로벌 시대 생명보험산업에서의 외자유치 등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주식회사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상장이익을 주식으로 배분한 사례가 없다. 미국의 Hartford, Nationwide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상장 시 유배당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던 주식회사로서 상장에 따른 상장차익을 전액 주주에게 귀속시켰다. 미국의 Nationwide 생명은 1997년 3월 상장 시 기존 주식 104백만 주에 대한 주 당 \$23.50(2,350



배)의 자본이득 전액을 주주에게 귀속시켰다. 싱가포르의 Great Eastern(1969년), 대만의 국태생명(1964년)과新光생명(1990년) 상장 시 자본이득 전액을 주주에게 귀속시켰다. 일본의 협영생명, 단체보험(비상장주식회사)이 기관과 일반인에게 주식 매각 시 자본이득을 전액 주주에게 귀속시켰다. 독일의 Allianz사의 한국 제일생명 인수 시 주당 59만원(액면가 5,000원)을 지급하고 4,500억원 전액을 주주에게 귀속시켰다.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구분을 법률적 및 경제이론적 근거에 의하지 않고 유배당 상품의 판매여부만을 놓고 주식회사를 상호회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며, 생보사의 상장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주식상장의 이익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불합리하다.

## (2) 주주와 계약자간 경영위험공유(risk sharing)

국내의 생보사가 '상호회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논거가 주주와 보험계약자간에 경영위험을 공유하여 왔다는 점이다.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던, 1980년대 초에 실질적 파산상태에 처한 경우에 증자 등 주주에 의한 위험의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배당 전 이익의 일부만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등 계약자에게 경영위험을 전가시켜왔다는 것이다.

1980년대 초 실질적 파산상태에서 증자 등 주주의 경영위험 부담이 없어 계약자에게 경영위험을 전가했다는 것은 보험회사 가치 산정 기준을 고려할 때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보험회사의 가치는 보유계약과 신계약의 미래가치, 보유자산의 재평가를 포함한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1980년대 삼성과 교보의 일시적인 결손상태를 실질적인 파산으로 볼 수 없다. 1982년 삼성의 자본계정은 0이었고, 교보의 자본계정은 -7억원이었는데 이것을 실질적인 파산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무리다.

또한 계약자 배당이 불충분하였다는 주장 역시 무리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자 배당은 생보상품의 장기불확실성을 고려해 보험요율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책정하고, 이익 발생시 계약자에게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이다. 유배당상품을 구입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계약자배당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생보사들은 보험당국이 정한 계약자배당제도에 따라 누적결손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었음에도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삼성 생명의 경우 배당 전 손실 또는 누적결손이 있는 상황에서도 감독당국이 정한 특별배당이나 금리 차 배당을 실시하였다.

유배당상품의 보험계약자가 경영위험을 공유하였다고 하려면 과거 오랜 누적 적자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이를 보상받지 못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는 전혀 없다. 최근 퇴출 또는 매각된 부실 생보사의 구조조정 사례를 보더라도 주주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주식이 무상 소각되는 등 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한 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 이전 및 예금자보호 등을 통하여 예금자로서의 권리를 전액 보상받았다. 따라서 생보사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에 따른 경영위험을 공유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보험은 불확정한 사고로 생길 경제적인 손실을 단체를 구성하여 개인이 그 단체에 위험을 전가(transfer of the risk)하고 그 단체의 구성원에 의하여 손실을 분담(sharing of losses)하게 하는 제도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서로 분담한다는 말은 성립할 수 있으나, 경영위험을 주주와 공유한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 (3) 부동산재평가차액을 계약자에게 배분한 점

1990년에 부동산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차액을 계약자에게 배분한 것은 국내보험사

가 상호회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정부가 보험사가 모두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당시 국내 생보사의 경우 유배당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상호회사적 성격 논리와는 무관하게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 차원에서 정부가 재평가차액의 일부를 계약자 몫으로 배분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이는 다른 일반기업이나 외국 보험사들이 재평가적립금을 전부 주주 몫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 생보사가 이를 계약자에게 돌려주었던 것은 계약자 이익제고를 위한 것이지 보험계약자에게 상호회사의 사원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재평가적립금 중 내부유보액이 자본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자본으로 전입하여 보험계약자에 주식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 역시 불합리하다. 주주지분이나 계약자지분과는 별도로 미실현이익인 재평가차액의 일부를 사내에 유보토록 한 것은 회사의 계속성, 재무건전성, 장래의 계약자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확정된 계약자 몫”이라 할 수 없다. 한편 재평가적립금 중 내부유보액은 자본전입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990년 8월 당시 재무부 처리지침에 의하면 내부유보액은 계약자배당 및 결손보전 재원으로만 사용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본으로 전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 3. 결 론

생명보험회사는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진 자본을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따라서 그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된다. 보험계약자는 회사의 영업에 관여할 수 없는 보험계약상의 채권자에 불과하다. 생명보험주식회사가 공개요건을 갖춰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주가의 시세차익으로 자본이득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주주의 몫이지 보험계약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생보사의 상장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당을 유도하는 일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생명보험사의 주권상장은 증권거래법 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상장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는 주식시장의 원리에 맡길 일이지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더욱이 감독당국이 생명보험사의 상장이익을 주주와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하도록 개입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권한이 아니다.

재산권보장이 잘 되지 않는 사회는 쇠퇴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보험계약자에게 상장이익을 돌려준다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다. 우리의 경제를 위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재산권침해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03. 7. 21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발 신 : 경실련 (정책실장 : 박완기 정책실장 (직통전화) 766-5627 pwgi@ccej.or.kr)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 최한수 팀장 (직통전화) 723-5052 (전자우편) pec@pspd.org )  
제 목 : 생보사 상장 공청회 토론 참석을 거부하며 2006. 7. 12. (2 쪽)

##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 · 참여연대 공동 성명

### ‘생보사 상장공청회’ 토론 참석을 거부하며

업계의 이익을 100% 반영한, 예정된 결론의 공청회 인정할 수 없어  
2003년 자문위의 상장방안 공개하고, 결론이 달라진 근거 설명해야  
내부유보액 처리 및 자산 구분계리에 침묵하는 상장방안은 무의미

1. 경실련 권영준 교수(경희대)와 참여연대 김상조 교수(한성대)는 내일(7.13(목)) 생보사 상장 공청회(주최: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에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주문하는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는 결코 생보사 상장방안 논의를 위한 절차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상기 2인은 공청회 토론 참석을 거부함을 밝힌다. 나아가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 및 생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토대가 되는 ‘제대로 된’ 상장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 이번 2006년 상장자문위는, 과거 1999년 및 2003년의 상장자문위와는 달리,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금감위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이번 생보사 상장 논의는 금감위가 예정된 결론을 갖고 막후에서 조정하고 있으며 상장자문위는 그 틀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는 내평개치고 파규제기업의 기득권 수호에 집착하는 금감위(위원장 윤중현)이 주도하는 생보사 상장 논의는 애초부터 이견조정과 합의도출에 필요한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번 상장자문위의 결론은 오직 ‘삼성생명을 위한 상장방안’으로서 우리 사회가 여전히 삼성공화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일 뿐이다.
3. 1999년의 상장자문위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성장에 대한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최소 30% 이상의 주식을 계약자에게 배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03년의 상장자문위는 비록 보고서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런데, 이번 2006년 상장자문위는 일방적으로 업계의, 아니 삼성의 이익만을 반영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번 상장자문위 위원장인 나동민 박사(KDI)는 1999년에는 위원으로, 그리고 2003년에는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므로, 과거의 논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상장자문위의 결론이 과거와 비교해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 2003년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그 결론이 달라진 근거를 밝혀야 한다.

만약 상장자문위 또는 금감위가 2003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1,000만 보험계약자와 생보산업을 발전을 좌우할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로서 그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4. 생보사 상장의 전제조건은, 현행 유가증권상장규정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이익배분 등에 있어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갖추는 것이다. 계약자 돈과 주주 돈, 유배당계약자 돈과 무배당계약자 돈이 섞여 있는 현 상황에서는 상장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거 자산재평가 차익의 내부유보액 처리지침, 그리고 유·무배당계약간의 자산 구분계리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상장자문위는 이상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다. 이것은 먼저 상장방안을 결정하고 난 이후 천천히 검토해도 될 부수적인 사안이 결코 아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가. 전제조건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왜곡된 결론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상장자문위는 형식적 공청회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이를 연기해야 한다. 그리고 생보사 상장의 전제조건을 갖추 방안을 보다 진지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5.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업계의 이익만을 추수하는 금감위와 상장자문위의 행태를 비판하고, 제대로 된 상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경실련홈페이지([www.ccej.or.kr](http://www.ccej.or.kr))와 인터넷참여연대(<http://peoplepower21.org>)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발 신 : 경실련 (정책실장 : 박완기 정책실장 (직통전화) 766-5627 pwgi@ccej.or.kr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 최한수 팀장 (직통전화) 723-5052 (전자우편) pec@pspd.org )

제 목 : 「생보사 상장문제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과 「생보사 상장자문위 주장에 대한 비판 자료 발간」  
(2006. 7. 13. (별첨포함 12쪽))

## 생보사 상장공청회 관련 보도자료

###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주장에 대한 비판」 자료 발간 생보사 상장에 대한 시민단체 기본 입장·요구사항 정리, 생보사 상장 자문위의 상장안 문제점 지적

1. 경실련 권영준 교수(경희대)와 참여연대 김상조 교수(한성대)는 어제 발표한 바 대로 오늘(7월 13일) 개최되는 생보사 상장 공청회(주최: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보사상장자문위원회)의 토론자 참석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두 단체 대표들의 공청회 불참은 이번 공청회가 올바른 생보사 상장 마련을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장이 아니라 감독기구가 주문하는 결론을 추인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을 비판하는 것일 뿐, 생보사 상장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2. 두 단체는 생보사 상장 논의가 본격화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보험계약자의 권익보호 및 생보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장방안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관련하여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주장을 보다 명료하게 알리기 위해 ▲ 생보사 상장에 대한 기본 입장 ▲ 생보사 상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요구사항 ▲ 생보사 상장 자문위의 운영의 문제점을 담은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과 오늘 생보사 상장 자문위가 발표하는 '생보사 상장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주장에 대한 비판」 자료를 발간하였다.  
두 단체는 이러한 작업과 별도로 이후 올바른 생보사 상장안의 마련을 위해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추가적인 반박보고서 작성 및 관련 전문가 기고와 보험계약자 시민단체 등과 연대를 포함하여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오늘 제출된 생보사 상장 자문안이 이후 최종안으로 확정되는 것을 저지할 것이다. 끝

■ 별첨1.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 별첨2. 생명보험사 상장 자문위원회의 주장에 대한 비판

※ 이 자료는 경실련홈페이지([www.ccej.or.kr](http://www.ccej.or.kr))와 인터넷참여연대(<http://peoplepower21.org>)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2006.7.13

## 1. 시민단체의 요구 사항

상장차익의 몇%를 특정하여 주식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님.

상장차익 배분의 규모와 절차는 각 회사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임. 배분의 규모와 절차를 확정하는 것에 대한 권한은 시민단체에도, 감독 당국에도 없음.

생보사 상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과거 생명보험사의 성장과정에 계약자 기여(보다 정확하게는 계약자의 권익침해)가 있었으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주들이 인정」 하는 것임.

보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경우 과거 재평가차익 내부유보액이 100% 부채적 성격(공청회 발제문의 핵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당해 회사들이 인정하는 것임.

상장자문위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담아야 할 내용은 이 원칙이며, 이러한 원칙이 정해지면 배분에 관한 합당한 금액과 절차를 정하는 것은 각 생보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결정할 일임.

## 2. 시민단체는 생보사 상장을 반대하는가?

상장은 반드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계약자 보호와 생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생보사 상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다만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100% 갖춘 생보사만이 상장 가능.

상장을 위해서는 생보사가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완전히 갖추어야 함.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생보사가 해결해야 하는 조건이 (삼성과 교보에만 해당되는) 내부유보액의 처리 방법과 (모든 생보사에 해당되는) 자산 구분계리 문제임.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은 계약자 돈과 주주의 돈, 유배당 계약자의 돈과 무배당계약자의 돈을 정확히 구분하자는 것임. 주주의 돈이 아닌 남의 돈을 자본에 섞어놓은 채로 상장은 불가능함.

특히 지금처럼 생보사들이 신규 무배당상품의 사업비차익으로 과거 고금리 유배당상품의 역마진을 보전하는 불법·부당행위를 하는 상황에서는, 자산의 구분계리 없이, 상장할 수는 없음.

### 3. 이번 상장안을 통해 누가 이익을 얻는가?

금번 상장자문위의 안을 전제로 할 때, 손해보지 않는 것은 삼성생명뿐

이번 상장안은 철저히 삼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안임.

이번 상장안처럼, 즉 계약자는 채권자일 뿐 상장차익에 대해서는 일체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그대로 상장방안이 될 경우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삼성생명일 것임.

반면 이번 방안이 여러 논란을 거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은 손해 볼 것이 없음. 실제로 삼성생명도 언젠가는 상장하겠지만, 삼성생명의 경우 지금 당장 절실히 상장이 필요한 것은 아님. 삼성생명의 현재 재무건전성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 삼성생명의 상장은 이재용 씨의 경영권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리임에 틀림없으나, 에버랜드 CB 배임에 대한 수사, 삼성생명 과 삼성카드의 금산법 24조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성생명 상장만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 (단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와 관련된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한편, 이번에도 상장 논의가 무산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쪽은 교보생명임.

교보생명은 과거에 계약자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주식의 형태로) 적절하게 보상할 의사를 비친 바 있음. 그만큼 상장을 통한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경영상 절박하기 때문임. 따라서 만약 이번에도 상장논의가 무산된다면 삼성생명은 그만큼의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4. 상장자문위원회는 공정한가?

책임성과 투명성의 전제라 할 수 있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명단조차 공개된 바 없고, 그 실무는 보험개발원에서 진행되었으며, 공청회 토론자로 보험계약자의 직접적 대변단체(예컨대, 보험소비자연맹)가 초대조차 되지 않았음.

생보사 상장방안은 사실상 금융감독기구, 즉 정부가 추진해야 할 사안임. 이 작업이 증권선물거래소라는 외피를 두르고 민간인들로 구성된 자문위에 의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이 작업은 금감위 혹은 정부가 해야 할 사안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함. 이러한 행정행위에 있어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책임성임.

2003년과 2006년의 자문위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논의 주체인 자문위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음. 자문위원 명단 공개는 논의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상장방안의 도출을 위한 전제 조건임.

정부는 자문위원의 구성이 업계와 시민단체(혹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독립된 인사들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결국 보험업계와 계약자 사이의 정보와 영향력이 비대칭적인 상황에서는 업계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실제 이번 상장 자문위의 한 위원이 소속된 회계법인의 경우 현재 상장안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2개의 보험회사의 외부감사인임.

더군다나 이번 상장안 마련 작업의 실무를 보험개발원에서 진행하였는데, 이는 마치 정부가 상법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전경련, 혹은 전경련의 산하의 연구기관이 보조한 것과 동일한 것임.

1999년, 2003년, 2006년 등 지금까지 세 차례의 자문위 활동에 시민단체 관계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시민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는 형식)으로 참여한 적은 없음. (1999년의 경우 김현수 교수(순천향대)가 위원으로 있었으나, 당시 김현수 교수는 참여연대 멤버가 아니었음.) 그러나 업계 인사, 또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은 세 차례의 자문위에 모두 참여했음. 애초에 자문위 구성 자체가 업계 편향적이었던 것임.

이번 자문위가 시민단체와의 한차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하나, 오늘 (7/13) 공청회 안에는 시민단체의 의견이 단 1%도 반영되지 않았음. 심지어 공청회장에는 보험계약자를 대표할만한 인사가 초청되지도 않았음.

2003년에 작성된 자문위의 보고서는 '업계가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표조차 않고 폐기됐으나, 이번 보고서 역시 '시민단체가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기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임.



#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주장에 대한 비판

2006.7.13

## 1. 생보사의 법적 성격:

### 1) 접근시각의 편향성

무엇보다 본 공청회안의 접근시각 자체가 매우 엄격 편향적임.

본 공청회안은 미리 예정된 결론에 맞추어 논리를 끼워맞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생보사 상장 문제를 바라본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음.

### 2) 법형식적 설립형태

우리나라 생보사가 모두 보험업법과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따라서 「법형식적인 측면에서 생보사의 계약자에게서 상호회사 사원으로서의 성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생보사는 상호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동어반복에 불과함.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생보사가 주식회사로서의 외형에 걸맞는 경영관행을 구축하였는가, 특히 생보사의 주주와 경영진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의무(즉 계약자를 비롯한 여타의 이해관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회사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임.

달리 표현한다면, 계약자들이 상장차익의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한 것은, '계약자들이 상호회사의 사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그들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채권자적 지위에 있던 계약자가 잔여청구권자(residual claimant)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임.

### 3) 주식회사형 생보사에서 계약자와 주주의 지위에 관한 대표적 학설

일반적으로 유배당상품을 파는 주식회사형 생보사에서 계약자와 주주 간 이익배분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저작으로 Joseph Belth(1964), "Participating life insurance sold by stock companies"를 들 수 있음. 이에 따르면,

“유배당상품을 파는 주식회사형 생보사의 경우, 유배당계약자는 경영성과의 과실의 영향을 직접, 제일 먼저 받는 일반 주식회사의 주주의 위치에 있는 것과 유사하다.”(p.127~128)

특히 Belth가 준용한 '이자보상설'에 의하면, “유배당상품을 파는 주식회사형 생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자가 우선적으로 리스크를 부담하며, 주주가 그 다음으로 부담한다.”(p.127)

결론적으로 Belth는 “필자의 의견으로는 유배당상품을 파는 주식회사형 생보사의 경우 유배당상품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p.141)고 적시하고 있음.

#### 4) '유배당보험 위주의 판매' 문제

본 공청회안이 「과거 생보사가 유배당 상품만을 판매한 점이 국내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 자체는 이의가 없음.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 생보사가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에 걸맞게 경영되었음을 입증해주는 것도 결코 아님.

선진국의 경우 생보사가 유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 모회사-자회사 형태로 아예 조직을 분리하거나, 아니면 엄격한 구분계리를 통해 계약자-주주간, 그리고 유배당-무배당 계약자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문제는, 우리나라 생보사는 과거 유배당상품만을 판매할 때에는 그 배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90년대 후반부터 무배당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구분계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의무 불이행을 감안할 때, 특히 상기 Belth의 이론을 전제할 때, 국내 생보사의 주주들이 그 완전한 권리 확보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의 불합치'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임.

#### 5) 자본확충 의무의 불이행

본 공청회안이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내 생보사의 대부분은 특정기간에 자기자본이 완전잠식된 상태에 있었음.(발제문 p.7)

주식회사에서 자본잠식은 사실상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때 주주가 자본확충(즉 증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당해 주식회사에 대한 지배권(control)은 채권자에게로 이전된다는 것(즉 채권자가 잔여청구권자가 됨)이 회사법과 파산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임.

국내 생보사의 주주는 사실상 파산상태에서도 비싼 보험료의 유배당상품 판매(즉 배당의 불충분성)와 정부의 암묵적 예금보험에 의해 지배권을 계속 유지하였음. 결국 계약자는 '비싼 보험료, 높은 해약률, 과소배당'이라는 형태로 사실상 파산상태 하에 있는 생보사의 경영위험을 전가받은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공청회안은 "타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자본잠식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주식회사의 속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는 없음"(발제문 p.9)이라는 궁색한 논리로 일관하고 있음.

주식회사가 파산상태에 이르면 상호회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지배권이 주주에게서 채권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임.

앞서 국내 생보사의 법적 성격에서는 그토록 회사법의 원칙에 충실(국내 생보사는 주식회사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주식회사다)하던 상장자문위가 파산상태에 이른 주식회사 지배권의 문제에서는 갑자기 회사법과 도산법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한국의 관행적 현실'이라는 구태의연한 논리에 의존하는 것은 자가당착일 수밖에 없음.

이는 '과거 분식회계가 관행이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음.

## 6) 자료의 의도적 왜곡 인용

본 공청회안은 문헌자료를 인용할 때, 전체 맥락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주장에 합치되는 부분만 인용하고 있음.

특히 본 공청회안이 즐겨 인용하고 있는 재무부(1990.3), '생보사 기업공개에 대한 시각'은 국내 생보사의 주식회사적 성격을 입증하는 자료라기보다는, 오히려 상호회사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음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임.

예컨대, 동 재무부 자료 p.217에서 당시 정부도 생보사의 유배당상품 판매와 관련한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하였음.

즉, '우리나라 생보산업의 특성'이라는 단락에서 "보험업법은 주식회사와 상호회사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국내보험사는 모두 주식회사 조직형태를 택하고 있음. 그러나 상품판매면에서 주식회사의 고유상품(무배당상품)이 아닌 배당상품만을 판매하고 있어 회사의 형태와 판매상품면에서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재무부 자료 p.233을 보면, 발제문(p.13)에서 인용한 바로 밑의 문구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과거 유산인 상호회사와 주식회사적 제도운영의 혼합적 성격을 고려하고, 계약자배당 정책과의 일관성, 생보사의 건전발전 유도 등을 감안하여 주주에게도 계약자보호에 어느 정도 충실해 왔느냐에 따라 재평가차익의 일정부분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되어 있음.

상기 재무부 자료는 1990.8 재무부의 '재평가처리지침' 및 이에 따른 내부유보액(삼성생명 878억원, 교보생명 662억원)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됨. 법령 또는 규정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입법자의 '의도'이기 때문임.

그런데, 당시 재무부의 의도가 '국내 생보사의 경우 상호회사적 성격이 혼합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자료를 오히려 반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임. 이는 의도적 왜곡으로 볼 수밖에 없음.

## 2 내부유보액 및 구분계리:

### 1) 상장의 전제조건

'이익배분 등에서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갖출 것'(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5조 제2항)

상장은 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불특정 다수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임. 따라서 상장을 위해서는 주식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거래가, 계약자를 포함한 여타 이해관계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자체로서 완결될 수 있도록 주권의 가격 등 거래조건이 결정될 수 있어야 함.

예컨대, 삼성 및 교보생명의 경우 (과거 자산재평가차익의 내부유보액으로 인해) 순자산가치에

계약자 몫과 주주 몫이 혼재되어 있어 해당 생보사의 주권은 상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2) 내부유보액의 성격 및 처리방안

본 공청회안은 재평가처리지침상 내부유보액(삼성생명 878억원, 교보생명 662억원)이 '회사의 준비금'이 아니라 '회사에 유보된 계약자 몫'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음.

다만, '내부유보액은 궁극적으로 계약자배당에 사용될 재원으로 결손보전에 사용되더라도 추후 주주가 다시 보충토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자본적 성격을 인정할 수 없고, '주주에게 한시적으로 credit-line 기능만을 제한적으로 부여한' 부채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음.(이상 발제문 p.16)

그러나 내부유보액이 회사의 준비금이 아니라 credit-line 기능의 부채라는 본 공청회안의 주장은 부채(또는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임.

채권자는 이자수입 등의 cash flow에 대한 청구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청구권이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주주로부터 지배권을 넘겨받거나 또는 최소한 만기전 조기상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restrictive covenant)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계약자는 내부유보액에 대해 그 어떠한 권리도 자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음. 권리 없는 채권은 채권이 아님. 본 공청회안 어디에도 내부유보액이 계약자의 채권임을 입증하는 근거는 없음.

더구나 일반적인 채권보다도 청구권의 우선순위가 낮은 후순위채로서 지급여력비율이 산정시 합산되기 위해서는, 내부유보액의 재산권자인 계약자에게 cash flow 또는 restrictive covenant의 측면에서 일반 채권보다 강화된 권리가 부여되어야만 함.

결국 내부유보액은 부채적 성격이 아니라 자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임.

재무부(1990.3)가 '생보사 기업공개에 대한 시각'에서 국내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의 혼재를 지적한 것은 바로 내부유보액의 자본적 성격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함.

물론 내부유보액의 성격이 100% 자본 또는 100% 부채로 확립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음. 그 성격의 혼재 정도는 각 생보사의 경영 실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그러나 본 공청회안의 주장처럼 내부유보액을 100% 부채로 규정하는 것은, 과거 국내 생보사의 경영 실태, 그리고 지난 17년간의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역사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억지에 불과함.

생보사 상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과거 생명보험사의 성장과정에 계약자 기여(보다 정확하게는 계약자의 권익침해)가 있었으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주들이 인정」 하는 것임.

보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경우 과거 재평가차익 내부유보액이 100% 부채적 성격(공청회 발제문의 핵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당해 회사들이 인정하는 것임.

상장자문위가 확인해야 할 내용, 그리고 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담아야 할 내용은 바로 이 원칙이며, 이러한 원칙이 정해지면 상장차익의 배분에 관한 합당한 금액과 절차를 정하는 것은 각 생보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결정할 일임.

### 3) 구분계리

자산의 구분계리를 통해 계약자-주주간, 유배당-무배당 계약자간 이해충돌의 여지를 제거하는 것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만이 아니라) 모든 생보사의 상장조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공청회안은 이 문제를 구분계리 T/F에게 떠넘기고 있음.(발제문 p.34)

그러나, 자산 구분계리는 상장방안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천천히 생각해도 되는 부차적인 사안 아니라, 상장방안 논의의 핵심 전제조건임.

자산의 구분계리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본 공청회안의 태도는, 신규 무배당상품의 사업비차익으로 과거의 고금리 유배당상품의 역마진을 보전하는(즉 신규 계약자에게 비싼 상품을 팔아 과거의 문제를 미봉하는) 생보사들의 불법·부당행위를 방치하는 것이며, 이것 자체가 상장자문위가 업계 편향적인 접근시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임.

구분계리 도입은 2004년 당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의 회계처리' 문제에 대한 타협안의 조건이었음. 더구나 구분계리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의 책임자가 바로 현 상장자문위 위원장인 나동민 박사임.

따라서 나동민 박사는 '현재 구분계리 T/F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향후 개선방안 제시될 계획'이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상기 용역보고서를 공개하고, 구분계리 도입 방안을 확정한 이후에 생보사 상장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3. 배당의 적정성 여부:

### 1) 자산할당 모형의 문제

자산할당 모형은 단순히 보험료 산정시 활용되는 보험계리적 방법의 하나임.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안(과거의 과소배당)에 대해 선진국의 보험료 산정 모형, 그것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고 있지도 않은 새로운 모형을 가져다 배당의 적정성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임.

지금까지 이익원천별(예정사업비율, 예정위험률, 예정이율)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배당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제 와서 전혀 다른 모형을 이용하여 과거 배당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방법론적 오류임.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험학자 중 한 사람인 류근옥 교수(서울산업대)가 7월 12일자 파이낸셜 뉴스에 기고한 컬럼 "생보사상장의 순리"(31면)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고 있음.

즉 "최근 상장자문위에서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자산할당 방식을 써 본다고 한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이익원천별 분석과 이를 토대로 정부가 매년 제시한 기준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국내 생보사들에 대하여 이제 와서 새 잣대로 배당의 적정성 여부를 논하기는 힘들다."

설사 자산할당 모형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가정에 입각하여 계산하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 따라서 상장자문위가 원자료 및 가정의 내용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는 한, 공청회안의 계산결과는 그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없음.

특히 상장자문위원 중의 한 사람인 오창수 교수(한양대)의 논문에서도, "자산할당모델에서 가정은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나 공식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는 사용된 가정에 따라 그 타당성이 결정된다. 가정 설정은 보험료 산정에서 가장 어렵고 재무적 위험이 내재된 과정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음(오창수(2005), '자산할당방법을 이용한 보험료산출에 관한 연구', p.113)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공청회안에서 분석하고 있는 7개의 생보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생보사들의 경우도 개별적으로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함.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여부는 산업차원의 집계치(industry aggregate)가 아닌 개별 회사별로 따져보아야 함.

둘째, 회사의 특성에 따라 분석기간이 달라져야 하는데, 모든 분석대상 회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회사설립 이후 2005.12까지의 이원분석 자료를 사용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짐.

특히 1987년 보험시장이 개방되기 이전부터 영업을 해 온 6개 기존생보사(삼성, 교보, 대한, 제일(알리안츠 인수), 흥국, 동아(금호생명 인수))의 경우 80년대 중반 이전까지 과거 약 30여년간 계약자 배당이 극도로 미미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기간을 최근까지 늘려잡은 것은 최근의 배당으로 과거 배당의 부적정성 문제를 희석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음. 적어도 6개 기존생보사의 경우에는 1987년 이전의 자료로만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함.

셋째, 공청회안은 Net AS가 (-)라는 것이 곧 배당이 충분했음을 반증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발제문 p.25), 이는 보다 중요한 사실을 왜곡하는 것임.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과거 생보사들의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사업비 지출 때문에 Net AS가 (-) 값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비록 공청회안에서는 초과사업비를 주주가 부담하는 경우(시나리오 2; 발제문 p.26)를 분석하고 있으나, 이것이 과당경쟁을 위한 고도한 사업지출의 효과를 완전히 보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특히 예정사업비 자체가 매우 높았던 1980년 이전의 문제를 은폐할 수는 없음.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험학자 중 한 사람인 김정동 교수(연세대)도 경향신문 대담(7월 12일

자, 29면)에서 이를 인정하였음. "생보사들이 과당경쟁을 한 것도 맞고, 경영이 부실했던 것도 맞습니다."

넷째, 분석 결과 1(시나리오 1, 2, 3; 발제문 pp.26-27)에서의 원가 AS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을 포함하지 않은 것임.

그러나 삼성생명 등 일부 기존생보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 등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과 부동산 평가손익)을 포함하지 않은 원가 AS는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음.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과 사실상 매각하지 않는 자산이므로 그 매각이익이 실현되어 계약자 배당재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임.

한편, 분석결과 2(발제문 p.28)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을 포함한 시가 AS를 사용하는 대신, 부채도 시가로 평가(GPV)하고 있는데, 부채의 시가평가는 외환위기 직후 판매된 고금리 상품의 문제로 인해 크게 부풀려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시가 AS - GPV'로 계산된 Net AS가 (-) 값을 갖는다는 것은 경영전략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지, 이를 두고 '미래 배당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식으로 건강부회하여 과거 배당의 부적정성 문제를 은폐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 2) 옵션 모형의 문제

자산할당 모형과 마찬가지로, 옵션 모형에서도 콜옵션가치 계산에 필요한 기본 가정들(특히 parameter값들)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함.

기본적으로 옵션가치 계산을 위해서는 만기와 수익률의 변동성에 대한 가정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만기와 변동성을 사용했는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음.

특히 사전적 콜옵션가치의 경우 어떤 가정을 사용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음. 변동성을 자의적으로 높게 책정하면 사전적 콜옵션가치도 자의적으로 높아짐.

<표 15>에서는 (실제수익률  $y_t$ ) > (예정이율  $r_D$  또는 정기예금 금리  $r$  중 높은 것)인 경우 항상 배당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전적으로 인지되고 있었다면 사전적 콜옵션가치가 그만큼 낮아져야 함.

그러나 공청회안이 누누이 언급했듯이, 배당의 안정화를 위해 배당전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배당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감안하지 않고 계산된 콜옵션가치는 과대평가된 것임.

또한 자산할당 모형과 마찬가지로, 분석기간을 달리하여 콜옵션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회사설립 이후 최근까지의 자료를 모두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는 과거 배당의 부적정성 문제를 은폐하는 효과를 가짐.

## 4. 자산재평가:

자산재평가제도의 폐지(2000년)에 따라 부동산의 재평가차익을 계약자 배당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령상 불가능함.

그러나 이것이 상장을 위한 회계법인의 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시 부동산의 평가가액을 모두 포함

하는 것(즉 모두 주주 몫으로 계산하는 것)이 용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님.

비록 재무제표상의 부동산 가액을 변경하는 회계처리는 못하더라도, 그 평가액의 10%만 주주 몫의 순자산가치로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그렇지 않다면, 90%에 이르는 계약자의 몫의 평가액이 주주의 상장차익으로 실현되는 문제가 발생.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이선종·임종대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경제-2006-0702

수 신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발 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상조 담당: 김주연 02-723-5052, yeon@pspd.org)

제 목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에 대한 공개질의서

날 짜 2006. 7. 14. (총 6 쪽)

## 생보사 상장 관련 공개질의 및 자료공개 요구

.....

1.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1997년 이래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그리고 정부의 주요 경제·금융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2. 상장자문위는 어제(7/13) '생명보험회사 상장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난 5개월간의 상장자문위의 논의 내용과 결론을 공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상장자문위의 논의 결과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별첨 질의서 참조).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회신처 : TEL: 02-723-5052 FAX : 02-723-5055 E-mail: yeon@pspd.org

(담당 : 경제개혁센터 김주연 간사) 끝.

▣ 별첨자료 : 공개질의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임종대**

#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서

## □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

### (1) 일부 상장자문위원들의 생보업계와의 관련성

- 금융감독당국은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정부와 시민단체를 배제하겠다고 못 박았으며, 상장자문위원 명단은 공개하지도 않은 채 하반기부터 상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일정만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상장방안 마련에 궁극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사실상 보험계약자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를 논의의 틀에서조차 제외하는 것은 결국 생보업계의 이익만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음(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2006.2.21자 논평 참조).
-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업계 편향적인 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생보사 상장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참여한 상장자문위원들은 각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구성됐다"며 "보험업계나 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들은 없고 모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가들"이라고 주장하였음(서울경제 2006.7.13).
- 그러나 보험업계와 계약자 사이에 정보 및 영향력 측면의 심각한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보험업계나 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겠다는 명분과는 달리 보험업계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실제 이번 상장자문위원 중 한 명은 한영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문제는 당해 상장자문위원이 소속한 한영회계법인이 현재 동부생명, 동양생명, ING생명 등 3개 생보사의 외부감사인이라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서울경제 2006.7.13), 동양생명은 이번 상장방안에 따라 가장 적극적으로 상장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회계사 신분의 또 다른 상장자문위원은 안진회계법인 소속.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대한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금호생명, LIG생명, 미래에셋생명, 녹십자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무려 8개 생보사의 외부 감사인임. 언론보도에 따르면(매일경제 2006.7.13), 금호생명의 경우 2008년 3월, 미래에셋생명 보험 역시 늦어도 2009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함. 결론적으로 총 22개의 국내 생보사 중 11개사(50%)의 외부감사인을 상장자문위원이 속해 있는 두 회계법인이 맡고 있음. 한편, 변호사 신분의 또 다른 상장자문위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이종욱 태평양 대표 변호사는 2005년까지 삼성생명의 계열사인 제일모직의 사외이사였음. 또 같은 법무법인의 김영철 태평양 고문 변호사는 현재 삼성화재 이사회 의장일 뿐 아니라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감사임.

<표1.> 2006년 6월 현재 생명보험회사 외부감사인 현황

생명보험회사	외부감사인	생명보험회사	외부감사인
대한생명	안진회계법인	동부생명	한영회계법인
흥국생명	안진회계법인	동양생명	한영회계법인
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메트라이프생명	안진회계법인
LIG생명	안진회계법인	ING생명	한영회계법인
미래에셋생명	안진회계법인	녹십자생명	안진회계법인
금호생명	안진회계법인		

- 회계사 신분의 2명 상장자문위원은 자신이 소속해 있는 회계법인의 고객의 금전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안인 생보사 상장 문제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또한 대형 법무법인 소속의 상장자문위원의 경우도 삼성그룹을 비롯한 생보사를 소유한 기업들과 사외이사 혹은 재단감사와 같은 인적 연결망으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생보업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인사로 평가할 수는 없음.
-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일부 상장자문위원들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질의함. 아울러 이해충돌 감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로서 상장자문위원들의 명단과 약력, 그리고 이들을 선발하게 된 근거를 밝혀주기 바람.

## (2) 보험계약자단체의 의견 수렴절차 있었는지 여부

-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상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힌 바 있음. 생보사 상장 문제의 직접적 이해관계자 중 하나는 보험계약자임.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계약자들, 또는 계약자를 대표하는 단체를 만난 적이 있는지 여부 혹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주기 바람.

## □ 선별적 자료공개의 문제점

### (1) 배당의 적정성 검토시 사용된 모형의 신뢰성 문제

- 이번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상장방안이 과거 상장방안과 차별화되는 것

중의 하나는 배당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형을 사용하였다는 점. 이에 대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스스로가 “2003년보다 정확한 근거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자평하고 있음 (머니투데이 2006.7.13).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자산할당방법과 옵션모형을 이용하여 배당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에 근거하여 “과거 계약자에게 과소 배당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인할 수 없음”(공청회 자료 31쪽)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

- 그러나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배당 관련 통계작업에서 사용한 원자료와 모형의 주요가정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모형분석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회적 논란에 봉착하게 될 것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를 체결하면 실질 국내 총생산(GDP)이 7.75% 증가한다고 되어있으나, 현재 이 보고서는 정부측의 입맛에 따라 데이터가 조작되고, 비현실적인 가정 하에서 그 결과가 왜곡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의 공개검증을 요구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요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고, 최근 권영길 의원은 자체 검증을 통해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FTA자료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음. 자세한 내용은 「프리티안」 2006.7.12 「대외경제정책연구소원 FTA 자료, '황우석 경제학'으로 밝혀져」 참조)

- 예컨대 보고서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옵션모형의 경우 콜옵션가치 계산에 필요한 기본 가정들(특히 parameter값들)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함. 기본적으로 옵션가치 계산을 위해서는 만기와 수익률의 변동성에 대한 가정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만기와 변동성을 사용했는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음. 특히 사전적 콜옵션가치의 경우 어떤 가정을 사용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음.

- 자산할당방법의 경우에도 어떤 가정에 입각하여 계산하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옵션 모형과 동일함.

이는 상장자문위원 중의 한 사람인 오창수 교수(한양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임. 오창수 위원은 2005년 자신의 논문에서, “자산할당모델에서 가정은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나 공식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는 사용된 가정에 따라 그 타당성이 결정된다. 가정 설정은 보험료 산정에서 가장 어렵고 재무적 위험이 내재된 과정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음. (오창수(2005), ‘자산할당방법을 이용한 보험료산출에 관한 연구’, p.113)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이 참여한 보고서에서는 가정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업계로부터 회사설립 후 현재까지의 배당 자료를 건네받아 배당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음. 따라서 참여연대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에 배당의 적정성 분석작업에 사용된 각 생보사들의 역대 배당 내역과

각 모형에 사용된 가정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함.

※ 이러한 요구에 대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혹은 감독당국이 이는 개별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면서 자료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참여연대는 보고서에 제시된 것처럼 개별 회사가 아닌 익명으로 처리된 자료를 받을 용의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상장자문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비밀준수서약을 체결하고 용도와 누출시 민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음. 따라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숫자와 통계 놀음'에 대한 외부감시를 회피하겠다는 의사로밖에 해석할 수 없음.

○ 아울러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작업의 검증을 위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처럼 금감위가 의뢰한 외부업체가 아니라, 시민단체와 보험계약자 단체가 추천한 학계·실무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받을 것을 요구함. 금감위가 의뢰한 외부업체는 현실적으로 금감위의 입김을 의식하여 의뢰자가 '주문'하는 결론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음.

○ 나동민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보고서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 후대에도 자랑할 수 있는 내용'(서울경제 2006.7.13)이라고 말했음.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가 학자적 양심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이기를 진심으로 바램. 학문적 공동체에서 논문에서 사용된 원자료와 방법론, 그 가정의 공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 참여연대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논의의 진전을 위해 보고서에 사용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함.

## (2) 2003년 상장자문위 상장방안의 공개 요구

○ 나동민 위원장은 어제 "생명보험회사 상장" 보고서를 발표한 직후, 이번 보고서가 업계 편향적이란 지적에 대해 '생보사 상장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잣대나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망할 수도 있다'라며 자신들의 안을 옹호한 바 있음(서울경제 2006.7.13).

○ 그러나 문제는, 기존의 잣대나 선입견으로 폄하되고 있는 방안 역시 나동민 위원장이 각각 위원(1999년)과 위원장(2003년)으로 활동하였던 상장자문위원회에서 작성된 것임.

이처럼 과거의 논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나동민 위원장은 이번 상장자문위의 결론이 과거와 비교해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할 책임이 있음.

※ 어제 공청회 석상에서 나동민 위원장은 2003년 상장자문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그 당시 정식으로 상장자문위원회 이름으로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다"며 "상장이 유보되면서 내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2003.10.18일자 보도자료는 일관되게 주어를 자문위원회로 쓰고 있음(상장자문위원회(2003.10), 「생명보험사 상장

과 관련한 입장」, 보도자료 참조).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2003년 보고서를 공개하고, 그 결론이 달라진 근거를 밝혀야 함. 만약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이미 예정된 결론을 지지하는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공개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임. 끝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발 신 : 경실련 (정책실장 : 박완기 정책실장 (직통전화) 3673-2141 pwgi@ccej.or.kr)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 최한수 팀장 (직통전화) 723-5052 (전자우편) pec@pspd.org )

제 목 : 일부 생보사의 공익기금 출연 움직임에 대한 논평 ( 2006. 7. 19. (총 2 쪽) )

##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 · 참여연대 공동 논평 2

**회사 돈의 공익기금 출연은 상장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  
**주주가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 · 보상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  
**회사 돈의 공익기금 출연은 주주 책임을 미래 계약자에 전가하는 것**  
**상장자문위 분석모델에 대한 외부 검증도 투명하게 진행해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생보사 상장 관련 공청회 이후 일부 생보사들이 비록 이번 상장 안에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내부유보액 수준의 자발적 공익기금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생보사는 주식회사이며 따라서 상장에 따른 이익 전부가 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여론을 감안해 일정 금액을 사회공헌 형식으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생보사 상장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이러한 일부 생보사의 공익기금 출연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는 바이다.

2. 생보사 상장 문제의 핵심은 생보사 성장 과정에서 주주가 그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특히 계약자가 결손보전 등의 형태로 주주와 함께 경영위험을 공유해 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보사 주주가 과거 계약자의 기여(또는 권익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선심 쓰듯이, 그것도 주주가 아닌 회사의 돈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회사 돈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주주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책임을 현재 및 미래의 계약자에게 전가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그동안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주장해온 '주주의 계약자에 대한 보상'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단지 생보사 상장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알뜰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3.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이 유행이라도 되는 날 곳곳에서 적지 않은 금액의 기금출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공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기업비리나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기업 관련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는 면피성 대책으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미묘한 시점에 행해지는 사회공헌 발표는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진의를 의심케 하

고, 사회공헌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이다.

생보사 상장 문제의 본질은 주주가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느냐 여부에 있다. 회사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 만큼, 계약자에 대한 보상의 규모와 방법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각 회사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주주가 아닌 회사의 돈을 이용한 공익기금 출연은 지난 17년간의 생보사 상장 논쟁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공익기금 출연을 환영할 보험계약자는 없다.

4. 한편, 어제(18일)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생보사의 배당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모델에 대해 정밀한 검증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분석모델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는 상장자문위 안의 공정성은 인정받을 수 없다. 특히 분석에 사용된 원자료(raw data)와 가정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외부 기관(외국계 보험계리법인)에 검증을 의뢰했다면, 비밀준수서약 제출 및 위배시 민형사상 책임을 조건으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학자에 의해 검증받는 것도 꺼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 상장자문위 안의 공정성을 주장하고 싶다면, 외부 검증과정 역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





제7차 정책간담회

---

# 바람직한 생보사 상장방안

---

2006. 8. 8

**바른사회시민회의**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 한국 생명보험사의 주식상장

김 정 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1. 간략한 역사

- 한국 생명보험회사의 주식상장 문제는 1987년에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주식상장요건을 충족하면서부터 부터 논의가 시작됨.
-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각각 1989년과 1990년에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
- 경실련 등 일부 시민단체가 상장차익을 계약자에게도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업계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상장 무산.
- 그 이후 1999년과 2003년에 상장이 시도되었으나 역시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보험사 간의 의견 불일치로 무산됨.
- 2006년 7월13일,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에서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17년간 끌어오던 생보사상장 문제 해결의 전망을 밝게 함.

## 2. 주요 쟁점 사항

- 생명보험사의 상장에 있어서 논의의 주요 주제는 (1) 과연 상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2) 상장 시 계약자에게 이익을 배분해야 하는지의 문제임.
- 상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의 문제는, 과거에는 약간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현재는 관계자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음. 필자의 의견도 같음.
- 현재 생명보험사 상장에 관한 논의는 유배당보험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의 문제에 집중됨.
- 이 문제의 핵심은 일부 시민단체와 학자 및 관계 전문가들(이하 '시민단체 등')이 내세우는 '한국의 생명보험사들은 법적·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이나 실질적으로는 상호회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으로부터 비롯됨.

- 이러한 논리에 기초하여 계약자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기여, 주주의 경영위험부담 회피와 이에 따른 계약자의 부당한 경영위험부담, 계약자에 대한 배당의 불충분, 사업비 과다지출 등에 대한 보상으로 생명보험회사는 상장하는 주식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하라고 주장함.
- 또한, 자산재평가차익 중 사내유보 분은 계약자 몫의 자본금이므로 상장시 이를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필자는 상장시 계약자에게 주식 또는 현금을 배분하는데 대하여 반대함.

### 3. 생보사 상장의 필요성과 시급성

- 생명보험사의 상장이 필요한 이유로 과거에 흔히 거론되었던 것은 ①자본조달 능력 확대로 보험사 경쟁력 증진 ②경영에 대한 감시 기능 확대와 소유의 분산으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계약자 보호 증진 ③결과적으로 보험사, 계약자 및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모두 이익이 된다는 것 등임. 이들 이유는 현재도 타당함.
- 최근에 추가로 언급되고 있는 이유들로는 ①최근 외국계 생보사들의 약진으로 인한 국내 생보사들의 상대적 부진 탈피의 계기 ②통합 자본시장법이 도입되면 생명보험사들이 비상장 상태로 있을 경우 다른 금융부문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짐 ③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비상장 상태로는 외국계 보험사와의 경쟁에서 매우 불리함 ④비상장 상태는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됨 ⑤대한생명의 공적자금 회수와 삼성자동차의 부채 해결을 위해서도 상장이 필요함 등임.
- 최근에 거론되는 이유들은 생보사 상장이 시급한 과제임을 암시하고 있음.
- 또 다른 이유로는, 2005년 말 현재 삼성생명만 상장회사 중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기업이고, 교보, 대한 등도 각각 한국의 금융회사들 중 자산규모가 각각 8위와 9위에 이를 정도로 대형 금융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장이 되지 않은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임.

### 4. 한국 생명보험회사의 성격 - 상호회사성이 있는가?

- 시민단체 등이 생보사의 상장시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하여야 한다거나 상장차익의 일부를 배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한국의 생명보험사들은 법적·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이나 실질적으로는 상호회사적인 성격을 가지

고 있다'는 것임. 이로부터 다른 많은 논의들이 파생되어 나옴.

□ 시민단체 등의 주장의 근거는

- ① 한국의 생명보험사들은 법적으로는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회사 설립 후 30여년 동안 유배당보험 상품만 판매하여 왔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상호회사임.
- ② 생명보험사들이 주주 본연의 의무인 자본 확충이 적절히 하지 않았고, 그 결과 경영위험 부담이 계약자에게 전가 또는 공유되어왔음.

□ 그러므로 한국생명보험회사의 주식상장은 상호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한 후 상장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따라서 주식상장 시에 상장주식의 상당 부분을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임. 즉, 한국 생명보험사의 계약자는 준주주 또는 상호회사의 계약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는 것임.

□ 이상 시민단체 등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 ① 회사의 법적 성격은 판매하는 상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법적 설립 근거와 운영행태에 따라 정해짐. 한국의 생명보험사들은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주식회사임이 분명함.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식회사형 생명보험사가 유배당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계약자가 이익 또는 주식의 배분을 요구한 사례는 전무함.
- ② 경영위험을 계약자에게 전가해 왔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임. 과거 생명보험사의 파산시 계약자가 파산위험을 부담한 사례가 없음. 주주와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 등이 파산위험을 부담하였음.
  - 회사의 경영위기 시에 주주에게 증자를 '권유'할 수는 있어도 '요구'할 수는 없음. 이는 상법의 기본원칙인 '주주유한책임' 원칙을 부인하는 것으로 위법임.
  - 회사의 파산 시 계약자들이 채권단을 구성하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가 될 수는 있음. 그러나 이것은 회사가 상장할 때 채권자인 계약자들이 주식의 배분을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임.
- ③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일 수는 있어도 주식회사이면서 상호회사성을 일부 가지고 있는 형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5. 계약자의 이익에 대한 기여 및 배당의 불충분성

○ 시민단체 등은 한국의 생명보험회사들은 거의 전적으로 계약자가 낸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며 주주의 납입자본금으로 조달된 자산은 매우 작으므로 보험

사의 자산과 이익은 대부분이 계약자의 기여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여 상장시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이와 관련된 것으로, 과거부터 1990년대 까지 회사는 외형성장에 몰두하여 과다한 사업비를 지출하였고 이로 인한 손실을 계약자들에게 부담시켰다는 주장과, 일부 생보사들은 그룹의 사금고 역할을 해오면서 그룹 내 부실한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대규모 손실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계약자 배당을 감소시켰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회사운영 부실로 인한 계약자의 손해를 상장시 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분으로 보상하라는 것이다.

□ 과거에 계약자배당이 과소지급 되었으며 회사의 대부분의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면서, 과소 지급된 배당에 해당되는 금액을 상장시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러한 시민단체 등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 ① 시민단체 등의 주장은 주식회사의 자산 및 자본의 형성과 주식회사형 생명보험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지위 및 한국 생명보험사들의 경영성과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에서 나온 부당한 주장임. 계약자들이 보험상품을 구매하여 보험사의 자산 조달에 기여한 것은 틀림없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약정된 보험금과 법과 규정 및 보험사의 경영정책에 따른 계약자 배당을 받는 것으로 완료됨. 즉, 계약자들은 주주가 아니라 채권자임.
- ② 이 논리에 따르면 유배당계약자뿐만 아니라 무배당계약자도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사의 자산형성 및 이익 창출에 기여하였으므로 상장시 주식을 배분받아야 한다는 엉뚱한 결론이 나옴.
- ③ 과다한 사업비 지출 또는 사금고 역할 문제는 계약자에 대한 주식 또는 이익 배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이 문제는 감독기관 또는 사법부에 시정과 보상을 요구할 사안임. 시민단체들은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 또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매년 보험사를 상대로 한 1,000 건이 넘는 보험관련 각종 소송과 민원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야 할 것임. 실제로 사업비 과다지출 또는 사금고 역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음.
- ④ 과거에 계약자 배당이 불충분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분의 근거가 되지 못함. 1990년대 중반까지 생보사들의 계약자 배

당은 생보사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 감독당국이 공금리 수준과 생보사들의 이익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그 결과 평균적으로 은행의 정기예금 수준의 계약자 배당이 실제로 이루어졌음.

## 6. 자산재평가적립금의 계약자 배분

○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각각 1989년 4월과 1990년 2월에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각각 2,197억원과 2,927억원의 재평가차익을 얻었음. 정부는 이들 두 회사의 자산재평가를 계기로 1990년 8월에 생명보험사를 위한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을 마련하였고, 재평가 차익의 30%를 주주지분으로, 40%를 계약자지분으로, 30%를 처리유보로 하였음. 이 중 처리유보 30%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다른 두 부분은 이미 처리되어 논란이 없음.

□ 처리유보 30%는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각각 662억원과 878억원으로서 현재 자본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1991년 당시의 자본계정에서 재평가적립금의 내부유보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교보생명이 24.7%, 삼성생명이 30.2% 임.

□ 처리유보분은 '장래의 계약자배당에 사용될 재원으로서 회사의 자기자본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결손보전에 사용하려면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주지분 이익으로 우선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이러한 규정은 미실현이익을 계약자 몫으로 규정하였고, 더군다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차익의 상당부분(계약자 몫 40%)을 사외유출 하도록 한 부당한 조치임. 그러나 정부 기관의 합법적인 행정명령이므로 존중되어야 할 것임.

□ 상장시 '장래의 계약자 몫'으로 규정된 사내유보분을 계약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배분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에 어긋남. '장래의 계약자몫'이란 자기자본과 같이 회사의 경영위기 시에 완충자금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함.

□ 또한, 단순히 재평가를 실시하여 장부상에 표시하였다고 해서 재평가적립금을 계약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공로가 없는 자에게 몫을 배분하는 것이 되어 경제학적, 법적 및 윤리적 관점 등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부당함.

□ 그러므로 처리유보분은 회사의 청산 또는 파산시까지 자기자본 항목에 두는 것

이 옳음.

## 7. 결 론

○ 시민단체 등의 주장은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주식상장 시 유배당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하자는 것인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서 세계 시장에서의 게임의 규칙을 위반하는 일이다. 수백년동안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법의 일반원칙을 훼손하는 주장으로서 경제학, 재무관리, 회계학 및 윤리적으로도 부당한 일이다.

□ 만약 이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공로가 없는 자에게 몫을 배분하는 반시장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이 공적으로 발생하는 결과가 되어 작게는 한국 생명보험시장의 위축 내지는 몰락을 초래하여 보험사업자와 보험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크게는 세계화의 시대에 한국 경제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대거 퇴거하며 신규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국 경제의 몰락을 초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그러므로 한국 생명보험사의 주식상장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묘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세계와 한국에서 오랜 역사를 거쳐 확립된 안전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방법이란 곧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원칙을 준수하고 그 취지와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 한국의 보험산업의 발전과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확대하고 보호하려면 정부 당국은 생명보험사 상장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상호회사성' 문제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올바른 방향으로 내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와 국내 생명보험 시장의 급변하는 환경을 감안하여 생명보험사의 상장을 신속하게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제7차 정책간담회

---

# 바람직한 생보사 상장방안

---

2006. 8. 8

**바른사회시민회의**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토론1>

## 법을 지키면 해결될 생명보험회사 상장문제

김 선 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

1. 생명보험사들의 상장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상장으로 실현될 이익을 그동안의 고객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지, 나누어 준다면 어떻게 나누어 주는지가 쟁점이다. 금융 감독 당국은 지난 해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구성한 연구팀의 연구결과도 밝혀져 곧 최종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생보사 상장문제는 지난 십 수 년 동안 논란거리가 되어 온 주제라 그 쟁점과 이에 대한 공박의 내용은 거의 주지의 사실이 되어 있다. 주제발표자의 발표문은 이들 쟁점과 이에 대하여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을 정연하게 정리하며 발표자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본 토론자는 상법과 보험업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전체적으로 발표자의 입장을 지지한다.

2. 일반적으로 기업의 상장은 그 기업과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득이 되는 일이다. 이는 상장이 지연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됨을 뜻한다. 그런 만큼 역대 정권이 풀지 못한 이 문제가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지적한다.

첫째, 이 문제는 매우 간단한 문제라는 것이다. 극단적인 두 입장이 복잡하고 날카롭게 맞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매우 단순한 문제이다. 법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다.

대다수 상법학자들은 같은 보험회사 중에도 왜 생보사 상장이 논란이 되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유배당상품을 판매하였으니 상호보험회사라는 주장은 회사의 종류를 구별하여 규제하는 상법과 보험업법의 틀을 아랑곳하지 않는 발상이다. 본 토론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회사의 종류(상법 제170조)를 그 판매상품이 좌우한다는 주장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 최근 영국에서는 유배당상품의 개혁이 진행되었

는데 이는 회사의 종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회사의 종류는 회사를 설립하는 자가 선택하여 각기 다른 설립경과를 밟아 설립하는 것이고, 이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우리 보험업법에서도 다르지 않다. 과연 대한민국의 누가 상호회사의 발기인이 되었거나 사원이 되고자 입사청약서에 기명날인 하였는가? 100인 이상은 그만두고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며, 외국에서조차 상호보험회사의 주식회사화 경향을 감안 할 때, 앞으로도 그와 같은 사례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가 상호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였다는 사례도 들어 본 적이 없다.

보험회사가 주식회사와 상호회사 가운데 어느 종류를 선택하여 설립되는가라는 문제는 단순히 그 보험회사의 상호 중에 어떤 명칭을 표기하여야 하는가라는 외형적인 문제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의 차이는 상법상 네 가지 종류의 회사에 있어서 존재하는 출자방법, 출자자의 책임, 기관구성 등의 차이 보다 훨씬 근본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다. 설립의 목적과 경과가 다르고 이미 세상에 공시되어 있는 회사의 종류가 그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 어느 순간에 바뀔다는 일은 법의 세계에서 가능하지 않다. 회사의 실질 운운하며 상호보험회사인지를 따질 수 없다. 우리가 상호보험회사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상호회사 관련 조항 39개를 그냥 두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 정도이다.

더구나 배분론자들의 주장대로 생명보험주식회사를 그 실질이 상호보험회사라고 인정한다 하여도 왜 상호보험회사에 관한 모든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지 의아하다. 유독 상장이익의 배분에서만 계약자들을 “사원”으로 보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준주주”라는 말도 우스꽝스러울 뿐만 아니라 “준주주”라는 말을 만들어 낸 이들은 왜 “준주주”가 주주의 다른 권리는 없이 유독 자익권 가운데 일부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배분론자들의 주장은 단순히 계약자에게 출자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주주의 기득권을 박탈하고 있다. 재산의 기득권은 존중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은 소급입법을 통하여 재산을 박탈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헌법 제13조 제2항). 하물며 법도 아닌 애매한 잣대로 기본권의 하나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주주의 재산을 빼앗아 좋은 데 써보자는 생각은 매우 통쾌한 생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위헌적 발상이다.

배분론자들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자와 주주의 지위조차 혼동하고 있고 그러다 보

니 계약자배당과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라는 본질적 차이도 간과하게 된다. 주주에게 계약자 배당을 주는 일은 없다. 주주에게는 이익배당이나 건설이자지급이 있을 뿐이다. 계약자배당은 단순한 계약일 뿐이다. 만일 보험 계약자에게 상장주식의 일부를 임의로 배정한다면 이는 명백히 상법위반이 된다. 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줄 수 없는 것이다.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정하여야 하는 근거가 자산재평가차익 중 사내유보 분은 계약자 몫의 자본금이며 그래서 주식을 주어야 한다면 이 나라에서 경제생활을 하는 사람치고 주주가 아닌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계약자의 기여 분을 고려하여 계약자에게 주어야 할 몫을, 그와 같은 배분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니 공익법인에 출연하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 이런 발상은 주주의 재산을 약탈한데 이어 계약자의 재산까지 약탈하는 행위이다. 계약자의 몫이라는 논리로 확보한 돈은 계약자가 갖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무슨 권리로 그 돈의 용처를 지정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많건 적건 보험료를 낸 수억 명의 보험계약자들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재산처분을 위임했는지 모르겠다. 배분론자들은 계약자의 몫을 찾아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확정할 도리 없는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쓸 돈을 만들려는 건지 배분론의 근거와 목표부터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지면관계상 매거할 수 없지만 상법학자들은 당황스러울 뿐이며 보험업법은 왜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둘째, 법대로 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상장문제를 다른 기업의 상장문제와 같은 법을 적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상장이익의 출연이나 기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부를 많이 하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단견이다. 스탠포드대학에 소액기부한 회사이사의 책임 문제가 거론된 뉴저지주 대법원판결이나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치헌금도 기업의 규모와 실태를 고려하여 허용된다고 한 야하다제철 사건판결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출연도 기부도 법적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감독당국이나 시민단체가 국민의 정서를 담보로 금액을 정하고, 기한을 제시하고, 출연방법을 간섭하고, 기업에 압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당해 시민단체들이 지향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기업행태와는 맞지 않는 일이다.

셋째, 감독당국은 이번에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하고 그 결론은 우리가 지켜가야 할 법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것이어야 한다. 상황이 오늘에 이르게 된 데에는 정부

에게도 책임의 일단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생보사들을 감독할 것이고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생보사의 상장도 이루어져야 한다. 생명보험회사들은 각종 법규나 감독당국의 지시를 어긴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만일 그동안 생명보험회사들이 충분히 계약자 배당을 하지 못하였거나 자산재평가이익의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그 책임의 주된 소재가 감독당국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감독당국은 법을 지키고 감독에 순응한 데 대하여 정당한 대접을 하여야 한다. 기업에 대한 비판적 정서에 편승하여 법률 외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거나 일부 시민단체의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문제해결을 미룬다면 더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법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감독규정에 따라 온 생보사들에 법률 외적 문제해결을 강요하는 자기부정을 해서는 안 된다. 감독당국이 내려야 할 결론은 자명한 만큼 확신을 갖고 이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할 것으로 믿는다.

넷째, 차제에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는 감독조항들을 정리하길 바란다.

본 토론자는 생보사 상장문제는 법만 갖고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상식이다. 상식을 벗어나 생각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상장문제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제7차 정책간담회

---

# 바람직한 생보사 상장방안

---

2006. 8. 8

**바른사회시민회의**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 생보사 상장문제를 둘러싼 논란

윤 창 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바른금융재정포럼 이사장)

■ 어떤 회사 A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았다고 할 때 그 회사로 건너간 돈은 원래는 고객의 돈이었음에 틀림없지만 물건거래가 일어난 순간 회사의 돈이 된 것임.

■ 물론 물건을 팔면서 고객과 회사가 약속하기를 이 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서로 일부를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회사가 미리 약속한 대로 이익 중에 일부를 고객에게 상환하였다면 약속된 부분 이외의 것은 역시 회사의 몫이라 할 수 있음.

■ 그런데 뒤늦게 와서

1) 회사로 건너간 돈은 고객의 돈이었으니 이런 판매활동을 통해 회사가 이익을 챙겼다면 사후적으로 더 많은 돈이 고객에게 환원되어야 하며

2) 회사가 상장도 되니 상장주식 지분을 내놓으라고 계약자 집단도 아닌 제3자가 뒤늦게 주장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아예 처음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조건을 조정하여 상장 시 차익일부를 배분한다는 식의 사전적 계약이 있었으면 몰라도 그런 계약도 없이 일단 회사가 잘되어 성공을 한 후 뒤늦게 이렇게 물건을 판매해서 성공했으니 사회에게 환원을 하라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힘들며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판단됨.

■ 보험계약을 어떻게 보냐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으나 보험 상품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많은 상품 중 하나라고 볼 때 이에 대한 기본시각도 위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임.

- 즉 보험회사는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을 팔아 돈을 받은 것이고 고객의 돈이 보험회사로 건너간 것이며 일단 건너간 이상 그 돈은 회사의 돈이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유배당 상품의 경우 상품을 약간 비싸게 판 후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나누자는 계약을 사전에 한 것이므로 이 또한 계약된 바대로 남은 부분에 대해 나누어 가졌다면 정당한 상거래가 일어난 것이며 배당 후 남은 부분을 회사로 귀속

시키는 것 또한 계약대로 이루어진 정당한 상행위라고 볼 수 있음.

■ 거의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여 고객의 돈을 받아서 운용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보험사 가운데도 실패한 경우가 있고 성공한 경우가 있음.

- 그런데 성공한 보험사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추가로 지분을 내놓으라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힘든 행위임

- 물론 실패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추가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러한 약속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 경영을 잘못하여 공적자금까지 투입된 경우도 있었다고 보면 경영을 잘하여 고객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서 성장한 회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상을 주어야 할 것임.

- 보험상품에 약속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각종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였다는 데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까지 대표성도 부족한 시민단체가 관여를 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며 이는 보험상품을 둘러싼 상거래가 가진 미묘한 속성을 이용하여 대기업집단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움.

- 동일조건을 상품 판매하여 영업활동을 한 결과 실패한 보험사도 존재한다고 하면 성공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성공에 대한 댓가가 주어져야 하며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지분을 투자한 보험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공보수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임.

- 생보사 상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함.

■ 따라서 최근에 마련되어 공표된 생보사 상장방안은 뒤늦은 감이 있기는 하나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 방안대로 조속히 정책을 시행하여 주식시장에서 양질의 주식을 공급하는 효과와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를 이겨내고 보험회사를 성공시킨 경영진과 주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

■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공정거래법 상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제도에서도 대기업이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 지분을 취득한 다는 식의 논리가 제시되고 있는 바 이 또한 상당한 문제가 존재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임.

- 고객의 돈이 아니라 보험상품을 판매하여 받은 물건대금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이 돈으로 합법적인 상거래를 할 경우까지 이를 “고객의 돈”이라며 제재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보임

- 고객이 돈을 주고 산 것은 사망시 보험금 지급이라는 약속이 담긴 보험상품이며 이 약속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분명한 이상 이 돈은 고객의 돈이 아니라 보험회

사의 매출대금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임

- 보험업법상 자산운용규제를 충실히 지키는 데도 공정거래법에서 이를 문제 삼아서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향후 이의 시정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제7차 정책간담회

---

# 바람직한 생보사 상장방안

---

2006. 8. 8

**바른사회시민회의**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토론3>

## 계약자 배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재 교 (변호사/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증권선물거래소의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생보사의 상장시 계약자에게 상장차익을 배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을 마련하였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과거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문위가 계약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음으로써 상장을 무산시킨 일을 상기할 때 이 번 자문위의 의견은 매우 전향적이어서 바람직하다. 이로써 20년 가까이 논란을 빚으면서 지연되어 온 생보사의 상장문제는 매듭지어질 때가 되었다.

생보사의 주주가 '막대한' 상장차익을 얻는다 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

사실 생보사의 상장시 보험계약자에게 상장차익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경영학적인 면에서 그 근거가 미약했다. 이러한 주장은 어쩌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심리의 발로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계약자들은 단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을 받는 데에 관심이 있을 뿐 자신이 가입한 생명보험사가 상장된다고 해서 상장차익을 배당받을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3자인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계약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면서 20년 가까이 상장을 저지하였는데, 이는 생보사의 대주주인 재벌의 오톨나 재벌계열사가 '막대한' 배당차익을 얻는 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만약 생보사의 주주들이 재벌과 관련 없는 사람이나 기업이라도 과연 그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극구 저지에 나섰을까?

이런 의구심은 상장시 계약자에게 주식 또는 현금을 배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를 생명보험피해자구제기금이나 공익재단에 출연하자는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배당론자의 요지는 계약자의 몫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생보사의 계약자는 늘 변동된다. 상장시에 상장차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하려면 어느 시점의 계약자인가가 문제되고, 또 수백만 명에 이르는 과거의 계약자를 모두 찾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친다.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다.

그러자 배당론자들은 갑자기 계약자에게 배당할 몫으로 생명보험피해자금이나 공익 재단에 출연하자고 주장한다. 계약자를 찾기 어려우니까 제3자에게 주자? 결국 생보사 주주들이 '막대한' 상장차익을 얻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심보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상장차익이라는 말도 짚고 넘어가자. 상장차익은 상장 후의 거래가격에서 납입자본금(원칙적으로 주식의 액면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5,000원에 인수한 주식이 상장 후 50,000원에 거래된다면, 45,000원이 상장차익이다. 상장차익이라는 용어는 주주가 상장으로 인하여 갑자기 45,000원을 불로소득한 느낌이 든다. 시민단체들이 생보사의 상장차익 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하자는 주장에는 재벌들에게 이러한 '불로소득'을 안겨줄 수는 없다는 심리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상장차익 45,000원은 상장으로 인하여 갑자기 발생한 이익이 아니다. 상장 전에도 주식의 가치는 50,000원에 근접했을 것이다(장외거래에서 그와 근접한 금액으로 거래되었을 수 있다). 굳이 상장차익이라는 게 있다면, 상장으로 인하여 회사의 신용도와 지명도가 오르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되어 회사의 경영상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또 주식에 대한 거래가 용이해짐으로써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정도일 것인데, 이 상장차익은 그렇게 많지 않다. 상장차익 45,000원 중 대부분은 주주가 그 동안 회사의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여 재투자하고, 유능한 경영인을 선임하여 회사의 실적을 높인 덕분에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결과일 뿐이다. 물론, 회사가 도산하여 납입자본금을 한 톨도 건질 수 없는 위험을 부담한 댓가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댓가가 집적된 것이 상장차익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상장으로 인하여 주주가 많은 이익을 얻더라도 이는 상장에 의한 결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시샘할 일도 아닌 것이다.

####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원래 불법적이었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1989년과 1990년에 상장을 위하여 자산재평가를 하였는데, 당시 정부는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을 통하여 재평가차익을 주주 지분30%, 계약자 지분 40%, 처리유보 30%로 배분하고, 계약자 지분 40%를 공익사업출연기금, 계약자에 대한 특별배당, 계약자배당안전화준비금으로 균등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조치하였다. 계약자 분배론자들은 이 조치를 근거로 정부가 우리나라 생보사의 상호회사적인 성격을 공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 조치가 있었다하여 정부가 생보사의 상호회사적인 성격을 공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처리지침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정당성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한 조치를 논거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 정부가 私債의 변제를 동결시킨 8·3조치를 한 바 있었으니 私債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정부가 공인하였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처리지침이 위법하다는 사실은 계약자 지분 40% 중 3분의 1을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배분한 조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이라면서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빼돌렸으니 정부가 계약자의 몫을 횡령한 셈이다. 위법함이 명백하다.

좀 더 근원적으로 상장을 앞두고 자산재평가를 하는 자체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일이다. 기업회계는 보수적이어야 한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時價가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장부가액 그대로 두고,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가로 수정하는 것이 보수적인 자세다.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자산재평가는 기업회계의 보수주의 원칙에 반하여 재무건전성을 해친다. 그렇기에 자산재평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재평가를 하면 외형상으로는 재무구조가 개선되므로 1990년 당시 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장을 앞둔 기업의 자산재평가를 허용하였던 것이다. 자산재평가 자체가 기업에 주는 특혜다. 처리지침은 상장을 앞둔 생보사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재평가차익에 대한 처분을 정부가 恣意的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 점에서도 처리지침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불법·부당한 처리지침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생보사가 형식은 주식회사이지만 실질은 상호회사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 계약자에 대한 배당은 법치주의에 위배된다

우리 보험업법상 생보사는 주식회사 형태와 상호회사 형태의 두 유형으로 설립이 가능하나 생보사는 예외 없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었다. 그리고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배당론자들은 우리나라의 생보사는 실질적으로 상호회사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30년 동안 유배당보험만 판매하였다는 점, 대주주가 추가출자의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자에게 위험부담을 전가시켰다는 점, 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게을리 하였다는 점, 자산재평가차익 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하도록 정부가 조치하였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우선 생보사가 유배당보험만을 판매하였다 하여 주식회사가 상호회사로 성격이 바뀔 수는 없고, 주주가 계약자에게 위험부담을 전가시킨 사실이 없고, 대주주에게는 추가출자의무라는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설사 배당론자들이 주장하는 논거가 모두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명백하게 주식회사로 설립된 생보사의 성격이 상호회사로 바뀌기에는 부족하다. 상법상 주식회사와 상호회사는 준별된다. 몇몇 모호한 사정이 있다 하여 조직의 성격이 송두리째 부인될 수는 없다고 법치주의의 요구한다.

법률상 주식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긴 있다. 法人格 否認論이 그 것이다. 一人 주주가 경영도 오로지 하면서 회사 돈과 개인 돈을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법인격이 부인되어 주주 개인에게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우는 경우다. 대법원판례는 (1)법인격이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남용되고 (2)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의 구별이 없을 정도로 법인격이 형해화되고 (3)회사에 대한 해산 명령이나 회사설립취소, 기관의 책임 등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있다.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법인격을 부인하고 있는 이유는 함부로 법인격을 부인하면 주식회사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제도가 있기 전에는 사업을 하다 망하면 그 경영주도 파산을 면할 수 없었다.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주식회사제도는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였기에 인류의 위대한 발명 중의 하나라고 꼽힌다. 현재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누리고 있는 번영은 주식회사제도 없이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만 보더라도 주식회사제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생보사가 주식회사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상호회사라고 인정하는 일은 1인 주주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개인회사의 법인격을否認하는 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다. 상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단지 위와 같은 논거로 인정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명백하게 위배된다. 헌법상 보장되는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에도 해당한다.

생보사 상장을 위하여 특별법을 만들어 계약자에게 상장차익의 일부를 배당하자는 주장도 법치주의에 위배된다. 현행법에 의하여 이미 주주의 권리로 확정되어 있는 사항을 특별법으로 침해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주주의 재산권침해로서 우리 헌법에도 위배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굴지의 생보사들이 계약자의 희생 위에 성장하였으니 상

장을 하는 기회에 계약자에게도 상장차익의 일부라도 배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할 수도 있다. 법이나 회계학의 원칙에는 명백하게 위배되지만 정치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주장이기는 하다. 이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계약자에 대한 배당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치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면, 법률만능주의로 오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법치주의는 비유하자면 게임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다. 축구 경기에서 경기규칙이 무시되면 경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듯이 민주사회에서 법치주의가 무시되면 사회는 무법천지가 된다. 계약자에게 이익배당을 해 줌으로서 작은 정의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흔들린다면 큰 정의가 희생되어 결국 사회구성원 모두의 손해로 귀결된다.

현대 법치주의에서 특히 경계하여야 할 점이恣意的인 법적용이다. 다소 문제가 있는 법률이라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면 그 폐해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법률이라도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그 폐해는 심각하다. 악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면 그 폐해는 말할 것도 없다. 예를 들어 축구에서 논스톱 슛을 금지하는 규칙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슛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이상 볼을 컨트롤한 다음 슛을 해야 유효하다는 룰이다. 이러한 룰이 있다면 축구의 재미가 반감되겠지만 어쨌든 게임은 성립한다. 그러나 주심이 그 룰을 적용하기도 하고 적용하지 않기도 하면 축구라는 게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불합리한 법보다 자의적인 법적용의 폐해가 훨씬 더 크다.

만약 생보사의 주식회사 성격을 부인하여 상호회사로 인정하여 계약자에게 배당한다면 번덕스러운 축구 주심처럼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셈이 된다. 주식회사의 근간에 관한 원칙이 흔들려서 예측가능성이 없다면 이로 인한 폐해는 상상하기도 겁이 날 지경이다.

#### 결어-생보사는 상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생보사가 상장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하여는 별 異論이 없다. 우리의 생보사도 상장되어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세계적인 생보사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1990년부터 시도된 생보사의 상장이 좌절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치른 댓가는 지금까지의 결과로 족하다. 보험계약자에게 상장차익을 배당하여야 한다는 배당론자들이 내세우는 논거는 법적 회계학적 어느 면에서나 성립하지 않는다. 근거 없는 계약자 배당론을 철회해서 더 이상의 갈등을

일으키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계약자에게 배당한다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주식회사제도의 근간을 붕괴시킴으로써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김  
정동 교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제7차 정책간담회

---

# 바람직한 생보사 상장방안

---

2006. 8. 8

**바른사회시민회의**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 한국 생명보험사의 주식상장

조 동 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1. 20년을 끌어 온 이유가 무엇인가

- 한국생명보험회사 상장 논의는 근 20년을 끌어 온 문제임. 합리적 상장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서 아니었을 것임.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엄정한 경제논리에 의거 동 문제를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임. 생보사 상장은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됨.
- 삼성생명은 자산규모 3위, 교보와 대한생명등도 8, 9위의 대형금융회사임에도 아직 상장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통합 자본시장법이 도입되면 생명보험사들이 비상장 상태로 있을 경우 다른 금융부문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짐. 또한 최근 외국계 생보사의 약진과 한·미FTA의 체결을 가정할 때, 비상장 상태로는 외국계 보험사와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음.

### 2. 생보사 상장의 쟁점은 무엇인가

#### 2.1 주식회사 vs 상호회사

- 생보사의 '상호회사'성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생보사들은 '무늬만' 주식회사였다고 주장. 즉 법적 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이나 실질적으로는 상호회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 근거로 30년 동안 유배당 보험상품만 판매해 왔으며, 생보사가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주와 계약자가 경영상 위험을 공유했다고 주장.
- 그러나 보험 상품이 유배당이나 무배당이나가 상호회사성의 기준이 될 수 없음. 어떤 보험 상품을 판매하느냐는 것은 회사의 경영전략에 지나지 않음. 경영위험을 주주와 계약자가 공유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IMF외환위기 때, 생보사의 구조조정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음. 생보사 주주들은 인수합병, 감자, 자본금 증액 등의 경영위험을 부담했으나, 계약자들은 예금보험제도, 포괄적 계약이전(P&A) 방식에 의거 계약 자체를 '보장'받았으며 어떤 경영 위험도 부담하지 않았음.

## 2.2 상장차익의 배분문제

- 상장차익 공유론자들은 생보사의 자산은 대부분 계약자가 낸 돈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여 상장시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
- 이 같은 주장이 타당하다면, 은행고객도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음. 그동안 내가 예금해 준 돈이 얼마인 데... 조금 비약하면 대학에도 적용할 수 있음. 내가 낸 등록금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캠퍼스내 건물 주인은 '학생회'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음.
- 상장차익은 주식의 잠재적 가치가 실현된 것임. 그러나 잠재적 가치의 실현은 상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님. M&A를 통해 피인수기업의 주주가 경영프리미엄 명목으로 시가 이상의 금액을 인수기업으로부터 보상받을 때에도 잠재적 이익이 실현된 것임.(즉 경영진이 바뀔에 따라 피인수기업의 기업가치가 올라감) 이 경우 피인수기업의 보험계약자에게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가?
- 과거 생보사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tunneling)로 (계열사에 대한 사금고 등) 계약자 배당이 과소 지급되었기 때문에, 생보사 상장시 사후 보상 또는 정산 차원에서 과소 지급된 배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 설령 지배주주의 사익추구행위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계약자에 대한 주식 내지 이익배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사업비 과다 지출 역시 추측에 지나지 않아, 계약자에 대한 주식 또는 이익배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 또한 90년대 중반까지 생보사들의 계약자 배당은 생보사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 감독당국이 공금리 수준과 생보사들의 이익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되었기 때문에, 과소 지급의 주장도 타당성이 결여됨.

## 2.3 재산재평가적립금의 계약자 배분 문제

- 정부는 90년 8월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을 마련, 재평가차익의 30%를 주주지분, 40%를 계약자지분, 그리고 나머지 30%를 ‘처리 유보’하였음.
- 처리유보분은 ‘장래의 계약자배당에 사용될 재원으로서 회사의 자기자본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적음. 따라서 자본전입을 통해 주식으로 계약자에게 전액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대신 결손보존금 및 계약자 배당을 위한 재원으로 사내에 계속적으로 유보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임.

○ 일각에서는 내부유보액이 해당 생보사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계산할 때 합산된 것을 근거로, 계약자 몫의 돈이 실제 자본으로 기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장시 내부유보액 만큼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함.

-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설득력이 부족함. 우선 내부유보액의 근거가 되는 자산재평가는, 실은 주주와 계약자간의 지분을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업공개를 위해 시행된 것임. 자산재평가법은 재평가이익을 재평가세의 납부, 자본전입,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이익결손금의 보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재평가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못하도록 한 것임. 따라서 이를 계약자에게 주식 배당해 달라는 것은 자산재평가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처사임.

### 3. 결 론

○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원칙을 준수하고 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생보사를 상장시키면 될 것임. 이제는 “이해관계자의 이해 반영”이라는 포폴리즘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할 것임. 투자자(주주)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자본시장은 3류로 전락할 것임. 보험 산업의 발전과 보험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도, 생보사의 상장은 조속히 매듭 되어져야 함.

○ 우리가 취해야 할 기업지배구조의 stance는 '주주 중심주의'이어야 함.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강조되어야 함. 그러나 이 같은 강조가 '이해관계자 중심주의'로 오해되지 않아야 할 것임.

# 생명보험회사 상장

2006. 7. 13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 < 목 차 >

### I. 생보사 상장 개요

### II. 국내 생보사의 성격

1. 논의 배경
2. 법적 형태
3. 실질적 운영 방식
4. 종합의견

### III. 계약자배당과 관련된 쟁점사항

1. 내부유보액의 처리
2.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3. 자산의 재평가 및 배분 여부

## I. 생보사 상장 개요

### 1. 논의경과

- 생보사들이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80년대 중반부터 생보사 상장에 관해 수차례의 논의가 있었으나, 생보사 성격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해 상장 유보
  - 교보('89)와 삼성('90)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으나, '90년말 증시침체 등 여건악화로 상장 추진 보류
  - 삼성자동차 처리('99) 및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한 도래('03)에 따라 생보사의 상장문제가 재논의되었으나,
    - 생보사 성격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하여 상장방안 결정 유보
- '06.1월, 정부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거래소 산하에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을 근거로 생보사 상장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35조):**

거래소는 법인의 주권상장이 공익과 투자자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2) 이익배분 등에 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

- '06.2월에 구성된 상장자문위원회<sup>※</sup>는 현행 법체계, 과거의 논의 내용,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론적·실증적 분석 및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상장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제시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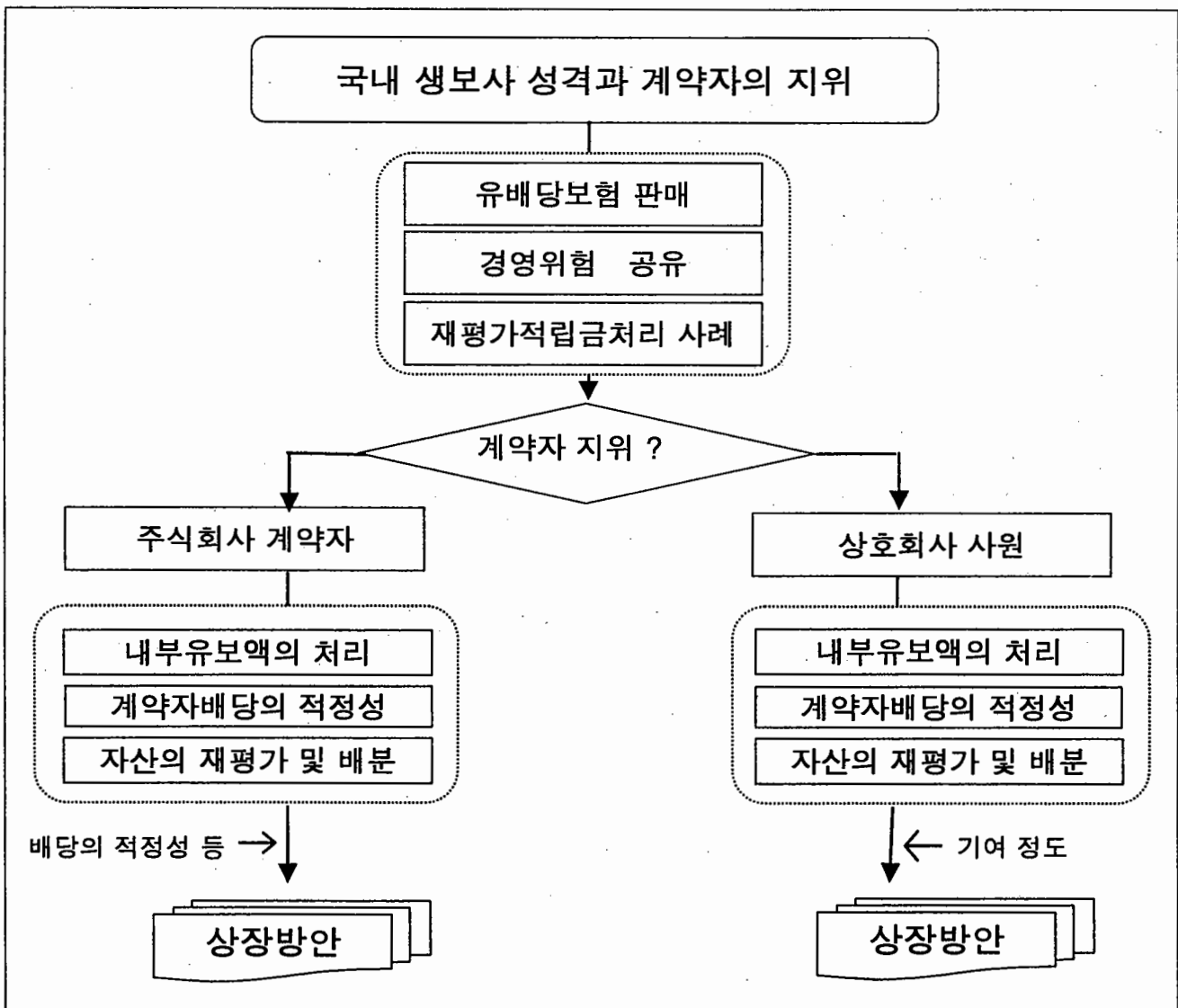
※ 법률, 보험, 재무, 회계·계리, 유가증권상장 분야 전문가로 구성

## 2.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검토 방향

□ 상장자문위원회는 과거 상장추진 과정에서 제시된 논의들을 토대로 국내 생보사의 성격과 그에 따른 계약자 지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검토

- 내부유보액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자산의 재평가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그림 1 > 생보사 상장관련 검토 방향



## II. 국내 생보사의 성격

### 1. 논의 배경

- 국내 생보사는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지만 상호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어, 국내 생보사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과거의 보험관련 법규 및 감독정책, 국내 생보사의 운영방식, 외국의 사례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

### 2. 법적 형태

- 국내 생보사는 법인의 설립 형태면에서 살펴보면, 상법 및 보험업법에 의하여 주주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 국내 생보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주금을 납입한 주주로 구성된 주주총회이며, 업무집행기관 또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대표이사
- 반면, 보험업법상 상호회사는 보험계약자로 구성된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업무집행기관 또한 사원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대표이사
- 계약자의 권리·의무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생보사의 계약자는 상호회사의 사원과 같은 의결권이 없고, 주주로서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상호회사의 사원과는 차이가 존재
- 또한, 국내 생보사의 계약자는 청산시 여타 채권에 비해 보험금 등의 선취권이 인정되고, 주주는 법률에 의한 주식의 무상소각·파산으로 인한 투자원금 손실 위험을 지게 됨



- 반면, 보험업법상 상호회사 사원은 의결권을 가지며 일반채권자보다 후순위의 잔여재산 청구권을 가짐

□ 따라서, 국내 생보사는 법인의 설립 및 출자관계, 의사결정기구,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상법 및 보험업법상 주식회사가 아님을 인정하기 어려움

< 표 1 >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간 차이점 비교

구 분		주 식 회 사	상 호 회 사
법인의 성격		상법에 의거 설립된 영리법인	보험업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
설립시의 출자관계		회사구성원인 주주가 출자한 자본(자기자본)	기금각출자에 의해 각출된 기금(추후 동일한 금액의 적립을 조건으로 기금상각 가능)
구성원		주주	사원( = 보험계약자)
최고 의사결정기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업무집행기관		이사회	이사회
회계감사기관		감사	감사
계약자 권리	의결권	없음	사원당 1표(정관으로 별도 규정 가능)
	청산시 잔여재산 청구권 순위	일반채무보다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 순위가 선행순위	일반채무보다 사원의 보험금 청구권 순위가 후순위
계약자 의무	채권자에 대한 의무	없음	납입한 보험료를 한도로 책임
	회사 지급불능시	여타 채권에 비해 보험금 등의 선취권은 보유하나, 회사재산이 보험금지급 등에 부족시 일부 삭감 발생 가능	원칙적으로 보험금 등의 삭감 가능

### 3. 실질적 운영 방식

#### 가. 유배당보험 위주의 판매

- '92.8월 이전까지 유배당보험의 판매만이 허용
  - '92.8월부터 보장성보험 및 양로보험에 한하여 무배당보험이 허용되었으며, '00.4월 이후 모든 상품으로 확대
- 과거에 주식회사인 생보사가 유배당보험 위주로 판매한 것은 당시의 환경과 제도에 기인
  - 국내 생명보험산업은 초기에 보험료를 산출에 필요한 통계가 부족하고 금리변동성이 높은 등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유배당보험 판매만을 허용
- 유배당보험은 이익을 계약자에게 환원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당검증비용(Verification Cost)<sup>※</sup>이 발생

※ 이익의 원천과 규모 등을 검증하는 비용

- 이에 따라 계약자와 주주간 이익배분문제가 발생하는 주식회사 보다는 상호회사에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
- 그러나 경쟁심화, 위험의 불확실성 증가 등 보험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험사의 설립형태와 관계없이 생보사의 경영정책에 의하여 유·무배당보험을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국내의 보험시장 환경 및 외국의 생보사 설립형태별 판매 상품을 감안할 때, 유배당보험의 판매는 생보사의 설립형태와는 무관

< 표 2 > 외국생보사(주식/상호회사)의 판매상품 현황

(단위 : % )

구 분		회 사	설립연도	판매상품 비중	
				유배당	무배당
미국	주식회사	Nationalwide Life Ins. Co.	1929	44	56
		State Farm Life Ins. Co.	1929	100	0
		Canada Life Ins. Co.(N.Y)	1971	93	7
		Hartford Life Ins. Co.	1902	73	27
		Lincoln Life Ins. Co.	1905	1	99
	상호회사	Metlife	1868	89	11
일본	주식회사	협영생명	1945	100	0
영국	주식회사	Prudential Ass.	1848	85	15
대만	주식회사	國泰人壽	1962	100	0

주) 판매상품 비중은 '96~'97 신계약 기준

## 나. 계약자가 주주지위로서의 경영위험 부담 여부

### (1) 자본금 및 자기자본

□ '90년이전 기존 생보사의 자본금\*은 자산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

※ 자본금의 상당부분은 자산재평가를 통해 충당

○ 또한 대부분의 보험사가 특정기간에 자기자본이 잠식된 상태

< 표 3 > 기존 생보사 자기자본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A사	1.8	1.5	1.0	△3.9	△11.2	△12.4	△13.6	△14.6	△15.3	△15.8
B사	0.4	0.1	0.3	0.3	0.2	0.2	5.0	5.0	10.0	63.2
C사	1.5	2.0	5.0	5.0	5.0	5.0	5.0	5.0	△27.9	△28.3
D사	5.0	5.0	5.2	5.0	5.0	5.0	5.0	3.8	4.4	7.1
구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A사	△16	△40	△332	△667	△1,184	△1,170	△566	△225	△116	△17
B사	84	0.1	91	146	191	225	245	631	935	2,906
C사	△27	△20	△71	△128	△142	△142	△33	15	17	11
D사	49	△7	77	53	66	110	321	1,052	3,460	2,687

□ 그러나 계약자는 생보사의 파산과 관련하여 사전적으로 채권자로서의 위험만을 부담하고, 사후적으로도 경영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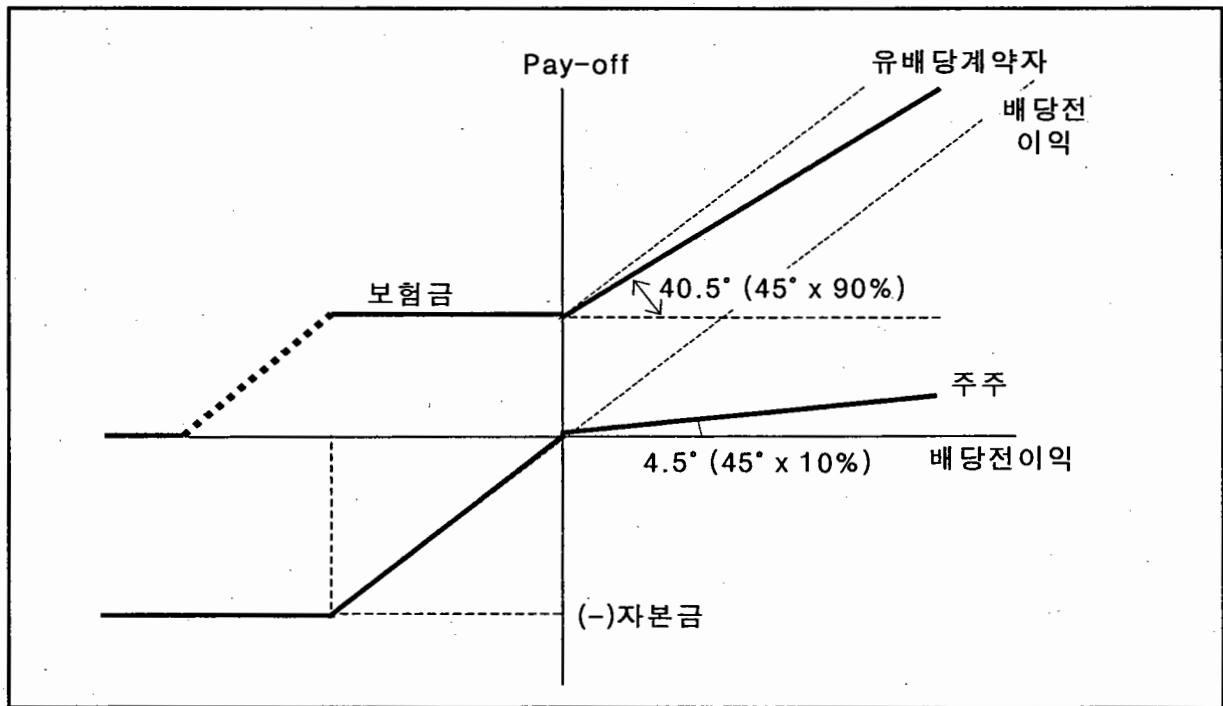
① 사전적으로 계약자는 채권자로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보험금을 보장받을 권리를 보유

○ 생보사의 파산시 계약자가 보험금액의 삭감 등 위험을 부담할 경우에도, 이는 채권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주주로서의 위험부담\*과는 상이

※ 주주는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 위험을 부담

- 아울러, 계약자보호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의 위험 부담도 상당부분 경감

< 그림 2 > 주주와 계약자의 이론적 Pay-off Structure



- ② 사후적 관점에서 외환위기 당시 생보사 파산사례를 보더라도 계약자는 보험금 삭감이나 보험료 증액 등의 채권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 태평양 등 5개 생보사 계약자의 경우 계약이전방식으로 보호됨

- 반면 주주는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으며, 파산시 주식을 무상소각 당하는 등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위험을 부담\*

※ 제일생명 : 조양상선그룹이 인수('73, 2억→5억으로 증자)

홍국생명 : 태광그룹이 인수('73, 2억→5억으로 증자)

(舊)고려생명 : 자산과 부채를 동해생명으로 포괄이전후 청산('73)

□ 한편, '90년 이전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생보사를 운영할 경우, 자발적 증자의 유인이 약함

○ 재무부장관은 사업규모 및 자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생보사에게 증자 명령을 할 수 있었음에도 증자명령을 하지 않음

□ 타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자본잠식이 상당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주식회사의 속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는 없음

※ A손해보험사는 '82~'95년, B은행 '83~'84년, C리스사 '89~'03년 자본잠식 상태

□ 상기 사항을 감안할 때, 생보사의 자기자본 잠식 사례를 이유로 계약자가 주주로서의 경영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일부 보험사는 장기간 자본잠식이 지속됨으로써 투자수익이 감소하여 계약자배당이 부족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 배당재원을 이용한 결손보전

- ☐ 계약자배당은 보험상품의 장기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계약자배당은 장래손익 전망 등을 기초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특정기간에 이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미래에 손실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유배당보험에서 누적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에 발생하는 유배당보험 이익으로 보전하는 것이 일반적
- ☐ 외국의 경우에도 유배당보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배당보험 이익을 미할당잉여금 형태로 유보하는 것이 일반적
  - 유배당보험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미할당잉여금을 사용

### < 참조 1 > : 감독회계상 주식회사의 유배당보험 손익처리(캐나다, 미국)

- 대차대조표의 자본계정을 '계약자지분 계정(policyholder's equity 또는 participating surplus fund)'과 '주주지분 계정(stockholder's equity 또는 stockholder's fund)'으로 양분하고,
- '계약자지분 계정'내에 누적손실(이익)을 계상하여 추후에 발생하는 이익으로(손실을) 보전
- '주주지분 계정'에는 유배당보험 이익 중 주주지분(예:10%)이 계상되며, 계약자지분 계정에 누적결손이 있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년도에는 주주지분을 확보

- ☐ 따라서 유배당보험의 이익으로 결손을 보전한 점을 경영위험 공유로 보기 어려움
  - 다만, 국내 생보사가 과거 손익과 비교하여 계약자배당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3) 계약자보호제도의 불비

- ☐ 이론적으로 볼 때, 계약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 파산시 금융소비자(채권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치\*

※ 계약자보호제도가 있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위험부담 감소

- 생보사에 있어서도 계약자보호제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계약자의 지위가 변경(계약자 → 주주)되는 것은 아님

- ☐ 외환위기 당시 생보사의 파산시에도 계약자는 보험금 삭감 또는 보험료 증액 등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 반면, 부실 생보사 주주는 주식을 무상 소각당하는 경영위험을 부담

- ☐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는 타금융권에 앞서 계약자보호제도\*가 도입

※ '62년 공탁금제도('77년 폐지, 다만 재경부장관의 예탁명령권 및 예탁재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유지), '88년 계약자보호예탁금제도, '89년에는 보험보증기금제도 및 보호예탁금제도가 도입

※ 은행권은 '96년부터, 상호신용금고 등 단기금융회사는 '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 ☐ 계약자보호제도는 소비자보호제도로서 계약자의 경영위험 부담 논란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다. 재평가적립금 처리

- 교보('89)와 삼성('90)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
- 당시 재무부는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계약자와 주주간 합리적인 이익배분을 위해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90.8월)」(이하 '재평가처리지침'이라 함)을 제정
  - 보험업법(§97 ③)에서는 재평가적립금에 대하여 계약자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간 구체적 배분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

< 표 4 > 재평가적립금의 배분기준(재평가처리지침, '90.8)

K율	주 주	계약자	내부유보
100%	0~30%	40% 이상	잔여분
50~100% 미만	0~20%	50% 이상	"
50% 미만	0~10%	60% 이상	"

- 당시 재무부는 '주식회사 형태인 생보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계약자는 회사에 대하여 시설이용, 보험금청구 등 채권자의 위치에 있다<sup>\*</sup>'는 입장

※ 생보사 기업공개에 관한 시각(90.3월, 재무부) : “재평가적립금 및 당기 이익의 계약자·주주간 배분기준” 마련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견해들을 수렴하여 발표된 자료

- '90년 당시 부동산 재평가적립금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한 것은 부동산 재평가지 장부가액(book value)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 계약자에게 재평가적립금을 배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계약자 몫이 줄어들기 때문
  - 즉, 재평가적립금의 주주·계약자 배분도 통상의 경상이익 배분과 동일하게 이루어 짐

< 표 5 > 재평가적립금 배분여부에 따른 계약자 몫 비교(예시)

	매입가	재평가 후			처분시			계약자 몫의 합 (A+B)
		장부가	평가익	계약자몫 (A)	처분가	처분익	계약자몫 (B)	
배분시	100	150	50	35	200	50	35	70
미배분시	100	150	50	0	200	50	35	35

주) 계약자 몫의 투자손익 비율을 70%로 가정

< 참조 2 > 재평가적립금 배분이유(생보사 기업공개에 관한 시각, 재무부, '90.3)

- 재평가차익도 경상이익과 같이 자본금의 투자수익, 계약자의 기여 및 주주·경영자의 경영노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 그 배분도 주주와 계약자 그리고 회사의 경영안정성을 위한 사내 유보방법으로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함

- 따라서 “재평가처리지침”에서 재평가적립금중 계약자 몫을 인정한 것은 일종의 경상이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으로서, 생보사의 주식 회사적 성격을 부인한 사례로 보기 어려움

#### 4. 종합의견

- 국내 생보사 성격에 대하여 형식적·실질적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부인하기 어려움
  - 주식회사 계약자와 상호회사 사원은 권리와 의무에 차이가 있음
  - 유배당보험의 판매는 생보사의 설립형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 유배당보험 이익으로 유배당보험 결손을 보전하는 것은 유배당보험 운영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
  - 생보사의 자본잠식 및 계약자보호제도의 불비가 계약자와 주주의 지위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님
  - 재평가처리지침 제정 과정에서 계약자 몫을 인정한 것은 계약자 배당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도 경상이익 배분기준에 준하여 배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다만, 과거 생보사의 자본잠식, 배당재원을 이용한 결손보전 등으로 인하여 배당이 부족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 과거 계약자배당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자배당과 관련된 여타 요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Ⅲ. 계약자배당과 관련된 쟁점사항

#### 1. 내부유보액의 처리

##### 가. 논의 배경

- ☐ 생보사 상장과 관련, '90년 재평가처리지침에 따라 적립된 내부유보액의 성격 및 처리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음
- ☐ 따라서,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평가처리지침의 구체적 내용 및 당시의 정부 입장 등을 검토하여 그 성격과 역할에 부합하는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나. 내부유보액 현황

- ☐ 교보와 삼성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처리지침”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중 일부(삼성 878억, 교보 662억)를 내부에 유보
- ☐ 재평가처리지침에서는 내부유보액의 처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 참조 3 > 내부유보액의 처리방법(재평가처리지침, '90.8)

- ① 내부유보액은 자본계정에 계리(지침§14①)
- ② 내부유보액은 유가증권 분석 등의 경우에 회사의 자기자본에서 제외(지침§14①)
- ③ 대차대조표 주식사항으로 장래의 계약자배당에 사용될 재원임을 명시(지침§14①)
- ④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계약자배당 실시 가능(지침§14②)
- ⑤ 결손보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결손보전에 사용된 금액은 향후 발생하는 주주지분이익으로 우선 보충해야 함(지침§14③)

< 표 6 > 교보와 삼성의 재평가적립금 처리 내역

구분	교보('89)		삼성('90)	
	금액(억원)	비율(%)	금액(억원)	비율(%)
재평가차액	2,265	-	3,017	-
재평가세 등	(68)	-	(91)	-
재평가적립금	2,197	100.0	2,927	100.0
주주지분 배분	656	29.9	876	29.9
계약자지분 배분	879	40.0	1,173	40.0
공익사업출연	300	40×34.2	391	40×33.3
재평가특별배당	289	40×32.9	391	40×33.3
배당안정화준비금	289	40×32.9	391	40×33.3
내부유보	662	30.1	878	30.0

#### 다. 내부유보액의 성격

- 재평가처리지침상 내부유보액은 재평가적립금중 계약자·주주 배당후 잔여분으로서 “회사의 준비금”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 궁극적으로 계약자배당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사에 유보된 “계약자 몫”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 내부유보액은 궁극적으로 계약자배당에 사용될 재원으로 결손 보전에 사용되더라도 추후 주주가 다시 보충토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채적 성격을 부인하기 곤란
  - 특히, 결손보전후 주주가 다시 보충토록 한 것은 주주에게 한시적으로 credit-line 기능만을 제한적으로 부여한 것에 불과

□ 전술한 바와 같이 '유배당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은 유배당보험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유배당보험의 특성임을 감안할 때,

- 계약자 몫인 내부유보액이 결손보전에 사용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적 성격을 인정하기는 곤란

□ 아울러 내부유보액이 자본잉여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나, 재평가 처리지침상 통상적인 자본과 달리 대차대조표의 주석으로 자기자본에서 배제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 내부유보액은 계약자 몫의 "자본"이라기 보다는 미국·캐나다 감독회계에서 나타나는 계약자 몫의 "미할당잉여금<sup>※</sup>"과 유사

※ 미국·캐나다의 경우, 계약자 몫의 미할당잉여금(계약자에 대한 미래 배당재원으로 사용 : 부채)을 감독회계에서 자본계정으로 처리

< 참조 4 > 내부유보 이유 (생보사 기업공개에 관한 시각, 재무부, '90.3)

- 90년 부동산재평가차익은 미실현이익이므로 계약자 배당형태로 전액 사외유출할 경우, 회사의 계속성,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계약자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보험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회사전체의 재무적 안전성(일정금액의 내부유보)을 우선 고려한 후 주주 또는 계약자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 한편, 내부유보액은 지급여력금액 산정시 자기자본에 합산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지급여력금액에는 자기자본 이외에 “확정되지 않은 부채<sup>※</sup>”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 계약자에 대한 부채인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은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지급여력금액에 가산(보험업감독규정 §7-1)

※ 미국의 경우, 특정계약자에 할당되지 않는 미할당잉여금은 청산시 잔여재산 청구 우선순위에서 주주의 청구권과 동일한 순위에 해당되며 지급여력 금액에 가산(뉴욕주 보험법 §7435(a))

- ☐ 상기사항을 감안할 때 내부유보액은 계약자에 대한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며,

- 관련기관의 해석을 구하여 현행 자본계정에서 부채계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2.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 가. 논의 배경

-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당재원으로 결손을 보전하는 등 과소배당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존재
  -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은 보험상품의 장기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검토할 필요
- ☐ 따라서, 과거 생보사의 손익발생 추이 및 계약자배당 내역, 외국의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당의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함

### 나. 계약자배당 현황

- ☐ 계약자배당이 자유화되는 '90년대초 이전까지 회사의 이익규모와 관계없이 정부의 배당지침에 따라 배당을 실시
  - 계약자배당 자유화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이익이 부족한 생보사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타생보사와 동일수준의 배당 실시
- ☐ 이에 따라 배당지침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시현한 생보사도 초과 이익금에 대하여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지 않음
  - ※ 배당전이익이 발생하였으나, B사는 '77년~'78년 및 '80년~'81년, C사는 '78년~'81년 동안 확정배당 이외의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음(□□)
  - 반면, 일부 생보사는 배당전손실이 발생하거나, 결손이 누적된 경우에도 계약자배당을 실시
    - ※ B사는 '82년~'83년에, C사는 '82년에, A사 및 D사는 '85년까지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익규모를 초과하여 확정배당 등 계약자배당을 실시(▣▣)



< 표 7 > '77 ~ '83년 손익 및 계약자배당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77	'78	'79	'80	'81	'82	'83
A사	확정배당전손익	△1	△6	5	35	47	△76	△244
	계약자배당	0	1	6	35	47	16	20(7)
	확정배당후손익	△1	△7	△1	△0	0	△92	△264
B사	확정배당전손익	2	1	6	103	156	△78	△17
	계약자배당	0	0	6	50	135	6	27
	확정배당후손익	2	1	0	53	21	△84	△44
C사	확정배당전손익	0	7	40	142	223	△7	143
	계약자배당	0	6	34	135	203	46	39(16)
	확정배당후손익	0	1	6	7	20	△53	104
D사	확정배당전손익	△1	0	1	6	14	2	△37
	계약자배당	0	0	1	6	14	27	10
	확정배당후손익	△1	△0	△0	△0	0	△25	△47

주) 계약자배당은 확정배당과 사차배당의 합이고, 괄호 내는 사차배당

□ '90년 주주·계약자간 이익배분기준이 마련되면서 누적결손이 발생할 경우 주주지분으로 결손을 우선 보전한 후, 잔여결손에 대하여 계약자지분으로 보전

- 기존 생보사의 경우에는 부실규모가 큰 일부회사를 제외하고는 계약자지분을 결손보전에 사용하지 않음
- '80년대말 신설된 생보사의 경우에는 설립 후 상당기간 동안 적자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배당전이익을 결손보전에 사용

< 표 8 > 계약자지분을 이용한 결손보전 등의 현황(이익배분기준 마련후)

(단위: 억원)

구 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총계
기 존 생 보 사	A사	결손보전																	0
		추가배당			49				603	344									996
	B사	결손보전	32	110	73										2,100	872			3,187
		추가배당				44	24	32	30	93	137		131	658					1,149
	C사	결손보전																	0
		추가배당			54	63	51	37	6	25	44			32		2	3		317
신 설 생 보 사	D사	결손보전													292	118	55	66	531
		추가배당	1	7	7	11	11	17	19	14	27	34	12	30					189
	E사	결손보전											414						414
		추가배당			2	12	2	31	34	26	49	78		62	41	10	18	25	390
	F사	결손보전														111	130	97	338
		추가배당		3	6	9	5	6	9	7	22	48	27	63					205

주) 결손보전 : 계약자지분의 결손보전액, 추가배당 : 결손시 배당액 + 이익배분기준 초과배당액

□ 외국에서는 유배당보험의 결손을 미할당잉여금에 계상토록 한 후  
향후 발생하는 유배당보험의 이익으로 결손을 보전\*

※ 우리나라는 '90년 이후 누적결손을 주주가 우선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 누적  
결손을 전액 계약자가 보전하는 외국에 비해 계약자에게 유리

## < 참조 5 >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익배분방식 비교

### ① 미국 뉴욕주(감독회계기준)

- 유배당보험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90%는 계약자 몫 10%는 주주 몫
- 유배당보험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액 계약자가 부담

< 예시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배당전손익	1,000	△1,000	△1,000	1,000	1,000
계약자 몫	900	△1,000	△1,000	900	900
주주 몫	100	-	-	100	100
계약자잉여금 <sup>(주)</sup>	900	△100	△1,100	△200	700
주주잉여금	100	100	100	200	300
비 고	9:1 배분	당기손실 계약자부담	당기손실 계약자부담	9:1 배분	9:1 배분

주) 손실을 차기로 이월하며, 장래손익전망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배당률을 자율적으로 결정

### ② 우리나라('90년 이후)

- 유배당보험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 누적결손이 없는 경우 : 계약자 몫을 계약자배당재원으로 활용
  - 누적결손이 있는 경우 : 주주 몫으로 누적결손을 우선 보전하고도 잔여 결  
손이 있는 경우 계약자 몫으로 잔여누적결손을 보전

< 예시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배당전손익	1,000	△1,000	△1,000	1,000	1,000
계약자 몫	900	-	-	900	900
주주 몫	100	△1,000	△1,000	100	100
계약자잉여금 <sup>(주)</sup>	900	900	900	900	1,000
주주잉여금	100	△900	△1,900	△900	-
비 고	9:1 배분	당기손실 주주부담	당기손실 주주 부담	주주부담(100)후 계약자부담(900)	주주부담(100)후 계약자부담(800)

주) 계약자잉여금은 누적결손 보전에 사용할 수 없고, 5년 이내 계약자배당으로 사용

□ '90년 이전에는 초기 보험시장 형성과정과 외형성장 위주의 영업 정책으로 인하여 초과사업비가 발생

- 특히, '80년대에는 '82년 금리인하조치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정부가 예정사업비율을 인하함으로써 사업비차 손실이 확대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생보사의 사업비율은 일본에 비해 '80년 이전 까지 높았으나, 예정사업비 인하 이후에는 낮은 수준으로 하락

< 표 9 > 한국과 일본의 사업비율 추이 비교

(단위 : %)

구 분	'70	'75	'80	'85	'90	'95	'00
한 국	32.0	31.2	24.0	13.8	11.7	18.2	14.9
일 본	25.9	27.8	23.8	17.9	15.4	13.8	14.1

주)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자료) 한국은 보험통계연감, 일본은 생명보험사업개황으로부터 작성

□ 보험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비율이 정상화되면서, '90년 이후에는 사업비차이익이 발생

- 다만, 신설사는 설립 후 10년 이내에서 대부분 초과사업비가 발생

□ 한편, 투자수익률<sup>※</sup>과 관련하여서는 계열사 지원 등으로 인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생보사도 있는 반면, 계열사의 주가 상승으로 계약자의 이익을 증진시킨 경우도 존재

※ 생보사의 대출수익률은 전반적으로 은행의 대출수익률 보다 1~2%p 높은 수준

□ 따라서, 상기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유배당보험 손익과 계약자배당액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의 계약자배당율을 산출할 경우, 대부분의 생보사가 90% 수준을 상회하는 배당을 실시
-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한 분석은 과거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고 있는 재무·계리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

< 표 10 > 계약자배당률의 추정(회사설립~'05.12)

(단위 : %)

구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배당율	89%	100% ↑	88%	114%	100% ↑	100% ↑	100% ↑

주1) 계약자배당률 = 계약자배당액 현재가치 ÷ 유배당보험 손익의 현재가치

2) 100% ↑는 유배당보험 손익의 현재가치가 (-)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배당을 실시한 것을 의미

## 다. 배당의 적정성 검토

◇ 과거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금흐름분석을 이용한 자산할당 (Asset Share)방법과 옵션모형을 이용한 유·무배당보험상품 비교를 통하여 배당의 적정성을 검토

### (1) 자산할당(Asset Share)방법을 이용한 배당의 적정성 검토

#### □ 분석대상

- 기존 생보사와 신설 생보사로 구분하여 7개 회사를 선별

#### □ 자산할당(Asset Share, 이하 'AS'라 함) 방법

- AS란, 과거의 순현금흐름과 투자이익을 합산하여 누적한 금액
- AS는 분석대상회사의 회사 설립당시부터 '05.12까지 이원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 투자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흐름은 유배당보험 현금흐름, 무배당보험 현금흐름 및 자본 현금흐름으로 직접 귀속이 가능하므로 각각에 직접 귀속
  - 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므로, 투자이익은 유배당/무배당/자본 계정별 AS에 회사 전체 투자이익률을 곱하여 산출
  - 자본이 완전잠식된 경우에는 자본계정의 투자이익이 (-)로 계산되고, 그 해당액만큼 유배당보험 계정의 투자이익이 증가

## < 참조 6 > 자산할당(Asset Share)

- 자산할당(Asset Share)방법은 일정한 전제하에 각 보험계약으로 할당한 자산액을 이용하여 생보사의 자산형성에 기여한 공헌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 자산할당(AS)이란, 전체 보험계약을 보험수리상 동질적인 보험계약집단으로 구분하고, 운용이율, 사망률, 사업비, 효력상실해약률 등의 실적을 바탕으로 각 집단의 누적현금흐름을 산출한 것
- 즉, 각 보험계약(유배당보험, 무배당보험)의 AS는 과거의 순현금흐름과 이에 대한 총자산이익률 기준의 투자이익을 합산하여 누적한 금액으로 산출  
 예) 유배당보험 AS =  $\Sigma(\text{수입보험료} + \text{투자이익} - \text{지급보험금} - \text{해약환급금} - \text{사업비} - \text{계약자배당금} - \text{주주귀속잉여})$
- Net Asset Share(혹은 Surplus)를 「Asset Share - 책임준비금」으로 정의하여, 각 계정의 공헌도를 측정가능

### □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판단기준

- 보험사의 경영이 보험료 설정당시의 가정대로 이루어진다면 AS와 책임준비금 수준은 유사
  - 그러나 실현손익에 대해 배당수준이 과도하거나 과소할 경우 AS와 책임준비금간에는 차이가 발생
- ※ 사업비나 투자수익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보험사가 조정할 있는 요소는 계약자배당이라고 가정
- 즉, 「AS - 책임준비금」으로 정의된 Net AS가 음(-)이면 배당금이 경영실적과 비교하여 과다(혹은 적정) 지급된 것이며, Net AS가 양(+)이면 배당금이 과소 지급된 것으로 해석

## < 참조 7 > 계약자배당 적정성 판단기준

과다(또는 적정) 배당	과소 배당
Asset Share < 책임준비금	Asset Share > 책임준비금

□ 분석결과 1 : 원가AS\*와 현행 책임준비금

※ 원가 AS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은 AS

< 시나리오 1 > : 주주가 결손을 매년 보전하지 않는 경우

- 계약자의 자산형성 기여도인 AS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결손을 보전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합리적
- 분석결과, 분석대상 모든 생보사에서 Net AS가 음(-)으로 나타나므로 평가손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과거 배당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표 11 > 주주의 결손보전이 없다는 가정하의 Net AS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Net Asset Share	(-)	(-)	(-)	(-)	(-)	(-)	(-)

< 시나리오 2 : 시나리오 1 + 초과사업비를 주주가 부담 >

- 초과사업비 사용으로 인한 배당재원의 감소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초과사업비를 주주가 부담한다고 가정
- 분석결과, D사를 제외한 분석대상 모든 생보사에서 Net AS가 음(-)으로 나타나므로 평가손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업비 과다집행으로 인하여 계약자배당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표 12 > 초과사업비 주주 부담 가정하의 Net AS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Net Asset Share	(-)	(-)	(-)	(+)	(-)	(-)	(-)

< 시나리오 3 : 시나리오 1 + 계약자의 이익배분비율을 90%로 소급하여 적용 >

- 과거의 계약자 이익배분비율(70% 또는 85%)이 현재에 비해 낮았던 점을 고려하여, 회사설립 당시부터 현행수준(90%)의 이익배분이 이루어졌다고 가정
- 분석결과, 분석대상 모든 생보사에서 Net AS가 음(-)으로 나타나므로 평가손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행수준의 이익배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과거 배당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표 13 > 현행 이익배분기준 가정하의 Net AS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Net Asset Share	(-)	(-)	(-)	(-)	(-)	(-)	(-)

< 참조 8 > 주주가 유배당결손을 부담하는 경우의 AS 분석

- Net AS가 음(-)인 A사·C사·F사의 경우 과거 배당이 적정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 Net AS가 양(+)인 B사·D사·E사·G사의 경우 논리적으로 과거 배당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주주의 결손보전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한 후 배당의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

< 주주에 의한 결손보전시 Net Asset Share >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Net Asset Share	(-)	(+)	(-)	(+)	(+)	(-)	(+)

- 즉, B사·D사·E사·G사의 경우,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1과 비교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 주주가 결손을 보전하게 되면 결손보전액만큼 유배당 AS가 커지게 되므로, 주주의 결손보전이 큰 경우 계약자배당을 적정하게 하였더라도 AS가 커져서 Net AS가 양(+)이 되는 현상이 발생



□ 분석결과 2 : 시가AS와 GPV※

※ GPV(Gross Premium Valuation, 영업보험료식 책임준비금) : 향후 금리, 위험률 및 사업비 등 현재시점의 최선의 기초율에 의거하여 평가시점에서 재산출한 책임준비금을 의미하며, 시가준비금으로 해석될 수 있음.

- AS를 계산할 때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을 포함(시가 AS)할 경우, 부채도 시가로 평가(GPV)하여 비교하는 것이 일관성의 원칙에 부합
- '시가AS - GPV'를 Net AS로 정의하며, Net AS로 미래를 포함한 전체 분석기간 동안의 배당의 적정성을 평가
  - Net AS가 음(-)이면 향후 배당재원이 충분치 않다는 의미
- 분석결과, 분석대상 모든 생보사에서 Net AS가 음(-)으로 나타남
  - 이는 기존 유배당보험에서 향후 결손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 배당의 적정성 측면에서 보면 미래배당재원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의미

< 표 14 > 유배당보험의 배당재원 충분성 검토(할인률 5% 가정)

구 분	A	B	C	D	E	F	G
Net Asset Share	(-)	(-)	(-)	(-)	(-)	(-)	(-)

## (2) 옵션모형을 이용한 적정성 검토

### □ 분석대상

- 예정이율만 차이가 있고 급부가 동일한 유배당보험과 무배당 보험을 비교 분석

### □ 분석방법

- '유·무배당보험간 예정이자율 차이\*'와 계약자배당 청구권의 콜옵션가치를 비교하여 이자율차배당의 적정성을 분석

※ 유배당보험(7.5%)과 무배당보험(8.5%)의 보장이율 차이(1%p)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계약자배당 청구권 구입을 위해 계약자가 추가로 지불한 보험료에 해당

- 과거의 이자율차배당 실적을 바탕으로 사후적 옵션가치를 산출하여 사전적 옵션가치와 비교함으로써 이자율차배당의 적정성을 분석

### □ 적정성 판단기준

- 유배당 상품의 추가적인 보험료라고 볼 수 있는  $\gamma$  는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간 예정이율의 차이로 일종의 콜옵션(call option)의 성격을 갖는 배당가치에 따라 결정됨\*

※ 유배당보험 보험료  $\approx$  무배당보험 보험료 + 계약자배당 예상치(=콜옵션가치)

< 표 15 >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현금흐름

	유배당	무배당	차이
보험료	$X_D$	$X_N$	$\gamma$
보험금	$C_t$	$C_t$	0
약정 투자수익	$\sum r_D$	$\sum r_N$	$\sum (r_D - r_N)$
배당금	$r < r_D$ 일 때, $p \cdot \text{Max}[\sum_{t=1}^T (y_t - r_D), 0]$ $r > r_D$ 일 때, $p \cdot \text{Max}[\sum_{t=1}^T (y_t - r), 0]$	0	→ 유배당의 배당금과 동일

주)  $r$  : 정기예금 금리,  $r_D$  : 배당보험 예정이율,  $r_N$  : 무배당보험 예정이율,  
 $p$  : 계약자 이익배분율,  $y_t$  : 실제 수익률

- 따라서, 계약자가 지불한 추가보험료(  $\gamma$  )와 유배당보험에 내재된 콜옵션의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이자율차배당의 적정성을 판단 가능

< 표 16 > 이자율차배당의 적정성 판단 기준

추가보험료 > 사전적 콜옵션가치	추가보험료 = 사전적 콜옵션가치	추가보험료 < 사전적 콜옵션가치
유배당계약자가 추가로 지불한 보험료보다 사전적 콜옵션의 가 치가 크기 때문에 당시 상황 에서 계약자가 비싼 보험료를 지불	적정한 가격	유배당계약자가 추가로 지불한 보험료가 내재된 콜옵션의 가치 보다 작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 계약자는 저렴한 보험료를 지불
추가보험료 > 사후적 콜옵션가치	추가보험료 = 사후적 콜옵션가치	추가보험료 < 사후적 콜옵션가치
유배당계약자가 추가로 지불한 보험료가 사후적 콜옵션의 가치 보다 크기 때문에 계약자는 추 가적인 이익배분 요구의 정당성 확보(이자배당 부족)	적정한 이차배당	유배당계약자가 추가로 지불한 보험료가 사후적 콜옵션의 가치 보다 작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익배분요구가 합리화되지 못함 (이자배당 충분)

## □ 분석결과

- ① 사전적으로 유배당보험에 내재되어 있는 옵션가치가 예정이자율  
차이의 가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유배당보험의 사전적 옵션가치는 예정이자율 차이에 비해 75%  
정도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② 사후적으로 볼 때, 계약자가 납입한 추가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배당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나타남
  - 유배당보험의 사후적 옵션가치는 예정이자율 차이의 가치에  
비해 175%를 상회하는 높은 가치를 보임
  - 한편, 이러한 결과는 사전적 옵션가치가 보수적으로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③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무배당보험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쌌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나, 생보사간 무배당보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무배당보험의 보험료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표 17> 현재 판매되는 무배당보험의 가격비교**

(단위 : %, 원)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유배당보험비중	48.3	44.9	23.3	42.4	2.1
무배당보험 가격	219	224	219	208	218

주1) 유배당보험 비중 : 2006년 3월 현재 유배당보험의 책임준비금 비율

2) 현재 판매중인 무배당종신보험 (남자 40세, 20년납, 가입금액 10만원)

### (3) 검토의견

- ☐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과거 계약자에게 과소 배당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인할 수 없음

### 3. 자산의 재평가 및 배분

#### 가. 논의배경

- 상장 전에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 후,
  - 과거 '90년 생보사 상장 논의과정에서와 같이 자산형성에 기여한 계약자 및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검토

#### 나. 상장 전 기존자산의 재평가

- '98년 시가회계제도의 도입으로 대부분의 자산은 시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부동산 등 일부의 경우만 장부가로 평가
  - 시가 평가로 인해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손익계산서\* 또는 대차대조표\*를 통해 계약자 몫과 주주 몫으로 구분하고 있음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파생상품평가이익 등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등

< 표 18 > 매도가능증권 등 평가손익('06.3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삼성	대한	교보	흥국	금호	신한	미래
계약자지분조정	30,630	1,733	101	100	225	56	-
자본조정	29,783	1,523	110	108	262	147	△29
매도가능증권 등 평가손익	60,413	3,256	211	208	487	203	△29

- 장부가로 계상하고 있는 부동산을 주식가치 산정을 위해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그 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것은 불가\*

※ 자산재평가법상 자산재평가제도가 폐지('00년)되어 동 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음

□ 만약, 회계기준 또는 법령을 변경하여 생보사 상장시 시가로 평가된 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 타산업과의 형평성 및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회계처리로 인해 국제적 정합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음

#### 다. 부동산 등의 평가차익의 계약자 배분 가능성

□ 부동산 장부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증액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으므로 주식가치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로 인해 발생한 평가차익을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 만약, 계약자 몫의 부동산평가차익 상당액을 주주 몫의 이익잉여금에서 배분할 경우,

- 향후 동 자산의 처분시 계약자에게 다시 배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 부동산의 미실현이익을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어 지급여력금액에 가산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면 재무건전성 악화가 야기될 수 있음

□ 과거 '90년 생보사 상장 논의 과정에서 재평가처리지침을 제정하여 계약자에게 평가차익 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한 것은

- 자산 처분시 계약자배당 재원 감소 문제<sup>※</sup>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에 배분한 것임

※ 자산 시가평가로 인한 장부가액 ↑ → 자산처분시 처분익 ↓ → 계약자배당 재원 ↓

< 표 19 > 자산 시가평가 여부에 따른 계약자 몫 비교(예시)

	매입가	시가 평가 후			처분시				계약자몫 의 합 (A+B)
		장부가	평가익	계약자몫 (A)	처분가	장부가	처분익	계약자몫 (B)	
원가평가	100	100	0	0	200	100	100	70	70
시가평가	100	150	50	35	200	150	50	35	70

주) 계약자 몫의 투자손익 비율을 70%로 가정

□ 결국, 부동산 등 미실현이익의 계약자 몫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이익에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관건

- 부동산 등의 처분은 상당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데다 최근 무배당보험 신규판매가 대부분인 상황이므로
- 현행 당기 준비금비율의 투자이익 배분기준에 의할 경우, 부동산 등의 투자이익 중 계약자 몫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sup>※</sup>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현재 구분계리 T/F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향후 개선방안이 제시될 계획

보험 22330-347

1990. 8. 28

## 생보사 자금차입 승인

6개 생보사(대한, 제일, 삼성, 흥국, 교보, 동아)가 증권금융(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당부에 승인 요청하였기 보험사 재산운용준칙 제36조에 의거 별첨 공문 사본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공문사본

귀사에서 신청한 증권금융(주)로부터의 자금차입을 보험사 재산운용준칙 제3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 다 음 —

#### 1. 차입 한도액

구 분	대한	제일	삼성	흥국	교보	동아	계
한도액	311	166	848	164	646	115	2,250

2. 차입기간: 1990. 9. 1~1990. 12. 31.

3. 차입이율: 연 10%

## 생보 22330-353 1990. 8. 31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 시달(통보)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을 제정·시달(통보)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 지침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의 배분·활용(이하 "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생명보험회사의 회계규정 및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K율"이라 함은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에서 추가로 더 적립한 금액"을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의 차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 제2장 잉여금의 처리

제4조(계약자배당전 잉여금) 계약자배당전잉여금(전기손익수정 사항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매사업년도 말에 회사가 직전 사업년도말 K율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확정배당등의 소요액을 우선 적립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

제5조(처리방법)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계약자배당전 잉여금중 주주지분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잔여부분을 계약자지분으로 처리한다.

1. K율이 100%이상인 회사, 30%이하
2. K율이 50%이상 100%미만인 회사, 20%이하
3. K율이 50%미만인 회사, 10%이하

제6조(주주지분의 처리) 주주지분은 법인세등의 납부재원, 결손보전 및 주주배당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주배당은 K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계약자지분의 처리) 계약자지분은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적립하거나, K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주주지분의 조정) 정기예금금리인하로 확정배당



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주주지분을 축소할 수 있다.

제9조(계약자배당전잉여금의 표시등) 회사는 매사업년도 결산기마다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내역을 결산승인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장 재평가 적립금의 처리

제10조(재평가적립금) 재평가적립금은 회사가 자산재평가법(조세감면규제법 제 56조의 2를 포함한다)에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에 재평가차익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과 재평가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말한다.

제11조(처리방법) 회사는 재평가적립금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처리후의 잔액은 유보한다.

1. K율이 100%이상인 회사는 주주지분을 30%이하로 하고 계약자지분을 40%이상 70%이하로 한다.
2. K율이 50%이상 100%미만인 회사는 주주지분을 20%이하로 하고 계약자 지분을 40%이상 80%이하로 한다.
3. K율이 50%미만인 회사는 주주지분을 10%이하로 하고 계약자지분을 40%이상 90%이하로 한다.

제12조(주주지분의 처리) 주주지분은 자본전입·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자지분의 처리) 계약자지분은 부채계정으로 처리하고 보험업법 제 97조 제3항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계약자지분중 1/3 이상을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처리하고 매년 동금액에 최근 3개 사업년도의 평균 자산운용수익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익사업 재원으로 출연한다.
2. 계약자지분중 제1호의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의 1/2을 재평가일 1일전 현재 2년이상 유지된 계약에 대하여 각각 당시의 보험료적립금에 비례하

여 계산한 금액을 계약의 만기 또는 환금금지급시에 당해 계약자에게 특별배당금으로 지급한다.

3. 계약자지분중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처리된 금액이 잔여분은 계약자배당 안정화준비금으로 처리하고 매사업년도의 계약자배당시 직전사업년도 수준의 계약자배당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자 배당재원으로 사용한다.

제14조(처리유보액의 처리등)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처리후의 잔액은 자본계정에 처리하여 결손보전 또는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유가증권분석등의 경우에 회사의 자기자본에서 제외하며 대차대조표의 주식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재평가 적립금중  $\times \times \times$ 원은 장래의 계약자배당에 사용될 재원으로서 회사의 자기자본에서 제외됨"

② 제1항의 금액을 계약자 배당재원으로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금액을 결손보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결손보전사용액은 주주지분이익으로 우선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제15조(재평가적립금의 처리계획등) ① 회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 인가신청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처리방법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지분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대상선정·출연재원의 관리등을 위하여 재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3조 제1호에 의한 공익사업에의 출연과 동조 제2호에 의한 특별 배당금의 지급은 회사가 자본 전입을 시작한 사업년도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처리는 1989년 1월 1일 이후 자산재평가 실시분부터 적용한다.

보험 22330-369 1990. 9. 12

## 수해지역 보험가입자에 대한 지원

1. 보험업법 제15조 규정에 근거하여 금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수해지역 보험계약자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2. 각사에서는 동 지원책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가. 지원 대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피해일 현재 유효한 계약)로서 '90. 10. 10 까지 해당보험회사에

신청하여 승낙을 받은 자

## 나. 조치 내용

## 1) 보험금의 신속 지급

- 보험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사망·사고 관련 증명서류를 행정기관의 확인 또는 인우증명등으로 간소화 하고
- 추정 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보험금 가지급) 하되, 직접 피해자를 방문하여 지급토록 함.

## 2) 보험대출 원리금의 상환유예

- 호우 피해일로 부터 '90. 12. 31 까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연체이자 면제)
- 납입유예된 대출원리금 '91. 1. 1 부터 '91. 6. 30 까지 분할하여 납부토록 함.

## 3) 보험료 납입 유예

- '90. 9월부터 '90. 12월분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연체이자 면제)

## 4) 약관대출

- 약관대출 신청시는 24시간 이내에 지급토록 조치

# 김 정 훈 의 원



## 1. 생명보험사 관련

### ① 생명보험사 상장에 관한 위원회의 입장

### ② 생명보험사 상장시 기대효과

### ① 생명보험사 상장에 관한 위원회의 입장

- ☐ 지난 2월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각계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상장T/F는 현행 법체제, 그간 상장논의 및 글로벌 스탠더드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증권선물거래소가 이를 토대로 거래소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면, 정부는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② 생명보험사 상장시 기대효과

- ☐ 우선, 생보사는 상장을 통하여 대규모의 자본조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대형화가 촉진됨으로써
  - 금융겸업화 시대에 은행 등 타 금융권과의 균형발전 및 글로벌 대형 생보사들과의 경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 또한, 생보사가 상장될 경우 각종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한편, 시장에 의한 경영통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증권시장에서는 우량 생보사가 상장됨에 따라 우량기업에 대한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증권시장의 체질이 개선됨으로써 우리 경제의 혈맥인 자본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이 생보사 상장을 통해 생보사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 증권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 생보사 상장 관련

- 1) 추진일지
- 2) 생보사 상장초안의 내용
- 3) 생보사 상장관련 자문위, 시민단체, 생보사간의 쟁점이 되는 내용
- 4) 생보사 상장에 대한 생명보험사의 입장
- 5)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회의내용, 상장초안의 외국회계법인 검증의뢰 계획의 내용
- 6) 향후 추진계획

- 자료 : 별 첨

## 1) 추진일지

시 기	내 용
'89. 4월	교보생명,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 실시
'90. 2월	삼성생명, 기업공개를 전제로 자산재평가 실시
'90. 8월	재무부,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 제정
'90.12월	재무부, 기업공개 보류 결정
'99. 8월	금융연구원 및 보험학회는 각각 생보사 상장관련 1차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99. 9월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
'99.12월	금융연구원 및 보험학회, 각각 2차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00.12월	생명보험회사 상장논의 유보
'03.6월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
'03.10월	생명보험회사 상장논의 유보
'06.2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
'06.7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공청회 개최(06.7.13일)

## 2) 생보사 상장초안의 내용

☐ <별첨1> 상장자문위원회 공청회 자료



### 3) 생보사 상장관련 생보사, 시민단체, 자문위원간의 쟁점사항

- ☐ 첫째, 생보사의 성격과 관련하여 생보사측은 법률상 주식회사라는 입장이며, 시민단체측은 과거 자본 확충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임
  - 자문위는 자본확충 여부와 계약자의 지위(채권자/주주)는 관계가 없는 등 생보사는 형식적·실질적 측면에서 주식회사라는 견해
- ☐ 둘째,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과 관련, 생보사는 법과 기준에 의거 배당을 해왔다는 입장이며, 시민단체는 과거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배당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등 배당이 불충분했다는 입장임
  - 자문위는 배당의 충분성 여부는 장기간에 걸쳐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배당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
- ☐ 셋째, 내부유보액과 관련, 생보사는 이는 회사 몫의 재원으로 계약자 배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시민단체는 계약자 몫의 자본으로서 주식 등으로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임
  - 자문위는 이는 계약자의 재원이나 그 성격이 부채이며 그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 ☐ 넷째, 장기자산의 손익처리와 관련, 생보사는 현행 구분계리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며, 시민단체는 신규 판매 상품에 한해 자산 구분계리를 도입하자는 입장임
  - 자문위는 구분계리T/F와 연계하여 장기자산 손익처리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

#### 4) 생보사 상장에 대한 생명보험사의 입장

- 금번 상장논의와 관련하여 생보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상장과 관련한 입장을 제시한 바가 없어 구체적인 입장을 알 수 없으나, 그간 제시된 생보사 측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생보사는 법적으로 주식회사이며, 상장시 계약자에게 주식을 배분하라는 주장은 “주주의 재산권 침해”로 인해 불가능하며
  - 90년 재평가차익중 내부유보액은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유보해 놓은 회사 몫의 재원으로 계약자 배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임

#### 5)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회의내용, 상장초안의 외국회계법인 검증의뢰 계획의 내용

-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금감위는 상장자문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 수 없으나
  - 약 30번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간 상장의 주요쟁점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난 7.13일 발표한 공청회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음

## 6) 향후 추진계획

- ☐ 지난 2월 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각계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상장T/F는 현행 법체제, 그간 상장논의 및 글로벌 스탠더드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 증권선물거래소가 이를 토대로 거래소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면, 정부는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생명보험회사 상장

2006. 7. 13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 < 목 차 >

### I. 생보사 상장 개요

### II. 국내 생보사의 성격

1. 논의 배경

2. 법적 형태

3. 실질적 운영 방식

4. 종합의견

### III. 계약자배당과 관련된 쟁점사항

1. 내부유보액의 처리

2.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3. 자산의 재평가 및 배분 여부

# I. 생보사 상장 개요

## 1. 논의경과

- 생보사들이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80년대 중반부터 생보사 상장에 관해 수차례의 논의가 있었으나, 생보사 성격에 대한 견해 차이 등으로 인해 상장 유보
  - 교보('89)와 삼성('90)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으나, '90년말 증시침체 등 여건악화로 상장 추진 보류
  - 삼성자동차 처리('99) 및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기한 도래('03)에 따라 생보사의 상장문제가 재논의되었으나,
    - 생보사 성격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하여 상장방안 결정 유보
- '06.1월, 정부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거래소 산하에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현행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을 근거로 생보사 상장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35조):**

거래소는 법인의 주권상장이 공익과 투자자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2) 이익배분 등에 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것

- '06.2월에 구성된 상장자문위원회\*는 현행 법체계, 과거의 논의 내용,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론적·실증적 분석 및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상장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제시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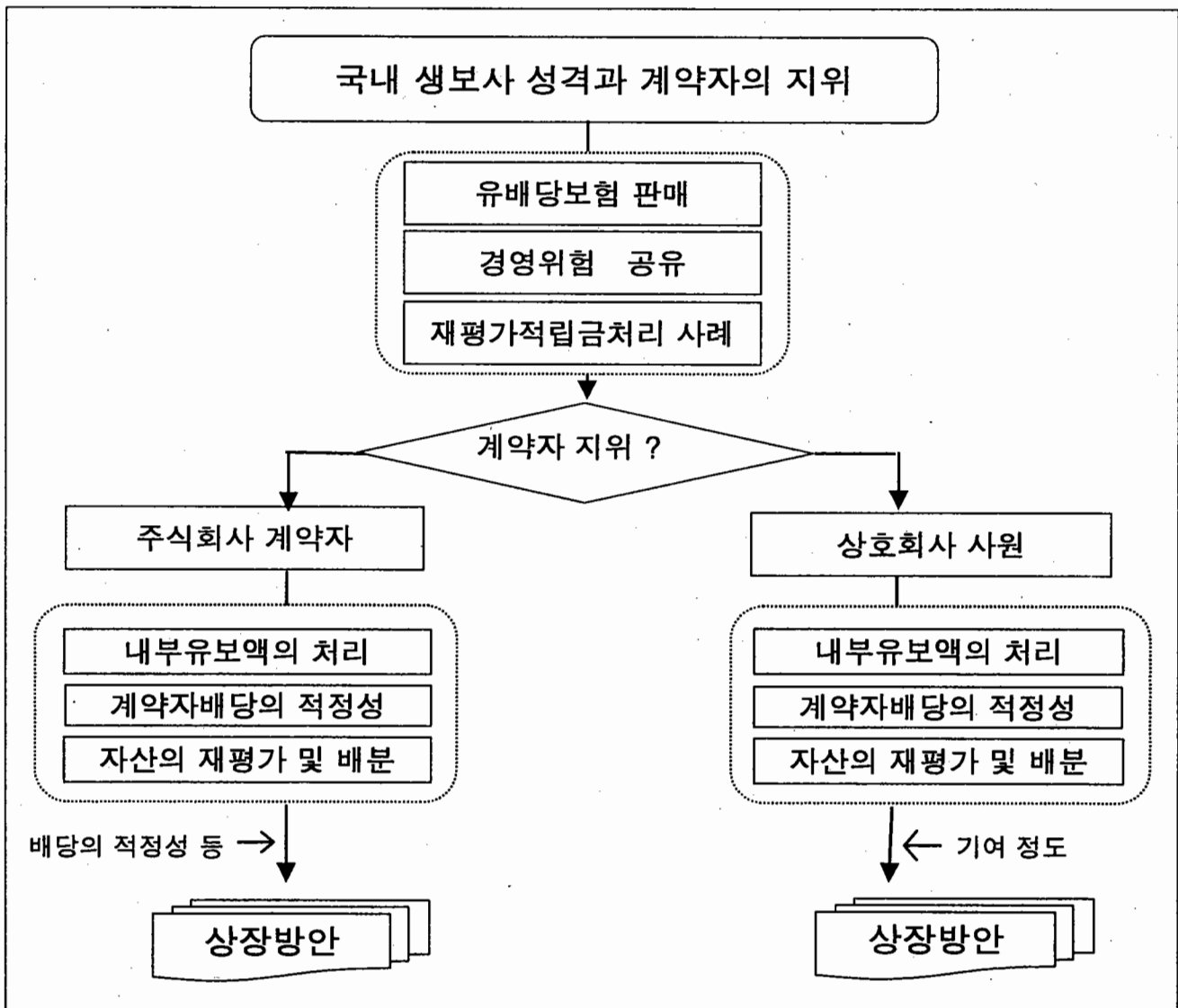
※ 법률, 보험, 재무, 회계·계리, 유가증권상장 분야 전문가로 구성

## 2.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검토 방향

□ 상장자문위원회는 과거 상장추진 과정에서 제시된 논의들을 토대로 국내 생보사의 성격과 그에 따른 계약자 지위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검토

- 내부유보액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자산의 재평가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그림 1 > 생보사 상장관련 검토 방향



## II. 국내 생보사의 성격

### 1. 논의 배경

- 국내 생보사는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지만 상호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어, 국내 생보사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과거의 보험관련 법규 및 감독정책, 국내 생보사의 운영방식, 외국의 사례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검토

### 2. 법적 형태

- 국내 생보사는 법인의 설립 형태면에서 살펴보면, 상법 및 보험업법에 의하여 주주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 국내 생보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주금을 납입한 주주로 구성된 주주총회이며, 업무집행기관 또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대표이사
  - 반면, 보험업법상 상호회사는 보험계약자로 구성된 사원총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며, 업무집행기관 또한 사원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대표이사
- 계약자의 권리·의무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생보사의 계약자는 상호회사의 사원과 같은 의결권이 없고, 주주로서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등 상호회사의 사원과는 차이가 존재
  - 또한, 국내 생보사의 계약자는 청산시 여타 채권에 비해 보험금 등의 선취권이 인정되고, 주주는 법률에 의한 주식의 무상소각·파산으로 인한 투자원금 손실 위험을 지게 됨



- 반면, 보험업법상 상호회사 사원은 의결권을 가지며 일반채권자보다 후순위의 잔여재산 청구권을 가짐

□ 따라서, 국내 생보사는 법인의 설립 및 출자관계, 의사결정기구,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상법 및 보험업법상 주식회사가 아님을 인정하기 어려움

< 표 1 >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간 차이점 비교

구 분		주 식 회 사	상 호 회 사
법인의 성격		상법에 의거 설립된 영리법인	보험업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
설립시의 출자관계		회사구성원인 주주가 출자한 자본 (자기자본)	기금각출자에 의해 각출된 기금 (추후 동일한 금액의 적립을 조건으로 기금상각 가능)
구성원		주주	사원( = 보험계약자)
최고 의사결정기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업무집행기관		이사회	이사회
회계감사기관		감사	감사
계약자 권리	의결권	없음	사원당 1표(정관으로 별도 규정 가능)
	청산시 잔여재산 청구권 순위	일반채무보다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 순위가 선순위	일반채무보다 사원의 보험금 청구권 순위가 후순위
계약자 의무	채권자에 대한 의무	없음	납입한 보험료를 한도로 책임
	회사 지급불능시	여타 채권에 비해 보험금 등의 선취권은 보유하나, 회사재산이 보험금지급 등에 부족시 일부 삭감 발생 가능	원칙적으로 보험금 등의 삭감 가능

### 3. 실질적 운영 방식

#### 가. 유배당보험 위주의 판매

- '92.8월 이전까지 유배당보험의 판매만이 허용
  - '92.8월부터 보장성보험 및 양로보험에 한하여 무배당보험이 허용되었으며, '00.4월 이후 모든 상품으로 확대
- 과거에 주식회사인 생보사가 유배당보험 위주로 판매한 것은 당시의 환경과 제도에 기인
  - 국내 생명보험산업은 초기에 보험료를 산출에 필요한 통계가 부족하고 금리변동성이 높은 등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유배당보험 판매만을 허용
- 유배당보험은 이익을 계약자에게 환원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당검증비용(Verification Cost)\*이 발생

※ 이익의 원천과 규모 등을 검증하는 비용

- 이에 따라 계약자와 주주간 이익배분문제가 발생하는 주식회사 보다는 상호회사에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
- 그러나 경쟁심화, 위험의 불확실성 증가 등 보험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험사의 설립형태와 관계없이 생보사의 경영정책에 의하여 유·무배당보험을 자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국내의 보험시장 환경 및 외국의 생보사 설립형태별 판매 상품을 감안할 때, 유배당보험의 판매는 생보사의 설립형태와는 무관

< 표 2 > 외국생보사(주식/상호회사)의 판매상품 현황

(단위 : % )

구 분		회 사	설립연도	판매상품 비중	
				유배당	무배당
미국	주식회사	Nationalwide Life Ins. Co.	1929	44	56
		State Farm Life Ins. Co.	1929	100	0
		Canada Life Ins. Co.(N.Y)	1971	93	7
		Hartford Life Ins. Co.	1902	73	27
		Lincoln Life Ins. Co.	1905	1	99
	상호회사	Metlife	1868	89	11
일본	주식회사	협영생명	1945	100	0
영국	주식회사	Prudential Ass.	1848	85	15
대만	주식회사	國泰人壽	1962	100	0

주) 판매상품 비중은 '96~'97 신계약 기준

## 나. 계약자가 주주지위로서의 경영위험 부담 여부

### (1) 자본금 및 자기자본

□ '90년이전 기존 생보사의 자본금\*은 자산규모에 비해 낮은 수준

※ 자본금의 상당부분은 자산재평가를 통해 충당

○ 또한 대부분의 보험사가 특정기간에 자기자본이 잠식된 상태

< 표 3 > 기존 생보사 자기자본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A사	1.8	1.5	1.0	△3.9	△11.2	△12.4	△13.6	△14.6	△15.3	△15.8
B사	0.4	0.1	0.3	0.3	0.2	0.2	5.0	5.0	10.0	63.2
C사	1.5	2.0	5.0	5.0	5.0	5.0	5.0	5.0	△27.9	△28.3
D사	5.0	5.0	5.2	5.0	5.0	5.0	5.0	3.8	4.4	7.1
구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A사	△16	△40	△332	△667	△1,184	△1,170	△566	△225	△116	△17
B사	84	0.1	91	146	191	225	245	631	935	2,906
C사	△27	△20	△71	△128	△142	△142	△33	15	17	11
D사	49	△7	77	53	66	110	321	1,052	3,460	2,687

□ 그러나 계약자는 생보사의 파산과 관련하여 사전적으로 채권자로서의 위험만을 부담하고, 사후적으로도 경영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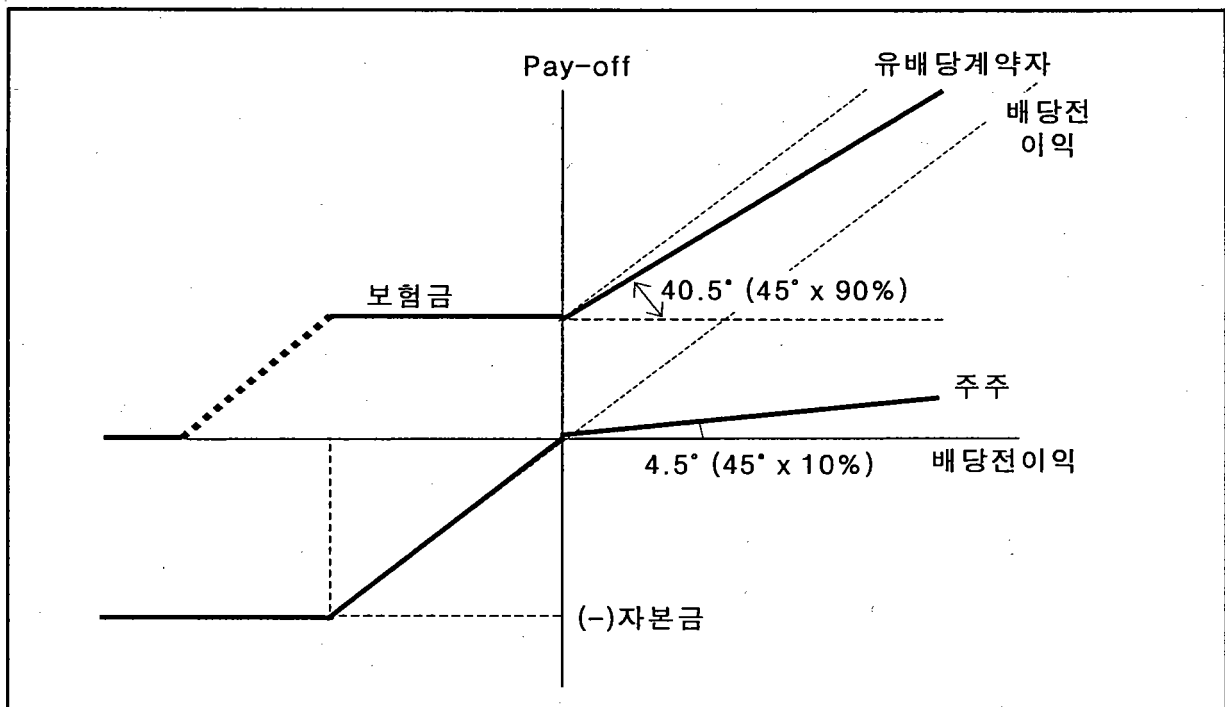
① 사전적으로 계약자는 채권자로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보험금을 보장받을 권리를 보유

○ 생보사의 파산시 계약자가 보험금액의 삭감 등 위험을 부담할 경우에도, 이는 채권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주주로서의 위험부담\*과는 상이

※ 주주는 자기자본의 범위내에서 위험을 부담

- 아울러, 계약자보호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의 위험 부담도 상당부분 경감

< 그림 2 > 주주와 계약자의 이론적 Pay-off Structure



- ② 사후적 관점에서 외환위기 당시 생보사 파산사태를 보더라도 계약자는 보험금 삭감이나 보험료 증액 등의 채권자로서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 태평양 등 5개 생보사 계약자의 경우 계약이전방식으로 보호됨

- 반면 주주는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으며, 파산시 주식을 무상소각 당하는 등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위험을 부담\*

※ 제일생명 : 조양상선그룹이 인수('73, 2억→5억으로 증자)

흥국생명 : 태광그룹이 인수('73, 2억→5억으로 증자)

(舊)고려생명 : 자산과 부채를 동해생명으로 포괄이전후 청산('73)

□ 한편, '90년 이전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생보사를 운영할 경우, 자발적 증자의 유인이 약함

○ 재무부장관은 사업규모 및 자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생보사에게 증자 명령을 할 수 있었음에도 증자명령을 하지 않음

□ 타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자본잠식이 상당기간 지속<sup>※</sup>되었음에도 주식회사의 속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는 없음

※ A손해보험사는 '82~'95년, B은행 '83~'84년, C리스사 '89~'03년 자본잠식 상태

□ 상기 사항을 감안할 때, 생보사의 자기자본 잠식 사례를 이유로 계약자가 주주로서의 경영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일부 보험사는 장기간 자본잠식이 지속됨으로써 투자수익이 감소하여 계약자배당이 부족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 배당재원을 이용한 결손보전

- ☐ 계약자배당은 보험상품의 장기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계약자배당은 장래손익 전망 등을 기초로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특정기간에 이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미래에 손실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유배당보험에서 누적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에 발생하는 유배당보험 이익으로 보전하는 것이 일반적
- ☐ 외국의 경우에도 유배당보험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배당보험 이익을 미할당잉여금 형태로 유보하는 것이 일반적
  - 유배당보험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미할당잉여금을 사용

### < 참조 1 > : 감독회계상 주식회사의 유배당보험 손익처리(캐나다, 미국)

- 대차대조표의 자본계정을 '계약자지분 계정(policyholder's equity 또는 participating surplus fund)'과 '주주지분 계정(stockholder's equity 또는 stockholder's fund)'으로 양분하고,
- '계약자지분 계정'내에 누적손실(이익)을 계상하여 추후에 발생하는 이익으로(손실을) 보전
- '주주지분 계정'에는 유배당보험 이익 중 주주지분(예:10%)이 계상되며, 계약자지분 계정에 누적결손이 있더라도 이익이 발생한 년도에는 주주지분을 확보

- ☐ 따라서 유배당보험의 이익으로 결손을 보전한 점을 경영위험 공유로 보기 어려움
  - 다만, 국내 생보사가 과거 손익과 비교하여 계약자배당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3) 계약자보호제도의 불비

- ☐ 이론적으로 볼 때, 계약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 파산시 금융소비자(채권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치\*

※ 계약자보호제도가 있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위험부담 감소

- 생보사에 있어서도 계약자보호제도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계약자의 지위가 변경(계약자 → 주주)되는 것은 아님

- ☐ 외환위기 당시 생보사의 파산시에도 계약자는 보험금 삭감 또는 보험료 증액 등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 반면, 부실 생보사 주주는 주식을 무상 소각당하는 경영위험을 부담

- ☐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는 타금융권에 앞서 계약자보호제도\*가 도입

※ '62년 공탁금제도('77년 폐지, 다만 재경부장관의 예탁명령권 및 예탁재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유지), '88년 계약자보호예탁금제도, '89년에는 보험보증기금제도 및 보호예탁금제도가 도입

※ 은행권은 '96년부터, 상호신용금고 등 단기금융회사는 '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 ☐ 계약자보호제도는 소비자보호제도로서 계약자의 경영위험 부담 논란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다. 재평가적립금 처리

- ☐ 교보('89)와 삼성('90)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
- ☐ 당시 재무부는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계약자와 주주간 합리적인 이익배분을 위해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90.8월)」(이하 '재평가처리지침'이라 함)을 제정
  - 보험업법(§97 ③)에서는 재평가적립금에 대하여 계약자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재평가적립금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간 구체적 배분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

< 표 4 > 재평가적립금의 배분기준(재평가처리지침, '90.8)

K율	주 주	계약자	내부유보
100%	0~30%	40% 이상	잔여분
50~100% 미만	0~20%	50% 이상	"
50% 미만	0~10%	60% 이상	"

- ☐ 당시 재무부는 '주식회사 형태인 생보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계약자는 회사에 대하여 시설이용, 보험금청구 등 채권자의 위치에 있다'\*는 입장

※ 생보사 기업공개에 관한 시각(90.3월, 재무부) : “재평가적립금 및 당기 이익의 계약자·주주간 배분기준” 마련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견해들을 수렴하여 발표된 자료

□ '90년 당시 부동산 재평가적립금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한 것은 부동산 재평가지 장부가액(book value)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 계약자에게 재평가적립금을 배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이 처분될 경우, 계약자 몫이 줄어들기 때문
- 즉, 재평가적립금의 주주·계약자 배분도 통상의 경상이익 배분과 동일하게 이루어 짐

< 표 5 > 재평가적립금 배분여부에 따른 계약자 몫 비교(예시)

	매입가	재평가 후			처분시			계약자 몫의 합 (A+B)
		장부가	평가의	계약자몫 (A)	처분가	처분의	계약자몫 (B)	
배분시	100	150	50	35	200	50	35	70
미배분시	100	150	50	0	200	50	35	35

주) 계약자 몫의 투자손익 비율을 70%로 가정

< 참조 2 > 재평가적립금 배분이유(생보사 기업공개에 관한 시각, 재무부, '90.3)

- 재평가차익도 경상이익과 같이 자본금의 투자수익, 계약자의 기여 및 주주·경영자의 경영노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 그 배분도 주주와 계약자 그리고 회사의 경영안정성을 위한 사내 유보방법으로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함

□ 따라서 “재평가처리지침”에서 재평가적립금중 계약자 몫을 인정한 것은 일종의 경상이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으로서, 생보사의 주식 회사적 성격을 부인한 사례로 보기 어려움

#### 4. 종합의견

□ 국내 생보사 성격에 대하여 형식적·실질적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부인하기 어려움

- 주식회사 계약자와 상호회사 사원은 권리와 의무에 차이가 있음
- 유배당보험의 판매는 생보사의 설립형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 유배당보험 이익으로 유배당보험 결손을 보전하는 것은 유배당보험 운영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
- 생보사의 자본잠식 및 계약자보호제도의 불비가 계약자와 주주의 지위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님
- 재평가처리지침 제정 과정에서 계약자 몫을 인정한 것은 계약자 배당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도 경상이익 배분기준에 준하여 배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다만, 과거 생보사의 자본잠식, 배당재원을 이용한 결손보전 등으로 인하여 배당이 부족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 과거 계약자배당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자배당과 관련된 여타 요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Ⅲ. 계약자배당과 관련된 쟁점사항

#### 1. 내부유보액의 처리

##### 가. 논의 배경

- ☐ 생보사 상장과 관련, '90년 재평가처리지침에 따라 적립된 내부유보액의 성격 및 처리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음
- ☐ 따라서,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평가처리지침의 구체적 내용 및 당시의 정부 입장 등을 검토하여 그 성격과 역할에 부합하는 처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나. 내부유보액 현황

- ☐ 교보와 삼성이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처리지침”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중 일부(삼성 878억, 교보 662억)를 내부에 유보
- ☐ 재평가처리지침에서는 내부유보액의 처리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 참조 3 > 내부유보액의 처리방법(재평가처리지침, '90.8)

- ① 내부유보액은 자본계정에 계리(지침§14①)
- ② 내부유보액은 유가증권 분석 등의 경우에 회사의 자기자본에서 제외(지침§14①)
- ③ 대차대조표 주석사항으로 장래의 계약자배당에 사용될 재원임을 명시(지침§14①)
- ④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계약자배당 실시 가능(지침§14②)
- ⑤ 결손보전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결손보전에 사용된 금액은 향후 발생하는 주주지분이익으로 우선 보충해야 함(지침§14③)

< 표 6 > 교보와 삼성의 재평가적립금 처리 내역

구분	교보('89)		삼성('90)	
	금액(억원)	비율(%)	금액(억원)	비율(%)
재평가차액	2,265	-	3,017	-
재평가세 등	(68)	-	(91)	-
재평가적립금	2,197	100.0	2,927	100.0
주주지분 배분	656	29.9	876	29.9
계약자지분 배분	879	40.0	1,173	40.0
공익사업출연	300	40×34.2	391	40×33.3
재평가특별배당	289	40×32.9	391	40×33.3
배당안정화준비금	289	40×32.9	391	40×33.3
내부유보	662	30.1	878	30.0

#### 다. 내부유보액의 성격

- 재평가처리지침상 내부유보액은 재평가적립금중 계약자·주주 배당후 잔여분으로서 “회사의 준비금”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 궁극적으로 계약자배당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사에 유보된 “계약자 몫”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 내부유보액은 궁극적으로 계약자배당에 사용될 재원으로 결손 보전에 사용되더라도 추후 주주가 다시 보충토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채적 성격을 부인하기 곤란
  - 특히, 결손보전후 주주가 다시 보충토록 한 것은 주주에게 한시적으로 credit-line 기능만을 제한적으로 부여한 것에 불과

□ 전술한 바와 같이 '유배당보험에서 발생한 손실은 유배당보험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유배당보험의 특성임을 감안할 때,

- 계약자 몫인 내부유보액이 결손보전에 사용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적 성격을 인정하기는 곤란

□ 아울러 내부유보액이 자본잉여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나, 재평가 처리지침상 통상적인 자본과 달리 대차대조표의 주석으로 자기자본에서 배제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 내부유보액은 계약자 몫의 "자본"이라기 보다는 미국·캐나다 감독회계에서 나타나는 계약자 몫의 "미할당잉여금\*"과 유사

※ 미국·캐나다의 경우, 계약자 몫의 미할당잉여금(계약자에 대한 미래 배당재원으로 사용 : 부채)을 감독회계에서 자본계정으로 처리

< 참조 4 > 내부유보 이유 (생보사 기업공개에 관한 시각, 재무부, '90.3)

- 90년 부동산재평가차익은 미실현이익이므로 계약자 배당형태로 전액 사외유출할 경우, 회사의 계속성,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계약자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보험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회사전체의 재무적 안전성(일정금액의 내부유보)을 우선 고려한 후 주주 또는 계약자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한편, 내부유보액은 지급여력금액 산정시 자기자본에 합산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지급여력금액에는 자기자본 이외에 “확정되지 않은 부채<sup>※</sup>”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 계약자에 대한 부채인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 계약자지분조정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은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지급여력금액에 가산(보험업감독규정 §7-1)

※ 미국의 경우, 특정계약자에 할당되지 않는 미할당잉여금은 청산시 잔여재산 청구 우선순위에서 주주의 청구권과 동일한 순위에 해당되며 지급여력 금액에 가산(뉴욕주 보험법 §7435(a))

- 상기사항을 감안할 때 내부유보액은 계약자에 대한 부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며,

- 관련기관의 해석을 구하여 현행 자본계정에서 부채계정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2.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 가. 논의 배경

-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배당재원으로 결손을 보전하는 등 과소배당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존재
  -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은 보험상품의 장기성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검토할 필요
- ☐ 따라서, 과거 생보사의 손익발생 추이 및 계약자배당 내역, 외국의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당의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함

### 나. 계약자배당 현황

- ☐ 계약자배당이 자유화되는 '90년대초 이전까지 회사의 이익규모와 관계없이 정부의 배당지침에 따라 배당을 실시
  - 계약자배당 자유화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이익이 부족한 생보사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타생보사와 동일수준의 배당 실시
- ☐ 이에 따라 배당지침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을 시현한 생보사도 초과이익금에 대하여 계약자 배당을 실시하지 않음
  - ※ 배당전이익이 발생하였으나, B사는 '77년~'78년 및 '80년~'81년, C사는 '78년~'81년 동안 확정배당 이외의 계약자배당을 실시하지 않음(□)
  - 반면, 일부 생보사는 배당전손실이 발생하거나, 결손이 누적된 경우에도 계약자배당을 실시
    - ※ B사는 '82년~'83년에, C사는 '82년에, A사 및 D사는 '85년까지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익규모를 초과하여 확정배당 등 계약자배당을 실시(▣)



< 표 7 > '77 ~ '83년 손익 및 계약자배당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77	'78	'79	'80	'81	'82	'83
A사	확정배당전손익	△1	△6	5	35	47	△76	△244
	계약자배당	0	1	6	35	47	16	20(7)
	확정배당후손익	△1	△7	△1	△0	0	△92	△264
B사	확정배당전손익	2	1	6	103	156	△78	△17
	계약자배당	0	0	6	50	135	6	27
	확정배당후손익	2	1	0	53	21	△84	△44
C사	확정배당전손익	0	7	40	142	223	△7	143
	계약자배당	0	6	34	135	203	46	39(16)
	확정배당후손익	0	1	6	7	20	△53	104
D사	확정배당전손익	△1	0	1	6	14	2	△37
	계약자배당	0	0	1	6	14	27	10
	확정배당후손익	△1	△0	△0	△0	0	△25	△47

주) 계약자배당은 확정배당과 사차배당의 합이고, 괄호 내는 사차배당

- '90년 주주·계약자간 이익배분기준이 마련되면서 누적결손이 발생할 경우 주주지분으로 결손을 우선 보전한 후, 잔여결손에 대하여 계약자지분으로 보전
- 기존 생보사의 경우에는 부실규모가 큰 일부회사를 제외하고는 계약자지분을 결손보전에 사용하지 않음
  - '80년대말 신설된 생보사의 경우에는 설립 후 상당기간 동안 적자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배당전이익을 결손보전에 사용

< 표 8 > 계약자지분을 이용한 결손보전 등의 현황(이익배분기준 마련후)

(단위: 억원)

구 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총계
기 존 생 보 사	A사	결손보전																	0
		추가배당			49				603	344									996
	B사	결손보전	32	110	73										2,100	872			3,187
		추가배당				44	24	32	30	93	137		131	658					1,149
	C사	결손보전																	0
		추가배당			54	63	51	37	6	25	44			32		2	3		317
신 설 생 보 사	D사	결손보전													292	118	55	66	531
		추가배당	1	7	7	11	11	17	19	14	27	34	12	30					189
	E사	결손보전											414						414
		추가배당			2	12	2	31	34	26	49	78		62	41	10	18	25	390
	F사	결손보전														111	130	97	338
		추가배당		3	6	9	5	6	9	7	22	48	27	63					205

주) 결손보전 : 계약자지분의 결손보전액, 추가배당 : 결손시 배당액 + 이익배분기준 초과배당액

□ 외국에서는 유배당보험의 결손을 미할당잉여금에 계상토록 한 후  
향후 발생하는 유배당보험의 이익으로 결손을 보전\*

※ 우리나라는 '90년 이후 누적결손을 주주가 우선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 누적  
결손을 전액 계약자가 보전하는 외국에 비해 계약자에게 유리

## < 참조 5 >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익배분방식 비교

### ① 미국 뉴욕주(감독회계기준)

- 유배당보험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90%는 계약자 몫 10%는 주주 몫
- 유배당보험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액 계약자가 부담

< 예시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배당전손익	1,000	△1,000	△1,000	1,000	1,000
계약자 몫	900	△1,000	△1,000	900	900
주주 몫	100	-	-	100	100
계약자잉여금 <sup>(주)</sup>	900	△100	△1,100	△200	700
주주잉여금	100	100	100	200	300
비 고	9:1 배분	당기손실 계약자부담	당기손실 계약자부담	9:1 배분	9:1 배분

주) 손실을 차기로 이월하며, 장래손익전망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배당률을 자율적으로 결정

### ② 우리나라('90년 이후)

- 유배당보험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 누적결손이 없는 경우 : 계약자 몫을 계약자배당재원으로 활용
  - 누적결손이 있는 경우 : 주주 몫으로 누적결손을 우선 보전하고도 잔여 결  
손이 있는 경우 계약자 몫으로 잔여누적결손을 보전

< 예시 >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배당전손익	1,000	△1,000	△1,000	1,000	1,000
계약자 몫	900	-	-	900	900
주주 몫	100	△1,000	△1,000	100	100
계약자잉여금 <sup>(주)</sup>	900	900	900	900	1,000
주주잉여금	100	△900	△1,900	△900	-
비 고	9:1 배분	당기손실 주주부담	당기손실 주주 부담	주주부담(100)후 계약자부담(900)	주주부담(100)후 계약자부담(800)

주) 계약자잉여금은 누적결손 보전에 사용할 수 없고, 5년 이내 계약자배당으로 사용

□ '90년 이전에는 초기 보험시장 형성과정과 외형성장 위주의 영업 정책으로 인하여 초과사업비가 발생

○ 특히, '80년대에는 '82년 금리인하조치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정부가 예정사업비율을 인하함으로써 사업비차 손실이 확대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생보사의 사업비율은 일본에 비해 '80년 이전 까지 높았으나, 예정사업비 인하 이후에는 낮은 수준으로 하락

< 표 9 > 한국과 일본의 사업비율 추이 비교

(단위 : %)

구 분	'70	'75	'80	'85	'90	'95	'00
한 국	32.0	31.2	24.0	13.8	11.7	18.2	14.9
일 본	25.9	27.8	23.8	17.9	15.4	13.8	14.1

주)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자료) 한국은 보험통계연감, 일본은 생명보험사업개황으로부터 작성

□ 보험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비율이 정상화되면서, '90년 이후에는 사업비차이익이 발생

○ 다만, 신설사는 설립 후 10년 이내에서 대부분 초과사업비가 발생

□ 한편, 투자수익률\*과 관련하여서는 계열사 지원 등으로 인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한 생보사도 있는 반면, 계열사의 주가 상승으로 계약자의 이익을 증진시킨 경우도 존재

※ 생보사의 대출수익률은 전반적으로 은행의 대출수익률 보다 1~2%p 높은 수준

□ 따라서, 상기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유배당보험 손익과 계약자배당액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의 계약자배당율을 산출할 경우, 대부분의 생보사가 90% 수준을 상회하는 배당을 실시
-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한 분석은 과거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고 있는 재무·계리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

< 표 10 > 계약자배당률의 추정(회사설립 ~ '05.12)

(단위 : %)

구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배당율	89%	100% ↑	88%	114%	100% ↑	100% ↑	100% ↑

주1) 계약자배당률 = 계약자배당액 현재가치 ÷ 유배당보험 손익의 현재가치

2) 100%↑는 유배당보험 손익의 현재가치가 (-)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배당을 실시한 것을 의미

## 다. 배당의 적정성 검토

◇ 과거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금흐름분석을 이용한 자산할당 (Asset Share)방법과 옵션모형을 이용한 유·무배당보험상품 비교를 통하여 배당의 적정성을 검토

### (1) 자산할당(Asset Share)방법을 이용한 배당의 적정성 검토

#### □ 분석대상

- 기존 생보사와 신설 생보사로 구분하여 7개 회사를 선별

#### □ 자산할당(Asset Share, 이하 'AS'라 함) 방법

- AS란, 과거의 순현금흐름과 투자이익을 합산하여 누적한 금액
- AS는 분석대상회사의 회사 설립당시부터 '05.12까지 이원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 투자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흐름은 유배당보험 현금흐름, 무배당보험 현금흐름 및 자본 현금흐름으로 직접 귀속이 가능하므로 각각에 직접 귀속
  - 자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므로, 투자이익은 유배당/무배당/자본 계정별 AS에 회사 전체 투자이익률을 곱하여 산출
  - 자본이 완전잠식된 경우에는 자본계정의 투자이익이 (-)로 계산되고, 그 해당액만큼 유배당보험 계정의 투자이익이 증가

## < 참조 6 > 자산할당(Asset Share)

- 자산할당(Asset Share)방법은 일정한 전제하에 각 보험계약으로 할당한 자산액을 이용하여 생보사의 자산형성에 기여한 공헌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 자산할당(AS)이란, 전체 보험계약을 보험수리상 동질적인 보험계약집단으로 구분하고, 운용이율, 사망률, 사업비, 효력상실해약률 등의 실적을 바탕으로 각 집단의 누적현금흐름을 산출한 것
- 즉, 각 보험계약(유배당보험, 무배당보험)의 AS는 과거의 순현금흐름과 이에 대한 총자산이익률 기준의 투자이익을 합산하여 누적한 금액으로 산출
 

예) 유배당보험 AS =  $\sum(\text{수입보험료} + \text{투자이익} - \text{지급보험금} - \text{해약환급금} - \text{사업비} - \text{계약자배당금} - \text{주주귀속잉여})$
- Net Asset Share(혹은 Surplus)를 「Asset Share - 책임준비금」으로 정의하여, 각 계정의 공헌도를 측정가능

### □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판단기준

- 보험사의 경영이 보험료 설정당시의 가정대로 이루어진다면 AS와 책임준비금 수준은 유사
  - 그러나 실현손익에 대해 배당수준이 과도하거나 과소할 경우 AS와 책임준비금간에는 차이가 발생
- ※ 사업비나 투자수익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보험사가 조정할 있는 요소는 계약자배당이라고 가정
- 즉, 「AS - 책임준비금」으로 정의된 Net AS가 음(-)이면 배당금이 경영실적과 비교하여 과다(혹은 적정) 지급된 것이며, Net AS가 양(+)이면 배당금이 과소 지급된 것으로 해석

## < 참조 7 > 계약자배당 적정성 판단기준

과다(또는 적정) 배당	과소 배당
Asset Share < 책임준비금	Asset Share > 책임준비금

□ 분석결과 1 : 원가AS\*와 현행 책임준비금

※ 원가 AS는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이 포함되지 않은 AS

< 시나리오 1 > : 주주가 결손을 매년 보전하지 않는 경우

- 계약자의 자산형성 기여도인 AS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결손을 보전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합리적
- 분석결과, 분석대상 모든 생보사에서 Net AS가 음(-)으로 나타나므로 평가손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과거 배당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표 11 > 주주의 결손보전이 없다는 가정하의 Net AS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Net Asset Share	(-)	(-)	(-)	(-)	(-)	(-)	(-)

< 시나리오 2 : 시나리오 1 + 초과사업비를 주주가 부담 >

- 초과사업비 사용으로 인한 배당재원의 감소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초과사업비를 주주가 부담한다고 가정
- 분석결과, D사를 제외한 분석대상 모든 생보사에서 Net AS가 음(-)으로 나타나므로 평가손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업비 과다집행으로 인하여 계약자배당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표 12 > 초과사업비 주주 부담 가정하의 Net AS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Net Asset Share	(-)	(-)	(-)	(+)	(-)	(-)	(-)

< 시나리오 3 : 시나리오 1 + 계약자의 이익배분비율을 90%로 소급하여 적용 >

- 과거의 계약자 이익배분비율(70% 또는 85%)이 현재에 비해 낮았던 점을 고려하여, 회사설립 당시부터 현행수준(90%)의 이익배분이 이루어졌다고 가정
- 분석결과, 분석대상 모든 생보사에서 Net AS가 음(-)으로 나타나므로 평가손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행수준의 이익배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과거 배당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표 13 > 현행 이익배분기준 가정하의 Net AS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Net Asset Share	(-)	(-)	(-)	(-)	(-)	(-)	(-)

< 참조 8 > 주주가 유배당결손을 부담하는 경우의 AS 분석

- Net AS가 음(-)인 A사·C사·F사의 경우 과거 배당이 적정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 Net AS가 양(+)인 B사·D사·E사·G사의 경우 논리적으로 과거 배당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주주의 결손보전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한 후 배당의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

< 주주에 의한 결손보전시 Net Asset Share >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Net Asset Share	(-)	(+)	(-)	(+)	(+)	(-)	(+)

- 즉, B사·D사·E사·G사의 경우, 계약자배당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1과 비교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 주주가 결손을 보전하게 되면 결손보전액만큼 유배당 AS가 커지게 되므로, 주주의 결손보전이 큰 경우 계약자배당을 적정하게 하였더라도 AS가 커져서 Net AS가 양(+)이 되는 현상이 발생



## □ 분석결과 2 : 시가AS와 GPV※

※ GPV(Gross Premium Valuation, 영업보험료식 책임준비금) : 향후 금리, 위험률 및 사업비 등 현재시점의 최선의 기초율에 의거하여 평가시점에서 재산출한 책임준비금을 의미하며, 시가준비금으로 해석될 수 있음.

- AS를 계산할 때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을 포함(시가 AS)할 경우, 부채도 시가로 평가(GPV)하여 비교하는 것이 일관성의 원칙에 부합
- '시가AS - GPV'를 Net AS로 정의하며, Net AS로 미래를 포함한 전체 분석기간 동안의 배당의 적정성을 평가
  - Net AS가 음(-)이면 향후 배당재원이 충분치 않다는 의미
- 분석결과, 분석대상 모든 생보사에서 Net AS가 음(-)으로 나타남
  - 이는 기존 유배당보험에서 향후 결손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 배당의 적정성 측면에서 보면 미래배당재원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의미

< 표 14 > 유배당보험의 배당재원 충분성 검토(할인률 5% 가정)

구 분	A	B	C	D	E	F	G
Net Asset Share	(-)	(-)	(-)	(-)	(-)	(-)	(-)

## (2) 옵션모형을 이용한 적정성 검토

### □ 분석대상

- 예정이율만 차이가 있고 급부가 동일한 유배당보험과 무배당 보험을 비교 분석

### □ 분석방법

- '유·무배당보험간 예정이자율 차이\*와 계약자배당 청구권의 콜옵션가치를 비교하여 이자율차배당의 적정성을 분석

※ 유배당보험(7.5%)과 무배당보험(8.5%)의 보장이율 차이(1%p)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계약자배당 청구권 구입을 위해 계약자가 추가로 지불한 보험료에 해당

- 과거의 이자율차배당 실적을 바탕으로 사후적 옵션가치를 산출하여 사전적 옵션가치와 비교함으로써 이자율차배당의 적정성을 분석

### □ 적정성 판단기준

- 유배당 상품의 추가적인 보험료라고 볼 수 있는  $\gamma$  는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간 예정이율의 차이로 일종의 콜옵션(call option)의 성격을 갖는 배당가치에 따라 결정됨\*

※ 유배당보험 보험료 ≒ 무배당보험 보험료 + 계약자배당 예상치(=콜옵션가치)

< 표 15 > 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의 현금흐름

	유배당	무배당	차이
보험료	$X_D$	$X_N$	$\gamma$
보험금	$C_t$	$C_t$	0
약정 투자수익	$\sum r_D$	$\sum r_N$	$\sum (r_D - r_N)$
배당금	$r < r_D$ 일 때, $p \cdot \text{Max}[\sum_{t=1}^T (y_t - r_D), 0]$ $r > r_D$ 일 때, $p \cdot \text{Max}[\sum_{t=1}^T (y_t - r), 0]$	0	→ 유배당의 배당금과 동일

주)  $r$  : 정기예금 금리,  $r_D$  : 배당보험 예정이율,  $r_N$  : 무배당보험 예정이율,  
 $p$  : 계약자 이익배분율,  $y_t$  : 실제 수익률

- 따라서, 계약자가 지불한 추가보험료(  $\gamma$  )와 유배당보험에 내재된 콜옵션의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이자율차배당의 적정성을 판단 가능

< 표 16 > 이자율차배당의 적정성 판단 기준

추가보험료 > 사전적 콜옵션가치	추가보험료 = 사전적 콜옵션가치	추가보험료 < 사전적 콜옵션가치
유배당계약자가 추가로 지불한 보험료보다 사전적 콜옵션의 가 치가 크기 때문에 당시 상황 에서 계약자가 비싼 보험료를 지불	적정한 가격	유배당계약자가 추가로 지불한 보험료가 내재된 콜옵션의 가치 보다 작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서 계약자는 저렴한 보험료를 지불
추가보험료 > 사후적 콜옵션가치	추가보험료 = 사후적 콜옵션가치	추가보험료 < 사후적 콜옵션가치
유배당계약자가 추가로 지불한 보험료가 사후적 콜옵션의 가치 보다 크기 때문에 계약자는 추 가적인 이익배분 요구의 정당성 확보(이자배당 부족)	적정한 이차배당	유배당계약자가 추가로 지불한 보험료가 사후적 콜옵션의 가치 보다 작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익배분요구가 합리화되지 못함 (이자배당 충분)

#### □ 분석결과

- ① 사전적으로 유배당보험에 내재되어 있는 옵션가치가 예정이자율  
차이의 가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유배당보험의 사전적 옵션가치는 예정이자율 차이에 비해 75%  
정도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② 사후적으로 볼 때, 계약자가 납입한 추가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배당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나타남
  - 유배당보험의 사후적 옵션가치는 예정이자율 차이의 가치에  
비해 175%를 상회하는 높은 가치를 보임
  - 한편, 이러한 결과는 사전적 옵션가치가 보수적으로 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③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무배당보험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쌌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나, 생보사간 무배당보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무배당보험의 보험료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표 17> 현재 판매되는 무배당보험의 가격비교

(단위 : %, 원)

구 분	A사	B사	C사	D사	E사
유배당보험비중	48.3	44.9	23.3	42.4	2.1
무배당보험 가격	219	224	219	208	218

주1) 유배당보험 비중 : 2006년 3월 현재 유배당보험의 책임준비금 비율

2) 현재 판매중인 무배당종신보험 (남자 40세, 20년납, 가입금액 10만원)

### (3) 검토의견

- ☐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과거 계약자에게 과소 배당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인할 수 없음

### 3. 자산의 재평가 및 배분

#### 가. 논의배경

- 상장 전에 부동산 등 장기투자자산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 후,
  - 과거 '90년 생보사 상장 논의과정에서와 같이 자산형성에 기여한 계약자 및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해 검토

#### 나. 상장 전 기존자산의 재평가

- '98년 시가회계제도의 도입으로 대부분의 자산은 시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부동산 등 일부의 경우만 장부가로 평가
  - 시가 평가로 인해 발생한 미실현손익은 손익계산서\* 또는 대차대조표\*를 통해 계약자 몫과 주주 몫으로 구분하고 있음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파생상품평가이익 등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등

< 표 18 > 매도가능증권 등 평가손익('06.3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삼성	대한	교보	홍국	금호	신한	미래
계약자지분조정	30,630	1,733	101	100	225	56	-
자본조정	29,783	1,523	110	108	262	147	△29
매도가능증권 등 평가손익	60,413	3,256	211	208	487	203	△29

- 장부가로 계상하고 있는 부동산을 주식가치 산정을 위해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그 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것은 불가\*

※ 자산재평가법상 자산재평가제도가 폐지('00년)되어 동 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할 수 없음

□ 만약, 회계기준 또는 법령을 변경하여 생보사 상장시 시가로 평가된 금액을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 타산업과의 형평성 및 비교가능성이 저해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회계처리로 인해 국제적 정합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음

#### 다. 부동산 등의 평가차익의 계약자 배분 가능성

□ 부동산 장부가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증액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으므로 주식가치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로 인해 발생한 평가차익을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

□ 만약, 계약자 몫의 부동산평가차익 상당액을 주주 몫의 이익잉여금에서 배분할 경우,

- 향후 동 자산의 처분시 계약자에게 다시 배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 부동산의 미실현이익을 재무제표에 계상할 수 없어 지급여력금액에 가산되지 않기 때문에 평가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면 재무건전성 악화가 야기될 수 있음

□ 과거 '90년 생보사 상장 논의 과정에서 재평가처리지침을 제정하여 계약자에게 평가차익 중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한 것은

- 자산 처분시 계약자배당 재원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에 배분한 것임

※ 자산 시가평가로 인한 장부가액 ↑ → 자산처분시 처분익 ↓ → 계약자배당 재원 ↓

< 표 19 > 자산 시가평가 여부에 따른 계약자 몫 비교(예시)

	매입가	시가 평가 후			처분시				계약자몫 의 합 (A+B)
		장부가	평가액	계약자몫 (A)	처분가	장부가	처분익	계약자몫 (B)	
원가평가	100	100	0	0	200	100	100	70	70
시가평가	100	150	50	35	200	150	50	35	70

주) 계약자 몫의 투자손익 비율을 70%로 가정

- ☐ 결국, 부동산 등 미실현이익의 계약자 몫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이익에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관건
- 부동산 등의 처분은 상당기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데다 최근 무배당보험 신규판매가 대부분인 상황이므로
  - 현행 당기 준비금비율의 투자이익 배분기준에 의할 경우, 부동산 등의 투자이익 중 계약자 몫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 현재 구분계리 T/F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향후 개선방안이 제시될 계획

### 3. 서민금융활성화 방안관련

- (1) 서민의 개념
- (2) 서민들의 금융기관 이용현황
- (3) 부실 서민금융기관 현황
- (4) 서민금융활성화 T/F 조직 구성 내역
- (5)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방안
- (6) 서민금융 119서비스 운영현황

- 자료 : 별도 제출



#### 4. 선진 금융윤리 정착 유도 관련

가.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및 관리강화 지침 내역

나. 자체교육 유도를 통한 사고예방 및 준법의식 교육 사례

“붙임 참조”

## 1. 선진 금융윤리 정착 유도 관련

### 가.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 및 관리강화 지침 내역

소관부서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내용	중점점검항목
은행검사 1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05. 9. 5. ~ 9.14.(8일간)</li> <li>○ 점검대상 : 우리은행 등 5개 은행 12개 영업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통제 취약 부문</li> <li>○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에 대한 사고예방 실태 등</li> </ul>
은행검사 2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05. 9. 1. ~ 9.22.(15일간)</li> <li>○ 점검대상 : 국민은행 등 5개 은행 20개 본점 및 영업점</li> </ul>	
증권검사 1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05. 9.22 ~ 9.30.(7일간)</li> <li>○ 점검대상 : 대우증권 등 9개 증권사 12개 본점 및 영업점</li> </ul>	
전체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05. 9. 1 ~ 9.30.</li> <li>○ 점검대상 : 19개 은행 및 증권사 44개 본점 및 영업점</li> </ul>	

주) 은행 및 증권사를 제외한 기타 금융회사는 감사 및 준법감시인에 대한 사고예방 대책 관련 집합교육 후 자체점검 조치

※ 내부통제 운영실태 관리강화 지침은 붙임자료 3. 금융사고 방지대책을 참조

나. 자체교육 유도를 통한 사고예방 및 준법의식 교육 사례

소관부서	우리원 주관 교육	금융회사 자체 교육
은행검사 1·2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19개 은행 상임감사(19명)</li> <li>○일시 : '05. 9. 7. 11:30</li> <li>○장소 : 은행연합회(감사협의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전 임직원</li> <li>○기간 : '05. 9~10월</li> <li>○결과보고 : '05.10.30.</li> </ul>
증권검사 1·2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55개 증권회사, 44개 자산운용회사, 14개 선물회사, 4개 신용평가회사, 3개 협회 상임감사 및 준법감시인(160명)</li> <li>○일시 : '05. 8. 23. 15:00</li> <li>○장소 : 금융감독원 강당(2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전 임직원</li> <li>○일시 : '05. 8~9월</li> <li>○결과보고 : '05. 9.30.</li> </ul>
보험검사 1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22개 생보사 상임감사 및 준법감시인, 생보협회 관계자(46명)</li> <li>○일시 : '05. 9. 8. 10:00</li> <li>○장소 : 생명보험협회 16층 회의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전 임직원</li> <li>○기간 : '05. 9월 중</li> <li>○결과보고 : '05. 9.30.</li> </ul>
보험검사 2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28개 손보사 상임감사 및 준법감시인(56명)</li> <li>○일시 : '05. 8. 25. 15:00</li> <li>○장소 : 대한투자신탁증권 9층 중강의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전 임직원</li> <li>○일시 : '05. 9월 중</li> <li>○결과보고 : '05. 9.30.</li> </ul>
비은행검사 1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상호저축은행 상임감사 및 준법감시인(218명)</li> <li>○일시, 참석대상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9. 7. 15:00, 서울 및 수도권 지역(강원, 제주 포함) 53개사, HK저축은행</li> <li>- '05. 9. 8. 15:00, 대전 및 충청남북지역 11개사, 대전저축은행</li> <li>- '05. 9. 9. 15:00, 광주 및 전남북지역 17개사, 창업저축은행</li> <li>- '05. 9. 9. 15:00, 부산, 대구 및 경남북지역 28개사, 부산2저축은행</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관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li> <li>○대상 : 전 임직원</li> <li>○기간 : '05. 9월 중</li> <li>○결과보고 : '05.10. 7.</li> </ul>
비은행검사 2국	<p>【신용협동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신협중앙회 및 각 지역본부 감독검사 책임자(19명)</li> <li>○일시 : '05. 9.23. 15:00</li> <li>○장소 : 신협중앙회 연수원(대전소재)</li> </ul> <p>【여전사 및 기타금융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 여전사 및 기타금융회사 상임감사 또는 준법감시인(60명)</li> <li>○일시 : 10월 초</li> <li>○장소 : 금융감독원 회의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간 : '05. 10월 중</li> <li>○결과보고 : '05.10.15.</li> <li>○대상 및 교육방법</li> </ul> <p>【신용협동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협중앙회의 조합 이사장 및 실무책임자 집합교육 후</li> <li>- 조합 이사장 및 실무 책임자의 전 임직원 대상 전달교육</li> </ul> <p>【여전사 및 기타금융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임직원</li> </ul>

## 5. 선진 금융윤리 정착 유도관련

### ○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제재 강화 내역(2003.1~2006.7)

####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재강화방안 마련(2005.8)

- 경영진 등 감독자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또는 이행을 소홀히 하여 사고발생한 경우 그 직무태만에 대한 행위책임을 부과
- 감사·준법감시인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점검 소홀 여부를 규명하여 감독책임을 엄중 부과
- 내부통제시스템 취약 등으로 사고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기관경고' 이상으로 중징계

6.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감독·제재 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  
고 있는 권한 현황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

## <붙임>

### 금감위 권한의 금감원장 앞 주요 위탁사항

#### [은행]

주요 위탁사항	금감원장 앞 위탁근거
○ 외은 지점의 이전·사무소 폐쇄에 대한 신고 수리시 심사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9조
○ 외은 지점의 본지점 장기 차입금 중 을기금에서 제외되는 장기 차입금 결정	은행업감독규정 제10조
○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에 대한 수시 심사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2
○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한도 초과 취득 보고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4
○ 은행 임원의 자격기준 적합 여부 확인	은행업감독규정 제20조
○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보고 및 시정요구, 특정부실 자산 상각 요구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 자은행의 모은행 등 발행주식 소유 보고	은행업감독규정 제52조의2
○ 은행의 임직원에게 대한 소액대출에 대한 사항 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
○ 비업무용 자산 여부에 대한 결정	은행업감독규정 제58조
○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업무에 대한 구체적 기준 설정	은행업감독규정 제78조
○ 주채무계열사의 채무보증잔액 해소계획 수립 방법 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제81조
○ 은행 손실초래자에 대한 채권확보에 필요한 사항 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제82조
○ 약관 변경과 관련한 사전 보고, 변경 권고 등	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

주요 위탁사항	금감원장 앞 위탁근거
○ 특정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요구 유예 (수출입은행)	은행업감독규정 제94조
○ 산업은행의 자회사 출자시 사후 보고	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 산업은행의 업무보고서 접수	은행업감독규정 제98조
○ 은행의 정관 변경 및 자본금 감소 신고 중 경미한 정관 변경 및 실질적이지 않은 자본금 감소 신고 접수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 동일인 주식 보유 한도 승인 중 절차적 사항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
○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중 이행상황의 점검	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의5
○ 금융채 발행한도와 관련하여 축소조치 등은 금감위 수행, 한도준수 여부 확인 은 금감원장 위탁	은행업감독규정 제47, 48조
○ 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 관련 사항 중 절 차적 사항	은행업감독규정 제51조
○ 경영지도비율의 주요사항은 감독규정에 반영, 세부사항 규정은 위탁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 불건전 영업행위의 주요내용은 감독규정에 반영, 세부사항은 금감원장에게 위탁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 전환계획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의3
○ 은행의 국외점포 신설 협의	은행업감독규정 제13조
○ 자회사 출자 관련 자회사 경영실태 평 가 기준 설정	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
○ 부대업무의 승인 신청절차 마련(장기 신용은행)	은행업감독규정 제91조

## [증권]

주요 위탁사항	금감원장 앞 위탁근거
○ 증권회사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마련	증권업감독규정 제1-15조②
○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시정 요구	증권업감독규정 제2-4조③
○ 내부모형에 대한 사후 검증	증권업감독규정 제2-30조①
○ 리스크 관리지침의 개선 요구	증권업감독규정 제2-47조③
○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정정공시 및 재공시 요구	증권업감독규정 제2-70조⑤
○ 고객예탁금 예치기간 연장 및 별도예치금 인출 승인	증권업감독규정 제3-10조
○ 약관의 변경 권고	증권업감독규정 제4-42조①
○ 외국인에 대한 투자등록 거부	증권업감독규정 제7-11조①②
○ 유가증권 발행 등록법인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증권업감독규정 제7-20조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중 위법내용 공표요구, 각서징구, 경고 등의 조치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 관한규정 제66조
○ 신고서·보고서의 부실기재 등과 관련하여 위법내용 공표요구, 각서징구, 경고 등의 조치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 관한규정 제76조
○ 후순위차입금의 최초 차입 및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승인	선물업감독규정 제20조
○ 표준선물옵션 거래계좌 설정약정서의 제정 또는 변경 신고 수리	선물업감독규정 제47조②
○ 선물옵션 거래계좌 설정약정서에 대한 변경 권고	선물업감독규정 제47조⑤
○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거부 및 보완요구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7조



주요 위탁사항	금감원장 앞 위탁근거
○ 위험액 산정과 관련한 기준은 감독규정에 반영, 승인 등 집행사항은 위탁	증권업감독규정 제2-22조②③⑤, 2-27조①
○ 경영실태평가기준은 감독규정에 반영, 기준에 따른 후속조치는 위탁	증권업감독규정 제2-31조①③⑤⑥
○ 외국 증권회사 국내지점 이익준비금 처분 승인과 관련하여 승인기준은 감독규정에 반영, 승인 등 집행사항은 위탁	증권업감독규정 제2-71조①
○ 유가증권분석전문기관의 평가 면제의 기준은 감독규정에 반영, 면제 조치 등 집행사항은 위탁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 관한규정 제13조②④
○ 선물업자의 적정 회계 처리 기준은 감독규정에 반영, 업무보고서 접수는 위탁	선물업감독규정 제9조
○ 주식위험액 산정 기준	증권업감독규정 제2-19조①②③
○ 적격기관투자자 인정 요건	증권업감독규정 제4-1조② 6호
○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 예외 인정 기준	증권업감독규정 제4-17조③
○ 약관심사업무 중 협회 위탁 대상 결정	증권업감독규정 제4-44조①
○ 분석기관의 부실 평가에 대한 제재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 관한규정 제15조
○ 비상장·비등록기업의 합병가액 산정 기준 및 방법 결정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 관한규정 제82조
○ 채무보증 금지 예외대상 결정	선물업감독규정 제38조
○ 공시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선물업감독규정 제42조
○ 해외 신용거래 한도 제한	선물업감독규정 제68조④

주요 위탁사항	금감원장 앞 위탁근거
○ 위탁자의 선물옵션거래 계좌 이관 명령 조항 삭제	선물업감독규정 제60조
○ 선물업자의 보고사항에 대한 언론기관 발 표 조항 삭제	선물업감독규정 제72조
○ 준법감시인의 임면사실의 통보접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97조, 시행령 제162조
○ 임원겸직의 승인	"
○ 결산보고서, 정기보고서, 결산서류의 접수 및 열람에의 제공	"
○ 자본감소의 승인	"
○ 판매업무의 정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의 접수	"
○ 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등록	"
○ 신탁약관 또는 표준신탁약관의 보고의 접수	"
○ 표준신탁약관 또는 신탁약관 변경의 보 고의 접수	"
○ 신탁약관 또는 표준신탁약관의 변경명령	"
○ 투자회사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변경명령	"
○ 판매행위준칙의 보고의 접수	"
○ 수익자총회 소집의 승인	"
○ 수익증권 매수연기의 승인	"
○ 기준가격 산정업무의 위탁명령	"
○ 회계감사인의 선임 또는 교체에 관한 보고 의 접수	"
○ 투자신탁 해지의 승인	"

주요 위탁사항	금감원장 앞 위탁근거
○ 투자신탁 해지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97조, 시행령 제162조
○ 투자신탁 합병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
○ 투자회사 해산신고의 접수	"
○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의 선임, 보수지급기준 결정, 해임에 관한 업무	"
○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등본 제출의 접수	"
○ 청산인의 위반사항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
○ 결산보고서 등본의 접수	"
○ 등기촉탁업무	"
○ 수탁회사보고서 또는 자산보관회사보고서의 접수	"
○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
○ 자산운용회사의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
○ 위험관리방법에 관한 보고의 접수	"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접수	"
○ 외국간접투자증권 국내판매신고의 접수	"
○ 투자회사의 등록 취소	"
○ 수탁회사의 등록 취소	"
○ 공고에 관한 명령 및 승인	"

주요 위탁사항	금감원장 앞 위탁근거
○ 순자산액미달사실에 관한 보고의 접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97조, 시행령 제162조
○ 사모간접투자신탁의 설정보고의 접수	"

### [비은행]

주요 위탁사항	금감원장 앞 위탁근거
○ 자산건전성 분류 점검 및 시정요구, 특정부실 자산 상각 요구	종금업감독규정 제26조
○ 임원의 겸직 허가	종금업감독규정 제10조
○ 특별대손충당금 적립 요구	종금업감독규정 제26조의3
○ 경영지도비율의 주요사항은 감독규정에 반영, 세부사항 규정은 위탁	종금업감독규정 제25조
○ 경영공시 관련 공시대상 등은 감독규정에 반영, 정정공시·재공시는 위탁	종금업감독규정 제33조
○ 정관 및 업무방법의 변경내용에 대한 시정 요구	종금업감독규정 제6조
○ 리스크관리조직 설치 예외대상 결정	종금업감독규정 제27조의2
○ 유가증권 한도초과 보유 승인	저축은행감독규정 제30조①
○ 특별대손 충당금 적립 요구	저축은행감독규정 제38조
○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정정공시 및 재공시 명령	저축은행감독규정 제42조

주요 위탁사항	금감원장 앞 위탁근거
○ 자산건전성 분류와 관련하여 기준은 감독규정에 반영, 기준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는 위탁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 건전성 비율의 주요사항은 감독규정에 반영, 세부사항 규정은 위탁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4조
○ 경영실태분석과 관련하여 평가기준은 감독규정에 반영, 기준에 따른 후속 조치는 위탁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5조
○ 유가증권 보유 한도 초과에 대한 기한 연장	저축은행감독업규정 제30조②
○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사항 결정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
○ 신탁 중앙회의 업무방법 변경 요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정정공시 및 재공시 요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 표준 정관 및 표준규정의 제정 등에 대한 시정 요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31조
○ 공제 규정에 대한 시정 및 보완 요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1조
○ 협동조합에 대한 업무 정지조치	금융기관감사및제제에 관한규정제47조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마련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①
○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시정 요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정정공시 및 재공시 명령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3조
○ 경영지도비율의 주요사항은 감독규정에 반영, 세부사항 규정은 위탁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8조

주요 위탁사항	금감원장 앞 위탁근거
○ 특별대손충당금 및 기타 적립금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감독규정에 반영, 집행은 위탁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 경영개선 권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7조
○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1조⑦
○ 감사인 지정요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38조

**[공통]**

주요 위탁사항	금감원장 앞 위탁근거
○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의 차입 승인	신탁업감독규정 제11조③
○ 부동산신탁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결과 보고 및 시정요구, 특정부실 자산 상각 요구	신탁업감독규정 제28조
○ 약관 변경과 관련한 사전 보고, 변경권고 등	신탁업감독규정 제32조
○ 회계처리 기준 중 세부사항은 금감원장 위탁	신탁업감독규정 제19조②
○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 신고는 금감원장 위탁	신탁업감독규정 제3조
○ 공시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탁업감독규정 제27조③
○ 업무보고서 서식, 제출시기 등 세부 절차적 사항 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 경영개선계획 이행 점검	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
○ 경영개선협약 체결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주요 위탁사항	금감원장 앞 위탁근거
○ 금융기관 경영상태 실사를 위한 자료 요청	은행업감독규정 제45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의14, 종금업감독규정 제31조의4,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6조,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제42조
○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여부의 판단은 금감위에서 수행, 단순사실행위인 접수는 금감원장 위탁	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①-⑤ 증권업감독규정 제2-36조, 2-38조, 2-39조
○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위한 자산·부채 평가기준 중 기본적 사항은 감독규정에 반영, 세부 기술적 사항은 위탁	은행업감독규정 제44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의13
○ 경영개선권고 조치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증권업감독규정 제2-32조, 2-35조
○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증권회사 출자 승인	증권업감독규정 제6-7조
○ 외국환취급기관의 외국환 포지션 위반 보고	은행업감독규정 제63조
○ 외국환취급기관의 유동성비율 구체적 산정방법 마련	은행업감독규정 제64조
○ 중장기 외화대출 재원관리시 외화대출 및 외화자금 조달의 범위 설정	은행업감독규정 제65조

주요 위탁사항	금감원장 앞 위탁근거
○ 외국환포지션 위반에 대한 제재	은행업감독규정 제69조
○ 외화유동성비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	은행업감독규정 제70조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현황 보고	은행업감독규정 제72조

### [기타]

주요 위탁사항	금감원장 앞 위탁근거
○ 신용공여 한도초과 해소계획 승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6조
○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시정 요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6조
○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정정공시 및 재공시 요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조
○ 적정담보확보와 관련하여 담보부족 기간연장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감독규정에 반영, 집행은 위탁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2조

\* 위 내용은 '04년 우리 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시 감사원이 파악한 금감위 권한의 금감원장앞 위탁사항의 주요내용임



## 7. 금융사고 방지대책

### 1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강화

#### □ 금융회사 내부통제실태 특별점검 실시('05.9월 중)

- 금융회사별로 내부통제 취약부문 및 자체 개선방안을 사전에 제출받아 동 취약부문과 자금관리 업무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
  - 금융회사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자체 집합교육을 실시토록 유도하고 동 결과를 보고토록 할 예정
- 취약부문은 보완하고, 우수사례는 발굴·전파

#### □ 수도권 소재 금융회사 영업점 내부통제 점검 실시(연중)

- 수도권 영업점 중 일부를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불시 내부통제 점검 실시

\* 지방영업점에 대하여는 감독원 지방 지원에서 실시 중

#### □ 내부통제 소홀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 금융사고 빈발 또는 대형사고 발생회사에 대하여는 내부통제강화를 위한 확약서, 양해각서 등을 징구하여 이행실태 정기 점검
- 대형사고 발생시 경영실태평가 내부통제부문 최저점수 배점

#### □ RM의 내부통제관련 경영진 컨설팅 기능 강화

## 2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강화

□ 사고행위자 : 원칙적으로 해임권고 또는 면직조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해당시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 병행

□ 감독자 : 사고행위자 대비 경감하여 감독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내부통제시스템 운용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위책임'을 부과

- 특히, 사고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사고행위자에 준하여 제재

- 단말기 패스워드, 금고열쇠 관리를 일임한 경우 등

- 사고발생 후 원인 규명 및 시스템 개선을 소홀히 하여 유사사고가 재발한 경우 등에는 경영진에 책임부과
- 형식적인 자점감사, 일일감사 미이행, 명령휴가 미실시 등 지휘감독, 감사를 소홀히 하여 금융사고를 야기한 경우 담당 부서장에게는 직무태만 행위책임을, 그 감독자에게는 감독책임을 부과

□ 감사·준법감시인 : 내부통제 점검 소홀 여부를 규명하여 감독책임을 엄중 부과

□ 금융기관 : 내부통제시스템이 취약하여 사고 발생한 경우 '기관경고' 이상으로 중징계

- 금융사고 반복 발생시 가중 제재규정을 엄격히 적용 (3년 이내 3회 이상 기관경고 해당시 가중제재)
- 다수 인원이 공모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경우 등에는 영업점 영업정지·폐쇄 등 강력 처벌

### 3 금융사고 확산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 개인정보 노출자 보호시스템 개발 운영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금융감독원의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하여 전 금융회사에 통지하여 개인 신상정보를 이용한 범죄 차단
- \* 각 금융협회 전산망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될 때까지 운영

#### □ 금융사고사례 공유시스템(금융사고 자료실) 운영

- 대형사고, 특이사고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고수법, 발생 원인, 사고 발견과정 등을 상세히 기술한 사고사례(case)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정보교환망에 등록(금융사고 자료실 개설 준비 중)
- 금융회사 준법감시인과 감사담당직원에게 제공하여 자체 내부 통제시스템 점검, 교육자료로 활용

7-1. '06.7말 현재 금융지주회사 설립현황(인가신청 포함)

☐ '06.7말 현재 설립인가 받은 금융지주회사는 총 4개임

구 분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설립인가일	'01.3.23.	'01.8.31.	'03.5.30.	'05.11.11.

☐ '06.7말 현재 인가신청 중인 회사는 없음

## 7-2. '06.7말 현재 금융지주회사별 사업구조 현황

### 1. 우리금융지주

구 분	회사명	비 고
은행부문	우리은행	자회사
	광주은행	자회사
	경남은행	자회사
	우리아메리카은행	손자회사
	인도네시아우리은행	손자회사
증권부문	우리투자증권	자회사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자회사
	우리선물	손자회사
	우리투자증권 런던현지법인	손자회사
	우리투자증권 홍콩현지법인	손자회사
	우리투자증권 뉴욕현지법인	손자회사
기타부문	우리금융정보시스템	자회사
	우리에프앤아이	자회사
	우리제3차SPC	자회사
	우리프라이빗에쿼티	자회사
	우리에스비자산관리	손자회사
	우리신용정보	손자회사
	신우CRV	손자회사
	넥스비텍	손자회사
	우리에스비자산관리	손자회사
	마르스제1호PEF	손자회사

## 2. 신한금융지주

구 분	회사명	비 고
은행부문	신한은행	자회사
	제주은행	자회사
	신한금융유한공사	손자회사
	신한아주금융유한공사	손자회사
	아메리카신한은행	손자회사
	유럽신한은행	손자회사
	신한비나은행	손자회사
증권부문	굿모닝신한증권	자회사
	신한BNP파리바투자신탁운용	자회사
	신한맥쿼리금융자문	자회사
	SH자산운용	손자회사
	굿모닝신한증권 뉴욕현지법인	손자회사
	굿모닝신한증권 런던현지법인	손자회사
보험부문	신한생명	자회사
	SH&C생명	자회사
비은행부문	신한카드	자회사
	신한캐피탈	자회사
기타부문	신한신용정보	자회사
	신한프라이빗에쿼티	자회사
	신한데이터시스템	손자회사
	신한-국민연금제1호PEF	손자회사
	CHB밸류미트01-1SPC	손자회사
	CHB밸류미트01-2SPC	손자회사
	CHB밸류미트02-1SPC	손자회사

## 3. 하나금융지주

구 분	회사명	비 고
은행부문	하나은행	자회사
	청도국제은행	손자회사
증권부문	대한투자증권	자회사
	하나증권	손자회사
	대한투자신탁운용	손자회사
보험부문	하나생명	손자회사
비은행부문	하나캐피탈	손자회사
기타부문	하나아이앤에스	자회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회사
	Hana Funding Ltd.	손자회사

#### 4. 한국투자금융지주

구 분	회사명	비 고
증권부문	한국투자증권	자회사
	한국투자신탁운용	손자회사
	한국투자증권 홍콩현지법인	손자회사
	한국투자증권 뉴욕현지법인	손자회사
	한국투자증권 런던현지법인	손자회사
	한국밸류자산운용	손자회사
비은행부문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	자회사
	한국투자파트너스	자회사
기타부문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	자회사

### 7-3. '06.7말 현재 각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기관별 해당 자회사의 사업비중

#### 1. 우리금융지주(연결 총자산 : 1,750,164억원)

자회사명	총자산기여도(%)
우리은행	74.97
광주은행	7.23
경남은행	7.77
우리투자증권	4.86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0.00
우리금융정보시스템	0.08
우리F&I	0.12
우리제3차SPC	0.03
우리프라이빗에쿼티	0.00

주) '06.3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내부거래상계후 금액기준 기여도

#### 2. 신한금융지주(연결 총자산 : 1,642,787억원)

자회사명	총자산기여도(%)
신한은행	48.56
조흥은행	41.67
제주은행	1.25
굿모닝신한증권	2.23
신한카드	0.88
신한신용정보	0.00
신한캐피탈	0.89
신한생명	3.22
신한프라이빗에쿼티	△0.02

주1) '06.3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내부거래상계후 금액기준 기여도

2) SH&C생명, 신한BNP파리바투자신탁운용, 신한맥쿼리금융자문은 연결 대상회사가 아니므로 제외



3. 하나금융지주(연결 총자산 : 973,793억원)

자회사명	총자산기여도(%)
하나은행	96.95
대한투자증권	1.06

주1) '06.3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내부거래상계후 금액기준 기여도

2) 하나아이앤에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연결대상회사가 아니므로 제외

4. 한국투자금융지주(연결 총자산 : 54,607억원)

자회사명	총자산기여도(%)
한국투자증권	78.52
한국투자상호저축은행	13.65
한국투자파트너스	2.59

주1) '06.3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내부거래상계후 금액기준 기여도

2)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는 연결대상회사가 아니므로 제외

## 7-4. 금융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가 될 경우의 장단점

### 1. 장점

#### □ 금융그룹 경영의 효율성 제고

- 일상적인 경영판단에서 벗어나 금융지주회사그룹 차원의 중장기적 경영전략 수립 가능
  - 각 자회사에 중복 존재하는 경영전략수립 및 행정기능의 통합 관리로 효율성 제고
- 내부자본시장(internal capital market)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달성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별 사업성과 및 사업전망 등에 기초하여 자원을 배분함으로써 자회사간 경쟁유발 및 자원활용의 극대화

#### □ 부실전이 위험 감소로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 금융지주회사방식의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부실을 흡수함으로써 자회사간 부실전이 위험 감소
  - 자회사 부실이 심각하여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위험 확산 방지

## □ 이종 자회사의 겸업화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 전산시스템 등 자원의 공동활용에 따른 비용절감(내부시너지) 및 고객정보와 유통망 공유 등으로 금융서비스 확장(외부시너지) 가능
  - 교차판매 등을 통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 구현 가능

## □ 금융구조조정 촉진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은 합병에 비해 복잡한 법률적·조직적 문제를 피할 수 있고 인사·조직운영의 마찰 최소화 가능
  - 필요시 자회사 편입을 합병의 중간단계로 활용

## 2. 단점

### □ 경제력 집중의 문제

- 소유구조의 다단계화를 통한 기업집단 확대 우려

### □ 조직구조의 다층화로 인한 비효율성

- 의사결정단계 및 경영지원기능의 중복 등 경영비효율성 증대 가능성 상존
  - 특히 지주회사의 자회사 통할기능이 약화될 경우 양사 경영진 간의 이해충돌 등으로 경영비효율성 증대 가능

## 8-1.신BIS협약 도입 이유

-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수년 내 신BIS협약을 도입하여 동 협약이 은행건전성감독에 대한 새로운 ‘국제기준’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동 기준의 수용이 불가피함

\* BIS 산하의 FSI(Financial Stability Institute)가 바젤위원회 비회원국 10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총 88개국이 신BIS협약을 도입할 예정으로 응답

특히, 2007년~2009년에 73개국의 5,000개 이상의 은행(전체 은행 자산의 75% 차지)이 신BIS협약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

- 한편, 국제적 선진은행의 리스크관리 모범기준을 중심으로 마련된 신BIS협약이 국내에 도입·정착될 경우

- 국내은행의 자본 및 리스크 관리능력의 획기적 향상을 통해 은행의 건전성 및 안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신BIS협약은 최저자기자본규제 방식의 개선뿐만 아니라 감독기능 및 시장규율 강화까지 포함하는 ‘선진감독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하므로

- 국내 금융감독수준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의 동북아금융허브육성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 8-2. 신BIS협약 도입에 필요한 준비사항

### 【감독당국 준비사항】

#### 가. 신BIS협약 국내기준안 규정화

- ☐ 원내 의견조율, 시장의견 수렴 후 제반 금융경제에의 영향을 감안하여 국내기준안을 확정하고 이를 관련 규정에 반영
- ☐ 신BIS협약 관련 중요사항들을 모두 포괄하여 심도 있는 검토 작업 필요
  - 검토작업 수행시 유관부서와의 협조 강화를 통해 규정화 작업을 차질없이 완료 예정

#### 나.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 지정

- ☐ 신BIS협약상 표준방법을 채택하는 은행은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이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

\*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은 위험가중치(100%) 적용

- 또한, 내부등급법 적용 은행의 경우에도 ECAI의 신용등급은 은행 자체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기준(Benchmark)으로 활용

## 【은행의 준비사항】

### 가. 통합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 ☐ 신BIS 이행을 위한 담보관리 및 사후관리시스템 등 기반시스템 개선과 신용리스크 관련데이터의 통합관리
  - 통합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부도율(PD) 등 리스크측정요소 산출을 위한 데이터 유지·관리
- ☐ 손실사건자료 수집시스템 구축과 운영리스크 관련데이터의 통합관리
  - 통합 운영리스크 데이터관리시스템 구축, 빈도·심도 등 리스크 측정요소 산출을 위한 데이터 유지·관리

### 나. 신용평가시스템 구축과 적합성 검증 체계 수립

- ☐ 신BIS기준에 맞는 신용평가시스템 구축과 검증
  -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시 신BIS기준에 맞는 신용평가방법론, 부도의 정의, 신용평가기준 및 등급의 정의, 적합성 검증(validation) 절차 마련
- ☐ 신BIS 기준을 충족하는 리스크 측정요소의 추정 및 검증 절차 마련
  - 리스크측정요소 추정시 최소 데이터 기간\* 요건 충족
    - \* 부도율(PD): 5년, 손실율(LGD): 7년, 부도금액(EAD): 7년

## 다. 운영리스크 관리·측정시스템 구축과 적합성 검증 체계 수립

### ☐ 신BIS기준에 부합하는 운영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 운영리스크 인식, 측정(평가), 모니터링, 보고 등 리스크관리절차 구축

### ☐ 신BIS기준에 부합하는 운영리스크 측정시스템 구축

- 내·외부 손실사건자료, 시나리오 분석, 영업환경과 내부통제요인 등 4대 요소를 적절하게 활용

## 라. 통제구조 확립

### ☐ 신용평가시스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신용리스크 통제구조 운영

- 신용등급 부여의 독립성 확보,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신용평가시스템 점검(validation),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강화

### ☐ 운영리스크관리시스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운영리스크 통제구조 운영

- 이사회와 경영진, 단위사업부문, 운영리스크관리부문 및 독립적인 제3자의 역할과 책임 확립

## 마. 리스크관리시스템의 활용

### ☐ 신BIS기준에 의한 내부등급 및 리스크측정요소 등을 규제 자기자본산출 목적 외에 실제 영업과 여신정책에도 활용

- 신BIS기준의 충족 정도를 감안하여 여신승인, 한도관리, 금리 결정 등에 대한 활용

- 신BIS기준에 의한 운영리스크 측정결과를 규제 자기자본산출 목적 외에 **실제 영업과 의사결정에 활용**

- 운영리스크 모니터링, 한도 결정, 주요 영업단위별 자본배분, 성과 평가 등에 운영리스크관리시스템의 산출결과 활용하는지 점검



### 8-3. 신BIS협약 도입 후 예상효과 및 대응방안

- ☐ 신BIS협약은 리스크 관리 전반에 관한 국제기준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국내은행이 조기에 리스크관리를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임
  - 또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감독당국이 지정한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활용하게 되므로 국내 신용평가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
- ☐ 신BIS협약 도입과 관련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고, 은행이 향후 도입시까지 준비할 경우 최소화 가능하다고 판단됨
  - 우리원에서도 우리나라의 금융현실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는 등 일부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 우리원은 향후 신BIS협약 도입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 필요한 경우 신BIS협약에서 주어진 국가재량권을 사용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대응방안을 강구할 예정

#### 8-4. 신BIS협약에 의한 BIS비율(2006년 7월 현재)

- 국내은행에 대한 신BIS협약 도입은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상당수 시중은행들은 신용평가모형 개선작업을 진행중임
- 따라서 은행들이 자행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대한 감독당국앞 승인 신청시점인 2007년중에야 신뢰성있는 신BIS비율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9. 은행권 대출 관련(2002년부터 2006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작성)  
- 중소기업 대출 연도별 현황(은행권 전체, 각 은행별)

"붙임 참조"

## 중소기업 대출 연도별 현황

(단위 : 억원)

	2002/12	2003/12	2004/12	2005/12	2006/03
조흥은행	13,234	144,268	136,510	129,393	128,881
우리은행	218,410	287,107	293,219	319,626	339,789
SC제일은행	38,140	54,360	62,282	58,583	59,664
하나은행	129,969	165,501	170,974	177,597	191,859
한국외환은행	108,724	125,381	119,627	129,381	133,650
신한은행	118,664	157,618	168,976	181,156	187,003
한국씨티은행	69,491	88,761	80,661	61,981	62,233
국민은행	366,629	382,503	351,283	320,618	328,225
대구은행	49,284	56,290	63,566	72,799	75,871
부산은행	44,918	52,298	59,598	66,702	68,915
광주은행	27,574	31,879	34,234	35,646	37,603
제주은행	7,125	7,618	7,843	8,334	8,647
전북은행	10,470	14,004	15,341	16,426	17,281
경남은행	35,343	40,274	45,756	49,618	49,851
산업은행	33,599	43,543	51,217	59,664	60,778
기업은행	303,767	353,904	398,854	466,025	492,130
수출입은행	3,421	3,213	4,627	7,214	7,835
농협	118,096	334,835	335,082	357,787	362,266
수협	31,201	33,395	36,924	46,340	49,873
은행권전체	1,728,059	2,376,753	2,436,574	2,564,892	2,662,356

10. 각 은행별 자산수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반기별 추이  
(2003.1~2006.6)

"붙임 참조"

## 은행별 ROA & ROE 추이

### ROA 추이

(단위 : %)

은행명	2003/12	2004/12	2005/12
조흥은행	-1.5	0.4	1.2
우리은행	1.4	1.9	1.2
SC제일은행	0.0	0.3	0.1
하나은행	0.7	1.7	1.1
한국외환은행	-0.4	0.8	3.1
신한은행	0.7	1.2	1.0
한국씨티은행	0.1	0.6	0.9
국민은행	-0.5	0.3	1.2
대구은행	0.7	0.7	0.9
부산은행	0.8	0.8	1.0
광주은행	0.7	0.8	1.2
제주은행	0.3	0.4	0.6
전북은행	1.1	0.8	0.6
경남은행	0.8	1.0	1.1
한국산업은행	0.2	1.1	2.6
중소기업은행	0.3	0.5	1.0
수출입	0.4	0.6	1.6
농협	0.4	0.7	0.7
수협	0.7	1.0	1.0

\* 과거 1년기준 실적기준

### ROE 추이

(단위 : %)

은행명	2003/12	2004/12	2005/12
조흥은행	-46.3	0.4	1.2
우리은행	25.5	1.9	1.2
SC제일은행	-0.8	0.3	0.1
하나은행	18.1	1.7	1.1
한국외환은행	-10.0	0.8	3.1
신한은행	15.1	1.2	1.0
한국씨티은행	2.9	0.6	0.9
국민은행	-9.6	0.3	1.2
대구은행	14.4	0.7	0.9
부산은행	13.9	0.8	1.0
광주은행	17.0	0.8	1.2
제주은행	4.8	0.4	0.6
전북은행	26.6	0.8	0.6
경남은행	17.9	1.0	1.1
한국산업은행	2.3	1.1	2.6
중소기업은행	6.5	0.5	1.0
수출입	1.5	0.6	1.6
농협	11.5	0.7	0.7
수협	22.2	1.0	1.0

\* 과거 1년기준 실적 기준

11. 2002년 이후 2006년 7월 현재까지 각 은행별 총자산 대비 주식 및 회사채 보유 현황  
(금액 및 비율)

"붙임 참조"

각 은행별 총자산대비 주식 및 회사채 보유현황

총자산규모

(단위 : 억원)

은행명	2002/12	2003/12	2004/12	2005/12	2006/03
조흥은행	712,981	633,320	698,439	727,059	743,143
우리은행	1,011,008	1,192,751	1,188,449	1,400,216	1,507,787
SC제일은행	334,973	418,531	451,841	599,707	628,098
하나은행	876,177	917,828	919,275	1,029,551	1,057,866
한국외환은행	614,526	680,489	671,677	727,197	745,481
신한은행	697,151	841,359	838,111	905,551	936,948
한국씨티은행	441,055	557,782	598,239	490,692	546,957
국민은행	2,138,405	2,148,852	1,994,638	1,970,840	2,031,363
대구은행	174,205	182,039	197,021	205,468	210,811
부산은행	162,259	175,067	181,841	198,808	199,109
광주은행	81,171	88,160	99,066	116,974	122,571
제주은행	18,022	17,978	18,840	20,639	20,649
전북은행	38,613	41,826	46,692	51,916	52,408
경남은행	102,699	112,488	125,059	153,903	154,897
산업은행	921,871	1,029,030	1,083,406	1,141,502	1,130,267
기업은행	702,757	758,390	776,068	884,151	937,295
수출입은행	106,065	112,816	121,706	151,558	154,554
농협	1,199,849	1,299,995	1,290,146	1,404,921	1,446,652
수협	97,449	109,478	116,003	140,051	145,025

\* 총자산 : 은행계정 자산총계, 신탁계정 자산총계, 종금계정의 자산총계의 합계액에서 각 계정간 상호거래 공제



주식

(단위 : 억원)

주식	2002	2003	2004	2005	2006/03
조흥은행	5,946	6,421	15,481	26,135	15,481
우리은행	9,778	8,017	20,527	32,522	18,739
SC제일은행	1,229	502	908	398	908
하나은행	0	7,044	11,921	15,185	11,596
한국외환은행	12,339	13,350	18,780	30,586	19,073
신한은행	8,040	5,730	8,384	13,741	8,364
한국씨티은행	2,126	1,921	3,012	4,415	3,012
국민은행	21,512	16,617	15,106	19,301	15,262
대구은행	593	476	491	427	440
부산은행	658	1,069	545	548	630
광주은행	244	162	38	25	38
제주은행	100	100	23	24	23
전북은행	115	33	8	13	8
경남은행	275	444	394	425	394
산업은행	126,906	138,102	182,131	230,033	182,367
기업은행	17,531	8,787	7,131	10,985	7,411
수출입은행	17,142	13,797	19,150	31,940	19,150
농협	2,721	2,486	9,324	12,627	9,776
수협	224	188	352	493	399

\* 원화주식 기준

\* 말잔기준

# 사채 규모

(단위 : 억원)

사채	2002	2003	2004	2005	2006/03
조흥은행	16,966	8,753	20,926	10,612	12,061
우리은행	30,229	30,617	39,107	22,378	22,484
SC제일은행	8,630	10,152	6,570	13,766	18,699
하나은행	37,046	46,541	50,481	51,287	55,301
한국외환은행	26,146	27,921	36,524	35,895	32,628
신한은행	43,481	44,742	50,964	36,020	36,063
한국씨티은행	6,156	3,342	15,907	13,328	13,539
국민은행	51,675	40,377	35,615	38,588	43,812
대구은행	24,720	26,007	25,385	22,902	20,301
부산은행	15,467	21,120	18,561	20,222	20,708
광주은행	6,599	9,131	9,176	16,443	20,277
제주은행	113	504	562	742	1,611
전북은행	3,703	3,164	4,163	5,566	5,079
경남은행	14,007	14,453	9,051	8,408	10,103
산업은행	50,646	64,629	78,137	115,150	112,206
기업은행	45,218	43,558	41,123	43,026	45,827
수출입은행	0	0	0	0	0
농협	126,912	162,067	143,541	116,350	119,064
수협	27,699	10,105	12,074	11,934	12,104

\* 사채에는 정부보증채를 제외하고 금융채(통안증권 및 정부보증채 제외)를 포함

\* 말잔기준

총자산 대비 주식비율

(단위 : %)

주식 비율	2002	2003	2004	2005	2006/03
조흥은행	0.8	1.0	2.2	3.6	2.1
우리은행	1.0	0.7	1.7	2.3	1.2
SC제일은행	0.4	0.1	0.2	0.1	0.1
하나은행	0.0	0.8	1.3	1.5	1.1
한국외환은행	2.0	2.0	2.8	4.2	2.6
신한은행	1.2	0.7	1.0	1.5	0.9
한국씨티은행	0.5	0.3	0.5	0.9	0.6
국민은행	1.0	0.8	0.8	1.0	0.8
대구은행	0.3	0.3	0.2	0.2	0.2
부산은행	0.4	0.6	0.3	0.3	0.3
광주은행	0.3	0.2	0.0	0.0	0.0
제주은행	0.6	0.6	0.1	0.1	0.1
전북은행	0.3	0.1	0.0	0.0	0.0
경남은행	0.3	0.4	0.3	0.3	0.3
산업은행	13.8	13.4	16.8	20.2	16.1
기업은행	2.5	1.2	0.9	1.2	0.8
수출입은행	16.2	12.2	15.7	21.1	12.4
농협	0.2	0.2	0.7	0.9	0.7
수협	0.2	0.2	0.3	0.4	0.3

총자산 대비 사채비율

(단위 : %)

사채 비율	2002	2003	2004	2005	2006/03
조흥은행	2.38	1.38	3.00	1.46	1.6
우리은행	2.99	2.57	3.29	1.60	1.5
SC제일은행	2.58	2.43	1.45	2.30	3.0
하나은행	4.23	5.07	5.49	4.98	5.2
한국외환은행	4.25	4.10	5.44	4.94	4.4
신한은행	6.24	5.32	6.08	3.98	3.8
한국씨티은행	1.40	0.60	2.66	2.72	2.5
국민은행	2.42	1.88	1.79	1.96	2.2
대구은행	14.19	14.29	12.88	11.15	9.6
부산은행	9.53	12.06	10.21	10.17	10.4
광주은행	8.13	10.36	9.26	14.06	16.5
제주은행	0.63	2.80	2.98	3.59	7.8
전북은행	9.59	7.57	8.92	10.72	9.7
경남은행	13.64	12.85	7.24	5.46	6.5
산업은행	5.49	6.28	7.21	10.09	9.9
기업은행	6.43	5.74	5.30	4.87	4.9
수출입은행	0.00	0.00	0.00	0.00	0.0
농협	10.58	12.47	11.13	8.28	8.2
수협	28.42	9.23	10.41	8.52	8.3

12. 시중은행 해외점포수 증감 현황(점포수, 증감율, 신설 및 폐지된 점포의 지역 명시)

2002년 이후 2006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작성

□ 국내 시중은행 해외점포수 증감 현황

연도	점포수 (증감율)	신설 국가	폐쇄 국가
2002년	78(△3.7%)	베트남(2)	미국(1), 영국(1), 일본(1), 홍콩(2)
2003년	81(+3.8%)	중국(4), 러시아(1), 두바이(1)	미국(3)
2004년	78(△3.7%)	중국(1), 북한(1), 이라크(1), 미국(3)	미국(4), 영국(1), 아일랜드 (1), 홍콩(1), 싱가포르(1), 룩셈부 르크(1)
2005년	74(△5.1%)	중국(2)	중국(1), 미국(1), 영국(2), 일본(1), 홍콩(1)
2006. 7월	72(△2.7%)	베트남(1)	북한(1), 일본(1), 베트남(1)

(1) 각 시중 은행별 국내 점포수

은행명	2002/12	2003/12	2004/12	2005/12	2006/03
조흥은행	536	558	534	538	540
우리은행	656	693	698	742	768
SC제일은행	388	409	405	406	403
하나은행	592	575	571	577	576
한국외환은행	303	321	315	317	320
신한은행	339	352	373	408	417
한국씨티은행	225	222	238	250	250
국민은행	1,185	1,131	1,119	1,098	1,106

\* 점포수는 본점과 지점, 출장소의 수를 기준

(1) 해외점포수 증감 현황

별첨파일 참조

## (2) 시중 은행별 임직원수

(단위 : 명)

은행명		2002/12	2003/12	2004/12	2005/12	2006/03
조흥은행	임원	21	19	19	16	13
	직원	6,637	6,667	6,596	6,130	6,037
	임직원	6,658	6,686	6,615	6,146	6,050
우리은행	임원	18	18	19	20	20
	직원	10,182	10,206	10,560	10,378	10,587
	임직원	10,200	10,224	10,579	10,398	10,607
SC제일은행	임원	28	30	29	41	42
	직원	4,250	4,180	4,205	4,498	4,528
	임직원	4,278	4,210	4,234	4,539	4,570
하나은행	임원	54	55	57	56	53
	직원	7,054	6,944	6,590	7,064	7,183
	임직원	7,108	6,999	6,647	7,120	7,236
한국외환은행	임원	21	15	19	18	19
	직원	5,360	5,344	5,234	5,292	5,322
	임직원	5,381	5,359	5,253	5,310	5,341
신한은행	임원	16	16	15	16	13
	직원	4,473	4,555	4,805	5,255	5,429
	임직원	4,489	4,571	4,820	5,271	5,442
한국씨티은행	임원	13	17	19	17	18
	직원	2,974	2,990	3,840	3,999	4,152
	임직원	2,987	3,007	3,859	4,016	4,170
국민은행	임원	26	27	28	26	26
	직원	18,347	19,525	18,927	16,960	17,131
	임직원	18,373	19,552	18,955	16,986	17,157

\* 직원에는 일반직원 및 서무, 별정직원 포함

\* 임직원 수에는 국내 및 해외인원수가 합산

# 각 은행별 신용대출 잔액추이

(단위 : 억원)

	2002/12	2003/12	2004/12	2005/12
조흥은행	162,701	167,943	149,053	150,909
우리은행	131,387	188,764	337,650	387,787
SC제일은행	86,370	80,737	88,654	96,939
하나은행	165,486	151,493	148,790	167,304
한국외환은행	90,875	138,994	128,934	138,104
신한은행	96,261	110,146	118,805	125,918
한국씨티은행	72,575	91,168	109,175	90,469
국민은행	405,057	480,920	495,319	510,179
대구은행	28,829	36,488	38,410	45,759
부산은행	30,692	37,031	44,934	49,321
광주은행	17,637	20,816	24,680	30,371
제주은행	5,034	4,454	4,019	4,339
전북은행	8,676	9,406	10,647	13,829
경남은행	19,664	21,572	25,519	32,276
산업은행	68,396	74,261	69,993	69,675
기업은행	140,552	153,523	165,557	185,064
수출입은행	15,492	11,680	15,770	22,382
농협	289,918	309,169	307,656	349,493
수협	21,060	20,929	21,118	35,656

\* 원화대출금 기준



각 은행별, 보험사별, 증권사별 영업실적(은행)

(단위 : 억원)

		2002/12	2003/12	2004/12	2005/12	2006/03
조흥은행	영업이익	-1,500	-6,906	3,184	6,313	2,524
	당기순이익	5,860	-9,660	2,652	7,565	2,009
우리은행	영업이익	5,666	12,373	13,881	16,430	4,550
	당기순이익	7,796	13,322	19,967	14,258	3,546
SC제일은행	영업이익	842	343	2,393	938	1,154
	당기순이익	1,015	-135	1,200	653	762
하나은행	영업이익	5,106	2,751	8,523	9,278	3,549
	당기순이익	3,236	5,172	13,430	9,068	3,068
한국외환은행	영업이익	4,718	2,049	4,534	9,784	3,749
	당기순이익	1,130	-2,138	5,221	19,293	2,998
신한은행	영업이익	9,319	6,753	10,359	9,406	3,177
	당기순이익	5,959	4,760	8,441	7,744	2,281
한국씨티은행	영업이익	2,688	149	3,496	4,313	815
	당기순이익	2,604	462	2,477	4,609	815
국민은행	영업이익	22,658	-1,371	20,890	30,158	10,461
	당기순이익	13,103	-9,304	5,553	22,522	8,030
대구은행	영업이익	1,380	1,423	1,643	2,330	907
	당기순이익	1,312	1,108	1,235	1,753	716
부산은행	영업이익	2,006	1,362	1,801	2,340	727
	당기순이익	1,480	1,213	1,327	1,789	478
광주은행	영업이익	860	407	904	875	376
	당기순이익	748	571	723	1,247	290
제주은행	영업이익	164	1.58	77	109	45
	당기순이익	125	48	63	111	52
전북은행	영업이익	139	313	350	307	119
	당기순이익	60	442	357	268	99
경남은행	영업이익	1,074	934	1,240	1,616	572
	당기순이익	825	852	1,092	1,327	432
산업은행	영업이익	-5,450	-5,199	2,609	2,267	2,344
	당기순이익	1,839	1,669	9,975	24,217	6,494
기업은행	영업이익	6,918	1,281	6,082	11,010	2,853
	당기순이익	5,814	2,240	3,704	7,785	2,706
수출입은행	영업이익	873	462	829	171	334
	당기순이익	543	441	775	2,245	237
농협	영업이익	14,990	9,965	14,536	15,338	4,560
	당기순이익	7,853	5,046	8,518	8,641	3,114
수협	영업이익	752	962	1,028	1,354	326
	당기순이익	550	711	1,042	1,247	525

각 은행별, 보험사별, 증권사별 영업실적(국내증권사)

(단위 : 억원)

금융회사명	구분명	2003년03월	2004년03월	2005년03월	2006년03월
교보증권(주)	영업이익(손실)	-499	130	-20	442
교보증권(주)	당기순이익(순손실)	-388	120	167	385
굿모닝 신한증권주식회사	영업이익(손실)	-14	540	423	1,367
굿모닝 신한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109	807	303	1,015
대신증권주식회사	영업이익(손실)	700	1,113	628	2,173
대신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420	738	412	1,574
대우증권주식회사	영업이익(손실)	268	1,602	888	3,862
대우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604	1,325	-1,489	4,104
신영증권주식회사	영업이익(손실)	98	357	357	517
신영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84	307	276	545
서울증권주식회사	영업이익(손실)	65	-94	-147	350
서울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112	26	141	233
한양증권주식회사	영업이익(손실)	-25	36	63	207
한양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40	41	33	156
메리츠증권	영업이익(손실)	44	198	-53	305
메리츠증권	당기순이익(순손실)	3	113	-39	205
우리투자증권	영업이익(손실)	1,314	1,919	1,129	2,996
우리투자증권	당기순이익(순손실)	521	42	421	2,588
부국증권주식회사	영업이익(손실)	-38	101	14	227
부국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44	82	-13	165
브릿지증권주식회사	영업이익(손실)	-46	-30	-61	-22
브릿지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217	27	-393	-135
하나증권주식회사	영업이익(손실)	164	226	239	547
하나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82	480	156	391
현대증권주식회사	영업이익(손실)	-484	1,348	665	2,522
현대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597	-1,982	540	2,827
한화증권주식회사	영업이익(손실)	-557	142	80	634
한화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515	403	72	564
신흥증권주식회사	영업이익(손실)	-361	52	49	183
신흥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260	33	36	121
유화증권주식회사	영업이익(손실)	88	159	125	160
유화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59	154	119	161
동양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	영업이익(손실)	575	1,190	1,445	1,270
동양종합금융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189	740	1,072	1,600
SK증권주식회사	영업이익(손실)	6	309	44	656
SK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990	516	88	560
KGI증권	영업이익(손실)	-175	-55	-60	113
KGI증권	당기순이익(순손실)	-152	-104	-55	181
NH투자증권	영업이익(손실)	181	42	-187	267
NH투자증권	당기순이익(순손실)	119	-31	-203	194

(주)삼성증권	영업이익(손실)	780	1,278	712	2,577
(주)삼성증권	당기순이익(순손실)	575	967	314	2,200
동부증권주식회사	영업이익(손실)	-126	40	44	321
동부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123	27	24	252
한누리투자증권(주)	영업이익(손실)	-7	58	77	130
한누리투자증권(주)	당기순이익(순손실)	11	31	43	94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식회사	영업이익(손실)	183	179	371	710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123	332	690	837
푸르덴셜투자증권(주)	영업이익(손실)	-2,135	-1,902	223	364
푸르덴셜투자증권(주)	당기순이익(순손실)	-2,619	-790	-603	822
CJ투자증권(주)	영업이익(손실)	-133	-342	-106	227
CJ투자증권(주)	당기순이익(순손실)	-312	-444	-631	-20
한국투자증권	영업이익(손실)	-1,942	1,351	-830	2,336
한국투자증권	당기순이익(순손실)	-1,883	-590	1,859	7,293
대한투자증권(주)	영업이익(손실)	-1,363	5,067	-3,314	346
대한투자증권(주)	당기순이익(순손실)	-1,216	4,822	-2,977	728
리딩투자증권주식회사	영업이익(손실)	-29	-27	49	154
리딩투자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42	-28	51	108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영업이익(손실)	332	640	525	1,375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174	437	313	915
비엔지증권중개(주)	영업이익(손실)	1	-2	2	6
비엔지증권중개(주)	당기순이익(순손실)	1	-2	1	5
키움닷컴증권(주)	영업이익(손실)	103	126	120	651
키움닷컴증권(주)	당기순이익(순손실)	66	75	71	480
이트레이드증권(주)	영업이익(손실)	2	12	14	101
이트레이드증권(주)	당기순이익(순손실)	1	38	21	79
코리아RB증권중개주식회사	영업이익(손실)	-7	2	-8	2
코리아RB증권중개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10	-1	-10	2
흥국증권중개	영업이익(손실)	10	6	1	11
흥국증권중개	당기순이익(순손실)	8	4	0	8
도이치증권	영업이익(손실)	213	489	699	478
도이치증권	당기순이익(순손실)	103	259	489	362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	영업이익(손실)	5	3	1	-1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주)	당기순이익(순손실)	4	2	3	4
비엔피파리바증권중개	영업이익(손실)	-3	-10	-2	18
비엔피파리바증권중개	당기순이익(순손실)	-2	-8	-5	12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주)	영업이익(손실)	6	96	131	170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주)	당기순이익(순손실)	11	58	87	121
맥쿼리증권	영업이익(손실)				6
맥쿼리증권	당기순이익(순손실)				4

각 은행별, 보험사별, 증권사별 영업실적(외국계증권사)

(단위 : 억원)

금융회사명(서울지점)	구분명	2003년03월	2004년03월	2005년03월	2006년03월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영업이익(손실)	68	352	649	763
크레디트스위스증권	당기순이익(순손실)	64	266	-68	615
골드만삭스증권회사	영업이익(손실)	605	521	594	923
골드만삭스증권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457	380	458	695
다이와증권SMBC(주)	영업이익(손실)	6	1	6	31
다이와증권SMBC(주)	당기순이익(순손실)	2	0	2	29
메릴린치인터내셔널인코포레이티드증권	영업이익(손실)	689	603	453	860
메릴린치인터내셔널인코포레이티드증권	당기순이익(순손실)	486	422	316	621
모간스탠리인터내셔널증권회사	영업이익(손실)	679	682	814	1,183
모간스탠리인터내셔널증권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681	606	720	1,006
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주)	영업이익(손실)	14	11	0	15
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주)	당기순이익(순손실)	15	10	2	9
크레디아그리콜슈브르증권	영업이익(손실)	26	16	47	35
크레디아그리콜슈브르증권	당기순이익(순손실)	24	8	31	25
유비에스증권회사	영업이익(손실)	519	565	814	1,555
유비에스증권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408	424	613	1,171
제이피모간증권회사	영업이익(손실)	75	299	241	473
제이피모간증권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36	207	166	345
에이비엔암로아시아증권	영업이익(손실)	37	68	86	50
에이비엔암로아시아증권	당기순이익(순손실)	32	54	59	31
맥쿼리증권	영업이익(손실)	173	91	97	192
맥쿼리증권	당기순이익(순손실)	92	68	68	146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영업이익(손실)	-48	280	389	978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당기순이익(순손실)	-50	216	277	686
홍콩상하이증권	영업이익(손실)	19	23	2	-4
홍콩상하이증권	당기순이익(순손실)	16	22	7	1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구 노무라증권)	영업이익(손실)	-30	-43	-44	-29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구 노무라증권)	당기순이익(순손실)	5	-11	-13	11
에스지증권(구 에스지증권회사)	영업이익(손실)	-19	56	68	22
에스지증권(구 에스지증권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43	49	52	16

각 은행별, 보험사별, 증권사별 영업실적(생명보험)

(단위 : 억원)

금융회사명	구분명	2003년03월	2004년03월	2005년03월	2006년03월
대한생명(주)	영업이익	11,028	8,635	6,551	2,829
	당기순이익	9,794	6,150	5,366	3,749
알리안츠생명(주)	영업이익	1,219	776	-219	394
	당기순이익	555	185	-653	256
삼성생명(주)	영업이익	15,121	15,636	15,977	5,330
	당기순이익	9,674	3,277	5,758	6,262
흥국생명(주)	영업이익	1,097	1,008	768	775
	당기순이익	503	534	263	464
교보생명(주)	영업이익	6,987	7,801	7,101	3,236
	당기순이익	3,566	846	3,817	2,319
녹십자생명(주)	영업이익		277	-175	61
	당기순이익		-82	-198	39
신한생명(주)	영업이익	1,183	1,511	1,578	1,601
	당기순이익	863	967	930	1,019
LIG생명(주)	영업이익	-70	96	178	181
	당기순이익	-218	76	180	191
금호생명(주)	영업이익	636	677	950	1,102
	당기순이익	407	209	358	754
미래에셋생명(주)	영업이익	984	947	1,146	533
	당기순이익	821	166	432	291
KB생명(주)	영업이익			240	86
	당기순이익			-42	55
동부생명(주)	영업이익	292	273	425	322
	당기순이익	181	5	227	225
동양생명(주)	영업이익	374	1,153	1,135	1,081
	당기순이익	165	794	668	741
Met Life(주)	영업이익	730	395	467	437
	당기순이익	427	325	303	671
PCA생명(주)	영업이익	-31	-111	47	-100
	당기순이익	-53	-127	22	-81
뉴욕생명(주)	영업이익	32	26	10	-67
	당기순이익	-18	5	0	-69
푸르덴셜생명(주)	영업이익	1,312	1,422	1,240	1,400
	당기순이익	850	983	849	1,020
ING생명(주)	영업이익	1,232	1,605	2,254	1,998
	당기순이익	786	1,031	1,458	1,516
하나생명(주)	영업이익	-5	44	45	9
	당기순이익	-17	18	15	4
라이나생명(주)	영업이익	323	389	492	747
	당기순이익	202	207	318	524
아메리카생명 한국지점	영업이익	121	632	1,025	1,044
	당기순이익	37	403	975	961
SH&C생명(주)	영업이익	-6	-24	4	-14
	당기순이익	-16	-31	19	63

각 은행별, 보험사별, 증권사별 영업실적(손해보험)

(단위 : 억원)

금융회사명	구분명	2003년03월	2004년03월	2005년03월	2006년03월
메리츠화재(주)	영업이익	487	315	384	354
	당기순이익	341	200	211	264
신동아화재(주)	영업이익	-366	23	117	-106
	당기순이익	-701	65	37	-118
대한화재(주)	영업이익	400	45	132	62
	당기순이익	393	34	102	27
그린화재(주)	영업이익	-78	-180	64	61
	당기순이익	-31	-189	61	63
흥국쌍용화재	영업이익	-177	-9	84	-183
	당기순이익	-234	-68	61	-252
제일화재(주)	영업이익	67	117	151	133
	당기순이익	39	-7	74	106
삼성화재(주)	영업이익	4,040	2,976	4,542	4,067
	당기순이익	2,678	1,701	2,782	2,620
현대해상(주)	영업이익	620	794	902	671
	당기순이익	412	500	681	443
엘아이지손해(주)	영업이익	988	950	1,191	624
	당기순이익	646	414	451	355
동부화재(주)	영업이익	1,168	940	2,014	1,651
	당기순이익	791	453	1,144	1,231
서울보증(주)	영업이익	1,031	2,417	5,134	7,459
	당기순이익	-1,615	2,435	5,196	6,571
코리안리보험(주)	영업이익	825	969	862	914
	당기순이익	577	650	538	626
교보자동차(주)	영업이익	-111	64	36	-66
	당기순이익	-87	27	9	-72
교원자동차(주)	영업이익		-56	-73	-52
	당기순이익		-57	-79	-61
다음자동차(주)	영업이익		-80	-144	-132
	당기순이익		-61	-122	-106
A.H.A 한국지점	영업이익		-95	-55	-119
	당기순이익		-98	-56	-113
ACE 한국지점	영업이익	40	-29	-15	-52
	당기순이익	27	-31	-28	-47
RSA 한국지점	영업이익	-70	-56	-48	-26
	당기순이익	-64	-64	-56	-28
Federal 한국지점	영업이익	-19	10	58	76
	당기순이익	-39	4	40	53
필름재보험 한국지점	영업이익	60	19	49	41
	당기순이익	60	-14	45	41
스위스재보험 한국지점	영업이익	200	-83	198	87
	당기순이익	139	-62	138	65
원헨재보험 한국지점	영업이익	105	62	173	161
	당기순이익	72	43	124	117
퍼스트권원 한국지점	영업이익	-4	-8	-3	4
	당기순이익	-4	-7	-3	5
미쓰이 한국지점	영업이익	-9	-223	40	52
	당기순이익	-8	-223	39	52
ERC 한국지점	영업이익	-4	16	83	151
	당기순이익	-4	11	56	110
동경해상 서울지점	영업이익		-11	36	66
	당기순이익		-13	29	47
SCORE RE 한국지점	영업이익			-4	6
	당기순이익			-4	4
RGA재보험 한국지점	영업이익				-10
	당기순이익				-11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	영업이익				-22
	당기순이익				-22

(1) 국내증권사별 순이익 및 ROE

금융회사명	구분명	2003년03월	2004년03월	2005년03월	2006년03월	증감	증감
교보증권(주)	당기순이익(순손실)	-387.5	120.4	508.0	384.6	46.3	217.9
교보증권(주)	ROE	-14.3	5.2	19.5	13.8	1.7	6.9
국민연금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108.8	806.6	697.8	1014.8	-503.4	711.7
국민연금증권주식회사	ROE	1.7	13.0	11.3	14.3	-8.4	9.7
대신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420.5	738.3	317.8	1573.8	-326.0	1161.5
대신증권주식회사	ROE	3.4	5.8	2.4	11.6	-2.5	8.3
대우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604.0	1325.2	1929.1	4104.2	-2814.6	5593.6
대우증권주식회사	ROE	-5.2	11.9	17.1	27.7	-23.6	39.4
신영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83.9	307.1	223.2	544.6	-31.3	268.8
신영증권주식회사	ROE	1.9	6.8	4.8	10.9	-0.8	5.0
서울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111.6	26.0	-85.6	232.9	141.2	91.7
서울증권주식회사	ROE	3.8	0.9	-2.9	7.7	3.8	3.0
한양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39.8	41.4	81.2	156.3	-32.7	123.6
한양증권주식회사	ROE	-2.8	2.9	5.6	10.3	-0.6	8.0
메리츠증권	당기순이익(순손실)	3.4	113.3	109.9	205.2	-152.1	244.0
메리츠증권	ROE	0.1	4.7	4.5	9.0	-6.4	10.7
우리투자증권	당기순이익(순손실)	521.4	42.4	-479.0	2588.4	378.5	2167.5
우리투자증권	ROE	3.6	0.3	-3.3	13.7	2.4	11.0
부국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43.7	82.0	125.7	164.6	-95.2	177.8
부국증권주식회사	ROE	-2.0	3.8	5.8	7.6	-4.4	8.3
브릿지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216.8	27.2	244.0	-134.5	-420.1	258.3
브릿지증권주식회사	ROE	-4.9	0.7	5.6	-10.8	-16.2	4.6
하나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82.5	480.4	397.9	391.0	-324.3	234.9
하나증권주식회사	ROE	2.8	15.2	12.4	11.7	-10.3	6.7
현대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597.4	-1981.7	-1384.2	2826.8	2521.6	2286.9
현대증권주식회사	ROE	-4.5	-16.4	-12.0	21.0	21.0	17.1
한화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515.1	402.6	917.7	564.0	-330.8	492.1
한화증권주식회사	ROE	-18.3	13.3	31.6	15.0	-11.0	12.7
신흥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260.2	32.8	293.0	120.8	3.0	84.9
신흥증권주식회사	ROE	-23.6	3.0	26.6	11.1	0.5	7.6
유화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58.8	154.3	95.5	160.8	-35.0	41.5
유화증권주식회사	ROE	1.9	5.0	3.2	5.1	-1.1	1.2
동양합일금융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189.2	740.4	929.6	1600.5	332.0	528.1
동양합일금융증권주식회사	ROE	-4.3	18.2	22.5	32.2	3.4	10.6
SK증권주식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989.6	516.1	1505.7	560.3	-427.9	472.0
SK증권주식회사	ROE	-42.8	26.0	68.8	21.9	-22.0	17.9
KGI증권	당기순이익(순손실)	-152.3	-103.6	48.7	180.9	-55.2	236.2
KGI증권	ROE	-10.0	-7.0	3.0	11.3	-3.7	14.9
NH투자증권	당기순이익(순손실)	119.0	-31.1	-150.1	193.8	-171.7	396.6
NH투자증권	ROE	5.7	-1.7	-7.4	15.2	-12.7	29.5

(단위 : %·억 원)

(주)삼성증권	당기 순이익(순손실)	575.4	967.0	391.6	313.9	-653.1	2200.3	1886.4
(주)삼성증권	ROE	3.6	5.9	2.3	1.9	-4.0	12.7	10.9
동부증권주식회사	당기 순이익(순손실)	-123.1	27.3	150.4	24.1	-3.2	252.0	227.9
동부증권주식회사	ROE	-8.1	1.9	10.0	1.7	-0.2	16.2	14.6
한누리투자증권(주)	당기 순이익(순손실)	11.0	31.2	20.2	43.2	12.1	94.5	51.2
한누리투자증권(주)	ROE	0.9	2.7	1.7	4.2	1.6	9.4	5.2
세티그림글로벌마켓증권주식회사	당기 순이익(순손실)	123.2	332.2	209.0	690.5	358.3	837.2	146.7
세티그림글로벌마켓증권주식회사	ROE	17.0	33.2	16.2	50.8	17.7	38.2	-12.7
우트먼셀투자증권(주)	당기 순이익(순손실)	-2618.9	-790.4	1828.5	-603.3	187.1	822.4	1425.7
우트먼셀투자증권(주)	ROE	22.7	5.9	-16.9	-25.7	-31.6	39.2	65.0
CJ투자증권(주)	당기 순이익(순손실)	-311.7	-443.8	-132.2	-630.8	-187.0	-20.4	610.5
CJ투자증권(주)	ROE	-31.9	-86.4	-54.5	-54.7	31.7	-1.0	53.6
한국투자증권	당기 순이익(순손실)	-1883.3	-589.6	1293.7	1859.2	2448.8	7293.3	5434.1
한국투자증권	ROE	50.7	7.9	-42.8	-31.2	-39.1	64.6	95.8
대한투자증권(주)	당기 순이익(순손실)	-1216.2	4822.5	6038.7	-2977.3	-7799.8	728.1	3705.5
대한투자증권(주)	ROE	33.3	-305.9	-339.2	-120.9	185.0	20.1	140.9
리딩투자증권주식회사	당기 순이익(순손실)	-41.7	-27.5	14.2	50.6	78.2	107.9	57.3
리딩투자증권주식회사	ROE	-16.8	-13.0	3.8	22.9	35.8	38.6	15.8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당기 순이익(순손실)	174.1	436.6	262.5	312.6	-124.0	915.3	602.7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ROE	9.3	21.5	12.2	13.6	-7.9	30.2	16.7
비엔지증권(주)	당기 순이익(순손실)	1.3	-2.1	-3.3	1.2	3.3	4.9	3.7
비엔지증권(주)	ROE	2.2	-3.9	-6.1	2.2	6.1	12.6	10.4
키움증권(주)	당기 순이익(순손실)	66.1	74.9	8.8	71.3	-3.6	479.6	408.2
키움증권(주)	ROE	11.3	12.2	0.9	9.7	-2.5	46.9	37.2
이트레이드증권(주)	당기 순이익(순손실)	1.2	38.5	37.3	21.4	-17.0	79.4	58.0
이트레이드증권(주)	ROE	0.6	17.0	16.4	5.2	-11.7	14.3	9.1
코리아RB증권주식회사	당기 순이익(순손실)	-9.8	-0.8	9.1	-10.4	-9.6	2.1	12.4
코리아RB증권주식회사	ROE	-14.5	-1.2	13.3	-18.5	-17.3	4.4	22.9
흥국증권(주)	당기 순이익(순손실)	7.8	4.4	-3.3	0.4	-4.0	7.8	7.4
흥국증권(주)	ROE	14.8	8.4	-6.4	0.8	-7.6	15.2	14.4
도이치증권	당기 순이익(순손실)	103.2	259.2	156.0	488.8	229.6	361.8	-126.9
도이치증권	ROE	18.3	34.5	16.2	43.1	8.6	26.9	-16.2
케이아이디비채권(주)	당기 순이익(순손실)	4.0	2.3	-1.7	3.1	0.7	3.8	0.7
케이아이디비채권(주)	ROE	8.6	5.1	-3.5	4.9	-0.2	5.5	0.7
비엔피파리바증권(주)	당기 순이익(순손실)	-1.9	-8.0	-6.2	-5.5	2.5	12.3	17.8
비엔피파리바증권(주)	ROE	-3.9	-16.3	-12.4	-7.8	8.4	15.2	23.1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주)	당기 순이익(순손실)	11.1	57.7	46.6	87.3	29.6	121.4	34.1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주)	ROE	6.5	30.5	24.0	35.0	4.5	43.9	8.9
맥쿼리증권	당기 순이익(순손실)						4.2	
맥쿼리증권	ROE						0.4	



(1) 외국계 증권사별 순이익 및 ROE

금융회사명	구분명	2003년03월	2004년03월	2005년03월	2006년03월	증감	증감	(단위 : %, 억 원)
크레디트스위스증권서울지점	당기순이익(순손실)	64.1	266.0	201.8	614.9	-334.2	683.1	증감
크레디트스위스증권서울지점	ROE	2.6	9.9	7.4	18.1	-2.0	20.1	
클드만삭스증권회사서울지점	당기순이익(순손실)	457.1	379.7	-77.4	694.7	458.2	236.5	
클드만삭스증권회사서울지점	ROE	40.9	34.2	-6.8	52.4	35.8	16.6	
다이와증권SMBC(주)서울지점	당기순이익(순손실)	1.9	0.3	-1.6	29.1	1.9	27.2	
다이와증권SMBC(주)서울지점	ROE	0.6	0.1	-0.5	7.0	0.5	6.5	
메릴린치인터내셔널코퍼레이티드증권서울지점	당기순이익(순손실)	485.8	422.0	-63.8	620.6	316.1	304.5	
메릴린치인터내셔널코퍼레이티드증권서울지점	ROE	44.7	27.1	-17.6	23.4	16.3	7.1	
모간스탠리인터내셔널증권회사서울지점	당기순이익(순손실)	681.1	606.1	-75.0	1,005.6	720.3	285.3	
모간스탠리인터내셔널증권회사서울지점	ROE	49.6	30.1	-19.6	58.3	41.5	16.8	
비블레이즈캐피탈증권(주)서울지점	당기순이익(순손실)	15.0	10.4	-4.6	8.8	2.5	6.3	
비블레이즈캐피탈증권(주)서울지점	ROE	12.9	5.9	-7.0	4.8	1.4	3.5	
크레디아그리폴슈브르증권 서울지점	당기순이익(순손실)	23.9	8.4	-15.5	25.1	31.4	-6.2	
크레디아그리폴슈브르증권 서울지점	ROE	13.5	5.1	-8.5	14.4	18.3	-3.9	
유비에스증권회사서울지점	당기순이익(순손실)	407.6	424.3	16.7	1,171.3	613.4	557.9	
유비에스증권회사서울지점	ROE	47.1	45.7	-1.4	49.8	50.6	-0.7	
제이피모간증권회사서울지점	당기순이익(순손실)	36.5	207.0	170.5	345.0	166.0	179.0	
제이피모간증권회사서울지점	ROE	6.9	36.2	29.3	33.6	21.1	12.5	
에이비엔글로벌아시아증권	당기순이익(순손실)	32.0	54.4	22.4	31.1	58.6	-27.4	
에이비엔글로벌아시아증권	ROE	13.3	20.4	7.1	10.2	-0.2	-9.9	
맥쿼리증권서울지점	당기순이익(순손실)	91.9	67.8	-24.1	146.5	68.3	78.1	
맥쿼리증권서울지점	ROE	10.9	9.3	-1.6	16.1	8.0	8.1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서울지점	당기순이익(순손실)	-50.3	215.6	266.0	685.6	276.9	408.7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서울지점	ROE	-25.4	62.7	88.1	18.9	12.4	6.4	
홍콩상하이증권서울지점	당기순이익(순손실)	16.0	21.6	5.6	1.3	6.6	-5.3	
홍콩상하이증권서울지점	ROE	17.6	12.4	-5.3	0.9	4.2	-3.3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구 노무라증권)	당기순이익(순손실)	5.2	-11.1	-16.2	11.1	-12.7	-1.6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구 노무라증권)	ROE	1.4	-3.2	-4.6	5.6	-3.8	-0.5	
에스지증권(구 에스지증권회사)	당기순이익(순손실)	-43.4	49.1	92.6	15.7	51.7	2.5	
에스지증권(구 에스지증권회사)	ROE	-19.4	22.4	41.8	38.9	18.3	-4.1	

(2) 국내증권사 수수료 추이, 위탁매매수수료의 비율

금융회사명	구분명	2003년03월	수수료증감, 수탁수수료비중	2004년03월	수수료증감, 수탁수수료비중	2005년03월	수수료증감, 수탁수수료비중	2006년03월	(단위: 억 원, %)	
									수수료증감, 수탁수수료비중	수수료증감, 수탁수수료비중
교보증권(주)	수수료수익	1,237	1	1,173	-64	966	-207	1,486	519	519
교보증권(주)	수탁수수료	1,051		1,017	85.0%	779	80.6%	1,130	76.0%	76.0%
국민연금증권주식회사	수수료수익	2,482		2,780	298	2,394	-386	3,663	1,268	1,268
국민연금증권주식회사	수탁수수료	2,101		2,361	84.7%	2,058	86.0%	3,292	89.9%	89.9%
대신증권주식회사	수수료수익	3,169		2,827	-342	2,153	-674	3,702	1,549	1,549
대신증권주식회사	수탁수수료	3,035		2,755	95.8%	2,041	94.8%	3,532	95.4%	95.4%
대우증권주식회사	수수료수익	3,471		3,234	-237	2,913	-322	6,538	3,626	3,626
대우증권주식회사	수탁수수료	2,822		2,792	81.3%	2,427	83.3%	4,917	75.2%	75.2%
신영증권주식회사	수수료수익	515		444	-71	357	-86	759	401	401
신영증권주식회사	수탁수수료	418		383	81.2%	288	80.6%	379	49.9%	49.9%
서울증권주식회사	수수료수익	593		518	-75	533	15	1,042	509	509
서울증권주식회사	수탁수수료	487		431	82.0%	446	83.8%	752	72.2%	72.2%
한양증권주식회사	수수료수익	318		323	4	272	-51	483	211	211
한양증권주식회사	수탁수수료	254		248	79.8%	200	73.8%	335	69.4%	69.4%
메리츠증권	수수료수익	776		690	-85	467	-223	839	371	371
메리츠증권	수탁수수료	644		586	83.1%	405	86.7%	756	90.2%	90.2%
우리투자증권	수수료수익	4,019		3,531	-488	2,957	-574	4,993	2,036	2,036
우리투자증권	수탁수수료	3,011		2,760	74.9%	2,221	75.1%	4,105	82.2%	82.2%
부국증권주식회사	수수료수익	363		273	-89	177	-96	305	128	128
부국증권주식회사	수탁수수료	311		218	85.8%	157	88.4%	215	70.5%	70.5%
브릿지증권주식회사	수수료수익	550		504	-46	298	-206	198	-100	-100
브릿지증권주식회사	수탁수수료	420		398	76.2%	216	72.4%	182	91.9%	91.9%
하나증권주식회사	수수료수익	632		643	11	724	81	962	238	238
하나증권주식회사	수탁수수료	469		498	74.3%	473	65.4%	721	74.9%	74.9%
현대증권주식회사	수수료수익	4,054		3,536	-518	2,728	-808	4,759	2,031	2,031
현대증권주식회사	수탁수수료	3,233		3,119	79.8%	2,456	90.0%	4,342	91.2%	91.2%
한화증권주식회사	수수료수익	1,015		975	-40	812	-163	1,325	512	512
한화증권주식회사	수탁수수료	842		832	83.0%	681	83.9%	1,179	89.0%	89.0%
신흥증권주식회사	수수료수익	293		263	-30	252	-11	367	115	115
신흥증권주식회사	수탁수수료	211		213	72.0%	164	65.0%	252	68.7%	68.7%
유화증권주식회사	수수료수익	130		108	-22	84	-24	108	24	24
유화증권주식회사	수탁수수료	91		85	69.1%	58	69.3%	92	85.2%	85.2%
동양증권합계증권주식회사	수수료수익	1,453		1,373	-80	1,284	-89	1,954	670	670
동양증권합계증권주식회사	수탁수수료	1,146		1,133	82.5%	903	70.3%	1,444	73.9%	73.9%
SK증권주식회사	수수료수익	1,117		1,054	-62	851	-203	1,441	590	590
SK증권주식회사	수탁수수료	778		901	85.6%	690	81.1%	1,194	82.9%	82.9%
KGI증권	수수료수익	318		181	-137	105	-76	32	-73	-73
KGI증권	수탁수수료	234		157	73.5%	79	75.1%	5	16.5%	16.5%

NH투자증권	수주료수익	700		538	-162	346	-193	454	108
NH투자증권	수탁수료	625	89.3%	491	91.3%	301	87.0%	405	89.3%
(주)삼성증권	수주료수익	5,264		4,926	-338	4,296	-631	6,511	2,215
(주)삼성증권	수탁수료	3,496	66.4%	3,124	63.4%	2,453	57.1%	4,068	62.5%
동부증권주식회사	수주료수익	393		359	-34	410	51	926	517
동부증권주식회사	수탁수료	322	81.9%	304	84.6%	336	82.1%	634	68.4%
한누리투자증권(주)	수주료수익	200		121	-79	202	82	261	59
한누리투자증권(주)	수탁수료	74	37.1%	60	49.4%	60	29.7%	102	38.9%
세티그로글로벌마켓증권주식회사	수주료수익	540		574	34	776	203	1,034	258
세티그로글로벌마켓증권주식회사	수탁수료	380	70.3%	453	79.0%	526	67.8%	825	79.8%
프린덱셀투자증권(주)	수주료수익	2,085		1,545	-541	1,160	-384	1,279	119
프린덱셀투자증권(주)	수탁수료	276	13.3%	281	18.2%	197	17.0%	304	23.8%
CJ투자증권(주)	수주료수익	1,172		899	-273	724	-175	1,027	303
CJ투자증권(주)	수탁수료	412	35.2%	370	41.1%	281	38.8%	501	48.8%
한국투자증권	수주료수익	2,583		2,054	-529	1,703	-351	4,384	2,681
한국투자증권	수탁수료	734	28.4%	773	37.6%	528	31.0%	2,726	62.2%
대한투자증권(주)	수주료수익	2,375		2,079	-297	1,684	-394	1,777	93
대한투자증권(주)	수탁수료	525	22.1%	684	32.9%	473	28.1%	543	30.6%
리딩투자증권주식회사	수주료수익	51		45	-5	57	11	82	26
리딩투자증권주식회사	수탁수료	42	83.6%	43	94.3%	50	88.9%	77	93.9%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수주료수익	982		1,050	68	1,062	11	2,341	1,279
미래에셋증권주식회사	수탁수료	711	72.3%	779	74.2%	745	70.2%	1,424	60.8%
비엔지증권주개(주)	수주료수익	40		29	-11	38	9	55	17
비엔지증권주개(주)	수탁수료	40	100.0%	29	100.0%	38	99.8%	55	99.7%
키움닷컴증권(주)	수주료수익	499		492	-8	488	-4	991	503
키움닷컴증권(주)	수탁수료	469	93.9%	476	96.7%	466	95.5%	965	97.4%
이트레이드증권(주)	수주료수익	135		146	11	185	39	309	123
이트레이드증권(주)	수탁수료	135	99.6%	146	99.8%	181	97.6%	286	92.6%
코리야이비증권주개(주)	수주료수익	57		54	-3	35	-19	59	25
코리야이비증권주개(주)	수탁수료	57	100.0%	54	100.0%	35	99.9%	59	99.4%
한국증권주개	수주료수익	37		36	0	26	-10	43	17
한국증권주개	수탁수료	37	100.0%	36	100.0%	26	100.0%	43	100.0%
도이치증권	수주료수익	462		665	203	1,267	602	787	-479
도이치증권	수탁수료	462	99.9%	659	99.1%	1,205	95.1%	720	91.5%
케이아이디비채권주개(주)	수주료수익	39		40	1	38	-2	27	-11
케이아이디비채권주개(주)	수탁수료	39	100.0%	40	100.0%	38	100.0%	27	100.0%
비엔피파리바증권주개	수주료수익	19		65	46	107	42	184	77
비엔피파리바증권주개	수탁수료	19	100.0%	65	100.0%	107	100.0%	184	100.0%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주)	수주료수익	30		464	434	546	82	698	152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주)	수탁수료	29	98.1%	464	100.0%	546	100.0%	698	100.0%
맥쿼리증권	수주료수익							10	
맥쿼리증권	수탁수료							10	99.1%

(2) 외국계증권사 수수료 추이, 위탁매매 수수료의 비율

금융회사명	구분명	2003년03월	수수료증감, 수탁수수료비중	2004년03월	수수료증감, 수탁수수료비중	2005년03월	수수료증감, 수탁수수료비중	2006년03월	수수료증감, 수탁수수료비중
크레디트스위스증권사서울지점	수수료 수익	515		629	114	871	242	1,286	415
크레디트스위스증권사서울지점	수탁수수료	452	87.8%	551	87.6%	725	83.2%	1,128	87.7%
골드만삭스증권사서울지점	수수료 수익	832		763	-68	844	81	1,171	327
골드만삭스증권사서울지점	수탁수수료	685	82.4%	626	82.0%	664	78.7%	886	75.7%
다이와증권SMBC(주)서울지점	수수료 수익	58		55	-3	86	31	157	71
다이와증권SMBC(주)서울지점	수탁수수료	50	85.9%	43	78.7%	53	61.6%	110	70.2%
메릴린치인터내셔널코포레이티드증권	수수료 수익	984		921	-62	822	-99	1,257	434
메릴린치인터내셔널코포레이티드증권	수탁수수료	875	88.9%	765	83.1%	661	80.4%	1,005	80.0%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증권사서울지점	수수료 수익	869		943	74	1,070	128	1,506	436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증권사서울지점	수탁수수료	610	70.2%	758	80.4%	776	72.5%	1,126	74.8%
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주)서울지점	수수료 수익	38		47	9	38	-9	53	15
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주)서울지점	수탁수수료	34	88.5%	22	47.3%	21	55.5%	30	56.0%
크레디아그리울스브르증권 서울지점	수수료 수익	124		77	-47	89	12	51	-38
크레디아그리울스브르증권 서울지점	수탁수수료	124	100.0%	77	100.0%	89	100.0%	51	100.0%
유비एस증권사서울지점	수수료 수익	680		789	109	1,111	323	2,080	968
유비एस증권사서울지점	수탁수수료	680	100.0%	789	100.0%	983	88.5%	1,867	89.8%
제이피모간증권사서울지점	수수료 수익	424		582	157	521	-61	886	365
제이피모간증권사서울지점	수탁수수료	407	96.0%	427	73.4%	481	92.4%	796	89.9%
에이비에프알로아시아증권	수수료 수익	151		205	54	299	94	359	60
에이비에프알로아시아증권	수탁수수료	137	90.8%	169	82.5%	239	80.0%	268	74.8%
백릭증권서울지점	수수료 수익	291		329	37	348	20	546	197
백릭증권서울지점	수탁수수료	289	99.4%	318	96.9%	345	99.1%	485	88.8%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사서울지점	수수료 수익	156		438	283	571	133	750	178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사서울지점	수탁수수료	105	67.2%	178	40.6%	266	46.6%	332	44.3%
홍콩상하이증권사서울지점	수수료 수익	82		141	59	73	-69	73	0
홍콩상하이증권사서울지점	수탁수수료	78	94.9%	126	88.9%	55	75.0%	52	71.4%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구 노무라증권)	수수료 수익	92		82	-10	88	6	132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구 노무라증권)	수탁수수료	90	98.5%	81	98.3%	86	98.2%	112	84.9%
에스지증권(구 에스지증권회사)	수수료 수익	78		121	43	116	-5	43	
에스지증권(구 에스지증권회사)	수탁수수료	78	100%	121	100%	116	100%	43	100.0%

(3) 국내증권사별 자기매매 이익 추이

금융회사명	구분	2003년03월	2004년03월	2005년03월	2006년03월
(단위 : 억원)					
교보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1,759	2,353	2,492	194
국민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6,333	7,468	6,387	93
대신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4,729	4,701	3,694	492
대우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6,770	9,199	8,070	223
신영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1,746	1,606	1,618	275
서울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1,734	1,582	1,820	199
한양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1,341	1,399	1,560	196
메리츠증권	자기매매영업이익	1,543	1,857	1,890	315
우리투자증권	자기매매영업이익	9,302	10,098	8,958	573
부국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769	1,469	2,481	124
미래지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1,623	1,759	916	2
하나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1,904	2,445	4,787	282
현대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5,828	7,372	5,011	908
한화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1,932	2,653	2,057	375
신흥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919	1,123	917	112
유화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1,440	825	557	77
동양종합금융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7,320	9,804	9,477	808
SK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1,693	2,183	1,671	256
KGI증권	자기매매영업이익	571	449	462	125
NH투자증권	자기매매영업이익	2,137	2,076	1,183	306
(주)삼성증권	자기매매영업이익	8,442	11,233	10,497	812
동부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1,329	1,099	1,472	185
한누리투자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426	320	526	70
세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772	663	853	1
푸르덴셜투자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3,905	2,443	1,368	29
CJ투자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1,446	1,106	1,005	143
한국투자증권	자기매매영업이익	2,355	6,705	2,478	1,614
대한투자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4,820	13,840	44	128
리딩투자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386	744	660	211
미래에셋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2,949	3,479	3,146	366
키움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1,549	1,224	1,567	154
이트레이드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228	299	420	30
코티아RB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63	-	-	-
도이치증권	자기매매영업이익	1,057	1,521	2,035	20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주)	자기매매영업이익	-	490	565	0

(3) 외국계증권사별 자기매매 이익 추이						
금융회사명		구분	2003년03월	2004년03월	2005년03월	2006년03월
크레디트스위스증권사서울지점		자기매매영업이익	1,517	1,777	1,987	5
클드만삭스증권회사서울지점		자기매매영업이익	910	854	972	-
다이와증권SMBC(주)서울지점		자기매매영업이익	79	72	104	1
메릴린치인터내셔널인코포레이티드증권사서울지점		자기매매영업이익	1,078	1,027	2,694	140
모간스탠리인터내셔널증권회사서울지점		자기매매영업이익	1,161	1,100	1,193	33
비클레이즈캐피탈증권(주)서울지점		자기매매영업이익	43	56	46	1
크레디아그리플슈브트증권 서울지점		자기매매영업이익	164	122	132	0
유비에스증권회사서울지점		자기매매영업이익	774	-	-	15
제이피모간증권회사서울지점		자기매매영업이익	509	683	640	3
에이비엔애폴아시아증권		자기매매영업이익	168	211	319	4
맥쿼리증권사서울지점		자기매매영업이익	786	383	451	0
에스지증권회사서울지점		자기매매영업이익	150	197	224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사서울지점		자기매매영업이익	239	508	759	373
홍콩상하이증권사서울지점		자기매매영업이익	85	148	78	0
노무라인터내셔널증권(구 노무라증권)		자기매매영업이익	108	96	100	0

(단위 : 억원)

### (3) 증권사별 자기매매 평균잔액 및 수익률 추이

☐ 자기매매영업이익의 산정방식의 특성상 매도유가증권, 매도신증증권, 파생상품 등의 평잔 산출이 곤란하여 자기매매이익평잔 및 수익률 현황 미제출

\* 자기매매영업이익 = 자기매매증권운용손익 + 신증증권운용손익 + 파생상품거래손익

### **13. BIS 관련**

#### **(1) 개별은행별 자율적인 BIS비율 기준 및 준수현황**

#### **(2) 국내은행의 BIS 비율 추이**

#### **(1) 개별은행별 자율적인 BIS 비율 기준 및 준수현황**

□ '06년 3말 현재 19개(조흥은행 신한은행 통합전) 국내은행 모두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의 경영지도비율을 준수

○ 은행업감독규정(제26조)상 지도비율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8% 이상

○ 국내은행 평균 BIS비율 : 13.18%

- 개별은행별 시계열별 BIS비율 준수 현황은

(2) 국내 은행의 BIS비율 추이 참조

(3) 국내은행의 BIS 비율 추이

□ BIS 비율 추이 ( BIS비율 = BIS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

(단위 : %)

은행명	'02말	'03말	'04말	'05년말	'06. 3말
조흥	8.66	8.87	9.40	10.94	10.77
우리	11.59	11.23	12.20	11.65	11.20
재일	11.55	12.00	11.91	10.74	10.04
하나	10.30	11.17	11.83	13.29	13.15
외환	9.31	9.32	9.47	13.68	13.67
신한	10.92	10.49	11.94	12.23	12.55
한국씨티	12.11	10.98	12.42	15.03	14.86
국민	10.41	9.81	11.14	12.95	15.15
시중은행	10.46	10.34	11.31	12.51	12.89
대구	10.85	10.58	10.66	11.33	11.39
부산	11.69	11.66	10.84	12.25	11.91
광주	11.03	10.72	11.81	11.60	10.92
제주	11.71	10.96	10.91	11.71	10.55
전북	11.35	10.79	10.72	11.53	11.59
경남	11.34	11.69	11.34	10.59	12.03
지방은행	11.26	11.13	11.02	11.52	11.56
일반은행	10.52	10.40	11.29	12.43	12.78
산업	16.81	16.22	18.08	18.43	19.06
기업	10.43	9.88	11.17	11.11	11.07
수출입	14.97	14.41	12.86	13.87	13.62
농협	10.77	10.66	11.43	11.81	11.27
수협	10.61	11.71	11.21	12.59	12.27
특수은행	13.22	12.77	13.71	14.09	13.94
국내은행	11.33	11.16	12.08	13.00	13.18



□ BIS 자기자본 추이

(단위 : 조원)

은행명	'02말	'03말	'04말	'05년말	'06. 3말
조흥	3.7	3.6	3.8	5.0	4.9
우리	6.6	7.9	9.3	10.4	10.7
제일	2.2	3.0	3.3	3.5	3.4
하나	5.0	5.7	6.6	8.2	8.5
외환	3.8	3.9	4.0	6.2	6.4
신한	4.4	4.9	5.8	6.6	6.9
한국씨티	2.6	2.9	3.7	4.0	4.0
국민	14.4	12.5	13.5	15.7	18.1
시중은행	42.8	44.4	50.0	59.6	63.0
대구	1.0	1.0	1.1	1.3	1.4
부산	1.0	1.1	1.2	1.5	1.4
광주	0.5	0.5	0.7	0.8	0.8
제주	0.1	0.1	0.1	0.2	0.1
전북	0.2	0.3	0.3	0.4	0.4
경남	0.6	0.7	0.7	0.8	1.0
지방은행	3.5	3.8	4.1	4.9	5.1
일반은행	46.3	48.1	54.1	64.5	68.1
산업	11.5	11.8	13.6	16.1	16.2
기업	3.9	4.1	4.8	5.9	6.3
수출입	2.3	3.3	3.6	4.8	4.8
농협	7.0	8.3	9.2	10.6	10.4
수협	0.4	0.5	0.6	0.9	1.0
특수은행	25.1	28.0	31.8	38.3	38.5
국내은행	71.4	76.1	85.8	102.9	106.6

□ 위험가중자산 추이

(단위 : 조원)

은행명	'02말	'03말	'04말	'05년말	'06. 3말
조흥	42.8	40.3	40.6	45.5	45.9
우리	57.2	69.9	76.2	89.7	95.6
제일	19.0	24.7	27.6	32.5	34.2
하나	48.5	51.1	55.5	61.8	64.8
외환	41.3	42.1	42.1	45.4	46.5
신한	40.4	47.1	48.6	53.7	55.0
한국씨티	21.1	26.4	30.1	26.7	27.2
국민	138.7	127.4	121.1	121.1	119.3
시중은행	409.0	429.0	441.7	476.4	488.5
대구	9.0	9.7	10.3	11.8	11.9
부산	8.6	9.4	10.7	12.0	12.1
광주	4.7	5.1	5.7	6.8	7.3
제주	1.2	1.2	1.2	1.4	1.4
전북	2.0	2.4	2.9	3.1	3.2
경남	5.5	5.9	6.4	7.7	8.1
지방은행	31.1	33.7	37.2	42.9	44.0
일반은행	440.1	462.7	478.9	519.3	532.5
산업	68.6	72.8	75.2	87.5	84.7
기업	37.4	41.0	43.1	53.0	56.5
수출입	15.3	22.7	27.6	34.8	35.1
농협	65.1	78.2	80.2	89.5	92.1
수협	3.5	4.5	5.4	7.2	7.8
특수은행	189.9	219.2	231.6	272.0	276.2
국내은행	630.0	681.9	710.5	791.3	808.7

14. 2002년 이후 2006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각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현황(계좌수, 금액 등) 및 잡익 처리 등 금액  
처리 현황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

## 휴면예금<sup>1)</sup> 현황

(건,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3말 <sup>1)</sup>	환급 <sup>2)</sup>
우리	계좌수	1,972,487	506,961	915,300	919,141	2,341,402	8,440
	금 액	21,153	5,844	9,193	10,565	25,602	437
제일	계좌수	△2,089	1,066,985	1,058,157	617,217	2,742,359	3,254
	금 액	△30	18,741	11,159	7,769	37,669	383
하나	계좌수	1,265,898	2,590,681	728,987	623,585	3,943,253	6,275
	금 액	9,366	27,010	8,337	9,527	44,874	495
외환	계좌수	606,879	518,270	1,138,379	736,631	2,393,280	2,989
	금 액	12,166	7,195	9,795	8,396	25,387	148
신한	계좌수	1,392,147	1,258,271	1,332,678	1,310,773	3,901,722	3,457
	금 액	16,537	15,644	9,783	13,828	39,255	270
씨티	계좌수	184,577	n/a	n/a	n/a	n/a	n/a
	금 액	659	n/a	n/a	n/a	n/a	n/a
국민	계좌수	2,170,259	2,774,153	2,585,817	2,020,070	7,586,849	16,667
	금 액	11,330	25,475	26,167	29,631	82,558	1,960
대구	계좌수	157,168	165,369	903,842	73,410	1,142,621	44,620
	금 액	2,127	1,910	5,886	1,970	9,765	1,720
부산	계좌수	135,472	0	69,246	509,065	578,311	207
	금 액	2,015	0	765	2,977	3,742	17
광주	계좌수	1,834	189,113	0	230,826	419,939	216
	금 액	149	1,008	0	1,018	2,027	3
제주	계좌수	25,614	n/a	n/a	n/a	n/a	n/a
	금 액	135	n/a	n/a	n/a	n/a	n/a
전북	계좌수	87,979	47,759	298,947	96,173	442,879	431
	금 액	375	282	3,636	1,038	4,956	50
경남	계좌수	130,597	124,704	134,633	112,359	371,696	203
	금 액	1,194	892	965	913	2,770	9
산업	계좌수	32,429	22,081	18,621	11,760	52,462	98
	금 액	232	397	396	403	1,196	10
기업	계좌수	672,680	642,603	671,529	602,006	1,916,138	3,843
	금 액	7,498	4,536	6,516	5,306	16,357	160
농협	계좌수	888,789	772,951	1,042,191	2,154,889	3,970,031	5,337
	금 액	5,117	4,997	7,045	39,729	51,771	397
수협	계좌수	108,605	55,215	47,193	35,022	137,430	192
	금 액	1,043	617	593	519	1,730	29
합계	계좌수	9,831,325	10,735,116	10,945,520	10,052,927	31,940,372	96,229
	금 액	91,064	114,549	100,236	133,590	349,660	6,089

주 1) 연도별 휴면예금중 2003년 이후는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 집계된 자료.  
2002년 자료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가동전 각 은행부터 징구 받은 자료. 2006.3말은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 집계된(2003~2006.3말) 누계임

2) 환급분은 조회시스템 가동 후 환급실적('06.4.27~6.30)

\* 전산화추진중인 관계로 한국씨티('06.7월이후), 제주은행('06.12월 이후)은 집계 불가

# 증권회사별 통합(휴면)계좌 현황

(단위 : 좌, 백만원)

증권회사	2002년 3월말(*)		2003년 3월말(*)		2004년 3월말(*)		2005년 3월말(*)		2005년 6월말(**)		2006년 6월말(**)	
	계좌 수	계좌 잔액	계좌 수	계좌 잔액	계좌 수	계좌 잔액	계좌 수	계좌 잔액	계좌 수	계좌 잔액	계좌 수	계좌 잔액
대신증권	709,923	3,464	526,805	3,595	527,325	3,839	561,924	4,106	381,648	19,930	146,194	18,652
대우증권	670,061	5,087	782,009	6,120	669,469	5,616	656,029	5,438	248,869	730	359,787	932
삼성증권	217,425	1,162	217,425	1,162	223,447	1,301	569,296	4,282	258,436	10,452	5,237	25
현대증권	38,584	256	858,304	1,273	1,394,079	4,151	1,089,206	3,930	372,580	11,700	437,351	18,449
LG투자증권	214,881	1,501	468,391	3,629	509,656	4,218	571,710	4,990	572,644	25,635	-	-
동양증권	269,059	1,600	267,885	1,580	266,889	1,565	266,194	1,553	49,466	6,118	79,510	8,696
대한투자증권	1,102,231	3,001	1,291,970	2,892	1,374,965	2,762	183,780	2,576	2,306	49	921	18
한국투자증권	459,607	2,669	454,266	2,950	500,468	3,546	486,160	3,687	269,202	1,175	412,459	11,190
푸르덴셜투자증권	372,475	2,688	389,499	2,915	424,634	4,822	347,915	2,632	4,208	43	198	3
교보증권	70,886	390	83,694	444	238,869	414	251,639	421	45,690	1,347	60,699	1,646
굿모닝신한증권	229,576	1,314	229,614	1,315	393,896	3,084	290,398	2,351	17,344	1,133	261,094	2,511
동부증권	27,553	168	32,892	193	33,852	219	39,632	267	9,681	228	10,611	296
동원증권	-	-	-	-	627,241	1,289	666,250	1,565	-	-	-	-
비릿지증권	-	-	67,946	478	71,693	918	28,149	207	36,314	254	61,230	1,940

메리츠증권	55,994	330	55,398	320	145,193	542	143,964	514	8,093	1,428	9,231	1,661
미래에셋증권	-	-	-	-	-	-	-	-	-	-	10,285	218
부국증권	58,597	366	64,255	440	68,603	506	72,696	533	57,838	1,412	65,440	1,330
씨티그룹글로벌 마켓증권	108	2	127	2	128	2	131	2	129	8	141	2
서울증권	78,242	563	77,386	536	74,271	542	70,748	500	21,996	2,056	22,161	866
NH투자증권	151,886	974	202,610	1,201	232,604	1,266	102,190	2,265	40,346	152	53,936	309
신영증권	69,181	507	50,229	392	66,617	473	16,306	66	-	-	78,137	-
신흥증권	27,762	225	33,207	254	40,130	297	33,540	249	11,290	354	13,860	404
유화증권	-	-	63,884	410	70,577	468	72,851	474	64,032	408	51,168	714
CJ투자증권	5,856	32	6,649	42	21,273	130	2,674	30	24,495	167	31,381	94
KGI증권	33,145	206	32,645	198	33,658	203	1,640	17	1,964	101	2,037	107
키움닷컴증권	-	-	-	-	-	-	-	-	192	2	10,291	4
하나증권	48,480	380	51,032	394	53,292	412	56,472	392	14,488	487	15,452	272
한누리투자증권	-	-	-	-	36	0	37	0	36	0	740	41
우리증권	143,574	713	142,687	707	280,055	845	131,954	730	-	-	667,866	27,402
한양증권	32,527	385	36,656	280	36,901	279	52,257	374	14,389	585	26,088	809
한화증권	705,134	1,819	731,230	1,485	709,574	1,302	716,904	1,194	234,648	1,239	140,020	1,105

SK증권	192,628	1,242	220,348	1,967	217,376	1,564	237,516	1,626	167,062	2,442	302,859	1,059
모아증권	71	1	174	2	-	-	-	-	-	-	-	-
비엔지증권	50	1	91	1	26	0	119	1	125	1	49	1
코리아 RB증권	362	4	529	5	730	7	829	8	39	1	314	6
피데스증권	-	-	-	-	10	0	17	0	17	0	-	-
동양오리온투신 증권	9,038	2	3,817	2	76	0	48,342	47	0	0	-	-
리딩투자증권	90	1	201	2	566	4	1,668	5	1	0	111	-
이트레이드증권	1	0	62	0	3,648	25	3,424	24	5	0	261	3
KIDB채권중개	-	-	-	-	-	-	-	-	-	-	-	-
도이치증권	-	-	-	-	-	-	129	-	0	0	-	-
BNP 파리바페레그린 증권중개	-	-	-	-	-	-	-	-	-	-	-	-
CLSA 코리아중	-	-	-	-	-	-	-	-	-	-	-	-
합계	5,994,987	31,051	7,443,917	37,186	9,311,827	46,613	7,774,690	47,057	2,929,574	89,639	3,337,119	100,765

\*2002.3월말-2005.3월말 : 통합계좌기준  
통합계좌는 증권업협회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등에 관한규정」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보유잔액·잔량이 다음에 해당하고, 최근 6월간 매매거래 및 인출 등이 중단되어 통합관리되고 있는 고객계좌를 의미  
- 10만원 이하의 고객 예수금  
- 상장 및 코스닥상장폐지된 주권의 평가금액  
- 평가금액 10만원 이하 수익증권  
\*\*2005.6월말-2006.6월말 : 휴면계좌기준  
휴면계좌는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최근 5년간 금융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함.

(붙임2)

## 조치실적(잡이익처리내역)

(단위 : 백만원)

금융회시명	2002.3	2003.3	2004.3	2005.3	2006.3
교보	75	31	0	0	0
굿모닝신한	244	0	530	454	120
대신	0	1,311	0	0	0
대우	0	0	1,840	0	0
신영	0	165	0	291	76
서울	0	0	216	104	90
한양	26	73	31	122	0
메리츠	330	320	542	0	31
우리투자	247	256	383	0	0
부국	0	0	0	0	0
브릿지	47	0	0	0	0
하나	32	39	49	85	88
현대	0	256	0	0	0
한화	168	511	284	204	0
신흥	14	26	20	62	40
유화	0	0	0	0	0
동양증권	0	0	0	0	0
SK	0	0	0	0	0
KGI	26	0	0	0	99
NH투자증권	0	0	0	0	0
삼성	0	0	0	26	0
동부	25	24	25	56	42
한누리투자	0	0	0	0	0
씨티그룹	0	0	0	0	0



푸르덴셜	0	0	0	0	0	0
CJ 투자	0	0	0	0	0	0
미래에셋	0	0	0	0	0	0
키움닷컴	0	0	0	0	0	0
한국투자	2,254	0	0	0	0	0
대한투자	0	0	0	0	0	0
동양오리온	0	0	0	0	0	-
이트레이드	0	0	0	0	0	0
코리아 RB	0	0	0	0	0	0
리딩투자	0	0	0	0	0	0
비엔지	0	0	0	0	0	0
한국	0	0	0	0	0	0
도이치	0	0	0	0	0	0
BNP	0	0	0	0	0	0
CLSA	0	0	0	0	0	0
합 계	3,489	3,012	3,920	1,404	586	

주1) '조치실적(잡이인처리내역)'은 민/상법상의 소멸시효에 해당(증권협회의 '증권회사의영업행위에관한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집수의 처리 포함)하게 되어 증권회사가 매년 회계 결산기말(3월말) 예수금 또는 유가증권의 집수액으로 처리한 '총계좌수'와 '총금액'을 말한다.

<휴면보험금 현황>

(단위 : 천건, 억원)

금융 회사명	2002. 3월말			2002.4 ~ 2003.3			2003. 3월말			2003.4 ~ 2004.3			2004. 3월말			2004.4 ~ 2005.3			2005. 3월말			2005.4 ~ 2006.3			2006. 3월말		
	건수	금액	3월말	발생	건수	금액	3월말	발생	건수	금액	3월말	발생	건수	금액	3월말	발생	건수	금액	3월말	발생	건수	금액	3월말	발생	건수	금액	3월말
대한생명	1,640	508		147	275	69	204	1,718	579	309	569	307	576	1,720	571	134	844	191	734	1,663	681	137	890	153	782	1,647	789
알리안츠	575	137		108	66	34	78	648	125	122	86	86	88	684	123	115	105	67	74	732	154	104	135	42	68	794	221
삼성생명	1,227	320		345	519	292	462	1,279	377	384	819	357	720	1,306	477	331	2,418	349	1,839	1,289	1,055	398	3,605	345	3,709	1,341	951
흥국생명	453	30		87	62	24	34	516	58	55	59	33	45	538	72	44	71	13	23	569	120	77	129	30	106	615	143
교보생명	1,558	379		486	366	202	266	1,842	480	229	354	347	427	1,723	407	283	961	243	803	1,763	565	406	1,290	206	1,282	1,962	572
대신생명	112	43		6	12	3	12	115	42	-	-	-	-	-	-	-	-	-	-	-	-	-	-	-	-	-	-
독실자 생명	-	-		-	-	-	-	-	-	4	13	0	2	4	11	6	14	2	11	8	13	7	19	3	14	12	19
신한생명	716	76		106	44	31	37	793	86	89	52	360	44	522	94	95	65	37	22	580	137	119	120	55	53	644	05
LIG생명	81	17		6	6	2	5	87	17	6	5	2	5	89	17	4	6	2	4	91	19	18	18	2	5	106	32
금호생명	286	76		62	28	30	35	318	70	45	31	22	25	341	76	38	52	27	36	353	92	27	43	25	30	354	105
미래에셋	640	153		76	45	20	36	695	169	63	51	39	63	719	157	60	65	41	61	739	161	62	71	24	33	777	199
한일생명	47	9		8	5	2	2	54	12	2	2	2	2	54	12	-	-	-	-	-	-	-	-	-	-	-	-

[illegible]

동양화재	36	29	15	23	9	16	42	36	14	27	8	20	48	42	15	31	6	12	57	62	15	55	6	19	66	98
신동아 화재	26	29	7	20	3	15	30	34	7	17	3	13	34	38	5	12	4	13	36	38	5	17	2	6	38	49
대한화재	13	23	6	15	1	4	20	37	5	13	4	10	20	40	4	14	1	5	23	48	4	15	5	23	22	40
그린화재	11	9	6	9	2	4	14	13	4	7	3	7	15	13	3	8	2	3	16	17	3	6	2	2	16	20
흥국쌍용 화재	37	29	8	11	6	10	36	29	9	11	1	5	44	35	13	14	3	9	54	41	16	19	3	9	65	44
제일화재	36	24	8	14	3	5	41	33	11	23	7	18	45	38	12	25	3	11	54	52	12	30	4	11	60	68
삼성화재	97	120	53	134	35	134	117	124	66	143	49	114	134	153	83	218	61	176	156	194	98	314	48	243	206	266
현대해상	55	47	23	53	14	44	64	56	26	64	27	67	63	53	26	83	27	66	63	70	26	99	24	82	65	87
LIG손해	49	52	26	47	14	36	61	63	20	48	15	37	66	74	21	64	14	43	74	95	20	80	15	63	77	105
동부화재	81	59	29	47	10	27	100	79	25	43	25	46	100	75	32	65	12	26	119	115	27	79	11	35	134	159
교보 자동차	-	-	-	-	-	-	-	-	-	-	-	-	-	-	0	0	-	-	0	0	-	-	-	0	0	0
합계	440	421	182	372	96	294	525	504	187	395	143	338	569	561	214	533	131	364	652	731	225	715	119	492	750	935
총액	8,054	5,360	698	1,877	838	1,542	9,527	2,706	1,679	2,532	1,743	2,431	9,316	2,761	1,528	5,290	1,164	4,039	9,626	4,006	1,874	7,302	1,066	6,713	10,386	4,575

- 1) 2002.3 부터 휴면보험금 보고를 받음
- 2) 보험회사는 휴면보험금 발생시 잡이익 처리하지 않고 회사 자체 경험률에 근거하여 휴면보험금의 일정비율을 부채로 처리하고 휴면보험금 지급시 부채를 없애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므로 잡이익처리내역 대신 휴면보험금 발생과 지급내역을 기술함

□ 상호저축은행의 휴면예금 현황 (계좌수, 금액 등)

(단위 : 좌, 백만원)

2002		2003		2004		2005		2006*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43,585	149	75,308	285	137,232	409	96,876	446	115,430	467

\* 자산상위 10개 상호저축은행 기준

□ 연도별 잡익 처리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FY'01	FY'02	FY'03	FY'04	FY'05
2.3	11.0	12.6	17.7	64.0

\* 자산상위 10개 상호저축은행 기준

□ 신탁 휴면예금 현황 ('06.6.말 현재)

(단위: 백만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말 현재 잔액
발생*	소멸**	발생	소멸	발생	소멸	발생	소멸	
n.a.	n.a.	n.a.	n.a.	16,868	11	17,351	80	20,772

\* 각 연도별 12월말 현재 휴면예금 잔액

\*\* 각 회계연도중 휴면계좌의 잡이익 처리 현황

15. 신용카드 관련(2002년부터 2006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작성)

(1) 2006년 7월 현재 신용카드 사업자 현황(전업카드사, 은행계  
겸영카드사, 유통계 겸영카드사)

구분	회사(은행)명
전업카드사 (6개사)	· BC카드, LG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겸영은행 (15개 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외환 은행, 한국씨타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기업 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 은행, 제주은행
유통계 겸영카드사 (13개사)	· (주)한화유통, (주)현대백화점, (주)동아백화점, (주)대현, (주)신원, Fnc 코오롱(주), (주)한섬, (주)JU백화점, (주)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주)아라리오산업, SK인천 정유(주), (주)청전이프유, 그랜드백화점(주)

## (2) 신용카드 발급 및 국내회원 이용실적 현황

(단위 : 천매, 조원)

	'02년	'03년	'04년	'05년	'06.3월
카드수	104,800	95,219	83,409	83,524	84,182
이용실적	680.8	517.3	367.9	371.5	94.3

주1) 당해연도 기준 전업사 및 겸업은행 합계

주2) 카드수는 연말 또는 분기말 기준, 회원수는 매 연중 또는 '06.1/4분기중

## (3) 전업카드사 자금조달 현황

(단위 : 억원)

	'03말	'04말	'05말	'06.3말
자금조달 합계	533,094	338,236	275,825	266,275

주1) 당해연도 전업사 기준('02년 자료 미보유)

주2) 대차대조표상 순자금조달 잔액 기준

## (4) 전업카드사 연체채권 비율(대환대출 포함 기준) 및 당기손익 현황

(단위 : %, 억원)

	'02년	'03년	'04년	'05년	'06.1/4분기
연체율	..	28.3	18.2	10.1	8.8
손익	2,355	△104,799	△13,408	3,423	5,264

주1) '02년도 대환대출 포함 연체비율 자료 미보유

주2) 당해연도 전업카드사 합계 기준

주3) 연체율은 연말 또는 분기말 기준, 손익은 매 연중 또는 분기중

## (5) 겸업은행 신용카드자산(채권) 및 신용카드부문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03말	'04말	'05말	'06.1/4말
신용카드자산(채권)	261,524	259,071	245,512	235,261
신용카드부문 손익	△26,543	3,052	26,000	8,314

주) '02년도 자료 미보유



## (6) 국내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실적 현황

(단위 : 조원)

	'02년중	'03년중	'04년중	'05년중	'06.1/4분기중
이용실적	680.8	517.3	367.9	371.5	94.3

주1) 당해연도 기준 전업사 및 겸영은행 합계

## (7)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변동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100만원 미만	100~ 200만원	200~ 300만원	300~ 500만원	500~ 700만원	700~ 1000만원	1000만원 이상	계
'03말	회원수	20,264	8,241	1,177	1,329	398	55	4	31,468
	한도총액	72,814	89,309	26,512	49,179	22,444	3,132	443	263,834
'04말	회원수	20,505	7,508	2,471	1,472	307	78	29	32,370
	한도총액	72,171	90,968	55,683	51,526	18,022	4,989	4,014	297,371
'05말	회원수	9,889	9,965	3,472	1,893	345	111	60	25,735
	한도총액	47,456	119,364	75,744	61,869	17,704	7,579	8,030	337,747
'06.3말	회원수	9,994	10,115	3,738	1,987	334	94	45	26,307
	한도총액	50,397	120,990	81,957	64,260	16,947	6,256	6,179	346,986

주) 6개 전업카드사 기준('02년도 자료 미보유)

## (8) 복수카드 소지자의 신용카드 이용 현황

(단위 : 억원)

	'02년중	'03년중	'04년중	'05년중	'06.1/4분기중
신용판매	851,913	858,103	844,537	903,892	238,000
현금서비스	2,497,103	1,718,430	871,249	667,951	150,779
계	3,349,016	2,576,533	1,715,786	1,571,843	388,779

주1) 여신금융협회 자료

## (9) 주요 신용카드 대책

일 자	제 목	주 요 내 용
'02.5.23.	신용카드 종합대책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등 신용카드 수수료의 합리적 책정 유도</li> <li>- 부당 모집행위 금지 등 무분별한 카드발급 및 사용행태 개선</li> <li>- 신용카드회사의 현금대출 위주의 영업행태 개선</li> <li>-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는 등 신용카드 이용자 보호 강화</li> <li>- 직불카드 활성화 등 제도개선 추진 등</li> </ul>
'02.11.19.	신용카드사 건전성감독 강화대책 (금감위, 금감원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카드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li> <li>- 현금대출 비중을 50%로 감축토록 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카드사의 급속한 현금대출 증가 억제</li> <li>- 여신전문금융업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 등으로 카드업계의 과당경쟁행위 시정 등</li> </ul>
'03.3.17.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 종합대책 (금융정책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도높은 자구노력 및 수지개선 대책 강구</li> <li>- 카드사의 경영개선노력 지원</li> <li>- 연체율 증가 억제를 위한 업계 공동 노력 유도 등</li> </ul>
'03.4.3.	금융시장안정대책 (금융정책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카드사의 증자규모 대폭 확대</li> <li>- 「신용카드사 종합대책」(3.17)의 신속한 추진</li> <li>- 신용카드사의 유동성 확보 노력 강화</li> <li>- 신용카드사의 카드채 만기연장 지원</li> <li>- 투신사 환매자금 지원을 위한 5조원 조성 등</li> </ul>
'03.10.17.	신용카드회사 건전성 감독 합리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기시정조치 연체율기준 개선</li> <li>-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 개선</li> <li>-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li> </ul>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현황

일 자	주 요 내 용
'02.3.30.	- 신용카드 발급신청시 본인확인 의무 - 결제대행업체의 신용카드가맹점 추가 등
'02.8.26.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03.5.29.	- 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04.1.20.	-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제 도입 - 신용카드회원 보호 강화 등
'05.1.27.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05.3.31.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05.5.31.	- 신용카드 결제를 가장한 자금유통 및 중개, 알선 처벌조항 신설 등
'06.4.28.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16. 상호저축은행 여신 관련(2002년부터 2006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작성)

- 1) 전국의 상호저축은행 현황(총자산, 임직원수, 거래자 수, 동일인대출규모, 여신규모 등)
- 2) 총여신대비 소액신용대출 비율(회사명, 총여신금액, 소액신용대출금액, 소액신용대출비율)
- 3) 총여신현황(회사명, 차주수, 금액, 대손충당금적립액, 고정이하여신금액, 고정이하여신비율)
- 4) 소액신용대출현황(회사별, 차주수, 금액, 대손충당금적립액, 고정이하여신금액, 고정이하여신비율)
- 5) 상호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대한 상세설명
- 6) 2006년 7월 현재 소액신용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기준 이하로 적립한 상호저축은행 현황(회사명,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금액, 실제 대손충당금 적립금액, 부족 적립액)
- 7) 현행 적기시정조치제도의 내용과 개선방안의 내용 비교, 개선방안에 의할 경우의 개선 효과

☐ 상호저축은행 총자산 현황

“<붙임1> 참조”

☐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수 현황

“<붙임2> 참조”

☐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수 현황

“<붙임3> 참조”

☐ 상호저축은행 동일인대출한도 현황

“<붙임4> 참조”

☐ 상호저축은행 여신 현황

“<붙임5> 참조”

☐ 상호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취급 현황

“<붙임6> 참조”

☐ 상호저축은행 고정이하여신 등 현황

“<붙임7> 참조”

☐ 상호저축은행 고정이하 소액신용대출 등 현황

“<붙임8> 참조”

□ 상호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고정이하여신 분류기준 : 금융거래내용, 신용상태 등 경영내용이 불량하여 구체적인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예시) 6개월 이상의 연체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

○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구분	저축은행
정 상	0.5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의 경우 1%)
요주의	2 (300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채권의 경우 7%)
고 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

- '06.7월 현재 소액신용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기준이하로 적립한 상호저축은행 현황

“해당사항 없음”

□ 현행 적기시정조치제도와 동 제도의 개선 추진 내용 등

○ 현행 적기시정조치제도 내용

조치내용	조치기준	이행기간
경영개선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S비율 5% 미만</li> <li>- 거래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BIS비율 5%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산 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li> </ul>	조치일로부터 6월 이내
경영개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S비율 3% 미만</li> <li>- 거래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BIS비율 3%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li> <li>-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li> </ul>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경영개선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S비율 1% 미만</li> <li>-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li> </ul>	금감위가 정하는 기간

○ 개선 주요 내용

- 총자산 3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 제출시 반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첨부 의무화
- 경영개선권고 미이행시 경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영개선명령도 가능하도록 규정
- 경영개선권고 미이행으로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는 경우의 이행기간을 단축(1년이내 → 6월이내)하고, 경영개선요구 미이행시 이행촉구 대상을 단기간 내에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

○ 개선시 기대효과

- 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 및 절차를 단축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실효성 제고



<붙임1>

총자산 현황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2002년06월	2003년06월	2004년06월	2005년06월	2006년06월
솔로몬	4,201	6,138	10,418	16,489	24,301
제일	11,377	11,884	15,202	17,975	20,358
HK	18,271	18,610	20,900	24,372	19,663
한국	5,058	5,934	11,262	15,321	17,025
부산	6,324	8,268	11,516	13,555	16,381
부산2	3,157	5,052	8,385	10,340	13,619
토마토	1,186	3,794	5,789	8,151	13,243
경기	4,160	4,705	5,573	6,124	12,603
진흥	4,932	5,584	7,123	9,424	12,248
미래	1,265	1,871	2,999	6,940	11,214
11	9,631	8,413	9,441	9,498	11,056
12					10,884
13	5,265	6,244	7,327	8,600	10,494
14	5,890	6,027	5,537	7,691	9,743
15	4,841	5,596	6,234	7,657	9,354
16	4,484	4,570	5,387	7,294	8,727
17	4,198	4,417	5,572	6,298	8,211
18	1,999	2,926	4,094	4,370	7,929
19	1,979	2,857	4,279	5,225	7,783
20	4,368	4,510	5,893	6,438	7,399
21	3,819	3,908	5,075	5,878	7,118
22	1,863	2,443	3,843	5,471	6,932
23	3,562	4,012	4,856	5,881	6,700
24	3,369	3,927	4,487	5,614	6,455
25	2,762	2,963	3,708	5,732	5,912
26	1,854	2,285	2,972	4,114	5,675
27	1,466	1,761	2,972	3,844	5,551
27	870	1,228	1,759	1,909	1,945
28	2,294	2,522	2,505	3,645	5,364
29	2,121	2,847	4,090	4,154	5,178
30	3,207	6,113	3,934	5,212	5,081
31	3,120	3,502	4,426	5,109	5,014
32	2,982	2,916	3,221	4,100	4,719
33	2,894	3,279	4,282	4,781	4,648
34	1,937	1,444	1,668	1,973	4,432
35	3,158	3,169	3,884	4,381	4,222
36	2,950	3,872	4,143	3,652	4,166
37	1,564	1,942	2,102	2,447	3,978
38	1,235	1,311	1,838	2,602	3,891
39	4,676	3,983	4,045	3,599	3,580
40	2,657	2,774	2,958	3,153	3,521
41	3,150	3,008	3,048	2,921	3,354
42	2,674	2,612	2,791	3,352	3,280
43	1,505	1,772	2,247	2,653	2,972

저축은행명	2002년06월	2003년06월	2004년06월	2005년06월	2006년06월
44	1,354	1,750	2,155	2,474	2,902
45	602	569	734	1,665	2,889
46	1,588	1,650	2,256	2,356	2,686
47	1,510	1,872	2,018	2,306	2,669
48	2,457	2,284	2,391	2,632	2,602
49	1,428	1,313	1,549	1,766	2,589
50	1,239	1,513	1,955	2,188	2,575
51	2,069	2,388	2,615	2,608	2,534
52	1,943	2,138	2,255	2,557	2,521
53	1,371	1,616	2,068	2,169	2,501
54	1,280	1,345	1,383	1,820	2,466
55	1,067	955	1,638	1,522	2,431
56	1,718	1,513	1,481	1,648	2,240
57	1,441	1,385	1,748	2,179	2,212
58	967	989	1,023	1,201	2,155
59	404	896	1,277	1,531	2,140
60	609	641	1,114	1,736	2,091
62	1,195	1,265	1,342	1,419	1,944
63	1,320	1,425	1,605	1,952	1,888
64	948	1,050	1,191	1,439	1,879
65	1,125	1,349	1,422	1,756	1,819
66	1,158	1,183	1,361	1,497	1,791
67	1,026	1,050	1,272	1,659	1,787
68					1,757
69	1,134	1,139	1,355	1,481	1,723
70	812	897	1,084	1,442	1,704
71	1,953	1,865	1,978	1,579	1,647
72	1,423	1,363	1,271	1,510	1,608
73	904	905	1,159	1,416	1,599
74					1,570
75	925	1,112	1,233	1,328	1,567
76	627	699	838	1,190	1,558
77	756	750	955	1,325	1,535
78	511	677	972	1,206	1,508
79	1,025	800	1,120	1,302	1,461
80	589	677	797	1,206	1,371
81	928	941	1,020	1,085	1,348
82	425	378	546	655	1,223
83	941	972	1,034	1,114	1,211
84	595	713	1,038	1,061	1,179
85	526	601	799	954	1,141
86	863	798	892	904	1,133
87	492	512	743	991	1,092
88	1,087	990	944	1,010	1,091
89	493	489	704	913	1,078
90	1,277	1,135	1,106	1,071	1,063
91	775	738	825	999	1,062

저축은행명	2002년06월	2003년06월	2004년06월	2005년06월	2006년06월
92	433	521	822	932	967
93	531	675	732	831	944
94	737	710	753	800	856
95	501	611	673	791	848
96	1,362	1,261	1,181	1,220	847
97	588	660	664	780	803
98	457	440	493	598	794
99	405	399	477	668	753
100	737	708	673	726	749
101	379	412	476	567	737
102	703	688	687	733	687
103	329	301	366	521	669
104	699	859	824	839	650
105	662	590	600	599	604
106	372	441	527	723	499
107	352	321	402	457	405
108	248	240	302	307	287
109	624	645	326	317	279
110	241	241	267	249	227

<붙임2>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수 현황

(단위 : 명)

저축은행명	'02.6월말	'03.6월말	'04.6월말	'05.6월말	'06.6월말
솔로몬	84	88	149	177	282
제일	156	189	180	249	216
HK	407	383	310	296	281
한국	73	85	109	118	126
부산	61	63	59	55	57
부산2	26	30	46	33	37
토마토	31	124	139	139	197
경기	68	75	74	72	111
진흥	90	85	90	83	97
미래	100	181	176	378	539
11	148	139	141	191	147
12					151
13	176	138	181	179	147
14	114	117	125	112	106
15	90	89	96	97	97
16	144	134	125	113	111
17	77	93	93	123	131
18	62	62	107	96	100
19	76	84	91	85	82
20	73	89	92	117	118
21	59	66	68	64	67
22	43	60	58	62	49
23	84	84	84	93	93
24	84	123	124	114	95
25	28	27	30	35	71
26	29	37	35	34	41
27	35	38	39	40	48
27	30	53	50	33	41
28	61	50	45	54	73
29	38	58	61	60	61
30	55	49	50	52	55
31	70	128	116	99	102
32	70	83	71	74	80
33	43	44	40	38	48
34	25	28	28	27	35
35	60	56	49	46	46
36	40	50	51	55	58
37	32	31	30	32	35
38	38	36	36	34	37
39	80	71	70	67	64
40	50	56	56	54	54
41	126	114	92	63	60
42	81	81	76	74	82
43	41	49	50	46	44
44	57	61	53	50	55
45	29	29	31	28	29
46	59	53	46	33	23
47	25	28	27	26	23
48	95	89	77	71	69
49	29	31	30	31	37
50	42	49	51	46	46
51	63	78	78	69	62
52	69	99	107	91	56
53	39	42	45	45	47
54	36	30	32	40	42
55	35	35	29	25	32
56	40	77	44	36	38

저축은행명	'02.6월말	'03.6월말	'04.6월말	'05.6월말	'06.6월말
57	29	26	28	27	29
58	111	114	96	70	69
59	26	53	38	33	29
60	18	17	22	28	30
62	35	33	31	32	29
63	30	31	34	30	29
64	29	26	25	24	22
65	42	41	37	38	36
66	54	46	46	47	58
67	33	34	35	31	31
68					44
69	56	54	46	46	41
70	23	21	20	19	20
71	33	33	33	49	72
72	87	65	57	30	32
73	22	26	28	27	26
74					34
75	25	22	21	20	20
76	31	29	27	26	26
77	28	27	29	27	28
78	17	20	29	28	30
79	23	29	25	24	25
80	30	30	28	26	26
81	27	27	22	20	20
82	22	22	13	14	18
83	28	24	23	23	23
84	21	24	26	22	30
85	20	21	20	17	17
86	24	21	19	19	20
87	19	19	21	22	21
88	31	30	29	27	19
89	22	23	21	23	22
90	78	49	43	31	29
91	37	34	27	24	22
92	22	20	17	19	18
93	51	46	46	34	36
94	28	31	29	31	27
95	47	52	52	56	61
96	62	46	36	31	28
97	28	34	34	34	34
98	23	24	23	23	25
99	11	11	12	11	10
100	16	13	15	14	14
101	16	15	15	19	25
102	25	21	21	20	21
103	19	18	18	18	20
104	20	19	20	20	19
105	22	22	18	17	17
106	18	19	14	15	17
107	16	13	15	15	15
108	13	16	15	14	14
109	14	15	13	14	13
110	14	14	15	14	14

<붙임3>

상호저축은행 거래자수(차주수) 현황

(단위 : 명)

저축은행명	2002년06월	2003년06월	2004년06월	2005년06월	2006년06월
솔로몬	48,065	52,931	60,374	54,198	38,700
제일	90,383	96,715	96,570	99,230	95,489
HK	176,913	173,391	165,231	135,943	90,708
한국	25,401	22,935	10,763	6,412	3,094
부산	1,895	2,149	77,482	63,648	67,780
부산2	867	1,397	126,675	93,009	100,811
토마토	13,129	9,593	10,210	3,472	3,204
경기	22,032	24,618	8,929	4,611	1,662
진흥	30,934	17,925	5,946	2,822	1,238
미래	4,588	6,000	6,233	23,718	22,001
11	7,203	19,662	19,406	16,836	12,397
12					14,717
13	124,205	117,871	111,621	124,815	119,212
14	107,347	105,688	89,527	69,770	37,272
15	58,674	55,793	52,519	46,112	30,266
16	96,620	90,691	87,388	76,043	68,762
17	5,693	6,243	4,264	4,206	8,555
18	17,318	27,308	23,142	11,213	8,918
19	4,730	9,984	6,163	2,331	3,102
20	23,408	14,835	11,964	3,616	2,156
21	7,380	4,382	4,017	3,831	672
22	2,748	3,794	3,324	2,893	2,999
23	2,182	2,092	1,797	1,748	1,512
24	39,100	35,627	28,770	22,595	15,967
25	9,311	16,957	15,379	9,741	5,808
26	1,650	4,815	1,816	1,618	1,294
27	1,244	2,544	5,124	5,640	5,601
27	21,463	20,151	25,306	28,114	25,223
28	32,592	29,367	21,234	10,072	4,638
29	1,001	950	1,084	1,389	1,330
30	730	824	447	359	346
31	36,294	37,430	36,045	34,860	25,340
32	9,405	10,602	9,260	5,311	4,498
33	79,872	46,730	36,102	31,140	29,563
34	285	510	401	275	955
35	6,843	6,140	4,224	5,500	4,130
36	11,353	17,987	11,430	8,293	5,429
37	38,904	31,372	25,234	16,308	15,604
38	38,881	31,210	27,886	16,294	4,457
39	9,186	8,784	7,407	5,219	6,284
40	4,128	6,721	5,719	4,677	3,811
41	7,271	6,016	4,804	2,763	2,201
42	4,486	12,390	9,579	8,478	7,713
43	6,971	8,330	7,144	7,078	5,222

저축은행명	2002년06월	2003년06월	2004년06월	2005년06월	2006년06월
44	2,890	2,683	2,106	1,951	1,723
45	1,070	2,073	1,878	1,422	949
46	2,640	3,303	3,449	2,907	1,884
47	460	611	536	601	517
48	9,437	6,324	10,169	9,487	8,900
49	333	531	542	450	343
50	1,908	2,510	6,448	6,627	5,136
51	13,311	39,122	35,545	33,003	31,007
52	28,612	49,567	40,951	34,886	27,495
53	11,018	7,937	6,672	3,294	2,332
54	6,380	6,419	7,170	12,003	13,885
55	5,400	5,012	1,833	1,457	1,076
56	39,069	36,230	31,799	21,752	13,595
57	911	782	583	496	432
58	4,571	7,937	6,869	3,914	2,691
59	4,802	20,769	20,398	21,462	18,259
60	4,211	3,932	2,678	1,044	567
62	3,248	3,227	2,890	2,397	1,966
63	988	1,450	1,078	1,043	916
64	423	392	369	363	512
65	2,422	3,445	2,950	2,488	1,906
66	2,331	2,143	1,763	1,626	1,523
67	2,719	2,285	1,788	1,335	1,178
68					1,297
69	2,622	3,193	2,718	2,331	2,253
70	691	1,109	1,108	1,005	1,013
71	14,285	14,979	9,689	13,824	16,609
72	4,389	3,759	2,598	1,286	515
73	4,339	4,909	4,228	3,218	2,484
74					7,370
75	713	574	493	480	431
76	1,723	1,657	1,208	1,053	1,025
77	1,005	971	920	815	1,020
78	470	629	777	765	729
79	337	274	577	884	1,371
80	1,594	1,597	1,224	884	738
81	694	879	941	856	683
82	376	383	238	174	389
83	1,045	998	1,016	942	841
84	2,062	3,594	5,125	6,560	5,084
85	539	804	886	866	843
86	2,272	3,428	3,844	3,530	1,143
87	305	357	491	615	573
88	1,083	1,157	1,118	1,231	1,128
89	689	1,280	1,184	1,002	839
90	17,391	18,372	16,719	15,335	14,038
91	1,474	5,991	4,341	3,402	2,580

저축은행명	2002년06월	2003년06월	2004년06월	2005년06월	2006년06월
92	1,508	2,772	2,716	2,591	2,521
93	2,263	6,682	4,910	4,234	4,819
94	1,273	1,314	1,262	1,264	1,092
95	13,586	17,456	14,835	14,143	11,372
96	8,114	13,276	12,665	11,831	8,638
97	4,088	6,764	6,769	5,905	4,595
98	756	814	697	740	832
99	411	393	388	398	336
100	392	343	389	363	370
101	549	657	752	13,033	32,922
102	2,993	2,413	1,881	971	612
103	236	231	367	535	632
104	1,001	902	822	781	663
105	582	533	400	354	382
106	1,110	3,165	3,118	2,892	2,447
107	419	405	548	538	477
108	165	215	218	213	178
109	98	59	49	33	25
110	370	359	385	418	384



<붙임4>

상호저축은행 동일인대출한도 현황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02.6월말 현재	'03.6월말 현재	'04.월말 현재	'05.6월말 현재	'06.6월말 현재
솔로몬	74	76	80	80	80
제일	80	80	80	80	80
HK	80	80	80	80	80
한국	80	80	80	80	80
부산	56	74	80	80	80
부산2	30	32	65	80	80
토마토	16	36	52	80	80
경기	38	34	31	27	80
진흥	63	72	80	80	80
미래	10	10	27	48	62
11	69	37	49	49	65
12					80
13	63	70	81	104	80
14	52	80	80	80	80
15	55	63	63	80	73
16	29	30	34	34	49
17	80	61	80	80	80
18	37	37	41	41	51
19	24	36	52	61	67
20	80	80	80	80	80
21	61	61	61	64	80
22	23	26	34	51	71
23	39	42	37	64	80
24	39	45	52	58	69
25	26	39	67	67	80
26	23	42	55	56	81
27	16	11	20	38	54
27	7	10	6	11	13
28	40	40	43	43	80
29	71	71	71	71	71
30	60	60	63	80	80
31	36	44	44	54	71
32	61	32	35	33	37
33	30	33	36	41	41
34	18	25	27	41	72
35	57	57	57	57	57
36	47	57	73	80	80
37	23	27	29	29	51
38	26	21	26	28	51
39	53	76	76	40	38
40	20	20	21	21	21
41	18	18	15	22	34
42	13	16	17	18	17
43	21	21	28	28	34

저축은행명	'02.6월말 현재	'03.6월말 현재	'04.월말 현재	'05.6월말 현재	'06.6월말 현재
44	20	22	27	27	41
45	15	5	10	15	37
46	27	27	30	31	31
47	35	37	42	51	65
48	36	22	23	23	28
49	45	48	0	57	56
50	25	27	30	36	45
51	22	19	15	10	10
52	18	10	10	18	18
53	24	24	23	29	46
54	17	14	14	23	36
55	15	10	12	12	21
56	17	18	18	16	24
57	16	26	41	53	69
58	16	11	11	13	18
59	3	7	9	15	26
60	8	10	13	20	22
62	18	15	16	19	24
63	16	19	23	27	31
64	40	42	43	42	42
65	19	12	15	18	22
66	29	31	31	41	47
67	14	14	16	20	22
68					34
69	11	10	12	12	15
70	17	17	17	21	36
71	33	34	36	17	33
72	25	25	20	17	19
73	20	22	23	26	30
74					25
75	28	30	35	40	47
76	12	12	15	17	22
77	17	20	22	26	31
78	14	14	14	14	14
79	23	23	23	18	19
80	11	11	12	15	21
81	73	14	13	13	19
82	12	12	14	16	16
83	21	22	24	25	27
84	8	12	13	15	14
85	10	11	12	13	16
86	18	5	11	12	12
87	10	10	12	13	14
88	11	0	9	10	10
89	2	4	6	4	9
90	11	8	8	8	9
91	6	9	9	12	13

저축은행명	'02.6월말 현재	'03.6월말 현재	'04.월말 현재	'05.6월말 현재	'06.6월말 현재
92	1	4	5	5	6
93	11	12	12	13	16
94	21	21	23	27	27
95	6	4	8	8	15
96	18	7	4	4	4
97	9	9	7	9	14
98	12	12	15	15	15
99	7	8	9	11	15
100	5	11	7	8	6
101	6	5	5	8	8
102	26	18	19	19	21
103	2	1	3	4	6
104	21	11	18	23	23
105	15	12	15	9	8
106	19	19	19	19	19
107	9	10	15	17	18
108	20	21	22	23	24
109	47	50	50	49	51
110	5	5	5	6	6

<붙임5>

상호저축은행 여신 현황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02.6.말	03.6.말	04.6.말	05.6.말	06.6.말
솔로몬	2,901	4,879	8,901	14,339	20,073
제일	8,967	10,068	12,979	14,910	17,606
HK	13,917	15,006	17,542	17,997	17,350
한국	3,821	4,931	9,083	12,038	12,147
부산	4,623	7,239	8,594	10,372	11,584
부산2	1,650	3,213	3,862	5,966	9,064
토마토	938	3,347	5,330	7,095	10,819
경기	2,074	2,687	3,505	3,756	8,398
진흥	3,508	4,534	6,364	8,653	9,682
미래	962	1,556	2,515	5,457	8,014
11	4,755	6,497	7,675	8,398	9,748
12					9,439
13	4,526	5,918	6,792	7,672	7,986
14	5,097	5,636	5,430	7,099	8,380
15	3,527	4,668	5,760	7,118	8,298
16	2,926	3,589	4,725	6,430	7,151
17	2,900	2,922	3,777	4,352	5,757
18	1,523	2,306	3,505	3,698	6,403
19	1,713	2,577	3,724	4,481	6,546
20	3,270	3,516	4,720	5,334	5,671
21	2,885	3,419	4,339	4,679	5,386
22	1,576	2,127	3,562	4,692	5,957
23	2,634	3,287	4,036	4,844	5,075
24	2,878	3,350	3,691	4,608	5,915
25	1,819	2,354	2,996	4,485	4,613
26	1,288	1,824	2,663	3,900	5,074
27	962	1,358	2,801	3,549	4,835
27	665	975	1,549	1,761	1,818
28	2,078	2,318	2,411	3,357	4,680
29	1,668	2,546	3,540	3,929	4,623
30	1,897	4,385	3,345	3,236	3,126
31	2,691	3,148	4,100	4,203	3,919
32	2,283	2,375	2,652	3,685	4,337
33	2,375	2,968	3,604	4,274	4,733
34	1,150	1,195	1,254	1,626	3,510
35	1,844	2,015	2,905	3,201	3,179
36	2,452	3,477	3,055	2,676	3,131
37	1,348	1,786	1,996	2,142	3,593
38	1,068	1,162	1,726	2,447	3,366
39	3,695	3,758	3,650	3,125	3,106
40	1,973	2,328	2,326	2,632	2,910
41	1,808	1,717	1,926	1,706	1,998

저축은행명	02.6.말	03.6.말	04.6.말	05.6.말	06.6.말
42	1,551	1,558	1,691	2,251	2,237
43	1,192	1,657	2,031	2,402	2,888
44	1,001	1,471	1,774	2,051	2,510
45	477	430	625	1,377	2,687
46	814	914	1,560	1,512	1,742
47	1,244	1,641	1,822	2,126	2,403
48	1,520	1,382	1,348	1,621	1,796
49	1,128	897	935	1,276	1,919
50	968	1,341	1,683	1,813	2,144
51	1,513	1,999	2,077	1,982	1,718
52	1,257	1,595	2,033	2,179	2,244
53	1,187	1,364	1,674	1,666	1,970
54	1,035	1,120	1,159	1,499	2,269
55	735	875	1,284	1,223	1,199
56	1,367	1,439	1,470	1,558	2,142
57	842	813	1,317	1,469	1,675
58	773	795	860	991	1,450
59	232	667	1,066	1,293	1,857
60	536	582	1,033	1,563	1,874
62	1,037	1,099	1,122	1,178	1,667
63	1,188	1,285	1,442	1,617	1,638
64	706	869	1,054	1,162	1,517
65	861	1,176	1,204	1,311	1,558
66	641	737	934	929	1,091
67	632	630	818	954	1,039
68					488
69	849	885	952	1,090	1,353
70	599	732	941	1,044	1,365
71	1,359	1,422	1,756	1,317	1,156
72	1,381	1,379	1,124	1,291	1,300
73	458	622	782	1,052	1,161
74					1,497
75	625	828	959	968	1,205
76	465	590	751	1,024	1,277
77	683	622	803	801	1,164
78	225	544	660	811	1,110
79	867	657	989	1,103	1,194
80	407	569	694	1,028	1,081
81	506	653	808	862	1,194
82	332	306	410	400	912
83	756	822	819	903	947
84	390	541	749	898	780
85	336	437	604	753	879
86	537	524	685	718	854
87	397	441	660	715	802

저축은행명	02.6.말	03.6.말	04.6.말	05.6.말	06.6.말
88	640	679	705	821	905
89	278	416	588	793	936
90	1,010	877	847	783	856
91	444	589	706	881	942
92	247	422	623	701	996
93	385	611	666	649	795
94	521	520	562	559	663
95	461	570	583	640	633
96	920	938	1,002	932	637
97	466	527	541	620	681
98	291	313	344	421	564
99	201	226	374	545	632
100	352	338	400	386	514
101	259	280	311	438	619
102	475	411	497	513	478
103	172	172	233	392	507
104	660	746	629	488	333
105	349	390	417	444	407
106	243	359	452	631	443
107	264	264	341	317	285
108	123	129	233	187	127
109	480	551	269	83	25
110	125	117	127	139	143

<붙임6>

상호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취급현황

(단위 : 억원, %)

저축은행명	02.6.말			03.6.말			04.6.말			05.6.말			06.6.말		
	여신	소액 신용대출	소액신용 대출비중	여신	소액 신용대출	소액신용 대출비중	여신	소액 신용대출	소액신용 대출비중	여신	소액 신용대출	소액신용 대출비중	여신	소액 신용대출	소액신용 대출비중
솔로몬	2,901	867	29.9	4,879	993	20.4	8,901	1,402	15.7	14,339	967	6.7	20,073	631	3.1
제일	8,967	1,509	16.8	10,068	1,606	15.9	12,979	1,571	12.1	14,910	1,640	11.0	17,606	1,549	8.8
HK	13,917	2,709	19.5	15,006	2,545	17.0	17,542	2,379	13.6	17,997	1,924	10.7	17,350	1,206	7.0
한국	3,821	339	8.9	4,931	325	6.6	9,083	91	1.0	12,038	0	0.0	12,147	5	0.0
부산	4,623	14	0.3	7,239	8	0.1	8,594	228	2.7	10,372	310	3.0	11,584	257	2.2
부산2	1,650	2	0.1	3,213	8	0.3	3,862	3	0.1	5,966	1	0.0	9,064	1	0.0
토마토	938	269	28.7	3,347	166	5.0	5,330	130	2.4	7,095	10	0.1	10,819	6	0.1
경기	2,074	399	19.2	2,687	475	17.7	3,505	142	4.1	3,756	10	0.3	8,398	5	0.1
진흥	3,508	742	21.2	4,534	398	8.8	6,364	100	1.6	8,653	28	0.3	9,682	2	0.0
미래	982	19	1.9	1,556	1	0.0	2,515	0	0.0	5,457	130	2.4	8,014	0	0.0
11	4,755	40	0.9	6,497	91	1.4	7,675	79	1.0	8,398	58	0.7	9,748	27	0.3
12								0			0		9,439	142	1.5
13	4,526	2,505	55.3	5,918	1,402	23.7	6,792	1,281	18.9	7,672	1,164	15.2	7,986	801	10.0
14	5,097	1,689	33.1	5,636	1,618	28.7	5,430	1,190	21.9	7,099	882	12.4	8,380	368	4.4
15	3,527	1,096	31.1	4,668	1,078	23.1	5,760	994	17.2	7,118	828	11.6	8,298	496	6.0
16	2,926	1,583	54.1	3,589	1,625	45.3	4,725	1,624	34.4	6,430	1,424	22.1	7,151	1,290	18.0
17	2,900	27	0.9	2,922	36	1.2	3,777	7	0.2	4,352	69	1.6	5,757	35	0.6
18	1,523	177	11.6	2,306	232	10.1	3,505	168	4.8	3,698	43	1.1	6,403	32	0.5
19	1,713	36	2.1	2,577	47	1.8	3,724	15	0.4	4,481	2	0.0	6,546	16	0.2
20	3,270	263	8.0	3,516	193	5.5	4,720	105	2.2	5,334	33	0.6	5,671	11	0.2
21	2,885	201	7.0	3,419	107	3.1	4,339	95	2.2	4,679	88	1.9	5,386	0	0.0
22	1,576	25	1.6	2,127	29	1.4	3,562	19	0.5	4,692	16	0.3	5,957	13	0.2
23	2,634	8	0.3	3,287	6	0.2	4,036	4	0.1	4,844	1	0.0	5,075	1	0.0
24	2,878	569	19.8	3,350	532	15.9	3,691	414	11.2	4,608	336	7.3	5,915	235	4.0

저축은행명	02.6.말			03.6.말			04.6.말			05.6.말			06.6.말		
	여신	소액 신용대출	소액신용 대출비중	여신	소액 신용대출	소액신용 대출비중	여신	소액 신용대출	소액신용 대출비중	여신	소액 신용대출	소액신용 대출비중	여신	소액 신용대출	소액신용 대출비중
25	1,819	131	7.2	2,354	260	11.1	2,996	243	8.1	4,485	126	2.8	4,613	63	1.4
26	1,288	3	0.2	1,824	14	0.7	2,663	4	0.2	3,900	1	0.0	5,074	0	0.0
27	962	78	8.1	1,358	28	2.0	2,801	0	0.0	3,549	0	0.0	4,835	0	0.0
27	665	378	56.9	975	272	27.9	1,549	300	19.4	1,761	300	17.0	1,818	270	14.8
28	2,078	466	22.4	2,318	445	19.2	2,411	303	12.6	3,357	118	3.5	4,680	76	1.6
29	1,668	2	0.1	2,546	3	0.1	3,540	3	0.1	3,929	3	0.1	4,623	2	0.0
30	1,897	2	0.1	4,385	1	0.0	3,345	0	0.0	3,236	0	0.0	3,126	0	0.0
31	2,691	664	24.7	3,148	735	23.3	4,100	688	16.8	4,203	639	15.2	3,919	435	11.1
32	2,283	95	4.2	2,375	89	3.7	2,652	73	2.8	3,685	33	0.9	4,337	36	0.8
33	2,375	1,647	69.3	2,968	975	32.9	3,604	721	20.0	4,274	652	15.3	4,733	576	12.2
34	1,150	0	0.0	1,195	1	0.1	1,254	0	0.0	1,626	0	0.0	3,510	0	0.0
35	1,844	48	2.6	2,015	39	2.0	2,905	15	0.5	3,201	8	0.3	3,179	11	0.4
36	2,452	64	2.6	3,477	130	3.8	3,055	67	2.2	2,676	32	1.2	3,131	19	0.6
37	1,348	475	35.3	1,786	405	22.7	1,996	348	17.4	2,142	238	11.1	3,593	200	5.6
38	1,068	404	37.9	1,162	341	29.3	1,726	298	17.3	2,447	173	7.1	3,366	51	1.5
39	3,695	71	1.9	3,758	58	1.6	3,650	39	1.1	3,125	17	0.5	3,106	15	0.5
40	1,973	32	1.6	2,328	31	1.3	2,326	17	0.7	2,632	11	0.4	2,910	5	0.2
41	1,808	95	5.3	1,717	69	4.0	1,926	27	1.4	1,706	7	0.4	1,998	4	0.2
42	1,551	34	2.2	1,558	63	4.0	1,691	43	2.5	2,251	36	1.6	2,237	31	1.4
43	1,192	125	10.5	1,657	123	7.4	2,031	80	3.9	2,402	65	2.7	2,888	39	1.4
44	1,001	43	4.3	1,471	41	2.8	1,774	0	0.0	2,051	0	0.0	2,510	0	0.0
45	477	5	1.1	430	21	4.8	625	17	2.7	1,377	7	0.5	2,687	3	0.1
46	814	32	4.0	914	28	3.0	1,560	21	1.4	1,512	18	1.2	1,742	4	0.2
47	1,244	10	0.8	1,641	9	0.6	1,822	1	0.0	2,126	3	0.1	2,403	1	0.1
48	1,520	104	6.8	1,382	143	10.4	1,348	122	9.0	1,621	116	7.1	1,796	112	6.2
49	1,128	1	0.0	897	2	0.2	935	2	0.2	1,276	2	0.2	1,919	2	0.1
50	968	4	0.4	1,341	47	3.5	1,683	44	2.6	1,813	30	1.7	2,144	8	0.4



저축은행명	02.6.말				03.6.말				04.6.말				05.6.말				06.6.말			
	여신	소액 신용대출	소액신용 대출비중		여신	소액 신용대출	소액신용 대출비중		여신	소액 신용대출	소액신용 대출비중		여신	소액 신용대출	소액신용 대출비중		여신	소액 신용대출	소액신용 대출비중	
51	1,513	128	8.5		1,999	597	29.9		2,077	547	26.4		1,982	501	25.3		1,718	457	26.6	
52	1,257	517	41.1		1,595	926	58.1		2,033	822	40.4		2,179	780	35.8		2,244	736	32.8	
53	1,187	110	9.3		1,364	79	5.8		1,674	62	3.7		1,666	29	1.8		1,970	16	0.8	
54	1,035	83	8.0		1,120	63	5.7		1,159	122	10.5		1,499	218	14.5		2,269	221	9.7	
55	735	75	10.2		875	52	5.9		1,284	8	0.6		1,223	4	0.3		1,199	3	0.3	
56	1,367	598	43.8		1,439	547	38.0		1,470	503	34.2		1,558	398	25.6		2,142	227	10.6	
57	842	6	0.8		813	2	0.3		1,317	0	0.0		1,469	0	0.0		1,675	0	0.0	
58	773	48	6.2		795	102	12.8		860	79	9.2		991	33	3.3		1,450	19	1.3	
59	232	84	36.3		667	278	41.7		1,066	284	26.7		1,293	249	19.3		1,857	187	10.1	
60	536	53	9.8		582	51	8.8		1,033	29	2.8		1,563	6	0.4		1,874	0	0.0	
62	1,037	6	0.6		1,099	5	0.5		1,122	1	0.1		1,178	2	0.1		1,667	1	0.1	
63	1,188	2	0.2		1,285	5	0.4		1,442	0	0.0		1,617	0	0.0		1,638	0	0.0	
64	706	2	0.3		869	1	0.1		1,054	1	0.1		1,162	0	0.0		1,517	0	0.0	
65	861	10	1.1		1,176	23	2.0		1,204	16	1.4		1,311	12	0.9		1,558	7	0.5	
66	641	18	2.8		737	14	2.0		934	6	0.6		929	4	0.4		1,091	13	1.2	
67	632	60	9.5		630	43	6.8		818	10	1.2		954	3	0.3		1,039	3	0.3	
68										0				0			488	13	2.6	
69	849	22	2.6		885	35	4.0		952	12	1.3		1,090	14	1.3		1,353	13	0.9	
70	599	4	0.6		732	6	0.8		941	5	0.5		1,044	4	0.4		1,365	3	0.2	
71	1,359	298	21.9		1,422	337	23.7		1,756	206	11.7		1,317	276	20.9		1,156	308	26.6	
72	1,381	40	2.9		1,379	34	2.4		1,124	23	2.0		1,291	6	0.5		1,300	0	0.0	
73	458	66	14.3		622	77	12.3		782	64	8.2		1,052	41	3.9		1,161	36	3.1	
74										0				0			1,497	85	5.7	
75	625	8	1.2		828	4	0.5		959	2	0.2		968	1	0.1		1,205	2	0.1	
76	465	6	1.3		590	6	0.9		751	5	0.6		1,024	4	0.4		1,277	2	0.2	
77	683	4	0.5		622	3	0.5		803	7	0.9		801	5	0.7		1,164	3	0.3	
78	225	2	1.0		544	2	0.3		660	0	0.0		811	1	0.1		1,110	0	0.0	

지속은행명	02.6. 말			03.6. 말			04.6. 말			05.6. 말			06.6. 말		
	여신	소액 신용대출	소액신용 대출비중	여신	소액 신용대출	소액신용 대출비중	여신	소액 신용대출	소액신용 대출비중	여신	소액 신용대출	소액신용 대출비중	여신	소액 신용대출	소액신용 대출비중
79	867	0	0.0	657	0	0.0	989	0	0.0	1,103	0	0.0	1,194	0	0.0
80	407	7	1.6	569	9	1.6	694	4	0.6	1,028	1	0.1	1,081	1	0.1
81	506	1	0.1	653	1	0.1	808	0	0.0	862	0	0.0	1,194	0	0.0
82	332	7	2.0	306	1	0.3	410	0	0.1	400	1	0.2	912	0	0.0
83	756	0	0.1	822	0	0.1	819	0	0.0	903	0	0.0	947	0	0.0
84	390	33	8.5	541	65	11.9	749	80	10.7	898	92	10.2	780	64	8.2
85	336	2	0.7	437	3	0.6	604	1	0.2	753	0	0.0	879	0	0.0
86	537	50	9.3	524	72	13.6	685	77	11.2	718	68	9.4	854	13	1.6
87	397	1	0.2	441	1	0.2	660	1	0.2	715	0	0.0	802	0	0.0
88	640	11	1.8	679	7	1.0	705	3	0.4	821	1	0.1	905	0	0.0
89	278	5	1.8	416	18	4.4	588	13	2.2	793	7	0.9	936	4	0.4
90	1,010	263	26.1	877	282	32.2	847	253	29.9	783	231	29.5	856	209	24.4
91	444	13	2.8	589	75	12.8	706	50	7.0	881	35	3.9	942	44	4.7
92	247	20	7.9	422	45	10.7	623	40	6.5	701	38	5.5	996	36	3.6
93	385	22	5.6	611	100	16.3	666	68	10.2	649	49	7.6	795	38	4.8
94	521	4	0.7	520	5	0.9	562	3	0.5	559	5	0.8	663	3	0.5
95	461	168	36.4	570	244	42.8	583	52	8.9	640	208	32.5	633	162	25.6
96	920	141	15.4	938	313	33.4	1,002	324	32.3	932	282	30.3	637	190	29.9
97	466	59	12.8	527	112	21.3	541	103	19.1	620	89	14.3	681	70	10.2
98	291	3	1.0	313	3	1.1	344	2	0.6	421	2	0.4	564	2	0.3
99	201	1	0.5	226	1	0.6	374	2	0.5	545	1	0.1	632	0	0.1
100	352	1	0.3	338	1	0.2	400	0	0.0	386	1	0.2	514	0	0.0
101	259	2	0.9	280	4	1.5	311	4	1.4	438	24	5.5	619	29	4.7
102	475	42	8.9	411	35	8.6	497	26	5.2	513	7	1.4	478	3	0.7
103	172	0	0.2	172	0	0.1	233	0	0.0	392	0	0.0	507	0	0.0
104	660	6	0.9	746	3	0.4	629	0	0.0	488	0	0.0	333	6	1.7
105	349	3	0.8	390	3	0.6	417	1	0.2	444	1	0.1	407	1	0.1

저축은행명	02.6.말			03.6.말			04.6.말			05.6.말			06.6.말		
	여신	소액 신용대출	소액신용 대출비중	여신	소액 신용대출	소액신용 대출비중	여신	소액 신용대출	소액신용 대출비중	여신	소액 신용대출	소액신용 대출비중	여신	소액 신용대출	소액신용 대출비중
106	243	17	7.2	359	51	14.2	452	75	16.6	631	63	9.9	443	51	11.6
107	264	1	0.4	264	2	0.6	341	3	0.8	317	1	0.2	285	0	0.1
108	123	0	0.2	129	0	0.2	233	0	0.0	187	0	0.1	127	0	0.1
109	480	11	2.3	551	0	0.0	269	0	0.0	83	0	0.0	25	0	0.1
110	125	1	0.8	117	1	0.6	127	1	0.6	139	1	0.5	143	1	0.4

상호저축은행 고정이하여성신 및 대손충당금전립 현황

(단위 : 억원, %)

저축은행명	'02.6월말			'03.6월말			'04.6월말			'05.6월말			'06.6월말		
	고정이하 여성신	고정이하 여성비율	대손 충당금	고정이하 여성신	고정이하 여성비율	대손 충당금	고정이하 여성신	고정이하 여성비율	대손 충당금	고정이하 여성신	고정이하 여성비율	대손 충당금	고정이하 여성신	고정이하 여성비율	대손 충당금
솔로몬	320	11.0	317	445	9.1	520	934	10.5	863	911	6.4	838	654	3.3	565
제일	662	7.4	302	865	8.6	430	909	7.0	569	1,388	9.3	885	1,680	9.5	1,155
HK	1,025	7.4	554	1,355	9.0	918	1,742	9.9	1,276	3,382	18.8	1,963	3,766	21.7	2,167
한국	340	8.9	164	341	6.9	229	543	6.0	344	1,517	12.6	702	719	5.9	674
부산	389	8.4	204	773	10.7	568	612	7.1	363	684	6.6	606	699	6.0	636
부산2	16	0.9	16	104	3.2	98	67	1.7	66	289	4.8	154	437	4.8	344
토마토	124	13.2	63	221	6.6	130	564	10.6	302	394	5.6	239	637	5.9	333
경기	784	37.8	417	405	15.1	266	514	14.7	326	770	20.5	405	341	4.1	255
진흥	393	11.2	162	229	5.0	182	819	12.9	360	1,730	20.0	604	1,635	16.9	713
미래	277	28.7	160	285	18.3	166	295	11.7	179	708	13.0	450	608	7.6	506
11	643	13.5	296	879	13.5	427	1,090	14.2	454	1,591	18.9	762	1,440	14.8	641
12			0										2,185	23.2	1,380
13	483	10.7	347	776	13.1	548	1,271	18.7	862	1,121	14.6	875	460	5.8	478
14	156	3.1	120	557	9.9	459	946	17.4	686	818	11.5	605	474	5.7	363
15	344	9.8	174	647	13.9	356	1,012	17.6	651	974	13.7	645	739	8.9	508
16	290	9.9	176	352	9.8	302	439	9.3	369	780	12.1	488	1,267	17.7	792
17	649	22.4	388	344	11.8	257	269	7.1	167	469	10.8	261	274	4.8	160
18	207	13.6	144	219	9.5	143	385	11.0	262	355	9.6	221	322	5.0	199
19	115	6.7	53	175	6.8	87	380	10.2	140	675	15.1	233	402	6.1	180

지속은행명	'02.6월말				'03.6월말				'04.6월말				'05.6월말				'06.6월말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대손 충당금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대손 충당금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대손 충당금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대손 충당금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대손 충당금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대손 충당금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20	99	3.0	61	115	3.3	78	203	4.3	158	144	2.7	106	149	2.6	105					
21	168	5.8	65	305	8.9	117	536	12.3	206	483	10.3	215	250	4.6	211					
22	69	4.4	41	150	7.1	121	367	10.3	144	325	6.9	164	583	9.8	291					
23	518	19.7	211	364	11.1	183	523	13.0	219	470	9.7	254	269	5.3	155					
24	166	5.8	115	290	8.7	199	385	10.4	182	538	11.7	217	442	7.5	266					
25	258	14.2	126	371	15.8	214	530	17.7	311	506	11.3	388	249	5.4	164					
26	104	8.1	48	107	5.9	58	225	8.5	120	259	6.7	197	266	5.3	216					
27	208	21.6	121	126	9.3	90	77	2.7	64	140	3.9	70	186	3.8	71					
27	60	9.0	56	97	9.9	82	209	13.5	147	277	15.7	161	355	19.5	218					
28	95	4.6	85	169	7.3	139	242	10.0	178	245	7.3	99	283	6.0	142					
29	80	4.8	34	153	6.0	105	359	10.1	208	825	21.0	318	872	18.9	381					
30	395	20.8	295	419	9.5	258	675	20.2	253	247	7.6	146	154	4.9	146					
31	199	7.4	173	283	9.0	195	314	7.7	236	415	9.9	307	323	8.3	255					
32	387	16.9	224	470	19.8	285	617	23.3	327	653	17.7	382	634	14.6	322					
33	162	6.8	156	209	7.0	179	231	6.4	200	381	8.9	263	2,309	48.8	1,763					
34	81	7.0	48	110	9.2	70	109	8.7	77	96	5.9	50	87	2.5	92					
35	31	1.7	35	71	3.5	49	175	6.0	92	416	13.0	197	326	10.3	179					
36	117	4.8	60	210	6.0	106	225	7.4	130	274	10.3	133	179	5.7	94					
37	108	8.0	73	144	8.1	119	274	13.7	193	313	14.6	184	497	13.8	321					
38	92	8.6	100	135	11.7	113	272	15.7	231	311	12.7	178	236	7.0	103					
39	602	16.3	326	773	20.6	471	710	19.4	482	682	21.8	414	632	20.3	409					
40	709	35.9	406	596	25.6	400	490	21.1	338	464	17.6	284	440	15.1	237					

저축은행명	'02.6월말			'03.6월말			'04.6월말			'05.6월말			'06.6월말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대손 충당금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대손 충당금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대손 충당금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대손 충당금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대손 충당금
41	410	22.7	212	223	13.0	124	263	13.6	152	295	17.3	138	194	9.7	96
42	555	35.7	253	370	23.7	187	319	18.9	178	348	15.5	187	427	19.1	196
43	161	13.5	70	217	13.1	117	233	11.5	120	375	15.6	136	486	16.8	200
44	20	2.0	15	38	2.6	33	79	4.5	36	120	5.8	55	133	5.3	63
45	129	27.1	80	54	12.6	38	60	9.5	41	128	9.3	67	212	7.9	113
46	123	15.1	74	129	14.1	72	140	9.0	87	193	12.8	138	104	6.0	80
47	117	9.4	55	188	11.5	75	232	12.7	105	361	17.0	140	221	9.2	148
48	418	27.5	181	379	27.4	169	368	27.3	164	337	20.8	161	326	18.1	188
49	69	6.1	41	96	10.7	50	64	6.9	48	130	10.2	88	98	5.1	68
50	56	5.8	29	59	4.4	28	92	5.5	43	123	6.8	47	117	5.4	63
51	222	14.6	127	266	13.3	176	376	18.1	217	361	18.2	224	408	23.8	257
52	210	16.7	125	386	24.2	299	304	15.0	237	717	32.9	611	455	20.3	408
53	40	3.3	26	53	3.9	47	80	4.8	60	87	5.2	64	32	1.6	51
54	74	7.2	52	97	8.7	56	247	21.3	123	262	17.5	135	249	11.0	163
55	84	11.4	64	136	15.5	117	30	2.3	22	378	30.9	102	270	22.5	132
56	102	7.4	83	225	15.6	172	349	23.8	258	266	17.1	199	236	11.0	165
57	55	6.5	31	64	7.9	39	136	10.3	63	137	9.4	75	129	7.7	84
58	81	10.5	41	82	10.3	63	127	14.7	80	159	16.1	96	160	11.0	69
59	23	10.0	8	87	13.1	65	174	16.3	123	192	14.9	123	208	11.2	132
60	161	30.0	55	143	24.5	70	128	12.4	69	141	9.0	83	248	13.2	140
62	143	13.8	67	120	10.9	63	155	13.8	64	147	12.4	55	115	6.9	55
63	214	18.0	99	223	17.4	93	180	12.5	90	262	16.2	109	244	14.9	126

저축은행명	'02.6월말			'03.6월말			'04.6월말			'05.6월말			'06.6월말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대손 충당금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대손 충당금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대손 충당금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대손 충당금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대손 충당금
64	48	6.7	16	53	6.1	20	79	7.5	29	164	14.1	96	296	19.5	104
65	111	12.9	56	90	7.7	51	107	8.9	58	107	8.2	55	92	5.9	52
66	103	16.2	32	70	9.4	32	41	4.4	25	57	6.2	24	47	4.3	37
67	44	6.9	27	56	8.9	28	58	7.1	29	81	8.5	28	64	6.2	47
68			0										173	35.5	57
69	86	10.2	62	78	8.8	61	93	9.8	60	84	7.7	49	91	6.7	59
70	100	16.8	34	85	11.6	33	91	9.6	38	108	10.3	47	92	6.7	50
71	73	5.4	33	179	12.6	115	259	14.7	140	238	18.1	208	66	5.7	57
72	369	26.7	202	297	21.5	163	292	26.0	142	232	18.0	132	57	4.4	27
73	28	6.0	15	24	3.8	19	44	5.6	30	42	3.9	27	50	4.3	33
74			0										1,194	79.8	700
75	8	1.2	6	44	5.3	20	79	8.2	28	105	10.8	31	91	7.5	61
76	28	6.0	11	34	5.8	17	38	5.1	20	63	6.1	25	109	8.5	45
77	73	10.7	34	110	17.8	54	90	11.2	42	80	10.0	36	92	7.9	57
78	23	10.2	7	31	5.7	24	20	3.0	13	78	9.6	24	100	9.0	54
79	18	2.0	15	102	15.5	60	126	12.7	80	132	12.0	77	116	9.7	78
80	25	6.1	8	31	5.5	11	73	10.5	28	55	5.4	21	169	15.6	42
81	90	17.8	57	73	11.2	52	67	8.3	36	55	6.4	26	82	6.9	42
82	3	0.9	3	25	8.2	9	50	12.1	15	19	4.8	8	21	2.3	14
83	29	3.9	15	60	7.3	17	25	3.1	14	51	5.7	17	18	1.9	19
84	74	19.0	28	53	9.7	34	38	5.0	30	112	12.4	63	316	40.6	171
85	28	8.3	14	21	4.8	9	33	5.5	15	36	4.7	25	41	4.6	32

저축은행명	'02.6월말			'03.6월말			'04.6월말			'05.6월말			'06.6월말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용	대손 충당금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용	대손 충당금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용	대손 충당금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용	대손 충당금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용	대손 충당금
86	117	21.8	53	41	7.9	24	54	7.9	25	104	14.4	54	29	3.5	16
87	32	8.0	10	32	7.2	9	27	4.1	10	55	7.7	15	60	7.5	25
88	44	6.8	17	64	9.5	28	58	8.2	38	68	8.3	48	102	11.2	58
89	38	13.5	31	43	10.3	22	52	8.8	26	115	14.4	53	86	9.2	49
90	246	24.4	111	228	25.9	113	239	28.2	127	215	27.5	121	232	27.1	148
91	39	8.8	23	54	9.1	31	68	9.6	45	114	12.9	60	96	10.2	62
92	73	29.3	44	64	15.3	49	118	18.9	69	129	18.4	83	210	21.1	136
93	19	5.0	9	36	5.9	24	44	6.6	20	62	9.6	22	47	5.9	31
94	22	4.3	13	28	5.3	13	37	6.5	19	33	5.9	21	24	3.6	16
95	66	14.4	44	97	17.1	72	106	18.2	73	113	17.7	68	70	11.1	35
96	239	26.0	115	180	19.2	84	262	26.2	151	214	23.0	149	203	31.9	126
97	86	18.4	42	94	17.8	66	115	21.2	70	98	15.8	58	47	6.9	25
98	49	16.8	18	39	12.6	16	25	7.3	12	21	5.0	10	17	2.9	11
99	17	8.6	11	31	13.6	19	14	3.8	12	25	4.6	13	26	4.1	17
100	69	19.6	27	62	18.2	24	57	14.2	25	46	11.9	24	34	6.7	19
101	71	27.4	25	43	15.2	21	34	10.9	18	81	18.6	43	106	17.1	40
102	66	14.0	28	78	19.0	42	70	14.0	43	61	11.9	28	67	14.0	30
103	46	26.6	21	41	23.9	21	14	6.2	9	13	3.2	9	21	4.0	13
104	170	25.8	121	90	12.1	56	60	9.5	36	58	11.9	38	44	13.2	21
105	31	9.0	13	39	10.0	18	28	6.7	12	87	19.7	25	100	24.6	38
106	10	4.1	8	5	1.4	6	39	8.5	18	45	7.1	21	58	13.1	36
107	42	15.7	26	39	14.7	23	27	8.0	12	28	8.8	9	22	7.8	7



저축은행명	'02.6월말			'03.6월말			'04.6월말			'05.6월말			'06.6월말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대손 충당금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대손 충당금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대손 충당금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대손 충당금	고정이하 여신	고정이하 여신비율	대손 충당금
108	4	2.9	3	2	1.8	2	1	0.4	2	24	13.0	7	24	18.8	8
109	292	60.8	152	137	24.8	64	135	50.3	86	65	78.1	54	12	46.3	8
110	31	24.6	11	13	11.3	6	9	7.3	4	8	5.6	4	6	4.2	4

상호저축은행의 고정이하 소액신용대출 등 현황

(단위 : 억원, %)

저축은행명	'04.6월말				'05.6월말				'06.6월말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출	소액신용 대출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출 비율	대손충당금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출	소액신용 대출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출 비율	대손충당금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출	소액신용 대출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출 비율	대손충당금
솔로몬	576	1,402	41.1	460	359	967	37.2	281	108	631	17.1	91
제일	216	1,571	13.8	206	427	1,640	26.0	378	527	1,549	34.0	425
HK	606	2,379	25.5	554	972	1,924	50.5	805	705	1,206	58.5	676
한국	0	91	0.0	1	0	0	-	0	0	5	4.7	0
부산	0	228	0.0	2	0	310	0.0	3	0	257	0.0	3
부산2	0	3	3.5	0	0	1	45.8	0	0	1	88.5	0
토마토	103	130	79.6	78	1	10	7.6	1	0	6	0.0	0
경기	69	142	48.9	55	0	10	0.0	0	2	5	36.6	1
진흥	13	100	12.6	12	14	28	50.3	14	0	2	7.6	0
미래	0	0	-	0	0	130	0.0	4	0	0	-	0
11	16	79	20.2	14	2	58	3.7	4	6	27	20.6	5
12	-	-	-	-	-	-	-	-	43	142	30.1	34
13	359	1,281	28.1	297	175	1,164	15.0	181	124	801	15.5	121
14	722	1,190	60.6	570	538	882	61.1	445	177	368	48.2	171
15	470	994	47.3	401	417	828	50.3	356	226	496	45.6	180
16	266	1,624	16.4	279	342	1,424	24.0	335	629	1,290	48.7	530
17	3	7	50.9	3	66	69	94.9	54	34	35	96.1	27
18	107	168	63.7	90	4	43	8.7	4	7	32	23.1	6
19	9	15	63.0	7	1	2	48.1	1	0	16	1.6	0
20	85	105	80.7	69	18	33	55.2	14	5	11	43.3	4
21	58	95	61.0	44	76	88	86.4	58	0	0	-	0

저축은행명	'04.6월말				'05.6월말				'06.6월말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출	소액신용 대출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출 비율	대손충당금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출	소액신용 대출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출 비율	대손충당금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출	소액신용 대출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출 비율	대손충당금
22	6	19	31.9	5	7	16	44.0	6	6	13	50.9	5
23	3	4	66.9	2	0	1	32.7	0	0	1	27.4	0
24	107	414	25.9	93	96	336	28.6	84	80	235	33.9	74
25	87	243	35.6	71	37	126	29.5	32	24	63	37.9	20
26	0	4	2.9	0	0	1	13.1	0	0	0	68.4	0
27	0	0	-	0	0	0	-	0	0	0	-	0
27	95	300	31.5	80	84	300	28.2	74	83	270	30.8	80
28	159	303	52.7	123	27	118	23.2	24	24	76	31.7	21
29	1	3	47.0	1	2	3	56.7	1	1	2	67.7	1
30	0	0	15.8	0	0	0	11.1	0	0	0	0.0	0
31	159	688	23.1	145	225	639	35.2	203	145	435	33.3	130
32	52	73	70.2	39	21	33	63.7	17	8	36	23.1	7
33	11	721	1.5	31	10	652	1.5	28	448	576	77.7	446
34	0	0	0.0	0	0	0	-	0	0	0	-	0
35	3	15	20.4	3	5	8	54.8	4	7	11	61.2	5
36	10	67	15.0	8	8	32	24.0	7	9	19	47.2	8
37	149	348	42.9	127	109	238	45.9	95	155	200	77.5	149
38	208	298	69.5	181	72	173	41.8	70	1	51	2.6	4
39	32	39	82.2	24	13	17	77.0	10	12	15	79.2	9
40	8	17	48.0	7	6	11	48.9	5	2	5	36.9	2
41	18	27	65.8	15	6	7	92.4	5	4	4	96.7	3
42	31	43	71.9	23	29	36	79.4	23	27	31	87.3	23
43	7	80	8.7	7	10	65	15.1	10	7	39	17.8	7
44	0	0	-	0	0	0	-	0	0	0	-	0

저축은행명	'04.6월말				'05.6월말				'06.6월말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대출	소액신용 대출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대출 비율	대손충당금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대출	소액신용 대출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대출 비율	대손충당금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대출	소액신용 대출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대출 비율	대손충당금
45	11	17	68.1	9	4	7	53.9	3	3	3	96.0	2
46	11	21	52.8	9	11	18	64.0	9	2	4	44.4	1
47	1	1	74.7	1	1	3	25.2	1	1	1	38.9	1
48	42	122	34.2	32	43	116	36.8	33	46	112	41.0	36
49	0	2	6.2	0	0	2	11.2	0	0	2	24.0	0
50	1	44	3.1	3	17	30	56.9	9	3	8	39.0	2
51	27	547	5.0	33	33	501	6.7	39	84	457	18.4	86
52	82	822	9.9	100	528	780	67.7	487	211	736	28.6	232
53	41	62	66.3	37	22	29	74.6	21	11	16	65.5	11
54	36	122	29.4	31	29	218	13.3	25	27	221	12.1	24
55	3	8	40.9	3	2	4	42.1	1	3	3	96.7	2
56	277	503	55.2	217	180	398	45.3	149	153	227	67.6	119
57	0	0	75.9	0	0	0	100.0	0	0	0	-	0
58	48	79	60.8	40	9	33	28.7	9	1	19	7.9	2
59	103	284	36.4	89	99	249	39.8	80	66	187	35.0	53
60	11	29	38.0	11	1	6	12.1	1	0	0	56.5	0
62	0	1	34.0	0	0	2	13.0	0	0	1	20.7	0
63	0	0	-	0	0	0	-	0	0	0	-	0
64	1	1	55.7	1	0	0	42.9	0	0	0	44.4	0
65	4	16	27.2	4	7	12	59.2	7	1	7	14.9	1
66	0	6	8.5	0	0	4	8.9	0	0	13	0.0	0
67	6	10	64.2	6	2	3	81.5	2	2	3	90.3	2
68	-	-	-	-	-	-	-	-	5	13	38.8	4
69	4	12	34.2	4	4	14	30.9	4	6	13	46.9	5

저축은행명	'04.6월말				'05.6월말				'06.6월말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출	소액신용 대출	고정이하 소액신용대출 비율	대손충당금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출	소액신용 대출	고정이하 소액신용대출 비율	대손충당금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출	소액신용 대출	고정이하 소액신용대출 비율	대손충당금
70	1	5	13.0	1	1	4	22.5	1	1	3	33.8	1
71	68	206	33.1	59	79	276	28.8	79	28	308	9.0	30
72	14	23	59.5	11	5	6	81.3	4	0	0	6.9	0
73	17	64	25.9	13	12	41	27.8	9	9	36	25.8	9
74	-	-	-	-	-	-	-	-	56	85	66.2	43
75	0	2	8.1	0	0	1	12.5	0	0	2	0.6	0
76	4	5	76.3	4	2	4	64.1	2	2	2	73.1	2
77	1	7	11.3	1	2	5	33.7	1	2	3	55.9	1
78	0	0	84.6	0	0	1	22.4	0	0	0	18.8	0
79	0	0	-	0	0	0	0.0	0	0	0	0.0	0
80	1	4	27.2	1	0	1	11.8	0	0	1	12.7	0
81	0	0	-	0	0	0	-	0	0	0	-	0
82	0	0	79.1	0	0	1	4.1	0	0	0	-	0
83	0	0	0.0	0	0	0	0.0	0	0	0	0.0	0
84	8	80	10.6	9	15	92	16.5	14	13	64	20.9	12
85	1	1	42.2	1	0	0	31.4	0	0	0	30.0	0
86	4	77	5.8	8	38	68	55.4	30	3	13	19.3	2
87	0	1	16.8	0	0	0	-	0	0	0	-	0
88	1	3	38.9	1	1	1	81.2	1	0	0	56.5	0
89	2	13	15.0	2	4	7	59.7	3	2	4	47.5	1
90	34	253	13.5	30	31	231	13.6	35	69	209	33.0	62
91	18	50	35.2	16	16	35	47.0	14	17	44	39.0	16
92	33	40	82.2	25	33	38	86.5	28	32	36	88.1	27
93	7	68	10.7	7	3	49	6.4	3	4	38	9.6	4

저축은행명	'04.6월말					'05.6월말					'06.6월말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대출	소액신용 대출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대출 비율	대손충당금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대출	소액신용 대출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대출 비율	대손충당금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대출	소액신용 대출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대출 비율	대손충당금	고정이하 소액신용대 대출	소액신용 대출	대손충당금
94	0	3	0.0	0	1	5	18.1	1	1	3	15.2	0			0
95	49	52	94.2	37	45	208	21.7	36	8	162	4.8	8			8
96	79	324	24.5	64	87	282	30.7	79	116	190	60.8	88			88
97	50	103	48.6	40	30	89	33.9	24	9	70	13.0	7			7
98	1	2	47.9	1	1	2	50.8	1	1	2	58.7	1			1
99	0	2	2.9	0	0	1	10.7	0	0	0	35.7	0			0
100	0	0	-	0	0	1	7.3	0	0	0	-	0			0
101	1	4	26.1	1	1	24	5.5	1	1	29	4.7	1			1
102	14	26	55.1	14	6	7	79.3	5	3	3	96.8	3			3
103	0	0	-	0	0	0	-	0	0	0	-	0			0
104	0	0	87.5	0	0	0	100.0	0	6	6	100.0	1			1
105	0	1	5.4	0	0	1	4.7	0	0	1	3.4	0			0
106	9	75	12.4	8	10	63	16.2	9	24	51	46.3	19			19
107	0	3	8.0	0	0	1	1.6	0	0	0	0.0	0			0
108	0	0	54.5	0	0	0	33.3	0	0	0	42.9	0			0
109	0	0	-	0	0	0	0.0	0	0	0	100.0	0			0
110	0	1	5.6	0	0	1	6.9	0	0	1	0.0	0			0

**17. 신탁 누적결손금 재정지원 투입 사유 및 신탁 부실로 인한 리스크 확대 연구 용역 여부**

□ 감독당국은 그동안 신탁중앙회의 손실은 기본적으로 경영 실패에 기인한 것이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과 함께 경영개선명령 등을 통해 신탁측의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화를 추진하였으나

\* 상환준비금 금리인하, 출자금 감자 및 증액, 부동산 처분, 중앙회 인력감축 등

- 누적 결손금 과다에 따른 기회비용 및 수익구조 취약 등으로 자구노력에 의한 부실해소에는 한계

□ 중앙회의 누적결손금 문제를 조기에 해결치 않을 경우 시장상황 악화시 중앙회 부실문제가 시장 전체리스크로 확대될 위험

- 또한, 결손금 규모 확대로 신탁의 영업기반 약화시 주이용 계층인 서민,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서민금융 위축이 우려

- 위와 같은 시장혼란 위험 등을 감안하여, 신탁측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재정지원 방안을 정부측과 협의중

□ 한편, 신탁중앙회는 리스크 확대 방지 등을 위한 신탁중앙회 자산운용 관련 아웃소싱 방안을 외부 연구 용역중

18. 2002년 이후 2006년 7월 현재까지 사금융 피해 신고와 적발 현황, 검찰 등 타 기관 통보 건수 현황

19. 2002년 이후 2006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대부업체 등록 및 취소 현황

18. 사금융 피해 상담(붙임 1) 및 수사기관 통보(붙임2) 현황

- ☐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설치('01.4월)·운영하는 한편 불법 혐의업체를 수사당국에 통보하고 있음

\* 대부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는 관할 시·도가, 형사처벌은 사법기관이 담당

19 대부업체 등록·취소현황 : 붙임3

- ☐ 서민금융이용자 보호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별 시·도로부터 수집한 현황을 단순취합한 것임

\* 현재 '06.5월말 현황까지 취합



(붙임1)

## 사금융피해상담현황

(단위 : 건)

기간	고금리	불법적 채권추심	대부광고 <sup>1)</sup>	대부중개	기타부당 <sup>2)</sup>	대부업 등록등 문의	단순상담 <sup>3)</sup>	계
'01년	949	187	-	31	350	214	1,534	3,265
'02년	889	489	-	114	405	505	1,220	3,622
'03년	1,126	760	-	51	240	151	856	3,184
'04년	872	551	-	9	410	7	1,049	2,898
'05년	479	374	62	73	484	421	1,334	3,227
'06.7월	250	222	27	48	373	203	1,275	2,398
총계	4,565	2,583	89	326	2,262	1,501	7,268	18,594

- 1) 대부광고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05.8월부터 새로 분류  
 2) 기타부당 : 대출사기, 부채증명서 발급거부, 부당수수료 부과 등  
 3) 단순상담 : 압류·경매, 제도권금융기관 조회, 신용조회 등

(붙임2)

## 금융질서교란사범 수사기관 통보현황

(단위 : 개)

기간	대부업법 위반				유사수신	카드깡	기타 <sup>2)</sup>	계
	이자율 위반	불법적 추심	무등록 대부업	중개 수수료 <sup>1)</sup>				
'01년	141	303	-	-	141	21	116	722
'02년	43	125	-	-	135	1,749	98	2,150
'03년	106	32	12	-	133	2,194	136(34)	2,613
'04년	241	28	13	-	181	1,322	79(70)	1,864
'05년	73	5	70	-	166	693	123(69)	1,130
'06.7월	11	5	91	1	102	92	70(7)	372
총계	615	498	186	1	858	6,071	622(180)	8,851

주1) 중개수수료 수취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05.9월부터 금지

주2) 기타 : (대출사기), 금융기관 유사상호 사용, 알선수재, 사문서위조 등 기타 법령위반

\* 두 개 이상의 위반이 있는 경우 1개의 대표행위 위반으로 취급

(붙임3)

### 대부업 등록 및 취소현황

(단위: 개)

기간	등록(누적)	등록취소(누적)	자진취소(누적)	직권취소(누적)	등록업체
등록유예기간	2,223	-	-	-	2,223
03.1.28-2월	7,394	-	-	-	7,394
03.12월	13,931	2,377(17.1%)	2,376	1	11,554
04.12월	18,395	6,855(37.3%)	5,731	1,124	11,540
05.12월	25,947	11,391(43.9%)	8,690	2,701	14,556
06.05월	28,987	12,943(44.7%)	10,119	2,824	16,044

## 지역별 대부업 등록 및 취소현황

('06.5월말 현재, 단위: 개)

지역	등록(누적)	등록취소(누적)	자진취소(누적)	작권취소(누적)	등록업체
서울	9,452	4,050(42.8%)	2,776	1,274	5402
경기	4,984	1,945(39.0%)	1,829	116	3039
부산	2,421	1,296(53.5%)	865	431	1125
대구	1,554	855(55.0%)	597	258	699
인천	1,400	751(53.6%)	556	195	649
광주	1,031	499(48.4%)	331	168	532
대전	983	418(42.5%)	397	21	565
울산	715	329(46.0%)	329	-	386
강원	779	387(49.7%)	316	71	392
충남	735	365(49.7%)	253	112	370
충북	884	484(54.8%)	475	9	400
전남	679	232(34.2%)	232	-	447
전북	964	301(31.2%)	301	-	663
경남	1,363	665(48.8%)	530	135	698
경북	804	233(29.0%)	231	2	571
제주	239	133(55.6%)	101	32	106
계	28,987	12,943(44.7%)	10,119	2,824	16,044

## 20. 자동차보험관련 자료

### ☐ 자동차보험료 인상현황 및 인상당시의 인상요인

- '01.8월 자동차보험의 가격자유화 이후 각 보험회사들은 자사의 통계실적을 기준으로 수시로 각 담보별·상품별 보험료를 산출·적용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 현황 산출 불가

### ☐ 자동차보험 보험료 수입 총액

(단위 : 억원)

구 분	FY'02	FY'03	FY'04	FY'05
경과보험료	68,810	70,985	72,498	75,677

### ☐ 자동차보험 오프라인/온라인 보험료 현황

(단위 : 억원)

FY'05	오프라인	온라인	합계
경과보험료	70,507	5,170	75,677

☐ 자동차보험 담보종목별 보상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FY'02	FY'03	FY'04	FY'05
대인 I	18,063	20,110	19,433	22,029
대인 II	6,919	8,217	8,124	6,966
대 물	8,878	10,080	10,118	12,142
자 손	2,154	1,889	1,789	1,970
차 량	9,779	12,544	11,380	12,695
무보험	342	434	571	467
기 타	890	1,189	1,384	1,722
계	47,025	54,463	52,798	57,991

☐ 손보사별 사업비 내역(보상이외의 지출금 내역)

○ <붙임파일1> 참조

☐ 긴급출동서비스 현황

○ <붙임파일2> 참조

□ 자동차보험 가입차량 현황

(단위 : 천대, %)

	FY02('03.3월말)	FY03('04.3월말)	FY04('05.3월말)	FY05('06.3월말)
책임보험(B)	13,167	13,529	13,795	14,308

□ 보험사의 환급시스템 구축 현황

(단위:건, 원)

회사명	시스템 구축여부	FY'04		FY'05	
		환급건수	환급금액	환급건수	환급금액
동 양	구축	130	13,657,620	186	17,355,760
신동아	구축	25	3,584,030	22	3,153,950
대 한	구축	0	0	114	9,037,590
그 린	구축	25	3,764,210	23	3,151,230
쌍 용	구축	96	9,973,730	160	13,627,370
제 일	구축	22	2,497,900	50	4,640,620
삼 성	구축	350	36,415,930	484	53,673,080
현 대	구축	135	17,090,150	171	17,599,830
L G	구축	469	46,566,570	105	18,232,750
동 부	구축	102	11,677,910	183	20,280,000
교 보	구축	0	0	0	0
교 원	구축	3	397,890	3	366,050
다 음	구축	0	0	0	0
계	-	1,357	145,625,940	1,501	161,118,230

주)1. 환급시스템은 “보험사 홈페이지의 환급관련 코너”를 의미

2. AHA 제외

□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단의 종합대책안 주요 내용

○ <붙임3> 참조



<붙임1> 손보사별 사업비 내역

손보사명	FY02	FY03	FY04	FY05
동 양	1,366	1,592	1,771	1,863
신동아	886	886	814	808
대 한	731	724	705	724
그 린	488	463	468	547
쌍 용	1,204	1,200	1,004	1,089
제 일	834	932	852	939
삼 성	7,218	6,460	7,109	7,135
현 대	3,248	3,545	3,522	3,738
엘 지	2,733	3,022	3,037	3,332
동 부	2,911	2,919	3,065	3,196
교 보	381	389	480	529
교원나라	-	60	188	250
다음	-	78	192	236
A H A	78	93	63	51
계	22,078	22,363	23,268	24,436

##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현황

### 1. 긴급출동서비스의 개념

-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일정금액\*을 추가로 납입하고 특약에 가입한 후 보험기간 중 차량고장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 보험회사가 제휴 정비업체 등을 통해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5회까지 제공

\* 11,000원 ~ 30,000원(회사별 · 차량연식별로 상이)

-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5개 손보사가 모두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판매중이며, 승용차 · 12인승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가 주된 가입대상임

※ '96.3월부터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다가 '01.4월부터 유료화

- 대형사들은 주로 자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 · 소형사들은 주로 대형 정비업체에 위탁 운영

※ 긴급출동서비스 운영방식

- ▶ 자회사 위탁 : 삼성, 현대, LIG, 현대하이카
- ▶ 정비업체 위탁 : 메리츠, 신동아, 대한, 그린, 흥국쌍용, 제일, 동부, 교보, 교원, 다음, AHA

## 2. 긴급출동서비스 가입현황

- FY05중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건수는 14,013천건으로 전년(13,122천건) 대비 6.8% 증가하였으며,
- 원수보험료는 2,109억원으로 전년(1,623억원) 대비 29.9%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 추세

### 긴급출동서비스 가입현황

(단위 : 천건, 억원, %)

구 분	FY03	FY04		FY05	
			증감률		증감률
가입건수*	12,282	13,122	6.8	14,013	6.8
원수보험료	1,329	1,623	22.1	2,109	29.9

\* 단기계약 포함

## 3. 긴급출동서비스 이용현황

- FY05중 긴급출동서비스 이용건수는 10,587천건으로 전년(8,675천건)대비 22.0% 증가하였으며, 매년 20% 이상씩 증가 추세
- 서비스 항목중 배터리 충전(34.5%), 긴급견인(23.8%), 잠금장치 해제(19.0%)가 전체의 77.3%를 차지
- 이와 같이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원인은
  - 긴급출동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확산
  - 주5일제 시행 등에 따른 차량운행 빈도 증가
  - '05.12월 폭설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서비스이용 증가
  - 보험료가 저렴하고 할증되지 않는 점을 이용,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긴급출동을 신청하는 등 일부 동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

## 긴급출동서비스 항목별 이용실적

(단위 : 천건, 억원, %)

구 분	FY04				FY05			
	이용건수		지급보험금		이용건수		지급보험금	
		증감률		증감률	(비중)	증감률	(비중)	증감률
긴급전인	2,134	16.5	575	16.2	<b>2,518</b> <b>(23.8)</b>	18.0	<b>666</b> <b>(33.4)</b>	15.8
비상급유	227	52.3	42	55.6	304 (2.9)	33.9	56 (2.8)	33.3
배터리충전	2,997	27.9	478	29.2	<b>3,654</b> <b>(34.5)</b>	21.9	<b>580</b> <b>(29.1)</b>	21.3
타이어교체	833	31.8	135	35.0	1,138 (10.8)	36.6	185 (9.3)	37.0
잠금장치해제	1,698	17.4	272	19.8	<b>2,015</b> <b>(19.0)</b>	18.7	<b>324</b> <b>(16.2)</b>	19.1
긴급구난	246	26.2	72	24.1	362 (3.4)	47.2	101 (5.1)	40.3
기 타*	536	44.5	68	47.8	591 (5.6)	10.3	82 (4.1)	20.6
합 계	8,675	24.4	1,642	24.1	10,587 (100.0)	<b>22.0</b>	1,994 (100.0)	<b>21.4</b>

\* 전조등 교환서비스, 부동액 보충서비스, 수리차량운반서비스 등

### 4. 손해율 현황 및 향후 전망

-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FY05중 손해율이 **109.6%**로 FY03부터 3년 연속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예정손해율(평균 70%)을 **39.6%p** 초과하는 심각한 수준
- 예정손해율을 고려할 때 적정한 지급보험금\*은 1,274억원으로 동 서비스로 **720억원의 영업손실** 발생 추정

\* 1,820억원 × 70% = 1,274억원

### 긴급출동서비스 영업실적

(단위 : 억원, %, %p)

구 분	FY03	FY04		FY05	
			증감률		증감률
경과보험료(A)	1,207	1,394	15.5	1,820	30.6
발생손해액(B)	1,323	1,642	24.1	1,994	21.4
손해율(B/A)	109.6	117.8	8.2	109.6	△8.2

□ 손해율이 악화됨에 따라 손보사별로 05년~06년 중 보험료를 인상(회사별로 30% 내외)한 바 있어, 향후 손해율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 FY05년 손해율은 전년도 보다 8.2%p 하락함

□ 다만, 손보업계에서는 보험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및 과도한 서비스이용의 방지를 위해

○ ① 이용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거나, ②서비스 이용시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됨

\*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자가 일정금액(예 : 1만원)을 부담

## <참고1>

###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 1. 긴급견인

- ☐ 사고 또는 고장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0km 이내에서 고객이 원하는 지점까지 견인(단, 10km 초과 견인시 실비 청구)

#### 2. 비상급유

- ☐ 연료가 소진되어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 휘발류 또는 경유를 3리터 급유(회사에 따라서는 경유는 5리터)

#### 3. 배터리 충전

- ☐ 배터리 방전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배터리를 충전하여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단, 배터리 교체시 실비 청구)

#### 4. 타이어 교체

- ☐ 타이어 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타이어 교체(단, 예비타이어가 없어 타이어를 교환시 실비 청구)

#### 5. 잠금장치 해제

- ☐ 자동차 열쇠 분실 등으로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단, 고급차·수입차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

#### 6. 긴급구난

- ☐ 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과의 충격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카차')로 구난(단, 작업시간 30분 초과, 구난형 자동차 2대이상 소요 등의 경우 실비 청구)

#### 7. 기타(회사별로 상이)

- ☐ 브레이크오일·엔진오일·부동액 보충, 전조등 교환, 휠벨트 교체 등

<참고2>

긴급출동서비스 변천경과

- '96. 3월 : 업계 최초로 긴급출동 5대서비스\* 무료제공(LIG)후  
타 손보사도 순차 시행

\*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해제

- '97년 : 긴급출동 10개 서비스 시행(라디에이터 교환, 전구 교환 등)

- '98. 1월 : 긴급출동 5대 서비스만 제공

- '01. 4월 : 긴급출동 서비스 유료화

<참고3>

회사별 긴급출동서비스 손해율

(단위 : %)

구 분	FY'03	FY'04	FY'05
메리츠	102.6	105.3	107.0
신동아	99.3	90.3	108.6
대 한	108.1	123.1	123.1
그 린	98.3	99.3	108.2
홍국쌍용	108.8	118.9	127.2
제 일	112.7	110.6	114.2
삼 성	111.8	115.6	93.4
현 대	100.7	116.7	124.4
엘아이지	79.3	70.4	81.4
동 부	93.2	99.2	88.1
교 보	184.6	178.1	147.1
교원나라	147.9	171.0	153.6
다 음	203.6	194.6	159.3
AHA	-	-	105.4
합 계	109.6	117.8	109.6

\* AHA는 05년 11월부터 판매개시

##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안

### I. 추진배경 및 경과

- 전국민이 이용하는 자동차보험은 '00년 이후 누적적자가 2조원을 상회하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 시현
    -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일부 중소형사의 부실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손해보험사의 경영악화 예상
    -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 만성적자의 주요요인일 뿐 아니라 선량한 국민이 낸 보험료가 보험사기자에게 지급되어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키고 상해·방화 등 중대범죄를 야기
  - 대통령께서도 이를 염려하시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정부차원에서 미리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06.4.18)
- ⇒ 감독당국은 각계 전문가들로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특별대책단」을 구성('06.5.2)하여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

### II. 경영정상화 종합대책

#### 1. 보험업계의 자구노력방안 강구

-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험업계의 자구노력을 강화
  - 회사 자발적으로 사업비 감축, 분기별 사업비 사용실적 공시 및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 등 사업비 절감방안 마련



-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인상 및 회사별 보험료 비교공시 확대 등 시장의 자율감시기능 강화

## 2.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대책 마련

- 과속단속카메라 증설, 교통법규위반 단속 강화 및 사고다발지역 도로표지판·중앙분리대 설치 등交通安全시설 개선

-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 3. 보험요율 산출체계 합리화

-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 차량 모델별 위험도(손상정도 및 수리비)에 따라 적정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 현재 무사고자에 대한 할인율이 과도하고 모든 보험회사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무사고시 보험료 할인제도를 각 보험회사별로 자율 적용하도록 허용

## 4. 보험사기 방지방안 마련

- 금감위(원)에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자료요청권 신설, 부재환자 관리강화 등 효율적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제도적 지원

- 수사기관, 국민건강보험 및 유사보험 기관과의 보험사기 조사협력체제 강화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전담조직 신설 등 인프라 구축, 금감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성능 개선 등 조사기능 강화

21. 보험사기 관련(2002년부터 2006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작성)

- (1) 보험사기 적발실적(적발건수, 관련금액, 건당금액)
- (2) 사기유형별 현황(적발건수, 관련금액, 건당금액)
- (3) 사법처리 현황
- (4) 연령별, 성별, 직업별 현황
- (5)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주요보험사기의 유형 및 사례
- (6) 보험조사조직의 현황
- (7) 보험사기 방지업무 모범규준의 내용, 모범규준 마련  
전후 보험사기 적발 건수 비교
- (8)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 시스템 개발전후  
보험사기 적발 건수 비교
- (9) 국민건강보험, 우체국보험, 검·경찰 등과 협력한 내용
- (10) 진료비 심사 및 입원환자 관리 강화 내용
- (11) 보험업법상 보험사기의 정의 및 구체적인 유형 명시  
관련 추진 현황
- (12) 보험회사별 보험사기조사 조직, 인력 운영 현황
- (13) 금감원내 보험사기 전담조사기구 설치 및 강제조사  
권한을 갖게 하는 방안의 추진 내용

- 자료 : 별 첨

# (1), (2)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고의보험 사고	486	11,298 (23)	1,271	10,649 (8)	2,203	32,277 (15)	2,231	29,849 (13)	1,047	13,972 (13)
보험사고 가공	302	3,638 (12)	619	8,019 (13)	849	15,894 (19)	3,686	29,337 (8)	1,500	11,186 (7)
피해과장 (과다청구)	410	3,773 (9)	884	10,462 (12)	2,789	29,254 (10)	4,742	41,186 (9)	2,787	26,461 (9)
보험계약 조작	818	2,824 (3)	1,156	4,873 (4)	1,449	12,294 (8)	2,018	18,285 (9)	1,201	8,412 (7)
운전자 바꿔치기	2,637	11,363 (4)	3,091	13,593 (4)	5,029	20,432 (4)	6,240	28,224 (5)	3,429	21,510 (6)
사고차량 바꿔치기	559	2,983 (5)	737	3,674 (5)	979	5,080 (5)	1,256	6,344 (5)	748	2,917 (4)
기타	545	5,253 (10)	1,557	9,336 (6)	3,215	13,808 (4)	3,434	26,973 (8)	1,481	13,097 (9)
총계	5,757	41,132 (7)	9,315	60,605 (7)	16,513	129,039 (8)	23,607	180,198 (8)	12,193	97,555 (8)

\* ( )는 건당금액

### (3) 보험사기 관련자 사법처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구 속	479	781	1,256	956	327
불구속	772	1,568	2,453	3,821	1,810
수 배	189	329	461	325	262
수사중	157	25	104	478	112
사법처리 없음	296	596	1,097	438	113
기 타	15	24	99	185	107
합계	1,908	3,323	5,470	6,203	2,731

#### (4) 보험사기 관련자 연령별, 성별, 직업별 현황

#####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상반기
19세 이하	9	162	456	198	103
20~29세	704	1,372	2,272	2,623	1,301
30~39세	580	876	1,194	1,598	724
40~49세	421	661	1,037	1,177	410
50~59세	146	195	366	480	158
60세 이상	48	57	145	127	35
합계	1,908	3,323	5,470	6,203	2,731

##### 성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상반기
남성	1,418	2,558	4,425	4,910	2,226
여성	490	765	1,045	1,293	505
합계	1,908	3,323	5,470	6,203	2,731

##### 직업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상반기
보험설계사	20	54	59	116	23
대리점	3	3	10	35	4
보험사직원	-	8	8	8	2
유흥업소 종사자	52	48	105	109	85
자영업	200	337	669	490	155
운수업 종사자	243	177	261	297	92
봉급생활자	221	585	1,018	698	265
학 생	19	75	223	165	64
무 직	495	837	1,368	1,897	937
의료업계 종사자				340	170
차량정비업체 종사자				485	33
파악불가	655	1,199	1,749	1,563	901
합계	1,908	3,323	5,470	6,203	2,731

## (5)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주요보험사기의 유형 및 사례

### □ 주요 보험사기 유형

- 고의보험사고 :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보험사고 가공 : 보험사고를 위장, 날조하는 경우와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행위
- 피해과장(과다청구) :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기 위해 과다청구하거나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행위
- 보험계약 조작 : 보험계약서 허위고지, 대리진단 등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 운전자, 사고차량 바꿔치기 : 보험가입되지 않은 운전자나 차량을 바꿔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 □ 주요 사건 사례

- (사례1) 친·인척 및 지인들인 홍△△ 등 5명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상해사고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05. 1월부터 6월까지 4회에 걸쳐 19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134백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함
- (사례2) 문△△ 등 7명은 골목길에서 고의로 접촉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회사 보상직원들을 위협하는 수법으로 '99. 7월부터 '05. 9월까지 12회에 걸쳐 7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192백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함
- (사례3) 친구 또는 선·후배관계인 위△△구 등 198명은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01. 7월부터 '06. 1월까지 98회에 걸쳐 22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779백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함

## (6) 보험조사조직의 현황

### □ 보험조사실 조직 구성

구 분		업 무
보험조사실장		보험사기조사 총괄
조사 기획팀	팀장:1명 팀원: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사기 조사업무 기획·총괄</li> <li>· 보험사기 관련 통계의 분석 및 관리</li> <li>·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등</li> </ul>
조사1팀	팀장:1명 팀원: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보험사기 조사실시, 조사결과 조치 및 사후관리</li> <li>· 생명보험사의 보험사기조사 업무실태 점검</li> <li>· 보험사기인지시스템 운영</li> <li>· 생명보험사기 관련 정보 수집, 조사기법 연구</li> </ul>
조사2팀	팀장:1명 팀원: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해보험사기 조사실시, 조사결과 조치 및 사후관리</li> <li>·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조사 업무실태 점검</li> <li>· 보험범죄신고센타 운영</li> <li>· 생명보험사기 관련 정보 수집, 조사기법 연구</li> </ul>

### □ 자체 조사실적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건 수(건)	18	21	114	133	81
관 련 자(명)	460	757	2,576	4,171	2,974
금 액(백만원)	6,089	4,805	32,274	63,090	25,959

### □ 보험조사실 신설 후 자체 보험사기 적발건수

구 분		적발건수(건)
신설 후(실조직)	2002년	18
	2003년	21
	2004년	114
	2005년	133
	2006년 상반기	81

※ 현 보험조사실 신설 시점(2001. 12.)을 기준으로 비교

## (7) 보험사기 방지업무 모범규준의 내용, 모범규준 마련 전후 보험사기 적발 건수 비교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제 구축을 유도하고자 각 보험사에 대해서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시('02.9.)

- 4대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개분야 15개 세부사항의 기본방향 및 권고사항으로 구성

### 【기본목표】

- 보험사기 방지업무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관심도 제고
- 보험사기 관리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유도
- 보험사기 조사업무능력 제고 및 지원체제 확립
- 보험사의 위험관리 강화

### 【4개분야 15개 세부사항】

4개분야	15개 세부사항
○ 보험사기방지에 관한 기본전략의 수립 등	-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제고
	- 보험사기방지에 관한 기본전략의 수립
○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총괄기구의 설치
	- 보험사기방지규정의 제정
	- 보험사기 조사시스템의 구축 등
	- 보험사기 조사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 보험사기 신고센터의 설치
○ 보험사기예방 및 조사업무의 수행	- 보험사기예방 활동
	- 보험사기 조사업무 수행
	- 보험사기 조사업무 매뉴얼의 작성 활용
	- 조사업무 수행시 유의사항
○ 조사업무 지원체제 확립	- 홍보활동
	- 교육활동
	- 포상제도의 시행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 ☐ 보험사에 대한 보험사기예방 및 조사업무 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하여 모범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방향 및 권고사항의 이행 수준을 점검
- ☐ 현재 그 동안의 실태점검 결과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모범규준의 보완 작업 중임

모범규준 마련 전후 보험사기 적발건수

구 분		적발건수(건)
제정 전	2000년	4,726
	2001년	5,749
	2002년	5,757
제정 후	2003년	9,315
	2004년	16,513
	2005년	23,607
	2006년 상반기	12,193

## (8)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 시스템 개발 전후 보험사기 적발 건수 비교

### □ 시스템의 개요

- 보험사기와 관련한 계약 및 사고정보 등을 DB로 관리·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 추출하는 정보처리 시스템('04.1월부터 가동)

### □ 주요 기능

- 혐의자추출 기능 : 보험사기 적발건의 사기유형 및 사고 행태를 개인, 보험모집인, 보험 대리점, 병원, 정비업체 등으로 구분하고 총 228개 보험사기지표\* 점수로 혐의자를 추출하는 기능
  - \* 보험사기지표는 과거 보험사기 적발자의 사기유형과 계약 및 사고의 행태를 표준화하여 산정
- 연계분석 기능 :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 동승자, 친인척관계, 모집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자까지 혐의여부를 분석하여 전체 관련자그룹의 공모여부 판단
- 기타 주요기능 : 혐의자 관련 계약 및 사고내역의 보고서작성 기능 및 통계분석 기능

###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가동 전후의 자체 적발실적 비교

구 분		건 수(건)	관련인원(명)	관련금액(백만원)	비 고
가동 전	'02	18	460	6,089	
	'03	21	757	4,805	
가동 후	'04	114	2,576	32,274	
	'05	133	4,171	63,090	
	'06. 상반기	81	2,974	25,959	

\* 금융감독원 자체 적발실적 기준

## (9) 국민건강보험, 우체국보험, 검·경찰 등과 협력한 내용

### 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보험조사협의회를 통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등 공영 보험과 보험사기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협의
- ☐ 허위입원 및 과잉진료 등 병·의원이 관련된 전문적 보험 사기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
  - 협의회 개최('06. 상반기, 3회),
  - 조사를 위한 정보교류 및 실무협의('06. 상반기, 5회)

### 나. 우체국보험

- ☐ 해당사항 없음

### 다. 검·경찰등

- ☐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검·경찰등과의 상시협조체제 구축 및 정례협의회 개최
  - 보험 사기혐의 건에 대한 분석결과 수사의뢰 및 수사 지원('06. 상반기 현재 113회)
  - 정례 업무협의회 개최('06. 상반기 현재 3회)

## (10) 진료비 심사 및 입원환자 관리 강화 내용

-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관련 진료비 청구시 진료비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하고, 필요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열람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김효석의원이 보험사기 혐의자와 보험사기에 개입한 의료기관의 보험금(진료비 포함) 허위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위(원)에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진료기록 등 자료 제공 요청권을 신설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05.8월)하여 현재 상임위(재경위)에 계류중
- 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부재환자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음
  - 김동철의원이 부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조치권(외출·외박시 의료기관의 허락 등)과 보험회사의 통원치료·퇴원요청권을 신설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06.1월)하여 현재 상임위(건교위)에 계류중

## (11) 보험업법상 보험사기의 정의 및 구체적인 유형 명시 관련 추진 현황

□ 보험업법상 보험사기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보험업법 제162조에 의거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의 정의 및 유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김효석의원이 보험사기 정의,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05.8월)하여 현재 상임위(재경위)에 계류중

\*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의심되는 등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의 사고 유발, 사고 위장 및 보험사고를 현저하게 과장하는 행위
2.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시기를 조작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행위

## (12) 보험회사별 보험사기조사 조직, 인력 운영 현황

### 가. 생명보험회사 SIU 인력 현황

(단위 : 명)

회사명	'02년	'03년	'04년	'05년	'06.7월
교보생명	-	-	5	12	24
삼성생명	5	5	8	12	14
대한생명	-	6	7	7	7
알리안츠생명	-	-	2	2	4
신한생명	2	2	2	2	3
미래에셋생명	-	-	3	2	2
금호생명	-	-	2	2	2
홍국생명	-	2	2	2	2
계(8개사)	7	15	31	41	58

### 나. 손해보험회사 SIU 인력 현황

(단위 : 명)

회사명	'02년	'03년	'04년	'05년	'06.7월
삼성화재	9	34	52	52	50
현대해상	7	8	38	37	35
LIG화재	10	10	23	24	24
동부화재	7	6	13	20	23
신동아화재	3	3	4	13	16
메리츠화재	10	11	14	15	15
제일화재	6	6	10	11	10
쌍용화재	6	6	6	10	8
교보자동차	2	2	4	9	9
대한화재	2	3	5	8	8
그린화재	7	5	7	8	7
교원나라	-	-	-	1	1
계(12개사)	69	94	176	208	206

**(13) 금감원내 보험사기 전담조사기구 설치 및 강제조사 권한을 갖게하는 방안의 추진 내용**

- 현재 금감원은 조사기획팀과 조사1·2팀으로 구성된 보험조사실(총인원 : 14명)을 설치('01. 12.)하여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보험조사실에 강제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추진된 바 없음

## 22. 보험금지급 관련(2002년부터 2006년 7월까지 연도별)

- (1)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 내역
- (2)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내역
- (3) 소송제기로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중지된 생명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건수

### ☐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 내역

(단위 : 건수)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생명보험	3,523	4,916	5,935	7,641	4,190
손해보험	4,857	5,171	6,040	6,798	3,401
합 계	8,380	10,087	11,975	14,439	7,591

### ☐ 보험사의 보험금지급관련 소송 내역

(단위 : 건수)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생명보험	737	711	686	798	479
손해보험	5,515	5,652	5,423	4,911	2,776
합 계	6,252	6,363	6,109	5,709	3,255

### ☐ 소송제기로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중지된 생명보험사의 채무부존재소송 건수

연도 건수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소송건수	46	105	100	148	84



## 23. 대리운전업 관련

### □ 대리운전자 중 보험가입 현황

- 대리운전자의 정확한 보험가입률을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보험가입률이 약 37%\*인 것으로 추정

\* 한국교통연구원의 추정치

- 대리운전 보험 가입자 수는 '05년 기준으로 30,772명임

### □ 보험미가입 대리운전자에 대한 위원회의 대책

- '05.7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관계부처(금감원, 건교부, 경찰청) 공동으로 대리운전의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 진행 중
- 2~3년간 행정지도 및 홍보 등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대리운전 관련 문제점 지속 시 법제화 여부 검토('09년 이후)
- 향후 법제화에 대비하여 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 등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에 연구용역 의뢰·실시 중

## 24. 재해보험 관련

### 1) 최근 5년간 재해보험 가입현황

#### ☐ 풍수해보험

- 보상범위: 보험목적(주택, 온실, 축사)에 발생한 풍수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직접 손해
- 주관부서: 소방방재청
- 상품운영: 시범사업자로 지정된 동부화재가 '06.5.16일 이후 전국 9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중
  - \* 경기도 이천시, 강원도 화천군, 충북 영동군, 충남 부여군, 경북 예천군, 경남 창녕군, 전북 완주군, 전남 곡성군, 제주도 서귀포시

#### ☐ 풍수해보험 가입 현황

(기간: '06.5.16.~'06.8.30.)

(단위: 건, 천원)

지역		주택	온실	축사	종합계
강원화천군	계약건수	16	-	3	19
	보험료	844	-	1,073	1,917
경기이천시	계약건수	608	-	11	619
	보험료	12,542	-	7,157	19,699

지역		주택	온실	축사	종합계
경남창녕군	계약건수	109	5	-	114
	보험료	3,844	7,381	-	11,225
경북예천군	계약건수	475	-	29	504
	보험료	14,379	-	6,263	20,642
전남곡성군	계약건수	27	-	2	29
	보험료	1,074	-	1,512	2,586
전북완주군	계약건수	149	18	-	167
	보험료	4,057	12,341	-	16,398
제주서귀포	계약건수	25	13	-	38
	보험료	689	18,016	-	18,705
충남부여군	계약건수	47	3	-	50
	보험료	1,236	5,858	-	7,094
충북영동군	계약건수	21	1	-	22
	보험료	1,167	3,036	-	4,203
전체	계약건수	1477	40	45	1,562
	보험료	39,832	46,632	16,005	102,469

## 2) 최근 5년간 풍수재특약 가입현황

### ☐ 풍수재특약

- 보상범위: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해로 인한 건물 및 재물의 파손피해

☐ 풍수재특약 가입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계약건수	원수보험료
FY00	44,173	1,422,431
FY01	34,266	3,084,186
FY02	34,094	4,157,409
FY03	33,526	5,611,125
FY04	31,633	7,067,707

3) 풍수해보험 및 풍수재특약의 보험금 지급 현황

☐ 풍수해보험

(기간: '06.5.16.~'06.8.30.)

(단위: 건, 천원)

지역	구분	주택	온실	축사	총합계
경남창녕군	사고건수		1		1
	보험금		200		200
경북예천군	사고건수	2			2
	보험금	22,500			22,500
전체	사고건수	2	1	-	3
	보험금	22,500	200	-	22,700

\* 주택은 태풍 에위니아, 온실은 호우로 피해 발생

☐ 풍수재특약

(단위: 건, 천원)

구분	발생건수	지급보험금
FY00	58	1,693,140
FY01	51	7,299,749
FY02	225	9,418,921
FY03	177	35,201,760
FY04	144	2,247,599

## 25.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 관련

### 1) 동의철회권 및 전화수신거부권 이용 현황

### 2)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내용

#### □ 동의철회권 및 전화수신거부권 이용 현황

(단위 : 건수)

		동의철회권	전화수신거부권	합계
은행 (11개)	국민	18	11	29
	씨티	5	190	195
	기업	7	224	231
	하나	15	352	367
	외환	2	98	100
	농협	450	950	1,400
	부산	0	4	4
	대구	0	0	0
	경남	0	5	5
	전북	0	0	0
	광주	0	0	0
저축 은행 (3개)	부산	0	0	0
	MS	0	0	0
	전일	0	0	0
카드사 (5개)	삼성	1,132	5,349	6,481
	LG	156	6,809	6,965
	현대	188	901	1,089
	롯데	58	707	765
	신한	4	0	4
합계(19개사)		2,035	15,600	17,635

※ 이 자료는 우리 원이 '06.6.8~6.20 기간중 19개 금융회사에 대해 모범  
규준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확인한 내용이며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회사는 금년 11월중에 점검할 예정임

□ 재경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T/F팀(우리 원 참여)을 구성하여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현재 T/F팀에서는 동의철회권 및 전화수신거부권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음

## 26. CD관련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 1) 제3자 명의 CD발행거래 금지 및 CD발급 업무관련 내부 통제 강화 지도내역(문서수발대장)

☐ 제출자료 : 붙임 참조

## 금 융 감 독 원

우 150-74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전화 02-3786-7275 / 전송02-3786-7246  
처리부서 은행검사2국 검사기획팀 팀장 조덕인 담당자 수석검사역 고봉식

문서번호 은검이 6850 - 00894

시행일자 2005. 8. 11.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검사부장

사본수신 사본수신처 참조

제 목 양도성예금증서(CD) 취급관련 유의사항 통보

1. 우리 원은 최근 일부은행에서 발생한 양도성예금증서(CD)위조를 통한 자금횡령, 발행CD 실물편취 등의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발생 금융회사는 물론 CD 거래가 빈번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CD발행 및 유통과정상 문제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동 점검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CD발행 및 교부업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이 미비되어 있거나 동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무기명양도성증권인 CD의 특성을 이용하여 제3자명의로 CD를 발행하는 방법 등으로 은행의 예금실적과 이익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기업 등 거래고객의 회계분식 또는 자금력 위장 등에 악용되는 등 건전한 금융 거래관행과 회계투명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3. 이에따라 양도성예금증서 취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규정 또는 지침 등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CD발행 및 교부업무의 적정여부를 자체감사부서 및 자점 감사시 상시감시 및 중점점검항목 등으로 선정·운영하는 등 CD취급업무와 관련한 내부통제를 적극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 양도성예금증서 취급관련 유의사항

## 금 융 감 독 원 장

수 신 처 : 다(1-56, 17.제외)

사본수신처 : 은행검사1국 검사기획팀, 증권검사1국 검사기획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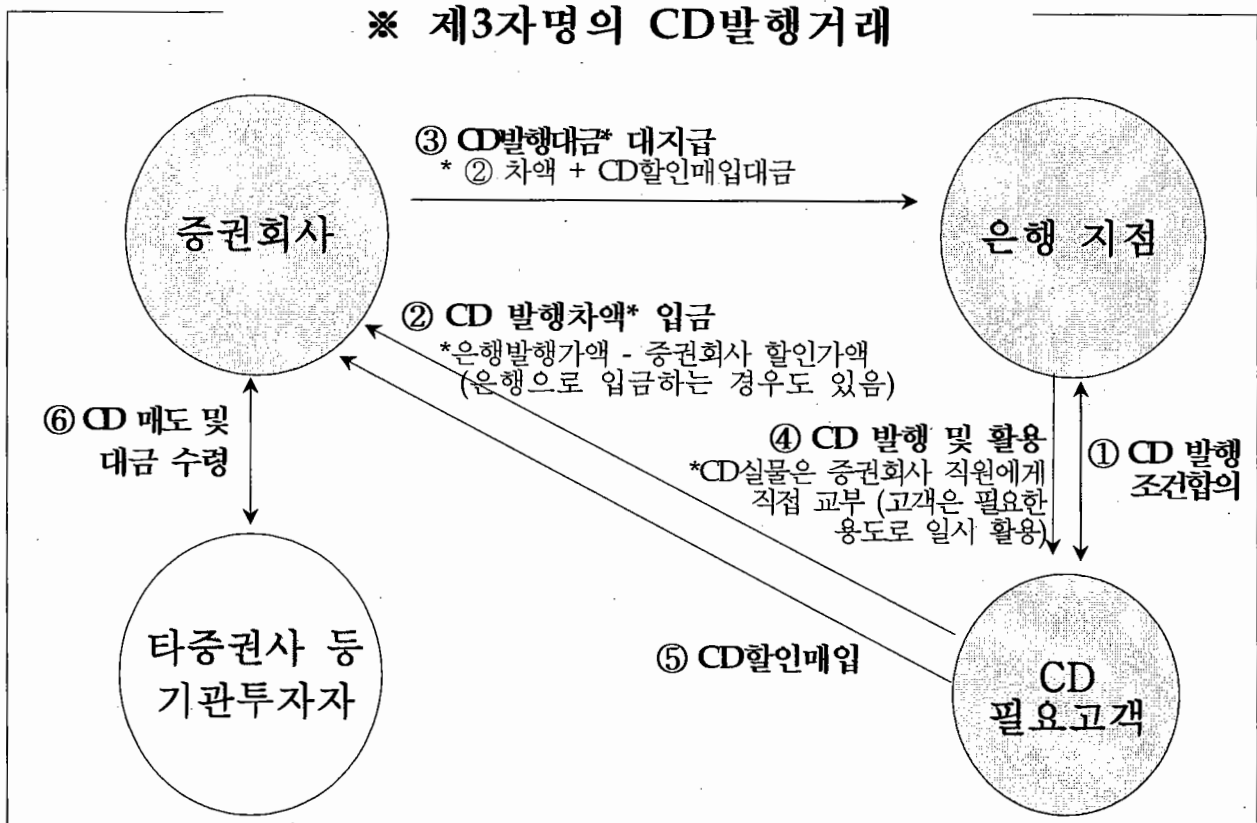


## 양도성예금증서(CD) 취급 관련 유의사항

### 1. 제3자명의 CD발행거래 취급 금지

- CD를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은행의 CD발행가액과 증권회사의 CD할인매입가액과의 차액을 부담케하고, 증권회사가 CD대금을 은행에 대지급하여 CD를 제3자명의로 발행\*하고 CD실물을 증권 회사에 인도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CD를 발행하는 거래를 엄격 금지할 것
- 특히 전문 브로커 등의 중개를 통하여 비정상적이거나 불건전한 목적으로 CD를 발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할 것

#### ※ 제3자명의 CD발행거래



## 2. 이해관계자를 통한 불건전한 예금수취 금지

- ☐ 제3자명의 CD발행 등 변칙적이고,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통하여 부당내부거래·재무제표분식·자금력위장 또는 자금세탁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불건전한 예금을 수취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대출거래처에 대한 구속성예금 수취 또는 법무사 등 은행 이해관계인을 통한 우회예금 수취
  - 예금실적을 높힐 목적으로 은행직원이 CD예금을 매입하는 행위
    - \* 특히 동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지도가 요망됨
  - 기타 고객이 CD를 불건전한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서도 CD를 발행하는 행위

## 3. 금융정보분석원 앞 혐의거래보고 철저

- ☐ CD 발행·유통과 관련한 비정상적 거래 등 문제징후거래에 대하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혐의거래보고 대상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여 보고 누락사례가 없도록 할 것
  - 2001.11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마련한 혐의거래 참고유형에 해당하는 거래 등

## 4. CD발행업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 ☐ 상호건제가 필요한 업무담당자 분리 운영
  - CD영업, CD 발급 및 교부, 미발행증서 보관 또는 보호예수 업무 등 상호건제가 필요한 업무는 각행 실정에 맞게 담당자를 분리하여 운용할 것

## □ CD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통할책임자 확인의무 강화

- CD발행시에는 감사통할 책임자가 CD발행 관련 자금수급의 적정성, 위·변조여부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감사통할책임자 입회하에 교부할 것
- CD를 보호예수 할 경우에는 감사통할책임자가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봉합예수방법으로 처리 요망

## □ CD교부방법 개선

- CD는 금융회사 창구에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 지점장 승인하에 2인 이상이 현송에 준하여 취급하고 현송기록부 등에 기록 유지할 것

## □ CD증서 보관방법 개선

- 미발행CD증서는 서무계 등에서 일괄보관하고 위·변조가 용이한 舊CD양식(1997.1월 이전 사용양식)은 즉시 폐기할 것

## □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단기간내 거액의 예금유치 등 비정상적인 거액 자금거래에 대하여는 영업점장이 거래내용을 확인하는 등 직원과 거래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 영업점에서의 비정상적인 자금흐름 등이 반복되는 등 이상거래 징후가 보이는 영업점에 대해 상시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감시시스템을 보완할 것

## 27. 자산운용산업 관련(2002년 이후)

### 1. 자산운용사 현황, 수탁고 현황, 단기수탁액 비중

(단위: 억원, %)

연도	자산운용회사 현황	수탁고 현황	단기수탁액*/(비중) (증감률)
FY2002	국내사 : 36사 외국사 : 8사 계 : 44사	1,640,285	394,283/(24.0) (-18.3)
FY2003	국내사 : 36사 외국사 : 9사 계 : 45사	1,604,569	565,886/(35.3) (+43.5)
FY2004	국내사 : 35사 외국사 : 12사 계 : 47사	1,907,190	677,228/(35.5) (+19.7)
FY2005	국내사 : 34사 외국사 : 12사 계 : 46사	2,213,273	718,674/(32.5) (+6.1)
'06.6말	국내사 : 36사 외국사 : 12사 계 : 48사	2,216,043	588,245/(26.5) (-18.1)

\* 위 자료에서 단기수탁액은 MMF(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를, 비중은 당기 전체수탁고 대비 MMF 수탁고 비율을, 증감율은 전기 전체수탁고 대비 MMF 수탁고 증감율을 의미

### 【 전체 펀드수탁고 및 MMF 비중 】

[단위: 조,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7월 현재)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수탁고	174.2	-	145.0	(△16.7)	187.0	(28.9)	204.4	(9.3)	224.5	(9.9)
MMF비중	49.5	-	42.0	(△15.0)	59.8	(42.2)	64.9	(8.4)	57.7	(△11.0)

## 2. 국내외 자산운용사별 수익률\*(증감률\*\*)

(단위 : %)

구분		FY2002	FY2003	FY2004	FY2005
국내사	수익률	7.9	5.2	2.7	11.0
	증감률	-47.0	-38.1	-49.9	+307.9
외국사	수익률	12.4	8.8	-2.6	23.6
	증감률	+21.0	+30.8	-69.5	+1,103.1

\* 수익률(ROA) = 당기순이익/자산총계 평균

\*\* 증감률 = (당해년도 당기순이익 - 전년도 당기순이익)/(전년도 당기순이익)

## 3. 자산운용사의 펀드별 자금 비중

(단위: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5월 현재)
법인 비중	30.5	33.7	39.1	40.9
개인 비중	69.5	66.3	60.9	59.1
주식형 비중	6.4	4.7	13.1	16.3
채권형 비중	36.7	41.2	24.7	20.8

## 4. 전체 펀드수와 평균펀드규모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7월 현재)
전체 펀드수	5,845	9,103	6,493	7,320	7,928
평균 펀드 규모	298	159	287	279	283

## 5. 자본잠식된 자산운용사 현황('06.6말)

(단위:억원, %)

회사명	자본금	자본총계	자본잠식율
굿앤리치자산운용	125.1	43.7	(65.0)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	100.0	43.0	(57.0)
마이애셋자산운용투자자문	154.4	77.9	(49.5)
피닉스자산운용	125.0	84.4	(32.4)
도이치투자신탁운용	100.0	75.5	(24.5)
알파에셋자산운용	100.0	79.1	(20.9)
푸르덴셜자산운용	1,500.0	1,286.3	(14.2)
아이투자신탁운용	158.0	136.8	(13.4)
슈로더투자신탁운용	100.0	89.6	(10.4)
한국밸류자산운용	100.0	90.9	(9.1)
동부투자신탁운용	300.0	280.8	(6.4)
한국인프라자산운용(주)	30.0	28.1	(6.4)
기은SG자산운용	200.0	191.7	(4.1)
다올부동산자산운용	100.0	95.9	(4.1)

\* '05.6말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정기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임(자본잠식사 14사)

\*\*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

## 6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의 내용과 2006년 7월현재 까지의 규제완화 실적

### 1. 일반 자산운용업 관련 사항

내 용	추 진 실 적	시기
자산운용회사 전문화	<input type="checkbox"/> 전문자산운용사 허가 실적 ○ SOC 전문자산운용사 - 한국인프라자산운용(05.5) -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자산운용(05.11) -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06.7) ○ 부동산 전문자산운용사 - 다올부동산자산운용(06.6) ○ 증권 전문자산운용사 - 한국벨류자산운용(06.4)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로 구성되는 펀드의 경우 최소투자자수 30인기준 적용없이 항상 사모펀드로 설정·운용할 수 있도록 함	06.4
펀드의 대형화·장기화	<input type="checkbox"/> 대형 펀드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의 위험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우대	05.10
자산운용회사 대형화	<input type="checkbox"/> 자산운용사 합병인가 실적 ○ 엘지투자신탁운용 + 우리투자신탁운용 ○ 한국투자신탁운용 + 동원투자신탁운용	05.5 05.6

내 용	추진실적	시기
해외 국공채 투자한도 확대	<input type="checkbox"/> OECD가입국 발행 국채에 대한 투자한도를 펀드 자산의 10%에서 30%로 확대	06.4
차입 공매도 허용	<input type="checkbox"/> 펀드자산의 20% 범위내에서 주식·채권 등 투자증권의 차입을 허용	06.4
재간접투자기구 투자제한 완화	<input type="checkbox"/> 변액보험의 경우 다른 펀드 총발행간접투자증권수의 20% 초과금지 및 보수·수수료 제한규정 배제 <input type="checkbox"/> 재간접투자기구의 동일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투자한도(펀드재산의 50%)를 외국 자산운용회사 운용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100%까지 허용 <input type="checkbox"/> 상장지수펀드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의 경우 동일 펀드 발행 간접투자증권 운용제한 완화(20%→30%)	06.4
통합주문 허용	<input type="checkbox"/> 계열회사간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는 경우 통합주문이 가능하도록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매매주문을 위한 정보제공을 허용	06.4
신상품 개발 촉진	<input type="checkbox"/> 모자형펀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05.12
펀드판매 권유행위 허용	<input type="checkbox"/> 판매회사가 일정요건을 갖춘 자(보험설계사·투자상담사 등)에게 펀드의 취득권유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06.4
펀드판매채널 확대	<input type="checkbox"/> 자산운용사의 직접판매제도 시행 <input type="checkbox"/> 보험설계사 등의 펀드취득권유제도 도입	06.1 06.4
On-Line 판매절차 보완	<input type="checkbox"/> 온라인 펀드판매절차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	05.4
투자자교육기구 설립	<input type="checkbox"/> 간접투자교육재단 설립절차 진행중(자산운용협회)	
펀드거래의 투명성 제고	<input type="checkbox"/> 자산운용사의 위탁매매 증권사 선정기준 및 펀드 거래비용 관련 공시 확대	06.5
펀드인력등록 제도 신설, 표준교육프로그램 마련	<input type="checkbox"/> 펀드 판매인력을 판매회사 소속 금융협회에 등록하도록 함 <input type="checkbox"/> 펀드 판매인력은 펀드판매전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판매인력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06.4 06.4



## 2. PEF 활성화 관련 사항

내 용	추진 실적	시기
무한책임사원 참여 확대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업 구조조정회사의 PEF 업무집행사원 참여 허용	06.4
연기금의 참여 확대	<input type="checkbox"/>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제한비율 및 경영권 참여 목적 의무투자비율 산정시 기금의 출자금액 제외	06.4
보험회사의 참여 확대	<input type="checkbox"/>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시 반영 추진 (보험회사의 자회사로서 PEF 편입허용 방침 발표, 06.7.26 재정경제부)	
최소출자 금액제한 완화	<input type="checkbox"/> PEF 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금액 하향 조정 ○ 일반법인(50억원 → 20억원), 개인(20억원 → 10억원)	06.4
의무투자비율 완화	<input type="checkbox"/> PEF 사원의 출자후 경영참여목적 의무투자비율 완화(1년 이내 출자금액의 60%이상 → 2년 이내 출자금액의 50% 이상)	06.4
부실채권 투자허용	<input type="checkbox"/> KAMCO 보유 부실채권 및 금융기관 보유 부실 징후 기업의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 허용	06.4
투자목적회사 출자자요건 완화	<input type="checkbox"/>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개정시 반영 추진	
회계처리방법의 자율성 확대	<input type="checkbox"/> 시가평가 또는 취득원가평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06.4

## 7. 자산운용사의 인수합병 절차

- 자산운용회사가 합병을 할 경우에는 일반회사와 마찬가지로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 채권자 보호절차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금감위로부터 합병인가를 얻어야 함
- 금감위는 합병인가시 합병목적의 타당성, 건전한 금융질서 저해여부, 간접투자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 유무 여부, 절차 및 내용이 관련법령에 비추어 하자가 없는지 여부, 합병절차 이행여부 등의 요건을 심사후 합병을 인가함(간투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 28. 최근 3년간 투자자문 및 투신운용사 인허가 현황

### 28-1 각종 자문료 및 수수료 지급현황

#### 28-2 지역별 인허가 현황

#### 28-3 인허가 취소 현황

### 28-1 각종 자문료 및 수수료 지급현황

2003 ~ 2006. 6월까지 자산운용업 신규 허가를 받은 농협 CA투자신탁운용 등 7사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인허가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등 외부기관에 각종 자문료 및 수수료를 지급한 실적은 없음

### 28-2 지역별 인허가 현황(2003.1.1 이후)

#### < 자산운용사 >

회사명	허가일	본점소재지
농협CA투자신탁운용	2003-03-28	서울
KTB자산운용	2004-01-04	서울
플러스자산운용	2004-01-04	서울
알파에셋자산운용	2004-01-05	서울
현대와이즈자산운용	2004-02-03	서울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2004-03-29	서울
피닉스자산운용	2004-03-30	서울
칸서스자산운용	2004-09-10	서울
피델리티자산운용	2004-12-10	서울
기은SG자산운용	2004-12-27	서울
한국인프라자산운용(주)	2005-05-13	서울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자산운용	2005-11-11	서울
한국밸류자산운용	2006-04-14	서울
다올부동산자산운용	2006-06-23	서울

< 투자자문사 >

회사명	등록일	본점소재지
가치투자자문(주)030304 (구: 가치피앤씨(주))	2003-03-07	서울
리앤킴투자자문(주)	2003-07-10	서울
시카고투자자문(주)	2003-10-13	서울
크레스투자자문(주)	2004-09-03	서울
모닝스타투자자문(주)	2004-11-02	서울
예스투자자문(주)	2004-12-06	서울
그리니치투자자문(주)	2005-01-18	서울
스마일투자자문(주)	2005-06-22	서울
케이원투자자문(주)	2005-06-29	서울
(주)제로인펀드투자자문	2005-07-06	서울
라자드코리아투자자문(주)	2005-08-02	서울
보다투자자문(주)	2005-09-08	서울
퀀트와이즈투자자문(주)	2005-11-08	서울
마스터네트웍스(주)	2005-12-05	서울
브릭스투자자문(주)	2006-01-19	서울
제너시스투자자문(주)	2006-01-19	서울
(주)오크우드투자자문	2006-02-09	서울
브이엠투자자문	2006-03-17	서울
유니온브이앤씨투자자문(주)	2006-03-17	서울
(주)시선투자자문	2006-04-17	서울
밸류앤드스페셜투자자문(주)	2006-05-23	서울
지맥스투자자문(주)	2006-06-01	서울
스카이투자자문(주)	2006-06-13	서울
라운투자자문(주)	2006-06-16	서울
필로스투자자문(주)	2006-06-20	서울
케이아이피엠투자자문(주)	2006-07-06	서울
크레디소드파트너스투자자문(주)	2006-07-06	서울

## 28-3 인허가 취소 현황

### <자산운용사>

회사명	취소일	비고
하나은행	2005-07-08	자진취소

### <투자자문사>

회사명	취소일	비고
대유투자자문(주)	2005-03-14	등록취소
엑시온투자자문(주)	2005-03-14	등록취소
(주)벨리언투자자문	2003-01-24	자진폐지
소빅투자자문(주)	2003-01-03	자진폐지
이토마토투자자문(주)	2003-11-19	자진폐지
제이엔비투자자문(주)	2003-03-29	자진폐지
한마음투자자문(주)	2003-04-14	자진폐지
스칼라스투자자문(주)	2003-06-11	자진폐지
F.O.S.투자자문(주)	2003-06-11	자진폐지
우신투자자문(주)	2003-08-08	자진폐지
그레이트윌투자자문(주)	2004-05-06	자진폐지
매트릭스에셋투자자문(주)	2004-05-28	자진폐지
샤콘느투자자문(주)	2004-07-30	자진폐지
솔로몬애셋투자자문(주)	2004-09-03	자진폐지
에이아이투자자문(주)	2004-11-05	자진폐지
동아투자자문(주)	2004-12-02	자진폐지
티에스투자자문(주)040130 (구:씨앤씨투자자문(주))	2004-12-09	자진폐지
새턴투자자문(주)	2005-01-13	자진폐지
리캐피탈투자자문(주)	2005-04-28	자진폐지
크레디트투자자문(주)	2005-10-17	자진폐지
베리타스투자자문(주)	2005-12-15	자진폐지
포도에셋투자자문(주)	2006-06-29	자진폐지
제니스투자자문(주)	2006-07-13	자진폐지

## 29. 증권불공정거래 행위 관련(최근 3년간)

1)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2)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3) 증선위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치현황

□ 2003년 ~ 2006년 6월말까지 금융감독원이 증권시장의 불공정 거래(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에 대해 조사하여 적발한 연도별 건수는 다음과 같음

		2003년	2004년	2005년	2006.6월
협 의 유 형 별	시세조종	102	103	106	39
	미공개정보이용	27	40	59	13
	유가증권신고서미제출	-	1	-	2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41	42	65	21
	단기매매차익취득	27	37	29	7
	기 타	1	3	-	3
	무협의	16	21	18	13
계		214	247	277	98
조 치 유 형 별	검찰고발	56	60	73	45
	검찰통보	77	106	113	25
	과징금	-	3	3	-
	단기매매차익반환	33	51	56	8
	문책 등	32	6	14	7
	무협의	16	21	18	13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지급연도기준)

연도*	건수	인원	금액
2003년	8건	8명	780만원
2004년	3건	3명	700만원
2005년	3건	3명	1,130만원
2006년	2건	2명	1,710만원
계	14건	14명	4,320만원

\* 2004년도 이전은 금감원 내부포상기준에 의한 포상실적이며, 2005년도 이후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포상실적임

### 30. 증권회사의 부당권유행위 관련 민원 접수 현황,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2002년 이후 2006년 7월까지 연도별 작성)

#### □ 증권회사의 부당권유행위 관련 민원 처리 현황

(단위 : 건, %)

	2002	2003	2004	2005	2006.7	합계
부당권유	51	114	77	23	11	276
전체민원	753	882	646	462	244	2,987
비 중	6.8	12.9	11.9	5.0	4.5	9.2

□ 부당권유의 개념은 증권회사, 임직원이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있어 고객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하거나,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적합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를 의미함

□ 권유의 대상에 따라, 정상적인 협의매매에서 구체적인 유가증권에 있어서의 투자 권유와 손익보증약정이 결부된 포괄적 일임매매의 권유로 구분함

#### □ 구체적 사례

- 수익배분약정 또는 손실보전을 약속하며 투자권유
- 확정수익률(5~10%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단정적 판단에 의한 투자권유행위



### 31. '02년 이후 외국인 주식 보유금액 및 보유비중 추이

□ 외국인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보유금액 및 보유비중 추이

(단위 : 조원, %)

	유가증권시장 <sup>1)</sup>	코스닥시장 <sup>1)</sup>
'02말	93.2 (36.0)	3.9 (10.5)
'03말	142.5 (40.1)	5.4 (14.4)
'04말	173.2 (42.0)	4.8 (15.4)
'05말	260.3 (39.7)	9.6 (13.5)
'06.6말	249.1 (39.3)	9.8 (15.3)

주: 1) ( )내는 전체 상장(또는 등록)주식의 시가총액 중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시가)이 차지하는 비중(%)

## 32. 국가별 외국인투자자 유가증권 보유현황

□ 국가별 외국인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 보유금액  
및 보유비중 추이

### ① 유가증권시장

(단위 : 억원, %)

국 가	'02말	'03말	'04말	'05말
미국	500,748 (56.9)	688,302 (50.5)	811,404 (50.8)	1,221,337 (50.0)
영국	104,405 (11.9)	164,238 (12.0)	179,074 (11.2)	270,078 (11.1)
룩셈부르크	44,489 (5.1)	78,894 (5.8)	91,781 (5.8)	160,970 (6.6)
싱가폴	26,505 (3.0)	78,985 (5.8)	93,860 (5.9)	125,805 (5.1)
네델란드	26,169 (3.0)	39,754 (2.9)	49,624 (3.1)	66,828 (2.7)
말레이시아	20,608 (2.3)	18,435 (1.4)	21,355 (1.3)	21,512 (0.9)
케이만아일랜드	18,567 (2.1)	41,163 (3.0)	42,227 (2.6)	80,707 (3.3)
아일랜드	16,112 (1.8)	29,759 (2.2)	31,873 (2.0)	52,985 (2.2)
캐나다	13,116 (1.5)	24,164 (1.8)	25,718 (1.6)	44,637 (1.8)
아랍에미레이트	10,035 (1.1)	18,303 (1.3)	19,650 (1.2)	31,047 (1.3)
기타	99,735 (11.3)	181,641 (13.3)	230,632 (14.5)	367,485 (15.0)
소계	880,489 (100)	1,363,638 (100)	1,597,198 (100)	2,443,391 (100)

주: 1) 외국인보유주식 시가총액 대비 해당국가 보유 비중 (%)

2) 주식투자기준 (직접투자분 제외)

## ② 코스닥시장

(단위 : 억원, %)

국 가	'02말	'03말	'04말	'05말
미국	11,660 (41.7)	12,922 (36.9)	12,605 (35.0)	35,087 (41.5)
영국	3,473 (12.4)	4,053 (11.6)	3,943 (11.0)	8,861 (10.5)
룩셈부르크	2,217 (7.9)	1,973 (5.6)	2,181 (6.1)	6,076 (7.2)
케이만아일랜드	1,691 (6.0)	5,135 (14.7)	4,859 (13.5)	8,514 (10.1)
말레이시아	1,142 (4.1)	908 (2.6)	1,359 (3.8)	1,895 (2.2)
아일랜드	939 (3.4)	1,573 (4.5)	1,550 (4.3)	2,798 (3.3)
싱가폴	855 (3.1)	1,191 (3.4)	1,378 (3.8)	2,972 (3.5)
네델란드	842 (3.0)	704 (2.0)	1,008 (2.8)	2,437 (2.9)
독일	791 (2.8)	1,833 (5.2)	2,030 (5.6)	3,812 (4.5)
아랍에미레이트	497 (1.8)	210 (0.6)	245 (0.7)	780 (0.9)
기타	3,875 (13.8)	4,548 (12.9)	4,805 (13.4)	11,270 (13.4)
소계	27,982 (100)	35,050 (100)	35,963 (100)	84,502 (100)

주: 1) 외국인보유주식 시가총액 대비 해당국가 보유 비중 (%)

2) 주식투자기준 (직접투자분 제외)

### 33. 외국계 자본의 5% 이상 지분공시 현황 관련

- (1) 5%이상 지분공시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 외국계회사(펀드 등)의 보고 건수 및 비율(2004년부터 2006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작성 요망)
- (2) '06.6월 현재 상장회사 지분 5%이상 취득 공시한 외국인의 명단 및 지분율

#### ☐ 내·외국인의 5%이상 지분공시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6.30. 현재)
전체 보고건수		6,114	10,072*	4,139
내국인	보고건수	4,747	7,620	2,870
	보고비율	77.64	75.66	69.34
외국인	보고건수	1,367	2,452	1,269
	보고비율	22.36%	24.34%	30.66

\* 증권거래법 개정('05.3.29 시행)에 따른 일괄재보고('05.3.29~4.2) 1,792건 포함

☐ '06.6월 현재 상장회사 지분 5%이상 취득 공시한 외국인의 명단 및 지분율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06.6월 현재 상장회사 지분 5%이상 취득 공시한 외국인의 명단 및 지분율

### 주권상장 법인

연번	회사명	보고자명	제출일	국적	주식등비율
1	강원랜드	텔플론에셋매니지먼트	2006051	싱가포르	7.20
2	강원랜드	CRMC	2006012	미국	6.02
3	경동도시가스	HAGSTROMER&QVIBERG FOND KOMMISSION AKTIEBOL	2005062	스웨덴	8.12
4	경동도시가스	FID Low Priced Stock Fund	2005052	미국	9.11
5	경인양행	스미토모상사주식회사	2005072	일본	25.00
6	계룡건설산업	Oppenheimer Funds, Inc. (OFI)	2006052	미국	8.16
7	계룡건설산업	피델리티 펀드	2006050	룩셈부르크	12.31
8	계룡건설산업	CRMC	2005091	미국	5.04
9	고려개발	CRMC	2005022	미국	5.00
10	고려시멘트	칸다라마스터펀드	2005051	케이만	8.35
11	고려시멘트	Grantham, Mayo, Van Otterloo & Co. LLC (GMO)	2005120	미국	7.58
12	고려아연	Morgan Stanley DWIMC	2006031	싱가포르	5.10
13	고려아연	JF Asset Management Limited	2006053	홍콩	5.00
14	광동제약	Putnam Investment Management, LLC	2006020	미국	5.13
15	광주신세계백화점	JF Asset Management Limited	2005030	홍콩	5.00
16	국도화학	동도화성(주)	2005033	일본	22.38
17	국민은행	CRMC	2005101	미국	7.19
18	근화제약	월드케이아시아	2005112	싱가포르	6.32
19	근화제약	Pacific Gas Supply Co.	2001021	미국	9.96
20	금호석유화학	CRMC	2005040	미국	7.55
21	금호타이어	Cooper Tire & Rubber Company (CTRC)	2005021	미국	11.03
22	기아자동차	Credit Suisse Finan	2006060	영국	7.83
23	기업은행	얼라이언스캐피탈매니지먼트엘.피.	2006040	미국	5.03
24	나자인	라이온하트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2005123	영국	13.48
25	나자인	ABNAMRO Bank N.V. (London Branch)	2006011	네덜란드	21.74
26	남양유업	First Eagle Sogen GF	2002042	미국	9.03
27	남양유업	안홀드앤드에스.블레이크워더드바이저, 엘엘씨	2006040	미국	14.76
28	남한제지	OZ Management, LLC	2005111	미국	15.79
29	넥센	큐브이티파이낸셜엘피	2005081	미국	5.05
30	넥센	스팩스 인터내셔널(홍콩)리미티드	2006061	홍콩	13.99
31	넥센타이어	이머징마켓채매니지먼트, 엘엘씨	2006051	미국	6.01
32	넥센타이어	Deutsche Bank Aktiengesellschaft 도이치은행	2004031	독일	14.79
33	농심홀딩스	Neuberger & B LLC	2004031	미국	9.20
34	대교	해리스어소시에이트, 엘.피.	2006012	미국	7.09
35	대교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s Corp.	2006060	캐나다	8.99
36	대구백화점	Deutsche Investment Management Americas Inc.	2006022	미국	7.52
37	대구백화점	JF Asset Management Limited	2005091	홍콩	9.49
38	대구은행	Aberdeen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 (AAMAL)	2006021	싱가포르	9.72
39	대구은행	FADIVERSIFIED INTERNATIONAL	2006052	미국	5.09
40	대구은행	CRMC	2005112	미국	10.08
41	대덕전자	프루덴셜에셋매니지먼트 홍콩리미티드	2006041	홍콩	5.65
42	대덕전자	Franklin Templeton Investments Corp.	2006033	캐나다	12.29
43	대덕전자	안홀드앤드에스.블레이크워더드바이저, 엘엘씨	2006041	미국	6.71
44	대덕GDS	퍼스트이글글로벌펀드	2006022	미국	6.96
45	대덕GDS	안홀드앤드에스.블레이크워더드바이저, 엘엘씨	2006030	미국	16.72
46	대동전자	강정명	2006060	일본	37.75
47	대림산업	CRMC	2006061	미국	5.05
48	대상	Grantham, Mayo, Van Otterloo & Co. LLC (GMO)	2005101	미국	5.10
49	대상홀딩스	라자드에셋매니지먼트엘엘씨	2006060	미국	5.14
50	대신증권	스팩스에셋매니지먼트	2006041	일본	6.31
51	대우자동차판매	Deutsche Bank Aktiengesellschaft 도이치은행	2002101	독일	5.34
52	대웅제약	Deutsche Bank Aktiengesellschaft 도이치은행	2003010	독일	11.70
53	대유디엘씨	OZ Management, LLC	2006040	미국	14.79
54	대한제당	JF Asset Management Limited	2006030	홍콩	5.86
55	대한펄프	Grantham, Mayo, Van Otterloo & Co. LLC (GMO)	2006062	미국	7.75
56	대한해운	Stavanger Fondsforvaltning AS	2006052	노르웨이	6.50
57	대한해운	골라엘엔지	2004060	버뮤다	21.09
58	대한화재해상보험	OZ Management, LLC	2006032	미국	7.72
59	더베이직하우스	플래티늄에셋매니지먼트리미티드	2006061	호주	5.28
60	덕양산업	비스테온 인터내셔널홀딩스	2005040	미국	50.99
61	데이콤	Capital Ventures International (CVI)	2001061	케이만	6.08
62	동국제강	CRMC	2005032	미국	5.08
63	동방아그로	스미토모상사주식회사	2005040	일본	15.22
64	동방아그로	스미토모화학(주)	2004072	일본	5.28
65	동부아남반도체	HAMON GLOBAL DIRECT TECHNOLOGY FUND	2004102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	5.46
66	동성제약	코로마스펀드	2001121	케이만	26.71
67	동아타이어공업	안홀드앤드에스.블레이크워더드바이저, 엘엘씨	2004082	미국	7.12
68	동양백화점	Corevest Partners L.P.	2006061	바하마	5.11
69	동양제철화학	Great Chemical Limited	2005113	라부안	11.07

연번	회사명	보고자명	제출일	국적	주식등비율
70	동양제철화학	원익위티파트너스엘엘씨	2005112	미국	15.08
71	동양증권증권	도이체뱅크아게런던	2006042	영국	6.92
72	동원	Peter Back & Partners	2004032	독일	10.29
73	동원	애머랜스엘엘씨	2005030	케이만	8.76
74	동원F&B	ARISAIG	2006050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	7.42
75	동원F&B	미쓰비시상사	2002060	일본	6.66
76	동일패브릭	바이럴제노믹스	2006040	미국	38.34
77	디피아이	Grantham, Mayo, VanOtterloo&Co.LLC(GMO)	2005011	미국	5.43
78	롯데제과	FranklinMutualAdvisers,LLC	2005080	미국	6.02
79	롯데제과	안홀드앤드애스.블레이크퍼더어드바이저,엘엘시	2006052	미국	8.70
80	롯데칠성음료	해리스어소시에이트,엘.피.	2006020	미국	14.99
81	롯데칠성음료	FranklinMutualAdvisers,LLC	2006021	미국	5.04
82	메리츠화재	매릴린치인베스트먼트매니저스,엘.피.	2006051	미국	8.95
83	미창석유공업	FIDLowPricedStockFund	2005011	미국	9.68
84	미창석유공업	씨티그룹글로벌파이낸셜프로덕츠	2006021	스위스	7.80
85	미창석유공업	신일본석유(주)	2005040	일본	6.62
86	방림	큐브이티파이낸셜엘피	2006061	미국	5.88
87	백광소재	JFAssetManagementLimited	2006013	홍콩	9.16
88	범양건영	Grantham, Mayo, VanOtterloo&Co.LLC(GMO)	2006020	미국	14.26
89	보령제약	LuxorCapitalGroup,LP	2006020	미국	7.12
90	보령제약	CorevestPartnersL.P.	2006061	바하마	5.44
91	봉신	오코하마고무주식회사	2005122	일본	5.00
92	부산은행	슈로더인베스트먼트매니저먼트	2005010	영국	7.08
93	부산은행	AberdeenAssetManangementAsiaLimited(AAMAL)	2006030	싱가포르	9.38
94	부산은행	CRMC	2005062	미국	11.41
95	브릿지증권	알피지(엘)리미티드	2005100	라부안	15.70
96	비티아이	이볼루션캐피탈매니저먼트엘엘씨	2006041	미국	11.58
97	빙그레	UinonBankofSwitzerland	2006041	스위스	11.98
98	삼부토건	스팍스인터내셔널(홍콩)리미티드	2006052	홍콩	6.46
99	삼성공조	DeutscheInvestmentManagementAmericasInc.	2005083	미국	6.89
100	삼성물산	벨리기포드오버시즈리미티드	2006030	스코틀랜드	5.51
101	삼성물산	플래티늄에셋매니저먼트리미티드	2006022	호주	6.02
102	삼성엔지니어링	CRMC	2006012	미국	11.23
103	삼성엔지니어링	CGII	2006030	미국	7.85
104	삼성정밀화학	템플에셋매니저먼트	2006040	싱가포르	7.41
105	삼성증권	GenesisFundManagersLLP	2006012	영국	7.78
106	삼아알미늄	동양알미늄(주)	2005040	일본	35.01
107	삼양올릭스	(주)도도웰B.M.S	2005072	일본	20.68
108	삼양제넥스	FIDLowPricedStockFund	2006051	미국	6.45
109	삼양통상	스팍스인터내셔널(홍콩)리미티드	2006052	홍콩	5.56
110	삼영전자공업	스팍스인터내셔널(홍콩)리미티드	2006062	홍콩	5.30
111	삼익악기	아시안스물컴퍼니스포트폴리오	2006020	미국	5.04
112	삼익악기	LloydGeorgelInvestmentManagement(Bermuda)Limited	2006031	버뮤다	6.74
113	삼익LMS	CreditSuisseFirstBostonHKLtd.	2005032	홍콩	5.80
114	삼일제약	큐브이티파이낸셜엘피	2005010	미국	7.01
115	삼일제약	더바우포스트그룹,엘.엘.씨	2005040	미국	12.88
116	삼일제약	Neuberger&BLLC	2002122	미국	8.07
117	삼천리	헌터홀투자운용회사	2005111	호주	7.14
118	삼천리	더바우포스트그룹,엘.엘.씨	2005033	미국	5.79
119	삼화전기	니찌콘	2005033	일본	22.80
120	삼화페인트공업	추고쿠마린페인트,엘티디	2005041	일본	11.00
121	새론오토모티브	NissfiinbolIndustries,INC.	2005102	일본	47.01
122	새한	GMOEmergingMarketsFund	2001011	미국	9.21
123	서울증권	강찬수	2005121	미국	9.00
124	서흥캐셀	JFAssetManagementLimited	2006052	홍콩	7.86
125	선진	FIDLowPricedStockFund	2004122	미국	9.09
126	성신양회	JFAssetManagementLimited	2006041	홍콩	8.24
127	성신양회	CGII	2006030	미국	8.58
128	세방	Grantham, Mayo, VanOtterloo&Co.LLC(GMO)	2005100	미국	8.24
129	세방전지	스팍스인터내셔널(홍콩)리미티드	2006062	홍콩	5.14
130	세방전지	유아사	2005032	일본	26.00
131	세신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저먼트컴퍼니엘피	2006050	미국	9.39
132	세아베스틸	AIFSteelInvestmentHoldingPte.Ltd	2005040	싱가포르	8.37
133	세원정공	FIDLowPricedStockFund	2006051	미국	9.19
134	세이브존	TetonCapitalPartnersL.P.	2006032	미국	5.19
135	송원산업	RedTulipInvestment	2003050	홍콩	8.18
136	신도리코	JFAssetManagementLimited	2006050	홍콩	5.84
137	신도리코	FranklinTempletonInvestmentsCorp.	2006060	캐나다	6.04
138	신동방	JFAssetManagementLimited	2006061	홍콩	6.06
139	신무림제지	LibertySquareOffshorePartners,Ltd	2006062	미국	5.01
140	신무림제지	Int'IFinanceCorp.	2005120	미국	14.60

연번	회사명	보고자명	제출일	국적	주식등비율
141	신세계	AberdeenAssetManagementAsiaLimited(AAMAL)	2006031	싱가포르	5.10
142	신세계건설	LuxorCapitalGroup,LP	2006052	미국	8.94
143	신세계건설	FIDLowPricedStockFund	2006050	미국	9.40
144	신세계건설	CorevestPartnersL.P.	2006051	바하마	5.24
145	신세계아이앤씨	EKASIAFUND	2005080	케이만	10.00
146	신영와코루	와코루홀딩스	2006012	일본	25.00
147	신영증권	Neuberger&BLLC	2006020	미국	14.84
148	신원	ARISAIG	2006062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	7.80
149	신풍제지	JFAssetManagementLimited	2006051	홍콩	6.49
150	신한지주	비엔피파리바S.A.	2006041	프랑스	9.38
151	신한지주	CRMC	2006021	미국	5.63
152	신화실업	라이온하트인베스트먼트트리미티드	2005060	영국	17.10
153	신화실업	ABNAMROBankN.V.(LondonBranch)	2006052	네덜란드	17.05
154	신화실업	PirarukuFundLimited	2004122	케이만	12.07
155	신흥증권	JFAssetManagementLimited	2006020	홍콩	6.03
156	쌍용	MSPE SSY Holdings AB	2006052	스웨덴	72.12
157	쌍용양회공업	태평양시멘트(주)	2006040	일본	30.50
158	쌍용자동차	OppenheimerFunds,Inc.(OFI)	2006033	미국	12.36
159	쌍용자동차	상해기차집단고분유한공사	2005053	중국	50.04
160	아세아시멘트	헌터홀투자운용회사	2005041	호주	7.02
161	아이에이치큐	애머랜스엘엘씨	2005121	케이만	5.17
162	에스씨에프	ABNAMROBankN.V.(LondonBranch)	2006022	네덜란드	6.09
163	에스엘	StanleyElectricCo.,Ltd.	2003110	일본	5.00
164	에스엘	JFAssetManagementLimited	2005120	홍콩	11.92
165	에스엘	HellaAsiaPacificHoldingsPtyLtd.	2003110	호주	5.00
166	에스원	세콤컴퍼니리미티드	2005033	일본	24.66
167	에스원	본토벨에셋매니지먼트,인크	2005092	미국	7.94
168	엔씨소프트	로버트게리엇	2005033	미국	9.79
169	엔씨소프트	블루리지리미티드파트너쉽	2006051	미국	7.23
170	영보화학	세끼스이화학공업주식회사	2005040	일본	51.00
171	영원무역	트위디,브라운컴퍼니엘엘씨	2006012	미국	10.35
172	영원무역	템플턴에셋매니지먼트	2006060	싱가포르	9.50
173	영원무역	TempletonInvestmentCounsel,LLC	2006062	미국	6.31
174	영원무역	PeterCundill&Associates(Bermuda)Ltd.	2005120	버뮤다	9.21
175	영화금속	Peter Back & Partners	2006010	독일	5.87
176	영화금속	SusquehannaAsiaPtyLtd	2005072	호주	25.18
177	영화금속	ABNAMROBankN.V.(LondonBranch)	2005122	네덜란드	5.45
178	오뚜기	ARISAIG	2005070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	11.29
179	오리온	MorganStanlyDWIMC	2006011	싱가포르	6.15
180	우방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지먼트컴퍼니엘피	2006061	미국	7.07
181	우성넥스티어	OZManagement,LLC	2006050	미국	12.70
182	웅진씽크빅	헌터홀투자운용회사	2005080	호주	14.99
183	유니토크놀로지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지먼트컴퍼니엘피	2006022	미국	18.57
184	유니퀘스트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지먼트컴퍼니엘피	2006031	미국	5.19
185	유니퀘스트	임창완	2006031	미국	57.67
186	이수페타시스	JFAssetManagementLimited	2006061	홍콩	6.13
187	인지컨트롤스	FIDLowPricedStockFund	2006010	미국	8.38
188	인지컨트롤스	Grantham,Mayo,VanOtterloo&Co.LLC(GMO)	2005111	미국	5.07
189	일성건설	아이비캐피탈엘티디	2005040	라부안	72.78
190	일성신약	Neuberger&BLLC	2005060	미국	5.26
191	일신방직	허성희	2005112	미국	6.49
192	일정실업	FidelityNorthstarFD	2006050	캐나다	5.00
193	일진전기	WOORIINVESTMENT&SECURITIESINTERNATIONALTD	2006052	영국	6.31
194	자화전자	템플턴에셋매니지먼트	2005092	싱가포르	9.16
195	자화전자	CRMC	2004090	미국	8.48
196	전북은행	OppenheimerFunds,Inc.(OFI)	2006022	미국	9.13
197	전북은행	DeutscheInvestmentManagementAmericasInc.	2006031	미국	5.01
198	전북은행	CRMC	2006052	미국	5.87
199	제일기획	SchroderInvestmentMangement(Singapore)Limited	2005042	싱가포르	7.09
200	제일기획	CGI	2005011	미국	5.05
201	제일모직	CRMC	2005050	미국	6.57
202	종근당바이오	코로마스펀드	2006061	케이만	12.27
203	중앙건설	OppenheimerFunds,Inc.(OFI)	2006012	미국	5.71
204	중앙건설	산사캐피탈매니지먼트엘엘씨	2006062	미국	10.48
205	지에스인스트루	OZManagement,LLC	2006051	미국	15.69
206	체시스	OZManagement,LLC	2005120	미국	15.85
207	케드콤	Peter Back & Partners	2006010	독일	5.42
208	케이씨씨	JFAssetManagementLimited	2006061	홍콩	7.15
209	케이아이씨	라이온하트인베스트먼트트리미티드	2005060	영국	6.46
210	케이아이씨	ABNAMROBankN.V.(LondonBranch)	2006052	네덜란드	8.61
211	케이아이씨	코로마스펀드	2001121	케이만	20.43

연번	회사명	보고자명	제출일	국적	주식등비율
212	케이티	브랜디스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엘피	2005042	미국	7.85
213	케이티	TempletonGlobalAdvisorsLimited	2006061	바하마	6.81
214	케이티비네트웍	산사캐피탈매니지먼트엘엘씨	2006061	미국	5.84
215	케이티앤지	아이칸파트너스마스터펀드리미티드파트너쉽	2006062	케이만	7.66
216	케이티앤지	FranklinMutualAdvisers,LLC	2006060	미국	9.34
217	코리안리	이머징마켓츠매니지먼트,엘엘씨	2006040	미국	6.50
218	코리안리	NORGESBKJAP&KORTECHPORT	2006051	노르웨이	7.37
219	코리안리	UinonBankofSwitzerla	2006063	스위스	10.40
220	코오롱건설	Grantham,Mayo,VanOtterloo&Co.LLC(GMO)	2006051	미국	14.45
221	코오롱유화	헌터홀투자운용회사	2005051	호주	5.37
222	콤텍시스템	OZManagement,LLC	2005113	미국	12.40
223	크라운제과	ARISAIG	2005092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	5.30
224	크라운제과	OppenheimerFunds,Inc.(OFI)	2005092	미국	7.54
225	크라운제과	DeutscheInvestmentManagementAmericasInc.	2005083	미국	5.14
226	크라운제과	CRMC	2006033	미국	5.29
227	태경산업	JFAssetManagementLimited	2006012	홍콩	8.21
228	태영	트위디,브라우니컴퍼니엘엘씨	2005062	미국	7.01
229	태영	GenesisFundManagersLLP	2004092	영국	9.03
230	태창	애머랜스엘엘씨	2006011	케이만	22.77
231	태평양제약	JFAssetManagementLimited	2006062	홍콩	5.10
232	태평양제약	Neuberger&BLLC	2004042	미국	5.05
233	텔레위	Peter Back & Partners	2005120	독일	11.72
234	퍼시스	FranklinMutualAdvisers,LLC	2006031	미국	5.01
235	퍼시스	안홀드앤드애스,블레이크워더어드바이저,엘엘씨	2006020	미국	9.73
236	평화산업	NOKCorporation	2006060	일본	10.78
237	평화산업	Freudenberg & Co	2006060	독일	5.39
238	평화홀딩스	NOKCorporation	2006050	일본	10.78
239	평화홀딩스	Freudenberg & Co	2006050	독일	5.39
240	풍산	베어링에셋매니지먼트(아시아)리미티드	2002111	홍콩	5.26
241	필룩스	다나까아이	2002022	일본	5.61
242	하나금융지주	엔젤리카인베스트먼트트퍼티이,엘티디.	2005121	싱가포르	9.06
243	하나금융지주	지에스대자쿠엘,엘.씨.	2005121	미국	8.82
244	하이닉스반도체	CRMC	2006021	미국	5.00
245	한국가스공사	몬드리안인베스트먼트파트너즈리미티드	2005082	영국	5.00
246	한국개발금융	Citigroup Global Markets Limited	2003021	미국	10.19
247	한국고덴시	중도광화	2006032	일본	51.00
248	한국고덴시	JFAssetManagementLimited	2006052	홍콩	6.72
249	한국금융지주	Grantham,Mayo,VanOtterloo&Co.LLC(GMO)	2005120	미국	5.30
250	한국기술산업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지먼트트컴퍼니엘피	2005110	미국	5.55
251	한국단자공업	FIDLowPricedStockFund	2004062	미국	5.01
252	한국셀석유	레인보우펀드	2006061	미국	9.37
253	한국셀석유	FIDLowPricedStockFund	2004081	미국	5.46
254	한국셀석유	ShellPetroleumN.V	2005040	네덜란드	53.85
255	한국외환은행	LSF-KEBHoldings,SCA	2006051	벨기에	64.62
256	한국유리공업	SocieteFinanciere	2005041	프랑스	80.47
257	한국전기초차	CRMC	2001121	미국	5.04
258	한국전기초차	AsahiGlassCompany	2005040	일본	62.76
259	한국제지	헌터홀투자운용회사	2005030	호주	6.25
260	한국콜마	애머랜스엘엘씨	2006022	케이만	10.00
261	한국콜마	일본콜마(주)	2005040	일본	21.85
262	한국타이어	COMPAGNIEFINANCIEREMICHELIN	2006032	스위스	6.24
263	한국타이어	GenesisFundManagersLLP	2005010	영국	6.78
264	한국타이어	CGII	2006050	미국	6.20
265	한국특수형강	FIDLowPricedStockFund	2006050	미국	5.23
266	한국포리올	JohoFundLtd	2002042	케이만	5.18
267	한국화인케미칼	TetonCapitalPartnersL.P.	2006062	미국	6.07
268	한독약품	헥스트사	2005112	독일	72.85
269	한라건설	산람글로벌펀드피엘씨	2006021	아일랜드	5.10
270	한라건설	슬로안로빈슨엘엘피	2006032	영국	9.80
271	한라건설	CRMC	2005091	미국	5.56
272	한라공조	비스테온인터내셔널홀딩스	2005040	미국	69.99
273	한라공조	JFAssetManagementLimited	2006061	홍콩	6.12
274	한라공조	TempletonInvestmentCounsel,LLC	2005121	미국	5.06
275	한미약품	TigerAsiaFund	2003010	미국	5.27
276	한미약품	StavangerFondsforvaltningAS	2006062	노르웨이	5.03
277	한미약품	매슈스인터내셔널캐피탈매니지먼트,엘엘씨	2006042	미국	5.00
278	한미캐피탈	KUROTOFUNDL.P	2006062	미국	8.34
279	한섬	ARISAIG	2005102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	6.12
280	한섬	FIDLowPricedStockFund	2006061	미국	7.15
281	한성기업	FIREBIRDDGLOBALMASTERFUND,LTD	2005101	케이만	7.11
282	한솔CSN	Grantham,Mayo,VanOtterloo&Co.LLC(GMO)	2005100	미국	6.57



연번	회사명	보고자명	제출일	국적	주식등비율
283	한신정	TSR(Tokyo Shoko Research)	2004031	일본	6.88
284	한양증권	JFAssetManagementLimited	2006052	홍콩	7.13
285	한익스프레스	LibertySquareStrategicPartnersIV(Asia)Offshore,LP	2005120	케이만	9.58
286	한일시멘트	트위디,브라우니컴퍼니엘엘씨	2006060	미국	5.44
287	한일시멘트	FranklinMutualAdvisers,LLC	2006021	미국	5.00
288	한진해운	GEVERANTRADINGCO.LTD	2005062	사이프러스	6.44
289	한창	엘씨에프인베스트먼트	2005101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	24.26
290	한화	Grantham,Mayo,VanOtterloo&Co.LLC(GMO)	2005072	미국	6.05
291	한화석유화학	슬로안로빈슨엘엘피	2006032	영국	5.07
292	한화석유화학	얼라이언스캐피탈매니지먼트엘.피.	2006050	미국	6.31
293	현대금속	AlliedVictorycorporation	2004032	홍콩	13.09
294	현대모비스	JFAssetManagementLimited	2006032	홍콩	5.04
295	현대미포조선	피델리티 펀드	2006061	룩셈부르크	9.85
296	현대백화점	UinonBankofSwitzerla	2006062	스위스	6.34
297	현대산업개발	ToscafundLimited	2006012	영국	7.60
298	현대산업개발	템플턴에셋매니지먼트	2005111	싱가포르	16.40
299	현대약품공업	더바우포스트그룹,엘.엘.씨	2006052	미국	7.95
300	현대약품공업	안홀드앤드레스,블레이크워더어드바이저,엘엘씨	2006020	미국	6.32
301	현대엘리베이터	선들러도이치랜드홀딩게엠베하	2006050	독일	25.54
302	현대자동차	CRMC	2006060	미국	7.04
303	현대자동차	CGII	2002041	미국	5.61
304	현대중공업	OppenheimerFunds,Inc.(OFI)	2004061	미국	5.05
305	현대하이스코	KawasakiSteelCorpora	2005060	일본	12.98
306	현대해상	HermesPen.Mgt.Ltd	2005040	영국	5.50
307	호남석유화학	얼라이언스캐피탈매니지먼트엘.피.	2006030	미국	10.67
308	호텔신라	에이치에스비서비스파트너스(홍콩)리미티드	2006010	홍콩	5.50
309	환인제약	DeccanValueAdvisorsFundL.P.	2006051	미국	8.44
310	환인제약	더바우포스트그룹,엘.엘.씨	2005040	미국	11.11
311	효성	슬로안로빈슨엘엘피	2006020	영국	5.04
312	효성	PeterCundill&Associates(Bermuda)Ltd.	2006061	버뮤다	5.17
313	휘닉스컵	파탈론캐피탈매니지먼트,엘.엘.씨	2005031	미국	9.45
314	유니드테크놀러지스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홍콩리미티드	2006020	홍콩	5.31
315	흥아해운	GEVERANTRADINGCO.LTD	2005092	사이프러스	6.67
316	흥아해운	KambaraKisenCo.,Ltd	2004031	일본	7.17
317	흥아해운	FairmontPartnersLtd	2005110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	17.15
318	흥아해운	YamaneShippingCo.,Ltd	2004031	일본	7.17
319	ACTS	Peter Back & Partners	2006012	독일	13.59
320	BYC	DeutscheInvestmentManagementAmericasInc.	2005083	미국	5.09
321	CJ CGV	FranklinMutualAdvisers,LLC	2005080	미국	7.46
322	F&F	LuxorCapitalGroup,LP	2006061	미국	7.26
323	FNC코오롱	산사캐피탈매니지먼트엘엘씨	2006063	미국	6.42
324	G.I.R	TigerAsiaFund	2003010	미국	5.58
325	G.I.R	CavendishSquareHoldingB.V.	2005040	네덜란드	28.25
326	GS	슬로안로빈슨엘엘피	2006020	영국	5.14
327	GS건설	CRMC	2005090	미국	8.25
328	INI스틸	아이에스씨케이먼엘티디.	2002072	케이만	17.95
329	KEC	FIDLowPricedStockFund	2005011	미국	9.06
330	KEC	광장소	2006021	일본	30.05
331	KEC	CRMC	2003061	미국	7.25
332	LG생활건강	FIDIVERSIFIEDINTERNATIONAL	2005091	미국	9.60
333	LG생활건강	JanusInvestmentFund	2005101	미국	6.18
334	LG생활건강	T.RowePriceInternationalInc.	2006041	미국	5.24
335	LG생활건강	라자드에셋매니지먼트엘엘씨	2006051	미국	6.53
336	LG석유화학	템플턴에셋매니지먼트	2005061	싱가포르	6.32
337	LG전자	마젤란펀드	2006011	미국	5.01
338	LG전자	CRMC	2006033	미국	7.32
339	LG카드	템플턴에셋매니지먼트	2006040	싱가포르	5.19
340	LG화학	JFAssetManagementLimited	2006062	홍콩	8.24
341	LS산전	CRMC	2004052	미국	6.20
342	POSCO	얼라이언스캐피탈매니지먼트엘.피.	2006062	미국	6.76
343	S&TC	PeterCundill&Associates(Bermuda)Ltd.	2005061	버뮤다	8.72
344	SK	템플턴에셋매니지먼트	2006032	싱가포르	6.06
345	SK	CRMC	2006041	미국	5.01
346	S-Oil	AramcoOverseasCompany,B.V.	2005040	네덜란드	35.24
347	STX엔진	DeutscheBank(Suisse)S.A.	2005092	스위스	5.17
348	STX엔진	펀리폰즈에이에스에이	2006021	노르웨이	13.86
349	STX엔진	MorganStanleyCoIntlLtd	2006060	영국	5.10
350	STX조선	CRMC	2005031	미국	8.12

## 코스닥상장 법인

연번	회사명	보고자명	제출일	국적	주식등비율
1	3S	SusquehannaAsiaPtyLtd	20050729	호주	34.44
2	3SOFT	애머랜스엘엘씨	20060414	케이만	5.16
3	3SOFT	I.C.W.CO.LTD	20050912	일본	33.07
4	가온미디어	SimplexCapitalHoldingsLtd.	20050718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	9.30
5	경동제약	더바우포스트그룹엘.엘.씨.	20050401	미국	10.94
6	국보디자인	TETONCAPITALPARTNERSL.P.	20060509	미국	7.90
7	국순당	제이에프에셋매니지먼트리미티드	20060526	홍콩	5.02
8	국순당	템플턴자산운용회사	20060418	싱가포르	9.01
9	국제엘렉트릭	히타치국제전기	20050401	일본	26.67
10	금화피에스	TETONCAPITALPARTNERSL.P.	20060428	미국	5.62
11	나노하이텍	에이비엔암로뱅크엔.브이.(런던지점)	20060223	네덜란드	6.90
12	나래시스템	마이클진우김	20051108	미국	28.62
13	나이스	사우스차이나세큐리티스	20060512	홍콩	9.75
14	네스테크	애머랜스엘엘씨	20060308	케이만	16.92
15	네오위즈	노지스뱅크코리아	20060620	노르웨이	5.89
16	네오위즈	에이치케이저키클럽콘텐츠허스	20060504	홍콩	8.66
17	네트선닷컴	TETONCAPITALPARTNERSL.P.	20060413	미국	6.75
18	네패스	CapitalResearchandManagementCompany(CRMC)	20060308	미국	5.14
19	넥스트코드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지먼트컴퍼니엘피	20060524	미국	16.96
20	넥스트코드	라이온하트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20050618	영국	5.61
21	넥스트코드	피터백&파트너스	20060111	독일	11.40
22	넷시큐어테크	컨설러데이티드에퀴티스코프	20060316	케이만	8.29
23	넷시큐어테크	피터백&파트너스	20060511	독일	10.59
24	니트렌테크	케이지알에프코리아인베스트먼트초컴퍼니엘티디	20060216	라부안	57.85
25	다날	오픈하이머펀드인크	20060627	미국	14.31
26	다산네트웍스	지멘스악티엔게젤샤프트	20050401	독일	66.58
27	다산네트웍스	OCMEmergingMarketsFundL.P.	20040317	미국	7.20
28	대성엘텍	알파인	20050401	일본	14.76
29	대원산업	씨티그룹글로벌프로덕츠	20041224	홍콩	8.50
30	대원산업	ArisaigKoreaFund	20040202	라부안	6.67
31	더존디지털	오픈하이머펀드인크	20050711	미국	13.91
32	더존디지털	CorevestPartnerL.P.	20060628	바하마	6.50
33	동신에스엔티	피터백&파트너스	20030310	독일	27.59
34	동양이엔피	산람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피티와이)엘티디	20060607	남아프리카공화국	7.27
35	동양이엔피	크레디트스위스홍콩	20060327	홍콩	5.79
36	동원개발	CorevestPartnerL.P.	20060508	바하마	5.82
37	듀오뱅크코리아	LuxorCapitalGroupLP	20050922	미국	5.10
38	디아디디	야마토과학	20060418	일본	58.03
39	디앤에코	인터내셔널에코-벤처파트너스	20051004	미국	35.00
40	디오스텍	크레디트스위스홍콩	20060223	홍콩	6.47
41	디오스텍	HOLYSTONEENTERPRISECO.LTD	20060102	대만	15.75
42	디와이	라이온하트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20051116	영국	12.19
43	디와이	에이비엔암로뱅크엔.브이.(런던지점)	20060524	네덜란드	11.68
44	디와이	파라루크펀드리미티드	20041220	케이만	8.11
45	디지털온넷	서스키하나아일랜드리미티드	20060630	아일랜드	7.18
46	디지털큐브	피터백&파트너스	20060126	독일	13.52
47	디질런트FEF	코로마스펀드	20011217	영국	17.73
48	로만손	라이온하트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20050617	영국	7.07
49	로만손	에이비엔암로뱅크엔.브이.(런던지점)	20060523	네덜란드	6.55
50	로만손	피터백&파트너스	20050826	독일	17.28
51	로지트	이영훈	20060616	대한민국	60.62
52	로체시스템즈	로체인터내셔널유한회사	20060322	싱가포르	61.98
53	로트론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지먼트컴퍼니엘피	20051121	미국	5.20
54	리드코프	케이지알에프코리아인베스트먼트초컴퍼니엘티디	20050401	라부안	41.80
55	리젠	사토미하지메	20040211	일본	6.74
56	리젠	피터백&파트너스	20060217	독일	6.85
57	만인에미디어	오픈하이머펀드인크	20060523	미국	17.64
58	만인에미디어	피터백&파트너스	20060414	독일	13.45
59	매일유업	에이비엔암로뱅크엔.브이.(런던지점)	20060629	네덜란드	6.42
60	메가스터디	에이치에스비씨헬비스파트너스(홍콩)리미티드	20060628	홍콩	5.04

연번	회사명	보고자명	제출일	국적	주식등비용
61	메가스터디	GranthamMayoVanOtterloo&Co.LLC(GMO)	20060323	미국	5.57
62	오건코리아	서부전기	20060206	일본	39.94
63	모델라인	애머랜스엘엘씨	20060410	케이만	6.82
64	모빌리언스	오픈하이머펀드인크	20060628	미국	15.85
65	모빌링크	크레디트스위스홍콩	20060228	홍콩	10.23
66	모빌탑	인텔캐피탈코퍼레이션	20060202	케이만	10.80
67	모아텍	CapitalResearchandManagementCompany(CRMC)	20030127	미국	5.06
68	미래컴퍼니	크레디트스위스퍼스트보스투유립	20060201	영국	7.04
69	미주레일	라이온하트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20050617	영국	7.77
70	미주레일	피라루크펀드리미티드	20041220	케이만	7.77
71	바이로메드	다카라바이오	20060403	일본	42.69
72	보성파워텍	피라루크펀드리미티드	20041220	케이만	10.04
73	블루코드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지먼트컴퍼니엘피	20060627	미국	5.57
74	비아이엔텍	피터백&파트너스	20060502	독일	22.54
75	비티씨정보	영군기업복빈유한공사	20030318	대만	19.77
76	비티씨정보	크레디트스위스홍콩	20031128	홍콩	6.56
77	삼아약품	DeccanValueAdvisorsFundL.P.	20060502	미국	6.98
78	삼우이엘씨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지먼트컴퍼니엘피	20051116	미국	11.39
79	삼원정밀금속	코로마스펀드	20060328	영국	9.96
80	삼일	애머랜스엘엘씨	20051226	케이만	12.72
81	서울반도체	도이치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아메리카스인크.	20050830	미국	5.96
82	서호전기	크레디트스위스홍콩	20050909	홍콩	7.77
83	세코닉스	푸르덴셜어슈런스컴퍼니리미티드	20050222	영국	6.82
84	세화	피터백&파트너스	20060313	독일	15.67
85	소마시스KOR	SusquehannaAsiaPtyLtd	20050729	호주	22.88
86	소프트포럼	김정실	20060518	미국	29.28
87	솔고바이오	애머랜스엘엘씨	20060426	케이만	8.39
88	솔본	헤르메스펜손즈매니지먼트엘티디	20050905	영국	8.62
89	시그마컴	피터백&파트너스	20050404	독일	18.92
90	시스윌	퍼시픽얼라이언스에셋매니지먼트	20060504	홍콩	7.75
91	시스윌	피터백&파트너스	20060404	독일	7.12
92	시큐어소프트	CapitalGroupInternationalInc.(CGII)	20011004	미국	8.81
93	신성델타테크	고독델타항공	20051228	일본	19.23
94	신세계푸드	제이에프에셋매니지먼트리미티드	20051224	홍콩	11.52
95	실미디아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지먼트컴퍼니엘피	20060530	미국	34.56
96	실텍	CapitalResearchandManagementCompany(CRMC)	20060315	미국	6.28
97	심텍	GranthamMayoVanOtterloo&Co.LLC(GMO)	20060125	미국	8.06
98	쌔지	오지매니지먼트엘엘씨	20060525	미국	19.08
99	쌔디네트웍스	오픈하이머펀드인크	20060424	미국	6.41
100	쌔디네트웍스	피드인스티튜트서남사우스이스트아시아펀드	20060607	영국	6.19
101	쌔디네트웍스	GranthamMayoVanOtterloo&Co.LLC(GMO)	20060412	미국	6.74
102	쌔디네트웍스	T.RowePriceInternationalInc.	20060410	미국	9.47
103	쌔피엔	파피아이	20050601	미국	5.90
104	아가방	ArisaigKoreaFund	20060201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	10.74
105	아모텍	이머징마켓매니지먼트엘엘씨	20060511	미국	8.69
106	아시아나항공	CapitalGroupInternationalInc.(CGII)	20060614	미국	9.56
107	아이디스	제네시스펀드매니저스엘엘피	20051208	영국	6.36
108	아이디스	제이에프에셋매니지먼트리미티드	20060523	홍콩	11.09
109	아이디스	템플턴자산운용회사	20050921	싱가포르	9.51
110	아이메카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지먼트컴퍼니엘피	20060403	미국	7.95
111	아이피에스	플래티늄에셋매니지먼트리미티드	20060517	호주	5.16
112	아큐텍반도체	글든나이트	20020423	라부안	25.60
113	아토	크레디트스위스홍콩	20050328	홍콩	7.02
114	안철수연구소	오픈하이머펀드인크	20050928	미국	9.10
115	알덕스	이폴루션캐피탈매니지먼트엘엘씨	20060412	미국	8.83
116	알토닉스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지먼트컴퍼니엘피	20050725	미국	13.53
117	엑슬론	피터백&파트너스	20060116	독일	17.95
118	엑토즈소프트	델타파트너스엘엘씨	20040203	미국	7.09
119	엑토즈소프트	산다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리미티드	20050330	중국	38.10
120	엑토즈소프트	UBS Securities LLC-Customer Segregated Account	20031226	미국	5.97
121	어드벤처	어드벤처	20060201	대만	50.80
122	어울림정보	애머랜스엘엘씨	20060510	케이만	16.97
123	에스디	로이드조지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버뮤다)리미티드	20060523	버뮤다	6.54
124	에스디	아시아스윌컴퍼니스포트폴리오	20060523	미국	6.54
125	에스디	플래티늄에셋매니지먼트리미티드	20060619	호주	8.40

연번	회사명	보고자명	제출일	국적	주식등비용
126	에스에이치텍	피터백&파트너스	20060420	독일	15.72
127	에스에프에이	플래티늄에셋매니지먼트리미티드	20060125	호주	5.40
128	에스에프에이	피델리티펀드	20060601	룩셈부르크	11.66
129	에스에프에이	CapitalResearchandManagementCompany(CRMC)	20051222	미국	7.78
130	에스엠	더쓰리킹덤즈코리아펀드	20050826	케이만	5.00
131	에스엠	에이백스	20040212	일본	5.81
132	에스엠	피델리티퍼시픽바신평드	20060131	미국	8.33
133	에스텍	포스타전기	20060629	일본	15.40
134	에스텍파마	라이온하트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20060413	영국	8.42
135	에스텍파마	에이비엔알로뱅크엔.브이.(런던지점)	20060413	네덜란드	5.81
136	에스폴리텍	피터백&파트너스	20030314	독일	25.78
137	에이클씨엔씨	오픈하이퍼펀드링크	20060627	미국	16.45
138	에이클씨엔씨	템플턴자산운용회사	20060621	싱가포르	6.77
139	에이스디지털	GranthamMayoVanOtterloo&Co.LLC(GMO)	20050609	미국	5.51
140	에이엠에스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지먼트컴퍼니엘피	20060502	미국	11.60
141	에이치비엔터	더쓰리킹덤즈코리아펀드	20051129	케이만	5.03
142	에이치비엔터	오지매니지먼트엘엘씨	20060216	미국	9.45
143	에이치비엔터	카인드릭스프레스리미티드	20060303	홍콩	6.76
144	에임하이	SusquehannaAsiaPtyLtd	20060425	호주	27.81
145	에코플라스틱	GranthamMayoVanOtterloo&Co.LLC(GMO)	20060207	미국	6.30
146	에프에스텍	미즈비시상사	20050401	일본	6.51
147	엑사이엔씨	LYRAGROUPInc	20041029	미국	7.31
148	엔이씨	피터백&파트너스	20040722	독일	43.92
149	엔터기술	크레디트스위스홍콩	20060328	홍콩	8.44
150	엔터원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지먼트컴퍼니엘피	20060214	미국	11.23
151	엔하이테크	피터백&파트너스	20050621	독일	12.11
152	엘림에듀	오지매니지먼트엘엘씨	20060626	미국	6.61
153	엘컴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지먼트컴퍼니엘피	20060621	미국	24.27
154	엘컴	피터백&파트너스	20050415	독일	5.51
155	엘텍반도체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지먼트컴퍼니엘피	20060601	미국	6.73
156	엘텍비전	오픈하이퍼펀드링크	20060620	미국	9.71
157	엘팩스	오픈하이퍼펀드링크	20060111	미국	7.54
158	엘피오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지먼트컴퍼니엘피	20060515	미국	8.15
159	엘피오	피라루크펀드리미티드	20041220	케이만	5.17
160	에당	오픈하이퍼펀드링크	20060605	미국	16.50
161	에당온라인	애머랜스엘엘씨	20051017	케이만	15.54
162	에당온라인	오지매니지먼트엘엘씨	20051129	미국	8.23
163	오디티	라이온하트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20050618	영국	8.78
164	오디티	에이비엔알로뱅크엔.브이.(런던지점)	20060522	네덜란드	9.05
165	오디티	피라루크펀드리미티드	20041220	케이만	7.92
166	오로라	SusquehannaAsiaPtyLtd	20050729	호주	19.72
167	오리엔탈정공	라이온하트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20060414	영국	5.45
168	오브제	ArisaigKoreaFund	20051222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	5.43
169	오브제	TETONCAPITALPARTNERSL.P.	20050802	미국	9.60
170	오성엘에스티	더쓰리킹덤즈코리아펀드	20060407	케이만	7.12
171	오알컴	제이에프에셋매니지먼트리미티드	20060104	홍콩	9.61
172	오픈베이스	피터백&파트너스	20060630	독일	27.20
173	온니테크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지먼트컴퍼니엘피	20060616	미국	9.21
174	옵토매직	서스키하나아일랜드리미티드	20060523	아일랜드	24.53
175	와이즈콘트롤	이상훈	20050415	대한민국	15.71
176	우리조명	로이드조지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버뮤다리미티드	20050801	버뮤다	5.45
177	우리조명	PictetAssetsManagmentUKLtd	20060315	룩셈부르크	5.90
178	우수씨엔에스	에이비엔알로뱅크엔.브이.(런던지점)	20060406	네덜란드	6.07
179	우수씨엔에스	오지매니지먼트엘엘씨	20060627	미국	13.62
180	우수씨엔에스	SusquehannaAsiaPtyLtd	20050729	호주	18.68
181	우주일렉트로	ArisaigKoreaFund	20040629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	8.10
182	우주일렉트로	KingdonOffshoreN.V	20040413	네덜란드	5.08
183	우진ACT	쇼오지후쿠시마	20051229	일본	12.25
184	울트라건설	울트라-콘아이엔씨	20050401	미국	45.09
185	웨스텍코리아	퀵컴인코퍼레이티드	20050302	미국	5.05
186	웹젠	델타파트너스엘엘씨	20040203	미국	6.00
187	웹젠	프리즘오프쇼어펀드엘티디	20040518	케이만	7.23
188	유니셀	피터백&파트너스	20040521	독일	6.65
189	유비다임	아폴로인베스트먼트	20051201	일본	12.99
190	유비다임	오지매니지먼트엘엘씨	20060523	미국	11.19

연번	회사명	보고자명	제출일	국적	주식등비율
191	유비스타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지먼트컴퍼니엘피	20060518	미국	28.94
192	유비스타	코로마스펀드	20040309	영국	24.40
193	유비스타	피라루크펀드리미티드	20041223	케이만	5.39
194	유비트론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지먼트컴퍼니엘피	20060310	미국	7.35
195	유아이엘	슈로더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싱가포르	20060526	싱가포르	13.13
196	유아이엘	CapitalResearchandManagementCompany(CRMC)	20040712	미국	5.06
197	유진테크	엄평용	20060406	캐나다	47.90
198	은성코퍼레이션	라이온하트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20060523	영국	6.66
199	이노셀	오지매니지먼트엘엘씨	20060123	미국	10.56
200	이니시스	폴라캐피탈테크놀로지트러스트퍼엘씨	20060622	영국	6.11
201	이니텍	TVGINITECHHOLDINGSLTD.	20050401	라부안	21.47
202	이지그린텍	트리니티캐피탈어드바이저스	20040603	미국	14.61
203	인선이엔티	로이드조지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버뮤다리미티드	20051121	버뮤다	5.07
204	인선이엔티	울릴푸스그린홀딩스엘.피.	20060310	케이만	21.27
205	인선이엔티	제네시스펀드매니저스엘엘피	20060214	영국	9.03
206	인선이엔티	FranklinMutualAdvisersLLC	20050809	미국	8.78
207	인젠	애머랜스엘엘씨	20051117	케이만	9.49
208	인지디스플레	슈벤처스인코퍼레이션	20010808	미국	5.59
209	인지디스플레	오스틴세이버파이낸셜프래닝리미티드	20010914	미국	6.59
210	인탑스	에프에이스쿨캡펀드	20060613	미국	10.12
211	인탑스	피델리티펀드	20050704	미국	5.12
212	인터플렉스	메릴린치인베스트먼트매니저스엘.피.	20051122	미국	6.08
213	인터플렉스	제이.&더블유.세리그만&코.인코퍼레이티드	20030729	미국	5.25
214	인터플렉스	CapitalResearchandManagementCompany(CRMC)	20040816	미국	7.16
215	자강	리플렐캐커뮤니케이션즈테크컴퍼니리미티드	20050401	홍콩	24.66
216	자강	피터백&파트너스	20060609	독일	24.02
217	자강	CAL-COMPELECTRONICS(THAILAND)CO.LTD	20010206	태국	13.26
218	자이링크	퍼시픽게이트	20060602	라부안	39.00
219	전신전자	ViconIndustries,Inc.	20011203	미국	15.79
220	제넥셀	피라루크펀드리미티드	20041220	케이만	10.28
221	제이엘피	라이온하트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20051102	영국	6.86
222	제이엘피	피라루크펀드리미티드	20041220	케이만	11.30
223	제이콤	오지매니지먼트엘엘씨	20060209	미국	7.65
224	제일엔테크	피터백&파트너스	20031203	독일	21.13
225	좋은사람들	아리사이그	20020107	라부안	5.44
226	지세븐소프트	피터백&파트너스	20060320	독일	11.43
227	지어소프트	애머랜스엘엘씨	20051101	케이만	8.46
228	지엔코	MorganStanley&co.InternationalLimited	20060321	영국	9.84
229	지엔텍	이볼루션캐피탈매니지먼트엘엘씨	20060614	미국	6.37
230	지엠티	SusquehannaAsiaPtyLtd	20050729	호주	31.81
231	청람디지털	피터백&파트너스	20060324	독일	11.84
232	초록샘	피터백&파트너스	20060504	독일	12.23
233	카이시스	도시바테크코퍼레이션	20060403	일본	9.98
234	카이시스	피터백&파트너스	20051219	독일	33.70
235	케너텍	애머랜스엘엘씨	20060316	케이만	13.27
236	케이디이컴	라이온하트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20050618	영국	6.98
237	케이디이컴	소피아인터내셔널	20051103	일본	16.46
238	케이디이컴	SusquehannaAsiaPtyLtd	20050729	호주	14.40
239	케이알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지먼트컴퍼니엘피	20060502	미국	7.99
240	케이앤미디어	피터백&파트너스	20050708	독일	46.53
241	케이에스피	웍스포드캐피탈엘엘씨	20050916	미국	11.58
242	케이피엠테크	상촌공업	20030113	일본	7.50
243	코닉시스템	KelusaMasterFundLtd	20060120	케이만	5.68
244	코다코	템플턴자산운용회사	20020605	싱가포르	16.67
245	코리아나	오픈하이퍼드링크	20060605	미국	8.18
246	코리아나	PeterCundill&Associates(Bermuda)Ltd.	20051005	버뮤다	8.75
247	코리아텐더	오메가프랙트홀딩스	20060622	일본	15.86
248	코바이오텍	SusquehannaAsiaPtyLtd	20050729	호주	17.96
249	코스맥스	도이치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아메리카스링크.	20060516	미국	5.17
250	코스맥스	유비에스에이지	20060413	스위스	9.11
251	코스프	피터백&파트너스	20060220	독일	11.35
252	코아로직	피델리티펀드	20060214	룩셈부르크	6.62
253	코엔텍	아틀란티스코리안스몰러컴퍼니즈펀드	20060209	아일랜드	6.76
254	코코	HAJWIESSALSABBAGH	20021223	사우디	6.15
255	큐로컴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지먼트컴퍼니엘피	20060316	미국	5.55
256	크리스탈	세에스케이라이프사이언스	20060119	일본	9.52
257	크림에어텍	피터백&파트너스	20060510	독일	8.47

연번	회사명	보고자명	제출일	국적	주식등비용
258	키움증권	오픈하이머펀드인크	20060417	미국	5.14
259	탐엔지니어링	큐이인터내셔널(엘)리미티드	20040508	라부안	8.83
260	태광이앤씨	오지매니지먼트엘엘씨	20060504	미국	15.49
261	태산엘시디	LehmanBrothersInternational(Europe)	20060308	영국	5.68
262	태웅	피델리티펀드	20060620	룩셈부르크	11.11
263	태웅	CapitalResearchandManagementCompany(CRMC)	20060613	미국	5.24
264	태웅	GranthamMayoVanOtterloo&Co.LLC(GMO)	20060524	미국	6.72
265	태원엔터테인	라이온하트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20060328	영국	14.27
266	태원엔터테인	에이비엔암로뱅크엔.브이.(런던지점)	20060414	네덜란드	23.37
267	태원엔터테인	파라루크펀드리미티드	20041220	케이만	11.36
268	테이크시스템	일본테이크시스템즈	20060113	일본	43.54
269	테크노세미켄	플래티늄세셋매니지먼트리미티드	20060512	호주	6.24
270	테크노세미켄	GranthamMayoVanOtterloo&Co.LLC(GMO)	20060607	미국	6.59
271	텔레칩스	오픈하이머펀드인크	20060313	미국	10.39
272	텔레칩스	TheNorthwesternMutualLifeInsuranceCo	20050711	미국	7.31
273	텔로드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지먼트컴퍼니엘피	20051230	미국	15.80
274	토필드	CAM-GTFLimited	20060612	모리셔스	9.35
275	토필드	MorganStanley&co.InternationalLimited	20060619	영국	6.47
276	투브픽처스	오지매니지먼트엘엘씨	20060509	미국	6.65
277	티씨케이	도카이카본	20051202	일본	68.21
278	티에스엠텍	피델리티펀드	20060119	룩셈부르크	6.53
279	티엔터테인먼트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지먼트컴퍼니엘피	20060515	미국	12.43
280	파라다이스	제이에프에셋매니지먼트리미티드	20050928	홍콩	9.07
281	파라다이스	KDMWInvestment(L)Bhd	20060324	라부안	6.09
282	파라텍	제이에프에셋매니지먼트리미티드	20060522	홍콩	8.38
283	파로시아엔아이	피터백&파트너스	20060420	독일	13.20
284	파워로직스	웰링턴매니지먼트컴퍼니엘엘피	20060410	미국	5.44
285	파이컴	도이치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아메리카스인크.	20051018	미국	5.34
286	파인디앤씨	매릴린치인베스트먼트매니저스엘.피.	20060222	미국	5.52
287	팬텀	산사케피탈매니지먼트엘엘씨	20060607	미국	10.71
288	평화정공	이머징마케츠매니지먼트엘엘씨	20060504	미국	5.13
289	평화정공	CAM-GTFLimited	20051212	모리셔스	11.06
290	포레스코	비에이치	20031105	바하마	12.25
291	풍국주정	제이에프에셋매니지먼트리미티드	20060421	홍콩	8.22
292	프롬써어티	더쓰리킹덤즈코리아펀드	20060419	케이만	9.89
293	프롬써어티	원테스트	20051118	일본	6.80
294	프리셋	밀레니엄글로벌하이일드펀드엘티디	20060110	버뮤다	7.40
295	프리셋	전택테크날리지제켄	20051028	일본	20.37
296	프리셋	피터백&파트너스	20050412	독일	31.84
297	플랜티넷	CapitalResearchandManagementCompany(CRMC)	20051226	미국	5.11
298	피에스케이	더쓰리킹덤즈코리아펀드	20060407	케이만	7.84
299	하노호텔레콤	에이아이에프루엔티엘티디.	20050406	라부안	40.32
300	하이셀	파라루크펀드리미티드	20050630	케이만	5.50
301	하이셀	피터백&파트너스	20050406	독일	14.86
302	하츠	템플턴자산운용회사	20051005	싱가포르	9.65
303	하츠	FTIFTempletonKoreaFund	20041203	룩셈부르크	7.78
304	한국기업평가	제이에프에셋매니지먼트리미티드	20051116	홍콩	7.92
305	한국기업평가	FitchRatings	20021111	영국	7.42
306	한국배럴	티엔엔아이	20050617	영국	22.94
307	한국성산	성산산업	20050401	일본	26.58
308	한국정보통신	ZurichScudderInvestmentsInc.	20010926	미국	5.12
309	한국토지신탁	피터백&파트너스	20030812	독일	5.09
310	한국토지신탁	GranthamMayoVanOtterloo&Co.LLC(GMO)	20060120	미국	6.44
311	한성에코넷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지먼트컴퍼니엘피	20060307	미국	10.20
312	한신평정보	제네시스펀드매니저스엘엘피	20060418	영국	8.85
313	한진피앤씨	오지매니지먼트엘엘씨	20060627	미국	11.87
314	한텔	애머랜스엘엘씨	20060224	케이만	6.19
315	한텔	오지매니지먼트엘엘씨	20060324	미국	16.73
316	한들시스템	트라낙스테크놀로지스	20060126	미국	5.10
317	해원에스티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지먼트컴퍼니엘피	20060628	미국	10.16
318	해원에스티	LehmanBrothersInternational(Europe)	20060330	영국	5.55
319	해원에스티	SusquehannaAsiaPtyLtd	20050729	호주	36.05
320	현대아이티	오지매니지먼트엘엘씨	20060519	미국	12.71
321	현원	오지매니지먼트엘엘씨	20060315	미국	10.16
322	현진소재	웍스포드캐피탈엘엘씨	20050907	미국	8.91
323	현진소재	CapitalResearchandManagementCompany(CRMC)	20060503	미국	8.65
324	홍센타	매릴린치인터내셔널	20060626	영국	9.77
325	홍센타	이볼루션캐피탈매니지먼트엘엘씨	20060620	미국	10.49

연번	회사명	보고자명	제출일	국적	주식등비율
326	화인텍	아티젠파트너스리미티드파트너십	20050830	미국	7.86
327	화인텍	오픈하이머펀드인크	20060627	미국	14.74
328	휘닉스퍼디이	피델리티퍼시픽바신편드	20060213	룩셈부르크	6.14
329	휘닉스퍼디이	CapitalResearchandManagementCompany(CRMC)	20050704	미국	7.31
330	휴맥스	오픈하이머펀드인크	20060331	미국	13.79
331	AMIC	유제이슨	20060612	미국	10.00
332	AMIC	질빠추빙	20020314	일본	8.54
333	AMIC	sinotradeasialimited	20031219	홍콩	20.93
334	C&S디펜스	AMERICAORIENTALGROUP	20020816	미국	6.93
335	C&S디펜스	CHKCapitalGroupCorporation	20041228	홍콩	13.71
336	CJ푸드시스템	EFGPRIVATEBANKSA	20041111	스위스	12.17
337	CJ홈쇼핑	T.RowePriceInternationalInc.	20060417	미국	7.63
338	CURON	밀레니엄글로벌하이일드펀드엘티디	20060223	버뮤다	14.85
339	EBT네트웍스	로만직앤드어소시에이션	20030924	홍콩	11.99
340	EBT네트웍스	씨바이오인베스트먼트	20030924	바하마	11.99
341	EBT네트웍스	텔레소닉싱가폴퍼티엘티디	20060322	싱가포르	7.23
342	EBT네트웍스	피터백&파트너스	20050713	독일	6.41
343	GS홈쇼핑	매슈스인터내셔널캐피탈매니지먼트엘엘씨	20041025	미국	5.05
344	GS홈쇼핑	오픈하이머펀드인크	20060619	미국	8.59
345	HK저축은행	퍼시픽캐피탈퍼시픽엘에프아이펀드엘엘씨	20060620	미국	33.05
346	KCC건설	CorevestPartnerL.P.	20060512	바하마	5.12
347	KCC건설	GranthamMayoVanOtterloo&Co.LLC(GMO)	20060530	미국	6.54
348	KDN스마트	피터백&파트너스	20060126	독일	9.88
349	KJ온라인	웅이와	20020427	홍콩	5.18
350	LG텔레콤	비티(인터넷셔널)홀딩스리미티드	20050910	영국	5.17
351	LG텔레콤	스타라이트파이낸스비.브이.	20031205	네덜란드	16.59
352	NHN	노지스뱅크코리아	20060602	노르웨이	6.17
353	SSCP	GranthamMayoVanOtterloo&Co.LLC(GMO)	20060209	미국	9.16
354	VK	디케이알오아시스매니지먼트컴퍼니엘피	20060630	미국	12.08
355	VK	머캔타일매니지먼트리미티드	20050616	홍콩	8.72
356	VK	제이피모간시큐리티즈리미티드	20060310	영국	5.73
357	VK	SusquehannaAsiaPtyLtd	20050729	호주	9.06
358	YBM시사닷컴	피델리티펀드	20060417	룩셈부르크	8.67
359	YBM시사닷컴	CapitalResearchandManagementCompany(CRMC)	20060530	미국	7.22
360	YNK코리아	SusquehannaAsiaPtyLtd	20060628	호주	5.85

34. 2003.1-2006.7월 현재까지 각 연도별 회사채발행  
증가 및 감소 현황

- 1) 각 연도별 채권발행 잔액
- 2) 각 연도별 순증감분
- 3) 회사채 순증감 요인분석 자료

1) 각 연도별 채권발행 잔액

(단위 : 억원)

연도	발행잔액
2003	1,818,347
2004	1,468,049
2005	1,360,714
2006.06	1,321,395

2) 각 연도별 순증감분<sup>1)</sup>

(단위 : 억원)

연도	순증감액
2003	15,653
2004	△ 350,298
2005	△ 107,335
2006.06	△ 62,320 <sup>2)</sup>

1) 당해연도 발행잔액에서 전년도 발행잔액을 차감한 금액

2) 2006년6월 발행잔액에서 2005년6월 발행잔액을 차감한 금액



### 35. 국내기업의 미국 주식시장 상장 관련(최근 3년간)

- 1) 국내 상장기업
- 2) 영업수익률

#### 1) 국내 상장기업

##### ☐ NYSE 상장법인

회사명	상장유형	상장연도
우리금융지주	DR발행	2003
LG필립스엘씨디	DR발행	2004
포스코	DR발행	2005

##### ☐ NASDAQ 상장법인

회사명	상장유형	상장연도
웹젠	DR발행	2003
그라비티	원주상장	2005
픽셀	원주상장	2005
와이더댄	원주상장	2005
인터파크지마켓	원주상장	2006

## 2) 영업수익률

(단위 : %)

회사명	영업수익률 <sup>1)</sup>		
	2003	2004	2005
우리금융지주	12.7	65.5	90.4
LG필립스엘씨디	18.0	20.3	5.0
포스코	21.3	25.5	27.2
웹젠	57.6	38.4	△62.0
그라비티	48.9	58.4	△3.8
픽셀플러스	12.3	△9.4	5.4
와이더댄	13.7	16.4	9.8
인터파크지마켓	△39.5	△12.5	3.6

1) 영업수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36.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독기능 강화와 관련(출범 이후  
2006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작성)
- (1) 회계전담인력 확충현황 및 향후 확충계획
  - (2) 감리대상기업 및 감리기업 현황. 향후 확대계획
  - (3) 감리비율(표본추출 및 혐의기업에 대한 감리. 위탁감리.  
부분(기획)감리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작성)
  - (4) 분식회계로 인해 기업에 부과한 조치유형별 건수 추이

“붙임 참조”

(붙임)

# 1. 회계전담인력 확충현황 및 향후 확충계획

구 분	조 직
통합이전 (98.12)	· 회계관리국 : 4과 17명 · 감리국 : 4과 15명
금감원 출범 (99.1)	· 회계감독국 : 4과 3팀 29명(28)
개 편 (00. 3.10)	· 회계감독국 : 3과 21명(17) · 조사1국(조사감리실) : 4팀 28명(20)
개 편 (00. 9. 8)	· 공시감독국(회계제도실) : 3팀 22명(19) · 조사1국(조사감리실) : 5팀 31명(29)
개 편 (01. 4.27)	· 회계감리국 : 6팀 36명(35) · 회계감리국(회계제도실) : 3팀 16명(16)
개 편 (01.12.28)	· 회계감리국 : 5팀 29명(25) · 회계감리국(회계제도실) : 3팀 15명(15)
개 편 (03. 1. 6)	· 회계감독1국 : 5팀 27명(23) · 회계감독1국(회계제도실) : 3팀 15명(15) · 회계감독2국 : 5팀 26명(25)
현재 (06. 7. 25)	· 회계감독1국 : 7팀* 34명(36) · 회계감독1국(회계제도실) : 3팀 19명(22) · 회계감독2국 : 5팀 24명(25)
향후 계획	향후 회계인력 및 조직의 확대 계획은 미정

\* 2006년 5월 품질관리감리팀(2개팀) 신설

## 2. 연도별 감리대상기업 및 감리기업 현황, 향후 확대 계획, 연도별 감리비율

### ☐ 증선위/금감원 직접 감리 실시 현황

연도	감리 대상*2	감리 및 지적업체 수*1							
		표본감리		수시감리		협의감리*4		계	
		감리	지적	감리	지적	감리	지적	감리(비율)	지적
'99	725	41	10	1	-	15	15	57(7.8%)	25
'00	704	6*3	2	1	1	17	15	24(3.4%)	18
'01	1,410	14	2	-	-	27	20	41(2.9%)	22
'02	1,526	51	8	-	-	35	33	86(5.6%)	41
'03	1,548	79	4	-	-	14	13	93(6.0%)	17
'04	1,563	118	22	-	-	31	28	149(9.5%)	50
'05	1,561	177	26	-	-	46	40	223(14.3%)	66
'06.7	1,633	96	14	-	-	15	12	111(12.1%)	26

\*1 : 감리종결 기준

\*2 : 2001년 이전 코스닥시장법인에 대한 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담당  
(1999~2000년 :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수, 2001~2005년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상장법인 수)

\*3 : 2000년은 대우그룹 12사에 대한 특별감리로 인하여 감리실시회사 수 감소

\*4 : 특정부문에 대한 기획감리 결과 협의사항이 있는 기업에 대한 감리를 포함

### ☐ 부문(기획)감리 실적

연도	내역	검토대상	협의감리*1
'01	상장법인 지분법 부문감리	343	8
	코스닥법인 기획감리	49	18
'02	코스닥법인 지분법 부문감리	289	1
'03	상장·코스닥법인 차입금 부문감리	1,442	7
'04	제약회사의 반품충당금 부문감리	52	3

\*1 부문감리 검토결과 협의사항이 있는 기업은 협의감리에 포함하여 실시

□ 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현황(종결기준)

연도	감리회사 수	지적회사 수
'00.4.1.~'01.3.31.	322	45
'01.4.1.~'02.3.31.	205	16
'02.4.1.~'03.3.31.	202	31
'03.4.1.~'04.3.31.	226	24
'04.4.1.~'05.3.31.	218	21
'05.4.1.~'06.3.31	292	27

<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결산월 3월)

□ 향후 확대 계획

- 2005년도 표본감리 선정 : 204개사(전체 상장법인의 약 13%)
- 2006년도 표본감리 선정 : 280개사 예정(전체 상장법인의 약 18%)

### 3. 분식회계로 인해 기업에 부과한 조치 유형별 건수 추이

구분	'06.7.	'05	'04	'03	'02	'01	'00	'99년
고 발	2(9명)	4(6명)	8(27명)	6(11명)	6(7명)	1(4명)	5(25명)	1
수사기관통보	2(7명)	1(6명)	7(14명)	1(4명)	2(3명)	8(11명)	(20명)	1
과징금	8	8	20	3	2	-	-	
유가증권발행제한	7	15	23	13	30	7	-	7
임원해임권고(상당)	2(9명)	5(7명)	27(37명)	11(21명)	19(27명)	-	7(25명)	5(9명)
경 고	7	13	14	6	10	18	13	9
주 의	12	12	20	23	16	31	17	25
각서징구	-	-	2	-	-	-	11	17
감사인지정	17	27	54	23	40	25	20	16
시정요구	3	11	25	8	23	32	36	29
조치회사수*	30	49	78	46	59	60	50	68

\* 조치회사 및 조치유형별 현황은 증선위/금감원의 직접감리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 결과를 합한 것임

### 37.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 1) 도입취지, 내용, 지정절차, 지정효과, 관련 법령 등
  - 2) 외부감사인 지정 법인(지정 원인별 구분 작성) 및 증감 원인에 대한 분석
  - 3) 회계법인별 지정 현황
- '02~'06.7 연도별 자산규모 100대 상장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현황

#### ☐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 첨부자료 참조

#### ☐ 자산규모 100대 상장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현황

- 첨부자료 참조



<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첨부자료 >

## 감사인 지정제도

	내 용
1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취지 및 지정효과
2	감사인 지정제도 내용
3	감사인 지정절차
4	감사인 지정현황
5	관련 법령 등

## 도입취지, 지정효과, 지정내용 등

### 1. 도입취지 및 지정효과

#### ☐ 도입취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에 따라 회계분식의 우려가 있거나 그 사회적 파급효과로 보아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감사인을 지정함으로써 회계정보 이용자(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 ☐ 지정효과

-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학계 및 실무에서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제도로 평가

## 2. 지정제도 내용

### ☐ 지정의 의의

-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증선위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함으로써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제고

### ☐ 지정사유(외감법§4조의3, 동법시행령§4조, 외감규정§10조)

-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감리조치, 소유·경영 미분리, 관리종목·투자유의종목 지정, 공개예정법인 등

### ☐ 지정대상 감사인 : 회계법인에 한함

### ☐ 지정기한 : 사업연도 개시후 6월이내(조기지정의 경우 4개월)

## 3. 지정절차

### ☐ 지정방법(외감규정§13조 ①~③항)

- 감사인별 지정점수\*에 의해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 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지정

$$* \text{감사인지정점수} = \frac{\text{감사인점수}}{1 + \text{지정받은 회사수}}$$

### ○ 지정시 고려사항

- 계속지정회사 : 3년 이내 동일감사인 지정
- 감리지적회사 : 감사제한 감사인 지정배제 등
- 감사인 특성을 고려한 감사인 지정<sup>주1)</sup>

주1) 감사인 특성을 고려한 감사인 지정요건

지정대상 회사의 자산규모	감사인의 요건					지정대상 회계법인 (대상회계 법인수)
	소속공인 회계사수	설립 경과 연수	매출액	손해배상능력	외국회계 법인과 의 제휴여부	
8,000억원 이상	100인 이상	10년 이상	300억원이 상	50억원 이상	실질적 업무제휴	4가지요건충족
3,000억원 이상~ 8,000억원 미만	50인 이상	7년 이상	10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실질적 업무제휴	4가지요건충족
5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20인 이상	3년 이상	30억원	5억원 이상	단순 업무제휴	3가지요건충족
500억원 미만	제한 없음					전체 회계법인

※ 추가적인 고려사항

- ① 자산규모 8,000억원 이상 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은 자산규모 500억원 미만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음(단, 공개예정법인의 감사인 지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② 손해배상능력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 손해배상책임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③ 외국법인과의 제휴현황 중 실질업무제휴는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하며 단순업무제휴는 그 이외의 단순제휴를 말함

## □ 감사인 점수산정 방법

### ○ 산정대상 및 기간

- 매년 3월 31일 현재의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감사인점수 산정대상기간은 전년도 4월 1일부터 당해연도 3월 31일임

### ○ 감사인점수 구성

- 기본점수 및 가점으로 구성

#### ① 기본점수

- 소속공인회계사별 경력점수를 합한 점수로 하며, 소속공인회계사별 경력점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

경력 10년이상인 공인회계사수	× 120
경력 5년이상인 공인회계사수	× 110
경력 3년이상인 공인회계사수	× 100
경력 1년이상인 공인회계사수	× 90
경력 1년미만인 공인회계사수	× 80

#### ② 가점

- 제20조의 국제적회계법인과 제21조의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회계법인 기본점수의 3%를 가점으로 부여하며, 단순한 업무제휴의 경우 당해회계법인 기본점수의 1%를 가점으로 부여

## 5. 관련 법령 등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등)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감사인의 지정대상)

제4조의2 (감사인 지명시 감사인 선임등)

###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10조(지정대상회사)

제12조(지정요건의 해소)

제13조(지정방법등)

[별표 제2호] 감사인점수 산정기준

[별표 제3호] 감사인 특성에 따른 감사인지정 요건

###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별표 제3호] 지정제외점수의 부여 및 적용기준

#### 4. 지정현황

##### □ 감사인 지정법인 수(지정 원인별) 및 증감원인 분석

(단위 : 개사)

지정사유	지정연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증 감 분 석
공개예정법인		-	-	-	296	외감법시행령 개정으로 05년부터 지정대상에 포함
관리종목(주권상장)		68	57	39	19	지속적인 관리종목의 감소
관리종목(코스닥상장)		-	-	41	45	외감법시행령 개정으로 04년부터 지정대상에 포함
투자유의종목		-	-	11	9	외감법시행령 개정으로 04년부터 지정대상에 포함
감리조치		43	52	47	54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요청		29	23	29	26	-
회사요청		8	7	13	9	-
감사인미선임		6	1	5	5	-
감사인부당교체		5	2	-	-	감사인 선임관련 법규 준수로 감소
소유/경영미분리		3	6	5	4	-
합 계		162	148	190	467	

□ 회계법인별 지정 현황

(단위 : 개사)

연 번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회계법인명	회사수	회계법인명	회사수	회계법인명	회사수	회계법인명	회사수
1	가립	1	가립	1	가립	1	가립	1
2	남일	1	남일	1	남일	1	나무	1
3	다산	2	다산	1	다산	3	남일	2
4	다인	1	다인	2	다인	1	다산	6
5	대성	3	대성	3	대성	3	다인	2
6	대주	8	대주	7	대주	8	대명	3
7	대현	1	대현	1	대현	1	대성	5
8	동남	1	미래	1	동남	1	대주	10
9	동명	2	보람	1	동명	1	대현	2
10	미래	1	부일	1	미래	1	동남	3
11	부일	2	삼경	3	보람	1	동명	2
12	삼경	3	삼덕	1	부일	1	두레	1
13	삼일	24	삼영	1	삼경	4	미래	2
14	삼정	18	삼일	29	삼덕	8	보람	2
15	삼화	3	삼정	15	삼영	1	부일	3
16	새빛	2	삼화	1	삼일	57	삼경	6
17	서일경영	2	상록	1	삼정	15	삼덕	15
18	선명	1	서일경영	1	삼화	1	삼영	1
19	선일*	1	선명	1	상록	1	삼일	99
20	선진	1	선일*	2	새빛	1	삼정	36
21	성도	1	선진	1	새시대	1	삼화	3
22	성신	1	성도	1	서일경영	2	상록	2
23	세림	1	성신	1	선일*	1	새빛	4
24	세현	1	세림	1	선진	1	새시대	2
25	송현	1	세일	1	성도	3	서일경영	3
26	신성	1	세정*	1	성신	1	서정	2
27	신우	5	송현	1	세림	1	선명	1
28	신원	1	신성	1	세영	1	선진	3
29	신한	8	신우	3	세일	1	성도	3
30	안건	7	신한	8	세현	1	성신	2
31	안진	17	안건	2	신우	4	성지	1
32	열린	1	안진	16	신원	1	세림	2
33	한영	16	열린	1	신한	7	세영	2
34	우리	3	우리	2	안건	6	세일	2
35	웅지	1	워드	1	안진	10	세현	2
36	워드	1	이정	1	열린	1	신성	2
37	이정	1	이지	1	우리	3	신영	2



38	이촌	1	이촌	1	위드	1	신우	8
39	인덕	2	인덕	2	이정	1	신원	3
40	인일	1	인일	1	이촌	1	신정	2
41	일신	1	정연	1	인덕	2	신한	15
42	정연	1	정일	1	인일	1	신화	3
43	정일	1	제원	2	일신	1	안진	62
44	제원	3	지성	1	정연	1	열린	2
45	충정	1	참	1	정일	1	우리	7
46	하나*	2	천지	2	제원	3	우림	2
47	한길	1	충정	1	참	1	위드	2
48	한림	1	태영	1	천지	1	이정	2
49	화인경영	2	하나*	6	충정	1	이지	2
50			한길	2	태영	2	이촌	5
51			한림	1	하나*	9	인덕	4
52			한영	6	한길	1	인일	2
53			화인경영	2	한림	1	일신	2
54					한영	3	재정	1
55					화인경영	3	정동	2
56							정연	2
57							정일	2
58							정진	1
59							제원	4
60							제일	1
61							중앙	1
62							지성	1
63							지암	1
64							참	2
65							천지	1
66							청안	2
67							충정	3
68							태영	2
69							한경	1
70							한길	2
71							한림	2
72							한미	2
73							한영	61
74							한울	3
75							화인경영	6
76							효림	1
합 계		162		148		190		467

\* 선일, 세정, 하나회계법인은 피합병소멸법인

## 2002사업연도 자산규모 100대 상장기업 감사인 현황

(단위 : 원)

순위	회사명	결산기	자산*	감사인	회계법인매출액
1	국민은행	200212	171,498,841,000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2	하나은행	200212	74,420,016,474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3	조흥은행	200212	66,196,288,000	하나안진회계법인	77,934,000,000
4	중소기업은행	200212	65,036,349,000	하나안진회계법인	77,934,000,000
5	한국외환은행	200212	57,521,608,000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6	한국전력공사	200212	53,945,612,634	정부투자관리기본법적용 주식회사로 외감대상이 아님	
7	한미은행	200212	37,097,377,000	하나안진회계법인	77,934,000,000
8	삼성전자	200212	34,439,600,000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9	제일은행	200212	32,231,343,000	한영회계법인	63,483,000,000
10	케이티	200212	21,761,116,762	삼정회계법인	52,420,000,000
11	현대자동차	200212	20,867,273,000	하나안진회계법인	77,934,000,000
12	엘지카드	200212	19,425,709,443	안건회계법인	42,277,000,000
13	포스코	200212	17,244,485,877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14	대구은행	200212	16,020,457,912	안건회계법인	42,277,000,000
15	부산은행	200212	14,536,648,624	한영회계법인	63,483,000,000
16	에스케이	200212	13,825,620,764	안건회계법인	42,277,000,000
17	에스케이텔레콤	200212	12,721,218,264	안건회계법인	42,277,000,000
18	대한항공	200212	10,497,866,855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19	엘지전자	200212	10,132,578,000	2002년은 설립초년으로 외감대상이 아님	
20	경남은행	200212	9,975,847,075	하나회계법인	26,702,000,000
21	삼성화재해상보험	200203	9,867,828,287	삼정회계법인	52,420,000,000
22	현대중공업	200212	9,743,707,297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23	한국가스공사	200212	9,321,349,340	하나안진회계법인	77,934,000,000
24	기아자동차	200212	9,112,648,000	하나안진회계법인	77,934,000,000
25	하이닉스반도체	200212	9,068,757,222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26	광주은행	200212	8,046,934,182	하나회계법인	26,702,000,000
27	케이티프리텔	200212	8,033,227,036	하나안진회계법인	77,934,000,000
28	삼성물산	200212	7,962,504,079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29	우리금융지주	200212	7,389,150,584	하나회계법인	26,702,000,000
30	대우증권	200203	6,784,128,772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31	우리투자증권	200203	6,582,859,212	안건회계법인	42,277,000,000
32	에스케이네트웍스	200212	5,552,741,573	한영회계법인	63,483,000,000
33	한진해운	200212	5,505,909,274	한영회계법인	63,483,000,000
34	현대상선	200212	5,443,797,826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35	외환신용카드	200212	5,364,402,197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36	현대건설	200212	5,266,458,483	삼정회계법인	52,420,000,000
37	삼성증권	200203	5,119,339,562	하나안진회계법인	77,934,000,000
38	대우건설	200212	4,860,446,932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39	신한금융지주회사	200212	4,784,979,292	삼정회계법인	52,420,000,000
40	삼성중공업	200212	4,731,441,411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41	에스오일	200212	4,661,010,582	삼덕회계법인	15,691,000,000
42	효성	200212	4,588,748,911	안건회계법인	42,277,000,000
43	삼성에스디아이	200212	4,506,009,596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44	엘지.필립스 엘시디	200212	4,419,903,737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45	동양종합금융증권	200203	4,405,349,340	삼정회계법인	52,420,000,000
46	현대증권	200203	3,918,132,519	삼덕회계법인	15,691,000,000
47	케이티앤지	200212	3,916,170,910	안건회계법인	42,277,000,000
48	아이앤아이스틸	200212	3,887,874,281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49	현대해상화재보험	200203	3,866,644,686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50	엘지화학	200212	3,846,141,874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51	전북은행	200212	3,827,707,419	하나안진회계법인	77,934,000,000
52	신세계	200212	3,806,208,188	삼정회계법인	52,420,000,000

## 2002사업연도 자산규모 100대 상장기업 감사인 현황

(단위 : 원)

순위	회사명	결산기	자산*	감사인	회계법인매출액
53	대우조선해양	200212	3,555,467,506	안건회계법인	42,277,000,000
54	대신증권	200203	3,451,631,202	하나안진회계법인	77,934,000,000
55	금호산업	200212	3,390,942,030	안건회계법인	42,277,000,000
56	엘지화재해상보험	200203	3,348,429,144	한영회계법인	63,483,000,000
57	현대모비스	200212	3,262,981,733	하나안진회계법인	77,934,000,000
58	동부화재해상보험	200203	3,232,299,236	신한회계법인	19,238,000,000
59	쌍용양회공업	200212	3,191,197,508	신한회계법인	19,238,000,000
60	두산중공업	200212	3,094,314,077	안건회계법인	42,277,000,000
61	삼성전기	200212	3,079,796,137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62	엘지	200212	3,074,816,765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63	두산	200212	2,998,074,806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64	한화석유화학	200212	2,885,721,351	대주회계법인	24,639,000,000
65	데이콤	200212	2,877,544,808	하나안진회계법인	77,934,000,000
66	대림산업	200212	2,810,743,774	안건회계법인	42,277,000,000
67	동국제강	200212	2,717,939,889	한영회계법인	63,483,000,000
68	한진중공업	200212	2,709,029,365	한영회계법인	63,483,000,000
69	지에스건설	200212	2,661,892,355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70	씨제이	200212	2,612,241,260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71	현대산업개발	200212	2,542,448,926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72	산은캐피탈	200203	2,461,602,110	한영회계법인	63,483,000,000
73	한화	200212	2,377,848,137	하나안진회계법인	77,934,000,000
74	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200212	2,283,108,109	하나안진회계법인	77,934,000,000
75	쌍용자동차	200212	2,197,447,267	하나안진회계법인	77,934,000,000
76	동부제강	200212	2,186,598,637	한영회계법인	63,483,000,000
77	케이씨씨	200212	2,087,473,607	삼덕회계법인	15,691,000,000
78	현대하이스코	200212	1,999,000,354	삼정회계법인	52,420,000,000
79	동원증권	200203	1,951,186,862	하나안진회계법인	77,934,000,000
80	동양화재해상보험	200203	1,938,489,965	안건회계법인	42,277,000,000
81	한국타이어	200212	1,857,322,267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82	삼성테크윈	200212	1,852,315,466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83	코리안리재보험	200203	1,817,331,754	하나안진회계법인	77,934,000,000
84	제주은행	200212	1,800,648,356	안건회계법인	42,277,000,000
85	LS전선	200212	1,776,761,184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86	코오롱	200212	1,744,670,330	삼정회계법인	52,420,000,000
87	하이트맥주	200212	1,743,356,645	삼정회계법인	52,420,000,000
88	현대백화점	200212	1,740,196,684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89	대우인터내셔널	200212	1,691,277,429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90	한솔제지	200212	1,678,520,869	삼정회계법인	52,420,000,000
91	굿모닝신한증권	200203	1,657,283,922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92	제일모직	200212	1,623,577,766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93	태광산업	200212	1,589,074,703	신한회계법인	19,238,000,000
94	진로	200209	1,562,395,030	삼정회계법인	52,420,000,000
95	대우자동차판매	200212	1,544,394,852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96	한국개발금융	200203	1,498,308,010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97	대상	200212	1,483,361,003	한영회계법인	63,483,000,000
98	엘지상사	200212	1,455,766,472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99	에스케이씨	200212	1,436,950,483	삼정회계법인	52,420,000,000
100	대한전선	200212	1,412,341,990	삼일회계법인	250,837,000,000

\*자산규모 100대기업은 상장사협의회사자료로 단위는 천원임

## 2003사업연도 자산규모 100대 상장기업 감사인 현황

(단위 : 원)

순위	회사명	결산기	자산*	감사인	회계법인매출액
1	국민은행	200312	184,052,506,000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2	하나은행	200312	80,566,458,000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3	중소기업은행	200312	71,584,359,000	하나안진회계법인	62,768,000,000
4	한국외환은행	200312	62,603,331,000	삼정회계법인	65,965,000,000
5	조흥은행	200312	59,227,864,000	하나안진회계법인	62,768,000,000
6	한국전력공사	200312	56,469,661,910	정부투자관리기본법적용 주식회사로 외감대상이 아님	
7	한미은행	200312	43,001,228,000	하나안진회계법인	62,768,000,000
8	제일은행	200312	39,480,658,000	한영회계법인	57,363,000,000
9	삼성전자	200312	39,203,381,000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10	현대자동차	200312	24,250,145,000	하나안진회계법인	62,768,000,000
11	케이티	200312	19,573,181,000	삼정회계법인	65,965,000,000
12	포스코	200312	18,406,599,888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13	대구은행	200312	16,909,019,747	안건회계법인	37,823,000,000
14	부산은행	200312	16,354,570,609	한영회계법인	57,363,000,000
15	에스케이	200312	15,030,314,942	안건회계법인	37,823,000,000
16	대한항공	200312	14,115,168,547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17	에스케이텔레콤	200312	13,375,959,122	하나회계법인	39,642,000,000
18	엘지전자	200312	11,277,426,000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19	기아자동차	200312	11,211,132,000	하나안진회계법인	62,768,000,000
20	삼성화재해상보험	200303	11,095,209,354	삼정회계법인	65,965,000,000
21	엘지카드	200312	10,765,557,620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22	현대중공업	200312	10,604,056,876	하나안진회계법인	62,768,000,000
23	한국가스공사	200312	9,658,117,706	하나안진회계법인	62,768,000,000
24	삼성물산	200312	8,758,559,627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25	신한금융지주회사	200312	8,294,430,000	삼정회계법인	65,965,000,000
26	우리금융지주	200312	8,247,814,962	하나회계법인	39,642,000,000
27	케이티프리텔	200312	7,591,888,174	하나안진회계법인	62,768,000,000
28	하이닉스반도체	200312	6,906,051,941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29	엘지.필립스 엘시디	200312	6,214,082,000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30	엘지	200312	6,174,983,554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31	삼성중공업	200312	5,532,874,840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32	우리투자증권	200303	5,330,722,266	삼정회계법인	65,965,000,000
33	삼성에스디아이	200312	5,317,432,371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34	대우건설	200312	5,300,933,295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35	한진해운	200312	5,203,094,343	한영회계법인	57,363,000,000
36	삼성증권	200303	5,061,685,395	하나안진회계법인	62,768,000,000
37	에스케이네트웍스	200312	4,766,435,147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38	엘지화학	200312	4,761,747,858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39	동양종합금융증권	200303	4,756,667,106	삼정회계법인	65,965,000,000
40	에스오일	200312	4,755,986,914	삼덕회계법인	16,193,000,000
41	현대건설	200312	4,749,815,176	삼정회계법인	65,965,000,000
42	아이앤아이스틸	200312	4,677,873,864	삼정회계법인	65,965,000,000
43	현대해상화재보험	200303	4,401,691,975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44	효성	200312	4,394,084,228	안건회계법인	37,823,000,000
45	현대상선	200312	4,267,442,242	삼정회계법인	65,965,000,000
46	신세계	200312	4,239,478,673	삼정회계법인	65,965,000,000
47	전북은행	200312	4,154,571,301	하나안진회계법인	62,768,000,000
48	케이티엔지	200312	4,013,386,430	삼정회계법인	65,965,000,000
49	대우조선해양	200312	3,962,218,821	안건회계법인	37,823,000,000
50	현대모비스	200312	3,785,391,585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51	엘지화재해상보험	200303	3,746,812,528	하나안진회계법인	62,768,000,000
52	동부화재해상보험	200303	3,628,341,423	신한회계법인	22,419,000,000

## 2003사업연도 자산규모 100대 상장기업 감사인 현황

(단위 : 원)

순위	회사명	결산기	자산*	감사인	회계법인매출액
53	한진중공업	200312	3,547,476,000	한영회계법인	57,363,000,000
54	대우증권	200303	3,399,053,119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55	현대증권	200303	3,294,744,879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56	동국제강	200312	3,203,666,460	하나안진회계법인	62,768,000,000
57	대림산업	200312	3,048,099,993	안건회계법인	37,823,000,000
58	두산중공업	200312	3,036,927,139	안건회계법인	37,823,000,000
59	두산	200312	2,896,032,884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60	한화석유화학	200312	2,868,541,972	대주회계법인	28,308,000,000
61	쌍용양회공업	200312	2,850,153,619	신한회계법인	22,419,000,000
62	삼성전기	200312	2,813,860,958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63	케이씨씨	200312	2,732,909,457	삼덕회계법인	16,193,000,000
64	지에스건설	200312	2,690,432,140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65	대신증권	200303	2,578,306,551	하나안진회계법인	62,768,000,000
66	씨제이	200312	2,561,331,819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67	한화	200312	2,530,528,829	하나안진회계법인	62,768,000,000
68	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200312	2,530,076,117	하나안진회계법인	62,768,000,000
69	쌍용자동차	200312	2,529,664,098	하나안진회계법인	62,768,000,000
70	데이콤	200312	2,465,988,320	하나안진회계법인	62,768,000,000
71	현대산업개발	200312	2,342,431,669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72	코리안리재보험	200303	2,171,675,097	안건회계법인	37,823,000,000
73	동양화재해상보험	200303	2,150,525,359	안건회계법인	37,823,000,000
74	동부제강	200312	2,136,295,955	하나회계법인	39,642,000,000
75	금호산업	200312	2,107,458,975	안건회계법인	37,823,000,000
76	굿모닝신한증권	200303	1,996,991,771	삼정회계법인	65,965,000,000
77	산은캐피탈	200303	1,989,454,790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78	현대하이스코	200312	1,934,365,016	삼정회계법인	65,965,000,000
79	LS전선	200312	1,892,117,461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80	한국타이어	200312	1,861,741,531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81	하이트맥주	200312	1,848,980,997	삼정회계법인	65,965,000,000
82	코오롱	200312	1,821,076,602	삼정회계법인	65,965,000,000
83	제주은행	200312	1,785,961,000	삼정회계법인	65,965,000,000
84	한솔제지	200312	1,763,724,315	삼정회계법인	65,965,000,000
85	삼성테크윈	200312	1,704,823,345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86	현대백화점	200312	1,692,512,453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87	호남석유화학	200312	1,690,406,350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88	동원증권	200303	1,642,823,355	하나안진회계법인	62,768,000,000
89	대우인터내셔널	200312	1,636,650,724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90	대한전선	200312	1,631,445,551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91	제일모직	200312	1,598,921,660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92	대우자동차판매	200312	1,574,145,229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93	에스케이씨	200312	1,521,020,779	삼정회계법인	65,965,000,000
94	태광산업	200312	1,505,534,950	신한회계법인	22,419,000,000
95	엘지상사	200312	1,457,116,993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96	대상	200312	1,432,802,945	한영회계법인	57,363,000,000
97	금호석유화학	200312	1,415,344,108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98	두산건설	200312	1,409,322,226	한영회계법인	57,363,000,000
99	동양제철화학	200312	1,395,383,634	삼일회계법인	280,014,000,000
100	SK케미칼	200312	1,381,583,927	신한회계법인	22,419,000,000

\*자산규모 100대기업은 상장사협의회자료로 단위는 천원임

## 2004사업연도 자산규모 100대 상장기업 감사인 현황

(단위 : 원)

순위	회사명	결산기	자산*	감사인	회계법인대표	회계법인매출액
1	국민은행	200412	179,727,184,000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2	하나은행	200412	82,439,924,000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3	중소기업은행	200412	74,494,554,000	하나안진회계법인	양승우	85,862,000,000
4	한국외환은행	200412	61,306,110,000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81,751,000,000
5	한국전력공사	200412	58,917,324,116	정부투자관리기본법적용 주식회사로 외감대상이 아님		
6	삼성전자	200412	43,816,543,000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7	제일은행	200412	41,712,661,000	한영회계법인	오찬석	60,691,000,000
8	현대자동차	200412	24,700,854,000	하나안진회계법인	양승우	85,862,000,000
9	포스코	200412	21,367,060,180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10	케이티	200412	20,114,036,000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81,751,000,000
11	대구은행	200412	18,584,948,700	안건회계법인	이원희	38,112,000,000
12	부산은행	200412	17,134,385,558	한영회계법인	오찬석	60,691,000,000
13	에스케이	200412	14,859,953,269	안건회계법인	이원희	38,112,000,000
14	에스케이텔레콤	200412	14,020,704,654	하나안진회계법인	양승우	85,862,000,000
15	대한항공	200412	13,809,356,692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16	엘지전자	200412	13,234,241,000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17	삼성화재해상보험	200403	12,782,750,451	하나안진회계법인	양승우	85,862,000,000
18	현대중공업	200412	10,929,614,450	하나안진회계법인	양승우	85,862,000,000
19	기아자동차	200412	10,871,468,000	하나안진회계법인	양승우	85,862,000,000
20	한국가스공사	200412	10,090,450,069	하나안진회계법인	양승우	85,862,000,000
21	신한금융지주회사	200412	10,072,652,000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81,751,000,000
22	우리금융지주	200412	9,736,449,203	하나안진회계법인	양승우	85,862,000,000
23	엘지.필립스 엘시디	200412	9,598,693,000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24	삼성물산	200412	8,393,141,668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25	하이닉스반도체	200412	8,255,022,000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81,751,000,000
26	엘지카드	200412	8,217,358,000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81,751,000,000
27	케이티프리텔	200412	7,960,429,641	하나안진회계법인	양승우	85,862,000,000
28	삼성중공업	200412	7,475,568,376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29	삼성증권	200403	6,058,030,586	하나안진회계법인	양승우	85,862,000,000
30	아이앤아이스틸	200412	5,707,038,400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81,751,000,000
31	엘지화학	200412	5,679,528,549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32	삼성에스디아이	200412	5,664,486,138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33	에스오일	200412	5,545,661,724	삼덕회계법인	최홍배	17,364,000,000
34	대우조선해양	200412	5,378,379,532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81,751,000,000
35	대우건설	200412	5,216,865,370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81,751,000,000
36	한진해운	200412	5,039,290,818	한영회계법인	오찬석	60,691,000,000
37	현대해상화재보험	200403	4,957,786,584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38	신세계	200412	4,862,520,042	하나안진회계법인	양승우	85,862,000,000
39	우리투자증권	200403	4,666,797,000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81,751,000,000
40	현대모비스	200412	4,659,282,000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41	동양종합금융증권	200403	4,649,781,684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81,751,000,000
42	전북은행	200412	4,642,325,601	하나안진회계법인	양승우	85,862,000,000
43	현대건설	200412	4,526,621,698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81,751,000,000
44	에스케이네트웍스	200412	4,408,265,424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45	엘지	200412	4,349,106,521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46	효성	200412	4,326,243,680	안건회계법인	이원희	38,112,000,000
47	동부화재해상보험	200403	4,100,499,110	신한회계법인	이찬하	22,864,000,000
48	동국제강	200412	4,072,846,157	하나안진회계법인	양승우	85,862,000,000
49	대우증권	200403	4,057,503,091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50	엘지화학해상보험	200403	4,046,867,458	하나안진회계법인	양승우	85,862,000,000
51	현대상선	200412	4,015,015,209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81,751,000,000
52	케이티앤지	200412	3,885,011,669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81,751,000,000
53	두산중공업	200412	3,584,310,922	하나안진회계법인	양승우	85,862,000,000
54	대림산업	200412	3,509,664,802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55	한화	200412	3,384,245,709	하나안진회계법인	양승우	85,862,000,000
56	한진중공업	200412	3,339,067,000	한영회계법인	오찬석	60,691,000,000
57	지에스건설	200412	3,303,259,665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58	한화석유화학	200412	3,118,247,404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59	케이씨씨	200412	2,895,839,061	삼덕회계법인	최홍배	17,364,000,000



## 2004사업연도 자산규모 100대 상장기업 감사인 현황

(단위 : 원)

순위	회사명	결산기	자산*	감사인	회계법인대표	회계법인매출액
60	쌍용양회공업	200412	2,847,140,441	신한회계법인	이찬하	22,864,000,000
61	씨제이	200412	2,706,220,537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62	두산	200412	2,674,081,845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63	GS홀딩스	200412	2,664,555,306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81,751,000,000
64	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200412	2,629,300,498	하나안진회계법인	양승우	85,862,000,000
65	삼성전기	200412	2,612,591,937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66	쌍용자동차	200412	2,610,198,997	하나안진회계법인	양승우	85,862,000,000
67	현대증권	200403	2,596,199,955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68	현대산업개발	200412	2,495,291,604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69	코리안리재보험	200403	2,358,200,499	한영회계법인	오찬석	60,691,000,000
70	동양화재해상보험	200403	2,332,001,973	하나안진회계법인	양승우	85,862,000,000
71	호남석유화학	200412	2,318,300,811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72	대신증권	200403	2,298,010,246	하나안진회계법인	양승우	85,862,000,000
73	아남반도체	200412	2,288,741,905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74	금호산업	200412	2,287,785,172	안건회계법인	이원희	38,112,000,000
75	데이콤	200412	2,268,423,141	하나안진회계법인	양승우	85,862,000,000
76	LS전선	200412	2,259,857,535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77	굿모닝신한증권	200403	2,251,449,000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81,751,000,000
78	동부제강	200412	2,245,220,779	하나안진회계법인	양승우	85,862,000,000
79	현대하이스코	200412	2,136,101,474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80	두산산업개발	200412	1,897,477,434	한영회계법인	오찬석	60,691,000,000
81	한국타이어	200412	1,889,604,879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82	제주은행	200412	1,872,414,000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81,751,000,000
83	하이트맥주	200412	1,851,564,645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81,751,000,000
84	한솔제지	200412	1,741,326,091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81,751,000,000
85	삼성테크윈	200412	1,737,985,100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86	현대백화점	200412	1,702,154,185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87	코오롱	200412	1,675,115,591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81,751,000,000
88	금호타이어	200412	1,656,296,014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89	제일모직	200412	1,652,468,444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90	대우자동차판매	200412	1,640,812,513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91	금호석유화학	200412	1,626,702,597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92	대우인터내셔널	200412	1,622,774,223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93	태광산업	200412	1,622,574,991	신한회계법인	이찬하	22,864,000,000
94	대한전선	200412	1,602,561,022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95	제일상호저축은행	200406	1,520,189,453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96	산은캐피탈	200403	1,513,840,564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97	에스티엑스조선	200412	1,479,032,674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81,751,000,000
98	현대미포조선	200412	1,461,476,672	하나안진회계법인	양승우	85,862,000,000
99	에스케이씨	200412	1,438,068,679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296,265,000,000
100	풍산	200412	1,400,795,927	안건회계법인	이원희	38,112,000,000

\*자산규모 100대기업은 상장사협의회사자료로 단위는 천원임

# 2005사업연도 자산규모 100대 상장기업 감사인 현황

(단위 : 원)

순위	회사명	결산기	자산*	감사인	회계법인대표	회계법인매출액
1	국민은행	200512	179,593,649,000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2	기업은행	200512	85,519,361,000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3	한국외환은행	200512	64,950,976,000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106,620,000,000
4	한국전력공사	200512	61,626,841,091	정부투자관리기본법적용 주식회사로 외감대상이 아님		
5	삼성전자	200512	50,538,770,000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6	현대자동차	200512	26,561,220,000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7	포스코	200512	24,206,949,907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8	대구은행	200512	19,623,959,286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106,620,000,000
9	부산은행	200512	19,049,884,476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10	케이티	200512	17,936,509,000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106,620,000,000
11	SK	200512	17,509,207,571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12	삼성화재해상보험	200503	16,380,819,687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13	SK텔레콤	200512	14,521,676,459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14	LG전자	200512	14,036,440,000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15	대한항공	200512	13,568,643,868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16	엘지.필립스 엘시디	200512	12,995,915,000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17	신한지주	200512	12,462,131,000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106,620,000,000
18	우리금융지주	200512	12,031,782,878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19	현대중공업	200512	11,593,108,115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20	한국가스공사	200512	11,316,497,309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21	기아자동차	200512	11,241,785,000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22	하이닉스반도체	200512	10,265,400,752	한영회계법인	오찬석	100,250,000,000
23	삼성물산	200512	10,125,487,868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24	LG카드	200512	9,084,233,724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25	우리투자증권	200503	8,929,999,000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106,620,000,000
26	롯데쇼핑	200512	8,391,352,172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27	KTF	200512	8,200,171,419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28	삼성증권	200503	7,013,358,566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29	삼성중공업	200512	6,827,640,411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30	대우증권	200503	6,496,225,728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31	현대제철	200512	6,395,983,934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106,620,000,000
32	동양증권증권	200503	6,353,627,951	한영회계법인	오찬석	100,250,000,000
33	하나금융지주	200512	6,324,423,000	한영회계법인	오찬석	100,250,000,000
34	현대해상	200503	6,271,937,261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35	S-Oil	200512	6,114,528,848	삼덕회계법인	최홍배	18,669,000,000
36	삼성SDI	200512	5,729,771,157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37	신세계	200512	5,719,205,361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38	대우건설	200512	5,601,512,693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106,620,000,000
39	LG화학	200512	5,593,399,000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40	현대모비스	200512	5,454,148,000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41	현대증권	200503	5,453,469,748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42	LIG손해보험	200503	5,369,149,488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43	대우조선해양	200512	5,255,292,477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106,620,000,000
44	SK네트웍스	200512	5,228,066,987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45	전북은행	200512	5,170,944,246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46	현대건설	200512	5,122,698,491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106,620,000,000
47	두산중공업	200512	4,906,151,941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48	동부화재해상보험	200503	4,832,457,664	신한회계법인	이상문,최종만	24,943,000,000
49	현대상선	200512	4,814,237,175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106,620,000,000
50	한진해운	200512	4,799,689,783	한영회계법인	오찬석	100,250,000,000
51	LG	200512	4,796,383,867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52	케이티앤지	200512	3,964,413,672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106,620,000,000
53	효성	200512	3,952,694,209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106,620,000,000
54	대림산업	200512	3,915,677,892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55	대신증권	200503	3,868,566,502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56	동국제강	200512	3,855,355,971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57	GS건설	200512	3,825,836,715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106,620,000,000
58	한진중공업	200512	3,518,550,000	한영회계법인	오찬석	100,250,000,000
59	한화	200512	3,447,499,780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60	케이씨씨	200512	3,397,617,645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106,620,000,000
61	메리츠화재	200503	3,110,006,760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62	현대산업개발	200512	3,019,414,210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63	한화석유화학	200512	3,002,228,435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64	GS	200512	2,987,115,117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106,620,000,000



65	금호산업	200512	2,925,013,313	한영회계법인	오찬석	100,250,000,000
66	하이트맥주	200512	2,867,191,565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106,620,000,000
67	호남석유화학	200512	2,791,475,555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68	CJ	200512	2,790,156,721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69	코리안리	200503	2,777,442,365	한영회계법인	오찬석	100,250,000,000
70	삼성전기	200512	2,774,120,344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71	쌍용양회공업	200512	2,722,133,069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72	쌍용자동차	200512	2,708,841,274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73	두산	200512	2,606,988,672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74	현대미포조선	200512	2,533,012,769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75	LS전선	200512	2,467,421,000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76	두산인프라코어	200512	2,465,146,467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77	현대하이스코	200512	2,443,945,919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78	동부제강	200512	2,378,156,327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79	한국금융지주	200503	2,230,291,723	안진회계법인	양승우	147,717,000,000
80	동부일렉트로닉스	200512	2,214,425,690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106,620,000,000
81	금호타이어	200512	2,205,896,649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82	데이콤	200512	2,135,585,011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106,620,000,000
83	제주은행	200512	2,051,202,000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106,620,000,000
84	금호석유화학	200512	1,973,569,880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85	한국타이어	200512	1,953,541,666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86	신영증권	200503	1,909,911,573	신한회계법인	이상문,최종만	24,943,000,000
87	제일모직	200512	1,859,317,791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88	제일저축은행	200506	1,797,491,486	신한회계법인	이상문,최종만	24,943,000,000
89	두산산업개발	200512	1,764,364,836	한영회계법인	오찬석	100,250,000,000
90	현대백화점	200512	1,764,329,355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91	대우인터내셔널	200512	1,705,368,957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92	STX조선	200512	1,686,663,424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106,620,000,000
93	대한전선	200512	1,680,319,642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94	대우자동차판매	200512	1,673,602,196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95	솔로몬상호저축은행	200506	1,648,949,063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96	태광산업	200512	1,631,743,079	신한회계법인	이상문,최종만	24,943,000,000
97	롯데제과	200512	1,628,107,699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98	삼성테크윈	200512	1,624,359,051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311,345,000,000
99	한솔제지	200512	1,595,044,296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106,620,000,000
100	코오롱	200512	1,589,973,613	삼정회계법인	강성원	106,620,000,000



# 김 혁 규 의 원



# 1. 민원현황 및 처리내역

- 유형별(은행.보험.증권.기타)
- 세부내역별

## □ 최근3년간 금융권역별 · 유형별 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건 수	구성비
<b>은행 · 비은행</b>	<b>44,890</b>	<b>100.0</b>	<b>36,627</b>	<b>100.0</b>	<b>14,763</b>	<b>100.0</b>
담보 · 보증	2,594	5.8	2,008	5.5	750	5.1
여신	12,299	27.4	11,386	31.1	3,536	24.0
예 · 적금	1,607	3.6	1,574	4.3	702	4.8
신용카드	17,774	39.6	9,672	26.4	3,088	20.9
신용정보	3,496	7.8	2,931	8.0	1,145	7.8
기타 <sup>주)</sup>	7,120	15.8	9,056	24.7	5,542	37.5
<b>보 험</b>	<b>16,537</b>	<b>100.0</b>	<b>21,243</b>	<b>100.0</b>	<b>12,115</b>	<b>100.0</b>
보험모집	2,975	18.0	4,944	23.3	2,671	22.0
계약성립 · 실효	1,520	9.2	1,424	6.7	646	5.3
고지 · 통지의무	732	4.4	840	4.0	577	4.8
보험금 지급 관련	3,308	20.0	3,341	15.7	1,929	15.9
보험금 산정 관련	3,248	19.6	3,359	15.8	1,610	13.3
장해 · 상해등급 적용	1,107	6.7	1,572	7.4	822	6.8
기타 <sup>주)</sup>	3,647	22.1	5,763	27.1	3,860	31.9

증권·투신	2,433	100.0	2,051	100.0	1,523	100.0
발행·유통시장 공시	431	17.7	136	6.6	80	5.3
회계 관련 질의	315	13.0	234	11.4	126	8.3
임의·일임매매	246	10.1	192	9.4	68	4.5
매매주문·부당권유	118	4.9	84	4.1	39	2.6
불공정거래조사	215	8.8	92	4.5	75	4.9
신탁상품·운용수익률 보장	88	3.6	77	3.7	38	2.5
기타 <sup>주)</sup>	1,020	41.9	1,236	61.3	1,097	72.0
합계	63,860	-	59,921	-	28,401	-

주) 기타는 상담성 민원, 제도 관련 질의 등

2. 2004년 이후 자산규모 상위 10개 상호저축은행 대출  
현황

- 대출유형별(신용, 주택담보 등), 대출자별(개인,기업),  
대출금액

☐ 상호저축은행 대출 현황

“<붙임\_대출현황> 참조”

<붙임\_대출현황>

1. 상호저축은행 대출운용처별 현황

(단위 : 억원)

금융회사명	04.6.말			05.6.말			06.6.말		
	기업대출	개인대출	기타대출	기업대출	개인대출	기타대출	기업대출	개인대출	기타대출
솔로몬	4,972	2,928	1,003	8,903	9,726	3,390	1,025	14,141	1,672
제일	9,277	3,470	132	12,879	11,341	3,425	44	14,810	0
HK	8,629	7,592	0	16,221	8,637	8,907	29	17,573	12
한국	7,434	841	38	8,313	9,315	1,739	983	12,038	6
부산	7,191	1,311	93	8,594	8,351	1,912	110	10,372	127
부산2	2,622	1,204	37	3,862	4,511	1,387	68	5,966	84
토마토	4,590	654	36	5,280	6,533	526	37	7,095	10
경기	2,347	360	769	3,475	2,508	476	773	3,756	836
진흥	5,277	326	760	6,364	7,364	461	828	8,653	744
미래	1,850	665	0	2,515	4,167	1,238	52	5,457	60

2. 상호저축은행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현황

(단위 : 억원)

금융회사명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04.6.말	05.6.말	06.6.말	04.6.말	05.6.말	06.6.말
솔로몬	7,100	6,627	4,898	1,411	1,774	1,813
제일	5,259	3,865	4,351	351	445	329
HK	8,500	9,337	6,297	1,002	1,961	2,264
한국	2,063	2,812	1,888	1,142	1,367	1,353
부산	2,330	3,133	4,037	187	345	309
부산2	1,496	3,359	6,344	28	89	120
토마토	1,224	1,105	570	83	162	146
경기	1,081	1,057	1,258	212	540	1,331
진흥	1,262	1,956	1,748	526	649	686
미래	775	1,930	2,904	886	1,192	1,189



금융회사명	2004년06월				2005년06월				2006년06월			
	대기업(b)-		개인(c)-		대기업(b)-		개인(c)-		대기업(b)-		개인(c)-	
	중소기업 (a)-금액	금액	기타(d)-금 액	액	중소기업 (a)-금액	금액	기타(d)-금 액	액	중소기업 (a)-금액	금액	기타(d)-금 액	액
	862,932	0	759,173	0	863,714	0	890,721	2,885	698,705	0	950,405	1,189
	472,202	25,028	292,765	100,327	972,576	0	339,006	102,469	1,638,865	5,000	196,271	167,158
	869,451	58,262	346,990	13,150	1,110,104	24,019	342,529	4,385	1,373,493	19,837	342,297	0
	527,735	0	32,630	76,042	736,381	0	46,148	82,801	850,807	0	43,022	74,379
	743,399	0	84,136	3,772	931,518	0	173,921	98,344	1,111,954	0	102,169	569
	719,076	0	131,061	9,310	835,054	0	191,170	10,995	1,066,222	0	79,401	12,727
	262,159	0	120,353	3,657	451,069	0	138,712	6,788	803,061	0	94,929	8,405
	234,671	0	35,961	76,889	250,791	0	47,554	77,288	713,043	0	43,100	83,635
	458,997	0	65,419	3,592	653,272	0	52,553	3,706	1,031,383	300	49,226	963
	185,037	0	66,464	0	410,196	6,500	123,788	5,200	685,524	0	109,878	5,995

### 3. 은행별 휴면예금\* 현황 ('04년 이후)

(단위 : 억원)

은행	'04년중	'05년중	'06.1~8월	누 계
경 남	10	9	—	19
광 주	—	10	—	10
국 민	262	296	29	587
기 업	65	53	—	118
농 협	70	397	—	468
대 구	59	20	—	79
부 산	8	30	—	37
산 업	4	4	—	8
수 협	6	5	6	17
신 한	98	138	—	236
외 환	98	84	—	182
우 리	92	106	68	266
전 북	36	10	7	54
하 나	83	95	2	180
씨 티	15	18	—	33
제 일	112	78	51	240
전 체	1,018	1,354	163	2,534

출 처 : 전국은행연합회 휴면예금통합조회시스템

※ 고객 청구권 소멸시효(5년)가 경과하여 은행이 잡이익으로 처리한 예금

#### 4. 2003년이후 각 은행별 BIS비율

☐ <붙임>참조

<붙임>

□ 2003년 이후 각 은행별 BIS 비율

	03년	04년	05년	06년 6말
조흥	8.87	9.40	10.94	
우리	11.23	12.20	11.65	11.48
제일	12.00	11.91	10.74	10.19
하나	11.17	11.83	13.29	11.67
외환	9.32	9.47	13.68	13.89
신한	10.49	11.94	12.23	11.74
한국씨티	10.98	12.42	15.03	14.24
국민	9.81	11.14	12.95	15.20
시중은행	10.34	11.31	12.51	12.74
대구	10.58	10.66	11.33	11.60
부산	11.66	10.84	12.25	11.61
광주	10.72	11.81	11.60	11.89
제주	10.96	10.91	11.71	12.22
전북	10.79	10.72	11.53	11.54
경남	11.69	11.34	10.59	11.42
지방은행	11.13	11.02	11.52	11.63
일반은행	10.40	11.29	12.43	12.65
산업	16.22	18.08	18.43	18.24
기업	9.88	11.17	11.11	11.16
수출입	14.41	12.86	13.87	12.71
농협	10.66	11.43	11.81	12.01
수협	11.71	11.21	12.59	11.96
특수은행	12.77	13.71	14.09	13.84
국내은행	11.16	12.08	13.00	13.05

\* 조흥은행은 '06.4.1 신한은행에 통합

## 5. 2004년 이후 대부업체 현황(등록, 제재, 취소현황)

### □ 대부업체 현황 : 아래 '등록 및 취소현황표' 참고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및 등록취소권한은 관할 시·도에 부여되어 있으며
- 동 현황에 대한 관리도 시·도에서 하고 있음

### 대부업 등록 및 취소현황

(단위 : 개)

구 분	등록업체 (누적)	등록취소 (누적)	직권취소(누적)	등록업체
04.12월	18,395	6,855	1,124	11,540
05.12월	25,947	11,391	2,701	14,556
06.6월	29,696	13,329	2,912	16,367

\* 동 자료는 서민금융이용자 보호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이 개별 시·도로부터 수집한 현황을 단순취합한 것임

## 6. 2004년, 05년, 06년(상반기) 증권사별 수익구조

### 6-1 전체수익 대비 수수료 수익 및 비수수료 수익 비율

### 6-2 미 업계 1위 증권사와 비교표

#### ☐ (별첨) 참조

- \* 증권회사는 3월 결산법인으로 2006회계연도 상반기(2006.4~2006.9월) 수수료 수입 내역은 증권회사가 11월 14일(분기종료후 45일 이내)까지 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제출일 현재 위원회에 자료가 없음

#### ☐ 국내 증권회사와 미국 주요 증권회사와의 수익구조 비교

	위탁매매	기업금융	펀드판매	자기매매	기타
국내 증권회사	71.3%	5.6%	14.6%	-	8.5%
미국의 주요 증권회사*	16.4%	54.9%	4.3%	11.9%	12.5%

주 : 2004회계연도 기준

- \* 미국의 주요 증권회사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회원사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증권회사 229사 기준

(별첨)

## &lt;증권회사별 수수료 수익내 위탁수수료 수익 비율&gt;

(단위 : 백만원)

증권사명	구분	FY04	FY05	FY06 1/4분기
교보증권	수탁수수료	77,869	112,959	23,056
	수수료수익	96,615	148,556	32,307
	비율	80.6%	76.0%	71.4%
굿모닝신한증권	수탁수수료	205,820	329,232	71,454
	수수료수익	239,428	366,275	80,487
	비율	86.0%	89.9%	88.8%
대신증권	수탁수수료	204,076	353,180	76,917
	수수료수익	215,289	370,224	92,680
	비율	94.8%	95.4%	83.0%
대우증권	수탁수수료	242,663	491,687	103,418
	수수료수익	291,251	653,803	127,448
	비율	83.3%	75.2%	81.1%
신영증권	수탁수수료	28,810	37,876	8,402
	수수료수익	35,723	75,864	21,386
	비율	80.6%	49.9%	39.3%
서울증권	수탁수수료	44,620	75,199	16,383
	수수료수익	53,275	104,184	27,345
	비율	83.8%	72.2%	59.9%
한양증권	수탁수수료	20,047	33,506	7,133
	수수료수익	27,172	48,286	11,464
	비율	73.8%	69.4%	62.2%
메리츠증권	수탁수수료	40,521	75,644	17,780
	수수료수익	46,734	83,856	21,572
	비율	86.7%	90.2%	82.4%
우리투자증권	수탁수수료	222,068	410,523	82,152
	수수료수익	295,693	499,265	108,524
	비율	75.1%	82.2%	75.7%
부국증권	수탁수수료	15,656	21,537	5,210
	수수료수익	17,714	30,543	6,989
	비율	88.4%	70.5%	74.5%
브릿지증권	수탁수수료	21,553	18,198	3,057
	수수료수익	29,786	19,792	3,769
	비율	72.4%	91.9%	81.1%
하나증권	수탁수수료	47,342	72,103	14,198
	수수료수익	72,406	96,245	25,526
	비율	65.4%	74.9%	55.6%

증권사명	구분	FY04	FY05	FY06 1/4분기
현대증권	수탁수수료	245,625	434,168	91,479
	수수료수익	272,823	475,941	102,654
	비율	90.0%	91.2%	89.1%
한화증권	수탁수수료	68,130	117,883	21,377
	수수료수익	81,242	132,464	24,676
	비율	83.9%	89.0%	86.6%
신흥증권	수탁수수료	16,359	25,218	5,973
	수수료수익	25,183	36,728	12,585
	비율	65.0%	68.7%	47.5%
유화증권	수탁수수료	5,818	9,185	1,912
	수수료수익	8,392	10,785	1,995
	비율	69.3%	85.2%	95.8%
동양종합금융증권	수탁수수료	90,302	144,364	33,896
	수수료수익	128,401	195,377	54,023
	비율	70.3%	73.9%	62.7%
SK증권	수탁수수료	68,995	119,413	24,208
	수수료수익	85,103	144,082	28,896
	비율	81.1%	82.9%	83.8%
KGI증권	수탁수수료	7,886	527	164
	수수료수익	10,506	3,197	881
	비율	75.1%	16.5%	18.6%
NH투자증권	수탁수수료	30,065	40,548	8,094
	수수료수익	34,558	45,391	10,116
	비율	87.0%	89.3%	80.0%
삼성증권	수탁수수료	245,273	406,809	88,652
	수수료수익	429,570	651,076	136,865
	비율	57.1%	62.5%	64.8%
동부증권	수탁수수료	33,618	63,369	16,849
	수수료수익	40,961	92,650	24,015
	비율	82.1%	68.4%	70.2%
한누리투자증권	수탁수수료	6,003	10,151	1,353
	수수료수익	20,217	26,124	17,581
	비율	29.7%	38.9%	7.7%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수탁수수료	52,637	82,530	19,538
	수수료수익	77,628	103,404	21,344
	비율	67.8%	79.8%	91.5%
푸르덴셜투자증권	수탁수수료	19,688	30,395	6,505
	수수료수익	116,026	127,912	33,388
	비율	17.0%	23.8%	19.5%



증권사명	구분	FY04	FY05	FY06 1/4분기
CJ투자증권	수탁수수료	28,116	50,144	11,792
	수수료수익	72,410	102,733	26,757
	비율	38.8%	48.8%	44.1%
한국투자증권	수탁수수료	52,848	272,631	64,101
	수수료수익	170,315	438,437	113,444
	비율	31.0%	62.2%	56.5%
대한투자증권	수탁수수료	47,302	54,307	13,440
	수수료수익	168,420	177,744	46,263
	비율	28.1%	30.6%	29.1%
리딩투자증권	수탁수수료	5,042	7,718	1,899
	수수료수익	5,669	8,223	2,378
	비율	88.9%	93.9%	79.9%
미래에셋증권	수탁수수료	74,497	142,433	31,083
	수수료수익	106,181	234,076	62,826
	비율	70.2%	60.8%	49.5%
비엔지증권중개	수탁수수료	3,801	5,450	1,453
	수수료수익	3,809	5,468	1,461
	비율	99.8%	99.7%	99.5%
키움닷컴증권	수탁수수료	46,611	96,515	21,830
	수수료수익	48,788	99,115	23,033
	비율	95.5%	97.4%	94.8%
이트레이드증권	수탁수수료	18,088	28,573	7,565
	수수료수익	18,535	30,851	8,127
	비율	97.6%	92.6%	93.1%
코리아RB증권중개	수탁수수료	3,460	5,897	1,467
	수수료수익	3,463	5,934	1,477
	비율	99.9%	99.4%	99.4%
흥국증권중개	수탁수수료	2,600	4,306	795
	수수료수익	2,600	4,306	800
	비율	100.0%	100.0%	99.4%
맥쿼리증권	수탁수수료	34,544	49,446	17,490
	수수료수익	34,843	55,568	17,633
	비율	99.1%	89.0%	99.2%
도이치증권	수탁수수료	120,518	72,048	15,802
	수수료수익	126,696	78,746	17,254
	비율	95.1%	91.5%	91.6%
케이아이디비채권중개	수탁수수료	3,780	2,655	834
	수수료수익	3,780	2,655	834
	비율	100.0%	100.0%	100.0%

증권사명	구분	FY04	FY05	FY06 1/4분기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	수탁수수료	54,580	69,777	17,629
	수수료수익	54,580	69,777	17,629
	비율	100.0%	100.0%	100.0%
비엔피파리바증권중개	수탁수수료	10,686	18,425	3,686
	수수료수익	10,686	18,425	3,686
	비율	100.0%	100.0%	100.0%
동원	수탁수수료	115,500	-	-
	수수료수익	161,290	-	-
	비율	71.6%		
우리	수탁수수료	43,359	-	-
	수수료수익	54,415	-	-
	비율	79.7%		
동양오리온투자신탁	수탁수수료	3,369	-	-
	수수료수익	17,737	-	-
	비율	19.0%		
크레디트스위스증권서울지점	수탁수수료	72,453	112,835	36,121
	수수료수익	87,109	128,589	39,538
	비율	83.2%	87.7%	91.4%
골드만삭스증권회사서울지점	수탁수수료	66,441	88,580	31,723
	수수료수익	84,380	117,073	33,819
	비율	78.7%	75.7%	93.8%
다이와증권SMBC서울지점	수탁수수료	5,318	11,011	2,523
	수수료수익	8,630	15,685	2,726
	비율	61.6%	70.2%	92.6%
메릴린치인터내셔널인코포	수탁수수료	66,104	100,500	27,380
	수수료수익	82,210	125,659	29,949
	비율	80.4%	80.0%	91.4%
모간스탠리인터내셔널증권	수탁수수료	77,608	112,610	38,780
	수수료수익	107,043	150,606	59,059
	비율	72.5%	74.8%	65.7%
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	수탁수수료	2,124	2,968	87
	수수료수익	3,831	5,301	512
	비율	55.5%	56.0%	17.0%
크레디아그리콜슈브르증권	수탁수수료	8,893	5,094	1,474
	수수료수익	8,893	5,094	1,474
	비율	100.0%	100.0%	100.0%
제이피모간증권회사	수탁수수료	48,136	79,636	20,328
	수수료수익	52,072	88,575	23,213
	비율	92.4%	89.9%	87.6%

증권사명	구분	FY04	FY05	FY06 1/4분기
에이비엔암로아시아증권	수탁수수료	23,945	26,832	8,123
	수수료수익	29,920	35,873	8,977
	비율	80.0%	74.8%	90.5%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증권	수탁수수료	26,629	33,242	9,738
	수수료수익	57,147	74,988	15,975
	비율	46.6%	44.3%	61.0%
홍콩상하이증권	수탁수수료	5,455	5,197	9,738
	수수료수익	7,271	7,277	1,672
	비율	75.0%	71.4%	582.4%
노무라	수탁수수료	8,641	11,245	3,199
	수수료수익	8,802	13,242	3,310
	비율	98.2%	84.9%	96.6%
에스지증권	수탁수수료	11,619	4,304	4,357
	수수료수익	11,619	4,304	4,357
	비율	100.0%	100.0%	100.0%
유비에스	수탁수수료	98,346	186,664	49,582
	수수료수익	111,138	207,974	52,545
	비율	88.5%	89.8%	94.4%

## 7. 2003년 이후 신용불량자 현황

- 성별, 연령별, 금융기관별, 금액별

※ 본 자료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생성·작성한 자료임

### 3. 2006년 이후 신용불량자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은행연합회는 '05.4.28. 신용불량제도가 폐지된 이후 관련통계를 작성하고 있지 않음

#### 1) 성별 신용불량자 현황

(단위 : 천명)

성별	'03.12.	'04.12.
남	2,237	2,097
여	1,483	1,518
계	3,720	3,615

#### 2) 연령별 신용불량자 현황

(단위 : 천명)

연령	'03.12.	'04.12.
20대	736	641
30대	1,132	1,140
40대	1,103	1,118
50대	454	463
60대이상	295	253
인원	3,720	3,615

### 3) 금융기관별 신용불량자 현황

(단위 : 천명)

	'03.12.	'04.12.
은행	1,900	2,186
증권	702	609
보험	228	269
저축은행	550	884
카드	1,785	1,407
할부금융	794	790
금융권 전체합계	3,720	3,605

### 4) 금액별 신용불량자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03.12.	'04.12.
50만원 미만	226	199
100만원 미만	154	159
300만원 미만	488	475
500만원 미만	325	317
1000만원 미만	571	513
1000만원 이상	1,956	1,952
계	3,720	3,615



김 현 미 의 원





## 1. 최근 3년간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현황

☐ 세부내역

“ 불임 참조 ”

## 휴면예금<sup>1)</sup> 현황

(건,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3말 <sup>1)</sup>	환급 <sup>2)</sup>
우리	계좌수	1,972,487	506,961	915,300	919,141	2,341,402	8,440
	금 액	21,153	5,844	9,193	10,565	25,602	437
제일	계좌수	△2,089	1,066,985	1,058,157	617,217	2,742,359	3,254
	금 액	△30	18,741	11,159	7,769	37,669	383
하나	계좌수	1,265,898	2,590,681	728,987	623,585	3,943,253	6,275
	금 액	9,366	27,010	8,337	9,527	44,874	495
외환	계좌수	606,879	518,270	1,138,379	736,631	2,393,280	2,989
	금 액	12,166	7,195	9,795	8,396	25,387	148
신한	계좌수	1,392,147	1,258,271	1,332,678	1,310,773	3,901,722	3,457
	금 액	16,537	15,644	9,783	13,828	39,255	270
씨티	계좌수	184,577	n/a	n/a	n/a	n/a	n/a
	금 액	659	n/a	n/a	n/a	n/a	n/a
국민	계좌수	2,170,259	2,774,153	2,585,817	2,020,070	7,586,849	16,667
	금 액	11,330	25,475	26,167	29,631	82,558	1,960
대구	계좌수	157,168	165,369	903,842	73,410	1,142,621	44,620
	금 액	2,127	1,910	5,886	1,970	9,765	1,720
부산	계좌수	135,472	0	69,246	509,065	578,311	207
	금 액	2,015	0	765	2,977	3,742	17
광주	계좌수	1,834	189,113	0	230,826	419,939	216
	금 액	149	1,008	0	1,018	2,027	3
제주	계좌수	25,614	n/a	n/a	n/a	n/a	n/a
	금 액	135	n/a	n/a	n/a	n/a	n/a
전북	계좌수	87,979	47,759	298,947	96,173	442,879	431
	금 액	375	282	3,636	1,038	4,956	50
경남	계좌수	130,597	124,704	134,633	112,359	371,696	203
	금 액	1,194	892	965	913	2,770	9
산업	계좌수	32,429	22,081	18,621	11,760	52,462	98
	금 액	232	397	396	403	1,196	10
기업	계좌수	672,680	642,603	671,529	602,006	1,916,138	3,843
	금 액	7,498	4,536	6,516	5,306	16,357	160
농협	계좌수	888,789	772,951	1,042,191	2,154,889	3,970,031	5,337
	금 액	5,117	4,997	7,045	39,729	51,771	397
수협	계좌수	108,605	55,215	47,193	35,022	137,430	192
	금 액	1,043	617	593	519	1,730	29
합계	계좌수	9,831,325	10,735,116	10,945,520	10,052,927	31,940,372	96,229
	금 액	91,064	114,549	100,236	133,590	349,660	6,089

주 1) 연도별 휴면예금중 2003년 이후는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 집계된 자료.  
2002년 자료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가동전 각 은행부터 징구 받은 자료. 2006.3말은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 집계된(2003~2006.3말) 누계임

2) 환급분은 조회시스템 가동 후 환급실적('06.4.27~6.30)

\* 전산화추진중인 관계로 한국씨티('06.7월이후), 제주은행('06.12월 이후)은 집계 불가

(붙임1)

## 증권회사별 통합(휴면)계좌 현황

(단위 : 좌, 백만원)

증권회사	2002년 3월말(*)		2003년 3월말(*)		2004년 3월말(*)		2005년 3월말(*)		2005년 6월말(**)		2006년 6월말(**)	
	계좌 수	계좌 잔액	계좌 수	계좌 잔액	계좌 수	계좌 잔액	계좌 수	계좌 잔액	계좌 수	계좌 잔액	계좌 수	계좌 잔액
대신증권	709,923	3,464	526,805	3,595	527,325	3,839	561,924	4,106	381,648	19,930	146,194	18,652
대우증권	670,061	5,087	782,009	6,120	669,469	5,616	656,029	5,438	248,869	730	359,787	932
삼성증권	217,425	1,162	217,425	1,162	223,447	1,301	569,296	4,282	258,436	10,452	5,237	25
현대증권	38,584	256	858,304	1,273	1,394,079	4,151	1,089,206	3,930	372,580	11,700	437,351	18,449
LG투자증권	214,881	1,501	468,391	3,629	509,656	4,218	571,710	4,990	572,644	25,635	-	-
동양증권증권	269,059	1,600	267,885	1,580	266,889	1,565	266,194	1,553	49,466	6,118	79,510	8,696
대한투자증권	1,102,231	3,001	1,291,970	2,892	1,374,965	2,762	183,780	2,576	2,306	49	921	18
한국투자증권	459,607	2,669	454,266	2,950	500,468	3,546	486,160	3,687	269,202	1,175	412,459	11,190
푸르덴셜투자증권	372,475	2,688	389,499	2,915	424,634	4,822	347,915	2,632	4,208	43	198	3
교보증권	70,886	390	83,694	444	238,869	414	251,639	421	45,690	1,347	60,699	1,646
굿모닝신한증권	229,576	1,314	229,614	1,315	393,896	3,084	290,398	2,351	17,344	1,133	261,094	2,511
동부증권	27,553	168	32,892	193	33,852	219	39,632	267	9,681	228	10,611	296
동원증권	-	-	-	-	627,241	1,289	666,250	1,565	-	-	-	-
브릿지증권	-	-	67,946	478	71,693	918	28,149	207	36,314	254	61,230	1,940

메리츠증권	55,994	330	55,398	320	145,193	542	143,964	514	8,093	1,428	9,231	1,661
미래에셋증권	-	-	-	-	-	-	-	-	-	-	10,285	218
부국증권	58,597	366	64,255	440	68,603	506	72,696	533	57,838	1,412	65,440	1,330
씨티그룹글로벌 마켓증권	108	2	127	2	128	2	131	2	129	8	141	2
서울증권	78,242	563	77,386	536	74,271	542	70,748	500	21,996	2,056	22,161	866
NH투자증권	151,886	974	202,610	1,201	232,604	1,266	102,190	2,265	40,346	152	53,936	309
신영증권	69,181	507	50,229	392	66,617	473	16,306	66	-	-	78,137	-
신흥증권	27,762	225	33,207	254	40,130	297	33,540	249	11,290	354	13,860	404
유화증권	-	-	63,884	410	70,577	468	72,851	474	64,032	408	51,168	714
CJ투자증권	5,856	32	6,649	42	21,273	130	2,674	30	24,495	167	31,381	94
KGI증권	33,145	206	32,645	198	33,658	203	1,640	17	1,964	101	2,037	107
키움닷컴증권	-	-	-	-	-	-	-	-	192	2	10,291	4
하나증권	48,480	380	51,032	394	53,292	412	56,472	392	14,488	487	15,452	272
한누리투자증권	-	-	-	-	36	0	37	0	36	0	740	41
우리증권	143,574	713	142,687	707	280,055	845	131,954	730	-	-	667,866	27,402
한양증권	32,527	385	36,656	280	36,901	279	52,257	374	14,389	585	26,088	809
한화증권	705,134	1,819	731,230	1,485	709,574	1,302	716,904	1,194	234,648	1,239	140,020	1,105

SK증권	192,628	1,242	220,348	1,967	217,376	1,564	237,516	1,626	167,062	2,442	302,859	1,059
모아증권	71	1	174	2	-	-	-	-	-	-	-	-
비엔지증권	50	1	91	1	26	0	119	1	125	1	49	1
코리아 RB증권	362	4	529	5	730	7	829	8	39	1	314	6
피데스증권	-	-	-	-	10	0	17	0	17	0	-	-
동양오리온투신 증권	9,038	2	3,817	2	76	0	48,342	47	0	0	-	-
리딩투자증권	90	1	201	2	566	4	1,668	5	1	0	111	-
이트레이드증권	1	0	62	0	3,648	25	3,424	24	5	0	261	3
KIDB채권중개	-	-	-	-	-	-	-	-	-	-	-	-
도이치증권	-	-	-	-	-	-	129	-	0	0	-	-
BNP	-	-	-	-	-	-	-	-	-	-	-	-
파리바페레그린 증권중개	-	-	-	-	-	-	-	-	-	-	-	-
CLSA 코리아증	-	-	-	-	-	-	-	-	-	-	-	-
<b>합계</b>	<b>5,994,987</b>	<b>31,051</b>	<b>7,443,917</b>	<b>37,186</b>	<b>9,311,827</b>	<b>46,613</b>	<b>7,774,690</b>	<b>47,057</b>	<b>2,929,574</b>	<b>89,639</b>	<b>3,337,119</b>	<b>100,765</b>

\*2002.3월말-2005.3월말 : 통합계좌기준  
 통합계좌는 증권업협회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등에 관한규정」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보유잔액·잔량이 다음에 해당하고, 최근 6월간 매매거래 및 인출 등이 중단되어 통합관리되고 있는 고객계좌를 의미

- 10만원 이하의 고객 예수금
- 상장 및 코스닥상장폐지된 주권의 평가금액
- 평가금액 10만원 이하 수익증권

\*\*2005.6월말-2006.6월말 : 휴면계좌기준  
 휴면계좌는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최근 5년간 금융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함.

(단위 : 천건, 여원)

—786—

[illegible]

동양화재	36	29	15	23	9	16	42	36	14	27	8	20	48	42	15	31	6	12	57	62	15	55	6	19	66	98
신동아 화재	26	29	7	20	3	15	30	34	7	17	3	13	34	38	5	12	4	13	36	38	5	17	2	6	38	49
대한화재	13	23	6	15	1	4	20	37	5	13	4	10	20	40	4	14	1	5	23	48	4	15	5	23	22	40
그린화재	11	9	6	9	2	4	14	13	4	7	3	7	15	13	3	8	2	3	16	17	3	6	2	2	16	20
흥국생명 화재	37	29	8	11	6	10	36	29	9	11	1	5	44	35	13	14	3	9	54	41	16	19	3	9	65	44
제일화재	36	24	8	14	3	5	41	33	11	23	7	18	45	38	12	25	3	11	54	52	12	30	4	11	60	68
삼성화재	97	120	53	134	35	134	117	124	66	143	49	114	134	153	83	218	61	176	156	194	98	314	48	243	206	266
현대해상	55	47	23	53	14	44	64	56	26	64	27	67	63	53	26	83	27	66	63	70	26	99	24	82	65	87
LIG손해	49	52	26	47	14	36	61	63	20	48	15	37	66	74	21	64	14	43	74	95	20	80	15	63	77	105
동부화재	81	59	29	47	10	27	100	79	25	43	25	46	100	75	32	65	12	26	119	115	27	79	11	35	134	159
교보 자동차	-	-	-	-	-	-	-	-	-	-	-	-	-	-	0	0	-	-	0	0	-	-	-	0	0	0
합계	440	421	182	372	96	294	525	504	187	395	143	338	569	561	214	533	131	364	652	731	225	715	119	492	750	935

1) 2002.3 부터 휴면보험금 보고를 받음



□ 상호저축은행의 휴면예금 현황 (계좌수, 금액 등)

(단위 : 좌, 백만원)

2002		2003		2004		2005		2006*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계좌수	금액
43,585	149	75,308	285	137,232	409	96,876	446	115,430	467

\* 자산상위 10개 상호저축은행 기준

□ 신탁 휴면예금 현황 ('06.6.말 현재)

(단위: 백만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말 현재 잔액
발생*	소멸**	발생	소멸	발생	소멸	발생	소멸	
n.a.	n.a.	n.a.	n.a.	16,868	11	17,351	80	20,772

\* 각 연도별 12월말 현재 휴면예금 잔액

\*\* 각 회계연도중 휴면계좌의 잠이익 처리 현황

## 2.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현황(감사의 주체, 제도적 근거)

- ☐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외부감사(품질관리감리)에 대한 현황  
: <붙임> 참고

<붙임>

## 품질관리 감리제도 현황

구분	감리 주체	비고
'06년 이전	한국공인회계사회	'01. 6. 8 외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품질관리 감리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로 인해 '04년에 처음으로 감리 실시
'06년 이후	증선위/금감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06. 3. 10 외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향력이 큰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는 증선위/금감원이 직접 수행하고 기타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는 한국 공인회계사회에 위탁

\* 근거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관계법규

###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5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등) ①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②삭제

③이 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⑤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제5조제2항·제15조의2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중 일부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리업무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⑥삭제

###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① ~ ② <생략>

③ 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사인의 업무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감리업무(이하 "품질관리감리업무"라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제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위임등)

#### ① ~ ② <생략>

③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4.4.30, 1994.12.23, 1997.3.22, 1998.4.24, 2001.6.8, 2005.6.30, 2006.3.10>

##### 1. 삭제 <1998.4.24>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권한

2의2. 품질관리감리업무 중 감사인의 감사수행 현황 및 소속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업무

3.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권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자료제출요구권

4.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권한

#### ④~⑦ 생략

###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49조 (품질관리감리의 실시) ① 증선위는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사인이 감사하는 상장법인의 수, 감리실시 후 경과연수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감사인을 대상으로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감리(이하 “품질관리감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6.29>

② 증선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6.6.29>

1. 금감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금감위·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 또는 이해관계자의 제보 등을 통하여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현저히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외국 감독기관이 특정 감사인에 대하여 공동검사 등을 요청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는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감사인이 구축한 품질관리제도의 적정성과 감사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동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으로 구성된다. <신설 2006.6.29>

### 3. 은행 대출시 근저당설정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 이에 관련하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현황 일체

#### ☐ 은행의 근저당설정비용 관련 민원 현황('02~'06.8)

(단위 : 건)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8월
근저당 설정비용 관련 민원 건수	12	8	21	12	5

#### ☐ 근저당 설정비용 관련 민원 사례

- 부동산 담보대출시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출자가 부담
- 동일 담보물에 대한 만기연장시 근저당설정비 부담
- 대출금 중도상환시 대출자로부터 근저당설정비용 징수
- 담보대출 신청후 자격미달로 대출받지 못했으나, 저당권이 설정되고 저당권설정비 요구



#### 4.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규정

“붙임 참조”

(붙임) -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규정

##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5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등) [전문개정 1989.12.30]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의 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8.1.8>

제15조의2 (자료의 제출요구등) [전문개정 1989.12.30]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관계회사 및 계열회사와 감사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회사·관계회사 및 계열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8.1.8, 2001.3.28>

제16조 (감사인등에 대한 조치등) [전문개정 1989.12.30]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6.12.30, 1998.1.8, 2001.3.28>

1. 제3조제2항·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등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51조 (조사) [전문개정(§52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① 증선위는 감리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질문서·문답서 등에 의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 <개정 2004.6.16>
2. 법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3. 법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협조요청 <개정 2001.4.18>

② 생략

제52조(감리결과등의 처리) 증선위위원장은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위반등 법 위반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 절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결과보고 및 처리안을 작성하여 증선위에 부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53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개정 2004.6.16 >

제53조(감사인에 대한 조치) ①증선위는 감사인이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장관에의 처분건의<개정 2001.4.18>
  - 가. 회계법인의 등록취소
  - 나. 회계법인에 대한 1년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다. 감사반의 등록취소<개정 2005.6.29>
2. 삭제 <2005.6.29>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개정 2005.6.29>
4. 영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감

사인의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 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5. 경고 또는 주의<개정 2005.6.29>

6. 시정요구, 각서(회계감사기준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제출요구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신설 2005.6.29>

[전문개정(§54조에서 조문 변경·이관) 2000.12.8]

② 삭제 <2005.6.29>

③ 삭제 <2005.6.29>

## 5. 회계법인 품질감리관리 관련

- 제도의 도입취지 및 도입사유
- 제도시행 개요 및 경과
- 제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추진계획
-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사협회의 감리제도와 비교
- 제도시행의 기대효과

### [제도의 도입 취지 및 도입 사유]

□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를 독립적인 감독당국이 직접 실시하여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 예방적 회계감독기능을 강화하고

○ 공적기관에서 회계법인을 직접 감독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는 한편

-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 감독당국과 공동검사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관리감리제도를 도입한 것임

※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미국의 상장기업을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회계법인에 대하여 최소한 3년에 한 번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 바,

- 현재 미국 PCAOB와 공동검사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 [제도시행 개요 및 경과]

- '06. 3. 10 외감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선위/금감원이 품질관리 감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06년 5월 금감원에 품질관리감리팀을 신설
- 상장회사(코스닥 상장법인 포함)에 대한 감사인중 시장영향력이 큰 감사인\*(24개 감사인)을 대상으로 감독당국이 품질관리 감리를 직접 실시하고 그 외 감사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 \* 다수의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감사인, 규모가 큰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감사인, 다수의 회계사가 소속된 감사인 등
- 품질관리감리 실시주기는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상장법인의 수, 감리담당 인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 시장영향력이 큰 대형 회계법인에 대하여 보다 자주 실시 예정 (예 : 2~3년)

## [제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추진계획]

- '06년 하반기에 pilot-test를 실시한 후 업무매뉴얼을 보완하여 '07년부터 품질관리감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
- 품질관리감리 실시내용은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구축한 '품질관리제도의 적정성'과 실제 업무 수행시 '동 제도의 적절한 운영 여부'에 대한 점검으로 구성
  - 품질관리감리의 점검사항은 경영진의 운영책임,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임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제도의 구축 및 운영여부임

- 품질관리감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인의 특정 조직, 특정 업무부문, 또는 특정 항목에 한하여 제한적 감리도 실시 예정
- 품질관리감리는 재무제표의 1차 검증자인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수준 향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 품질관리감리의 결과처리는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감사인의 품질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있어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일정 기간(예. 1년) 자체 보완기회를 부여 하고

-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제재는 감사인의 자체 보완 여부에 따라 추후 부과하는 방안 검토 중

####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사협회의 감리제도와 비교]

□ 품질관리감리의 실시내용(위 6가지 항목에 대한 '품질관리제도의 적정성'과 '동 제도의 적절한 운영여부에 대한 점검)과 결과처리 방법은 동일함

- 다만 감리대상 회계법인 등의 규모에 따라 실시주기와 실무 매뉴얼은 적절히 조정될 예정임

#### [제도시행의 기대효과]

□ 회사의 재무정보가 이용자에게 공시되기 전인 외부감사 단계에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므로

○ 부실감사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 사전적 투자자 보호기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글로벌스탠더드에 걸맞는 회계감독제도를 구축함에 따라 우리 자본 시장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우리 회계법인이 ‘업무수임 경쟁’에서 ‘감사품질 경쟁’으로 전환토록 유도하여 감사인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 박 계 동 의 원



1. 역모기지론 활성화 방안 관련

- 2006년 2월 발표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 은행별 역모기지 가입자 수, 가입액
- 리스크가 클 것이라는 시각에 대한 금감위 입장 및 대책

☐ 2006년 2월 16일 재경부 발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 불임

☐ 은행별 역모기지 가입자 수 및 가입액 : 불임(주택금융공사 작성)

☐ 종신거주가 가능한 진정한 역모기지론의 주요 리스크는 주택가격 하락 위험, 장수(長壽) 위험 등이 있는데, 금년 하반기중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하여 공적보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할 예정임.

불 임 : 1.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06.2.16, 재경부)

2. 은행별 역모기지 가입자 수 및 가입액.

이 자료는 2006.2.16(목요일) 09: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 道 參 考 資 料	생 산 일	2006년 2월 16일
		생산부서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담당과장	정은보(2110-2677)
		담 당 자	김이한(2110-2447)

## 題 目 :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발표

-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2.16(목) 07:30 국회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였음

\* 열린우리당 참석자: 강봉균 정책위의장, 송영길 수석부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재경위원

###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이번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은 2005. 1.21 제57차 국정  
과제회의(대통령 주재)에서 선정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의 주요과제로 추진한 것임

-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  
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  
후소득지원을 위해 역모기지 활성화 여건 조성 필요

- 현재 일부 금융기관에서 역모기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임

- 금융기관은 주택가격과 금리변동, 계약자의 장수 등의  
위험부담으로 인해 종신상품 취급을 기피하고,

- 고령자는 만기이후 강제퇴거를 우려하여 이용을 기피

□ 이에 정부는 고령자의 복지지원 차원에서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추진

① 중산·서민층 고령자 지원을 위해 대상주택의 범위에서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설계

- 대상자: 부부가 모두 만65세 이상인 고령자(1세대 1주택)
- 대상주택: 주택가격(과세기준) 6억원이하, 대출한도 3억원이하

②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을 통해 주택 가격과 금리 변동, 계약자 장수 등으로 인한 위험을 경감

③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신지급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주거안정과 노후소득을 보장

- 세제지원은 서민층 고령자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택가격(3억원 이하), 주택규모(국민주택규모이하), 소득 수준(연간 1,200만원 이하)을 추가로 제한

- \* i) 근저당 설정금액에 대한 등록세 면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
- ii) 역모기지 이용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 iii)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 iv) '역모기지 보증기금' 보증보험료수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등

□ 금년 중 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가급적 2007년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예정임

※ [첨부]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 본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당정협의 개최 전에 마련된 것으로서 실제 협의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달라진 내용은 별도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財 政 經 濟 部

政 策 弘 報 管 理 室 長

정례당정협의 자료

##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2006. 2. 16

재 정 경 제 부

## 목 차

### I. 추진배경

### II. 역모기지 현황 및 문제점

### III.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1. 역모기지 상품설계
2. 역모기지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3. 역모기지 이용자에 대한 세제지원
4. 역모기지 교육 및 정보인프라 구축

### IV. 향후 추진계획

## I. 추진배경

- ◇ '05.1.21 제57차 국정과제회의(대통령주재)에서 「고령친화 산업 활성화 전략」 주요과제로 '역모기지 활성화' 선정
  - \* '06~'07년간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 '08년까지 역모기지 보증기구 설립 추진
- ◇ 역모기지 활성화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위원장)에서 수립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의 핵심과제

□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

- \* 2000년 고령화(65세이상 비중 7%)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18년 후인 2018년 고령사회(65세이상 14%)에 도달할 전망  
[미국: 72년(1943→2014), 일본: 24년('70→'94), 프랑스 115년(1864→1979)]

□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고용안정성의 약화 및 연금 기능의 미흡으로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 등 심화 예상

### ① 고령자는 심각한 노후생활비 부족\*에 직면

- \* '04년 기준 45세인 근로자(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경우, 60~83세 동안 노후 생활·의료비에 비해 연금소득이 연간 918만원 부족 예상(보험개발원)

### ② 사회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소비위축, 재정수지의 악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의 둔화\*를 초래

- \* GDP증가율 전망('00~'50년간 평균, OECD Economic Outlook) : 한국(2.9%), 미국(2.3%), 일본(1.0%), 독일(1.4%)

⇒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역모기지 활성화 여건 조성 필요



## II. 역모기지 현황 및 문제점

---

### (1) 현황

- ☐ 역모기지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

\*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주택(268만호) 중 자가보유비율은 76%(204만호)

- ☐ 현재 일부 금융기관\*에서 역모기지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나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

\* 역모기지 판매실적('05년말): 신한·조흥은행, 농협에서 총 411건, 계약금액 523억원

### (2) 문제점

#### ① 이용자 측면에서는

- 대출기간을 제한(5~15년 만기)하고 있어 퇴거를 우려하여 이용을 기피
- 고령자의 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세제지원 및 상품에 대한 홍보 부족

\*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상속 수단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보편화

#### ② 금융기관 측면에서는

- 주택가격하락, 금리상승, 기대수명보다 계약자의 장수 등 역모기지 취급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

⇒ 종신까지 대출금을 지급하는 역모기지 상품의 취급을 기피

### Ⅲ.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

#### 기 본 방 향

◇ 역모기지는 리스크 부담이 커서 시장에만 맡길 경우,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시장형성이 곤란

○ 일정부분 정부개입을 통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불가피

⇒ 정부가 고령자의 복지 차원에서 역모기지를 활용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정부의 역할>

① 정부는 중저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공적보증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역모기지 활성화 기반을 마련

○ 이를 통해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하고 소비와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 <민간부문의 역할>

② 역모기지 리스크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상업적 판단에 의한 역모기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고가주택 등에 대해서는 민간금융기관에서 리스크 정보 등을 활용하여 역모기지 상품 개발 촉진

\* 미국의 경우 공적보증 역모기지(Home Equity Conversion Mortgage)가 도입('89)된 이후, 고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역모기지(Financial Freedom Plan)가 도입('93)되었고, '02년 이후 역모기지시장이 전반적으로 활성화

## (1) 역모기지 이용연령 및 대상주택

☐ 적용연령 :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인 고령자

\* UN 고령사회 분류기준(65세 이상)

☐ 대상주택의 범위는 중산·서민층 중심으로 설계

① 고령자가 주거지로 소유(1년 이상)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대상

② '주택가격(공시가격) 6억원\*, 대출한도\*\*(월지급금 총액의 현재가치) 3억원' 이하로 설정하여 고가주택 제외

\* 고가주택기준 : 소득세법상 6억원 초과, 증부세 대상 6억원 초과

\*\* 미국 HECM의 경우 서민층지원을 위해 대출한도 31만불(약 3억원) 설정

## (2) 역모기지 대출방식

☐ 종신으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

\* 단, 고령자의 예기치 못한 거액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정목적(예: 의료비, 자녀결혼비 등)에 한해 일시금 허용(예: 총대출액의 30%이내)

☐ 대출한도액의 설정

○ 공적보증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함으로써 고령자에게 가능한 한 많은 월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

\* 공적보증을 담당하게 될 기관이 대출한도 등 상품설계 확정

## &lt;월 지급금 규모 추정(만원)&gt;

가입연령 \ 주택가격	주택가격 6억원		주택가격 3억원	
	대출한도	월지급금	대출한도	월지급금
65세	29,310	186	14,655	93
70세	30,000	198	17,882	118

주) 1. 주택가격 시가기준, 주택가격 상승률: 연 4%, 기대 여명: 83세

2. 대출한도 설정 할인율 8% : 주택가격하락, 長壽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모기지론 금리(6.5%)에 1.5% 가산 [자료 : 금융연구원]

## (1) 역모기지 보증기관의 선정

- ☐ 공적보증기관\*은 새로 설립하는 것보다 주택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담당(→주택금융공사법 개정)

\* 대출원리금이 담보가액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한 후 월지급금을 지급

※ 미국의 경우도 연방주택청(FHA)에서 공적보증 역모기지(HECM) 도입이후 시장이 활성화 (HECM이 전체 역모기지 시장의 80%이상 점유)

## (2) 역모기지 채원의 조성

- ☐ 금융기관의 풍부한 유동성과 초기에 대출규모가 크지 않을 것을 감안하여 대출채원은 역모기지 취급 금융기관에서 자체 조달

☐ 보증채원의 조성

- ① 역모기지 보증채원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역모기지 보증기금' 계정 설치(→주택금융공사법 개정)

- ② 보증채원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내는 보증보험료\*로 충당 하되, 손실 발생시 부족한 부분은 재정에서 지원(재보험적 성격)

\* 초기보험료(예: 주택가액의 1~2%)와 월별 보험료(예 : 대출잔액의 연 0.5%의 1/12)로 구성 (미국 HECM의 보증보험료: 초기 2%, 연 0.5%)

- ③ 고령자 복지지원, 시장의 신뢰 확보 등을 위해 도입 후 일정기간 동안 정부 출연금 지원 필요

- ④ 리스크 부담을 공유하기 위해 취급 금융기관에서 역모기지 대출로 인한 수익금의 일부\*를 출연(→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 주택신용보증기금: 주택자금대출의 연0.2%수준('05년도 1,035억원 출연)

## (1) 수요측면의 지원

◇ 세제지원을 통해 서민층 고령자의 복지수준을 제고

- ① 국민주택규모(85㎡)이하이고 주택가격(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며,
- ②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고령자에게 지원

① 근저당 설정에 대한 등록세(설정금액의 0.2%) 면제

\* 단, 등록세 면제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

② 근저당 설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설정금액의 1%) 면제

③ 역모기지 이용주택에 대해 재산세 25% 감면

④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에 대해 고령자의 종합소득 중 연금 소득에서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2) 공급측면의 지원

◇ ‘역모기지 보증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보증재원을 확충

① 보증기금의 보증보험료 수익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② 보증기금에 납입하는 금융기관의 출연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③ 보증기금의 운용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부담 완화

○ 이자·배당소득은 일정기간(5년) 동안 전액 과세를 유예\*

\* 일정기간(5년) 경과 후 손실과 상계되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 과세

## □ ‘역모기지 전문상담사’ 제도 운영

- 역모기지 신청전에 역모기지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는 ‘역모기지 전문상담사’ 제도 운영 (→주택금융공사법에 신설)

\* 미국(HECM) : 민원 및 소송예방을 위해 정부[주택개발부(HUD)]가 승인한 전문상담사의 카운슬링을 의무화

※ 미국(HECM) : '03년 현재 850여명의 전문상담사를 운영

- 금융분야 등 전문직 퇴직자(60세 이상)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사를 선발함으로써 고령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역모기지 전문상담사’ 운영 체계>

- 운영방식 : 주택금융공사에서 상담사의 자격관리 및 교육실시
- 담당기능 : 역모기지 상품설명, 대출신청 대행, 역모기지 이용주택 점검 등
- 소요재원 : ‘역모기지 보증재원’에서 부담
  - \* 도입초기에는 소규모로 선발
  - 향후 역모기지 수요확대를 반영하여 상담사를 확충

## □ 역모기지 정보인프라 구축

- 역모기지 보증기관을 중심으로 리스크 추정 등 관련 정보를 축적·관리하는 DB를 구축하고 민간금융기관에 공유

- i) 주택가격 변동, 예정사망률 등 리스크관련 정보를 분석·관리
- ii) 주택담보가치 평가, 대출한도 결정, 손실률 추정 등 역모기지 상품설계 정보 제공
- iii) 역모기지 취급실적, 보증실적 등 이용현황 정보 파악

#### IV. 향후 추진일정

◇ 「고령화 미래사회위원회」에서는 2008년 이후부터 역모기지제도를 시행하도록 일정을 제시하였으나, 가급적 2007년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추진과제	필요조치	소관기관	추진일정
1. 역모기지 상품 설계			
○ 역모기지 실수요조사	-	주택금융공사	'06.상반기
○ 역모기지 상품 설계 구체화	상품설계T/F운영	주택금융공사	'06.상반기
2. 역모기지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 역모기지 보증기관 선정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재정경제부	'06년 중
○ 역모기지 보증기금 계정 설정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재정경제부	'06년 중
○ 보증기금 정부출연금 지원	예산사업	기획예산처	'07년~
○ 보증기금 금융기관 출연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재정경제부	'06년 중
3. 역모기지에 대한 세제지원			
○ 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개정	행정자치부	'06년 중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주택법시행령 개정	건설교통부	'06년 중
○ 역모기지 주택 재산세 경감	지방세 감면조례	행정자치부	'06년 중
○ 역모기지 대출이자 소득공제	소득세법 개정	재정경제부	'06년 중
○ 보증기금 수익 법인세 비과세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재정경제부	'06년 중
○ 보증기금 운용수익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재정경제부	'06년 중
○ 금융기관 출연금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재정경제부	'06년 중
4. 역모기지 교육 및 정보인프라 구축			
○ 역모기지 전문상담사 운영	주택금융공사법 개정	재정경제부	'06년 중
○ 역모기지 정보인프라 구축	DB구축	주택금융공사	'06.하반기

## 국내 금융기관별 역모기지 대출 판매실적

(단위 : 건, 억원)

구분	신한·조흥은행		농협		홍국생명		합계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건수	계약금액
취급개시 ~05.6월	332	405	15	11	0	0	347	416
05.7~12월	64	107	0	0	0	0	64	107
계	396	512	15	11	0	0	411	523



## 2. 은행, 증권, 보험 관련 광고에 대한 심의 관련

2-1. 심의 기관

2-2. 관련 근거 규정

2-3. 심의 실적(2005년~2006년 상반기)

2-4. 1-3 중 광고 부적합 사례(심의 일시, 업체 심의 내용  
및 부적합 사유)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

## (1) 은행

- ☐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의 광고 심의와 관련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

## (2) 증권

※ 현재 증권회사의 광고 심의 관련업무는 증권업협회가 내부규정인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담당하고 있으므로, 동 협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취합하여 보내드립니다.

### 2-1. 심의 기관

☐ 한국증권업협회

### 2-2. 관련 근거 규정

☐ 증권업감독규정 제4-34조(광고의 내부통제), 제4-35조  
(협회의 광고기준 제정)

☐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제3장 광고(제3-12조 ~ 제3-27조)

### 2-3. 심의 실적(2005년~2006년 상반기)

(단위: 건)

	2005년				2006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심의 건수	179	209	181	225	250	231	1275

2-4. 2-3 중 광고 부적합 사례(심의 일시, 업체 심의 내용 및 부적합 사유) : 없음

□ 광고 초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경우 증권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여 시정 후 광고가 시행되는 관계로  
부적격 통보한 사례가 없음

○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이나 유가증권, 주식관련선물 등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광고에 위험고지를 누락하거나 불충분  
하게 표현

○ 위험고지 내용을 투자자가 용이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위치  
에 표시하거나 현저히 작은 글씨를 사용

○ 통계수치나 도표 등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자료의 출처 누락

### (3) 생명보험

#### 2-1. 심의 기관 : 생명보험협회

#### 2-2. 관련 근거 규정

##### - 보험업법 제95조(보험안내자료)

- ①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6.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보험업법시행령 제42조 제4항

-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정보취득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안내자료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 (보험안내자료의 관리)

- ③ 감독원장은 보험회사 등이 작성한 보험안내자료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안내자료의 수정, 폐기, 정정보도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광고의 내부통제)

- ①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작 및 내용에 있어서 보험업법 및 광고에 관한 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③ 협회는 보험회사의 광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광고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로부터 사전에 광고물을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5.12.29.>

- **업계 자율규정**

- 생명보험협회는 이를 근거로 업계자율규정으로 「생명보험광고심의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2005.5.31) 회원사로부터 광고물을 사전, 사후에 제출받아 심의를 진행.

**2-3. 심의 실적(2005년~2006년 상반기)**

구 분	2005년 (6~12월)	2006년 (1~6월)	비 고
원안대로 심의필 부여	51	147	
일부내용 수정 심의필 부여	146	138	
부적격	1	1	
계	198	286	

**2-4. 2-3 중 광고 부적합 사례(심의 일시, 업체 심의 내용 및 부적합 사유)**

- ① 2005.10.19, SH&C생명, 투신사 펀드 내용으로 구성
- ② 2006.5.12, PCA생명, 펀드를 판매하는 내용으로 광고문안 구성

#### (4) 손해보험

##### 2-1. 심의 기관

- 손해보험협회

##### 2-2. 관련 근거 규정

-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 2
-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

##### 1-3. 심의 실적(2005년~2006년 상반기)

TV	라디오	신문	잡지	홈쇼핑	계
25	5	37	6	-	73

\*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2006.6. 1 실시

\* 상기 표는 2006년. 6월 실적임

##### 2-4. 2-3 중 광고 부적합 사례(심의 일시, 업체 심의 내용 및 부적합 사유)

심의일자	심의내용	부적합사유
2006.6.16	○에듀카자동차보험잡지광고 ○에듀카자동차보험잡지광고 (교원나라)	해당회사가 최고의 보상전문회사로 오인케하는 과장광고를 하는 등 규정 제18조8호 위배
	○행복을 다모은 보험 잡지광고 (현대해상)	극단적, 단정적 표현인 '하나로 모든 보장'라고 사용함으로써 규정 18조2항 나호 위배

### 3. 비정형파생상품 관련(2005년~2006년 8월 현재)

#### 1. 금감원 발표, 장외파생상품 재발방지 관련 유의사항 발표 전문

□ 제출자료 : 붙임1 참조

#### 2. 2005년, 2006년 비정형파생상품 거래관련 위법, 부당행위 적발 내용, 위법 행위 발견시 제재 조치

금융기관명	검사 종류	검사기간	주요 위규사항	조치결과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종합  부문	2004.8.30. ~9.2 2004.9.9. ~9.24. 2005.2.28. ~3.23.	- 파생상품거래업무 부당 취급 - 내부통제절차 위반으로 인한 직원의 금품수수 사고 발생	- 기관 경고 - MOU 체결 - 임원 업무집행 정지(1월) - 면직상당 1명 - 견책 1명
비엔피 파리바은행 서울지점	부문	2005.2.28. ~3.23.	- 파생상품거래업무 부당 취급 - 제3자에 대한 은행업무 부당위탁	- 기관 경고 - MOU 체결 - 임원 주의적경고 - 감봉3월 1명
바클레이즈 은행 서울지점	부문	2005.3.2. ~3.15.	- 파생상품거래업무 부당 취급	- MOU 체결 - 감봉3월 1명 - 견책 1명



### 3. MOU를 체결한 시중은행, MOU 핵심내용

- ☐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MOU를 체결한 시중은행은 없음
- ☐ 다만, 외은지점의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심각한 금융관계법규 위반사례가 적출됨에 따라
  - 파생상품거래 취급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관련 외은지점\*간 양해각서를 체결(2005.10.17.)

\*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비엔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 바클레이즈은행 서울지점

#### <양해각서(MOU)의 핵심내용>

- ☐ 금융기관 이용자와의 파생상품거래 취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수사항 규정
  - 거래상대방의 법률적 권한 보유여부, 위험수준 및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한 적합한 거래 제안
  - 파생거래 관련 중요정보 및 가격정보의 충실한 제공
  - 파생거래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
- ☐ 준수사항을 위한 세부 실천사항 규정
  - 비정형파생상품거래 관련 내부절차에 대한 직원교육 실시
  - 파생상품거래 검토위원회의 신설 및 역할 강화
  - 비정형 파생상품거래 관련 중요정보 고지 및 거래적합성 심사 강화 등

(붙임 1)

## 비정형파생상품 관련 유의사항 지도공문(전문)

### 금 융 감 독 원

우 150-74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전화 3786-7230/전송 3786-7248

처리부서 은행검사2국 은행6팀 팀장() 이계성 담당자 선임검사역 이상룡

문서번호 은검이육 9123 - 00055

시행일자 2005. 10. 5.

수 신 다(57~62 제외)

참 조

제 목 장외 파생상품거래 취급시 유의사항 지도

1. 귀 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원에서 일부 금융기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취급업무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거래의 적합성 심사 및 중요정보 고지 이행 등이 미흡하고 금융관계법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이용자 권익보호 및 은행의 건전경영 확보를 하여 금융기관 이용자와의 장외 파생상품거래시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금융기관에서는 관련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는 등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리원에서는 상기 유의사항에 대한 이행 및 관리가 제대로 정착될 때 까지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통해 장외 파생상품거래 취급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취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장외 파생상품거래 취급시 유의사항 1부. 끝.

금 융 감 독 원 장

(붙임)

### 장의 파생상품거래 취급시 유의사항

- 가. 거래상대방이 당해 거래를 할 수 있는 적정한 법률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여야 함
- 나. 거래상대방의 영업속성, 재무상황 및 금융거래 수준과 파생상품거래의 목적, 상품에 대한 이해 및 위험관리능력과 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제안하여야 함
- 다.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구조 및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거래에 내재된 리스크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등 거래상의 중요 정보를 고객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 특히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동 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개별 거래별로 관련 리스크를 분리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장기이고 유동성이 낮은 점 등으로 인해 거래의 손익 변동성이 큰 경우 고객의 손실위험 설명시 금융변수의 변동에 따른 단순한 현금흐름 변동 뿐 아니라 평가손익의 변동을 설명하여야 함
- 라. 고객과의 정보교환은 과장되거나 숨김이 없이 명확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 마. 거래와 관련된 각종 비용부과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특히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시에는 내재된 개별거래별로 각각의 가격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바.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거래 종료후 매월말 기준으로 거래평가서를 거래상대방의 후선부서에게 송부하여야 함
- 사. 위에서 정한 거래 수행의 법률적 권한 보유 여부 및 거래의 적합성과 중요 정보 고지의무 이행여부 등의 점검과 관련하여 거래조건서, 계약확인서 등 계약서에 상당하는 자료 뿐 아니라, 형식에 관계없이 거래 체결과 관련하여 고객과 수수한 자료(상품설명서, 제안서 등) 및 은행내부(지역본부 및 본점 등 포함)에서 이루어진 거래승인 관련자료 등을 서면으로 보관하여야 함
- 아.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책서식(업무보고서)」 '4. 파생상품거래 현황'상 비정형 파생상품거래를 말함

#### 4. 증권회사의 수탁수수료의 회사별 현황 관련

4-1. 현황

4-2. 요율

4-3. 수탁수수료 관련 관리 규정

□ 54개 증권회사의 회사별수탁수수료율 : 별첨 참조

□ 수탁수수료 관련 관리 규정

- 수탁수수료 등 수수료는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다만 증권회사는 수수료 결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내부정책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증권업감독규정 제4-31조>

- ① 증권회사는 수수료 결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내부정책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05.4.27>
- ③ 증권회사는 고객이 지급하는 수수료의 대가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를 거래개시 전에 고객에게 구두, 서면 또는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삭제 2005.4.27>

01.교보증권

구분		일반위탁매매		HTS(인터넷, PC 통신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2억이하	0.50%	200만원 미만	0.15%+500원
				2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0.14%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0.13%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12%
		2억원 초과~5억 이하	0.45%+10만원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0.10%
		5억 초과	0.40%+35만원	5억원 이상	0.07%
	코스닥시장	2억 이하	0.50%	200만원 미만	0.15%+500원
				2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0.14%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	0.13%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12%
		2억원초과~5억 이하	0.45%+10만원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0.10%
		5억 초과	0.40%+35만원	5억원 이상	0.07%
KOSPI200 선 물		5억원 이하	0.05%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0.01%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0.040%+ 25,000원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0.035%+ 75,000원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0.030%+ 175,000원		
		50억원 초과~100억원 이	0.025%+ 425,000원		
		100억원 초과~200억원 이	0.020%+ 925,000원		
		200억원 초과	0.015%+1,425,000원		

구분	일반위탁매매		HTS(인터넷, PC 통신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KOSPI200 옵 션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1.20%	1천만원 이상	0.30%
			1천만원 미만	0.40%

- 주) 1. PDA주문 : 주식(거래소, 코스닥, ETF)  
 - 200만원 미만 0.15%+ 500원  
 - 200만원 이상 0.15%  
 선물, 옵션은 사이버 수수료와 동일적용
2. VIP 수수료:  
 - 주식 사이버매매 월100만원+ 0.039%  
 (월200억이상 약정계좌중 신청계좌)  
 - 옵션 사이버매매 월20만원+ 0.10%  
 - 선물 사이버매매 월50만원+ 0.002%  
 (월 선물약정 1,000억 이상계좌 중 신청계좌)

3. ARS주문의 경우

영업종류	수수료
주식(거래소)	약정 × 0.25%
주식(코스닥)	약정 × 0.25%
선 물	약정 × 0.02%
옵 션	약정 × 0.50%

- 주식) 1) 제61기 3/4분기 말 대비 코스닥 50선물과 코스닥 50 옵션이 상장폐지  
 되면서 수수료체계 목록에서 삭제  
 2) 노블레스 랩 부분의 수수료 체계 삭제  
 3) 스타지수 선물 부분의 수수료 체계가 코스피200선물과 동일함으로 통합하여 표시

## 02.국모낭신한증권

구분	일반 위탁 매매		온라인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HTS/WEB	PDA/핸드폰	수수료율
주식 / 주식워런트 증권(ELW)	2억원 이하	0.5%	50만원 미만	0.50%	0.20%	0.25%+500 원
			50만~100만	0.15%+1,500원		
	2억원~5억원	0.45%+100,000원	100만~300만			0.14%+2,000원
			300만~3,000만			
	5억원 초과	0.4%+350,000원	3,000만~5,000만	0.13%		0.20%
	10주 미만 매매시(단주)	0.5%	5,000만~1억원	0.12%		
			1억원~2억원	0.10%		
			2억원 이상	0.09%		
선물 (KOSPI200, 스타지수)	5억원 이하	0.045%	10억원 이하	0.01%		
	5억원~10억원	0.040%+25,000원				
	10억원~20억원	0.035%+75,000원	10억원 초과	0.00%		
	20억원~50억원	0.030%+175,000원				
	50억원 초과	0.025%+425,000원				
옵션 (KOSPI200)	일괄적용	1.20%	1천만원 이하	0.30%		
			1천만원 초과	0.15%		

### 03.대신증권

구 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 식	유가증권시장 상장주권 코스닥시장 상장주권 프리보드지정주권 상장된 출자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수익증권 신주인수권증권 ELW	5천만원이하	0.50%	100만원이하	0.17%+700원	ARS, 무선통신, 자동주문 (CATs 시스 템을 통한 자동주문) : 0.2%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0.45%+25,000원	100만원초과~500만원이하	0.16%+900원	
		1억원초과 2억원이하	0.40%+75,000원	500만원초과~1천만원이하	0.15%+1,000원	
		2억원초과 5억원이하	0.35%+175,000원	1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	0.14%+1,200원	
		5억원 초과	0.30%+425,000원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0.13%+1,500원	
				5천만원초과~2억원이하	0.10%	
				2억원 초과	0.08%	
		단,매매대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0.5%				
선 물	KOSPI200 선물 스타지수 선물	5억원이하	0.05%	0.01%		
		5억원초과10억원이하	0.045%+25,000원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0.04%+75,000원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0.035%+225,000원			
		50억원초과	0.03%+475,000원			
옵 션	KOSPI200 옵션	1천만원이하	1.50%	1천만원이하	0.40%	
		1천만원초과	1.0%+50,000원	1천만원초과	0.30%	
	개별주식옵션	1천만원이하	1.50%	1천만원이하	0.40%	
		1천만원초과	1.0%+50,000원	1천만원초과	0.30%	

구 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상장채권 (기타 신종사채 포함) ※ 장내매매에 한함	<잔존기간에따라>		좌 등	
	3개월 미만	없음		
	3개월이상1년미만	0.10%		
	1년이상 2년미만	0.20%		
	2년이상	0.30%		
소액채권	0.60%		-	
외화주식 및 예탁증서	10억미만	0.50%	-	
	10억이상 100억미만	0.30%		
	100억이상	0.10%		
외화채권 (CD,CP포함)	<잔존기간에따라>		※ 달러기준	
	3년이하	0.20%		
	3년초과	0.50%		
외화표시주식관련신종사채	0.50%			

- 주) 1. 사이버지점, 사이버영업소, 사이버전용창구에는 PC통신 및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트레이딩 징수를 적용  
 2. 단주의 장외거래수수료는 매매약정대금의 0.5%  
 3.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에 의한 상장주권 매매 : 0.25%  
 4. 상장주권·주식관련 증권의 사이버트레이딩 징수를 중 소액매매대금 기준 변경(1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  
 5. 수수료 징수 대상 추가 및 삭제 : ELW 및 스타지수 선물 추가, KOSDAQ50 선물 및 KOSDAQ50 옵션 삭제

※ 일임형 램수수료(연간기준)

직접투자형	리더스지수형	1억미만:3%    1억이상~5억미만:2.6%	
	리더스가치형	5억이상~10억미만 : 2.2%	
	리더스성장형	10억이상~50억미만 :1.8%	
	리더스액티브형	50억이상~100억미만 : 1.4% 100억이상 : 1.2%	
	리더스선물 CT형 VIP맞춤형	3억미만 :3.0% 3억이상~5억미만 : 2.6% 5억이상~10억미만 : 2.4% 10억이상:2.2%	
간접투자형	리더스혼합 70 리더스혼합 30	5억미만 :1.6% 5억이상~50억미만 : 1.2% 50억이상~100억미만 : 1.0% 100억이상 : 0.8%	
	VIP맞춤형	50억미만 : 1.6% 50억이상 : 1.2%	
	꿈나무성장형	1.40%	
	파이팅345혼합형	1.0%	
	백년해로 안정형	0.30%	

※ VIP맞춤형(간접투자형) : 90%이상 채권형 자산을 편입하기로 계약하고, 운용기간 중



04.대우증권

구	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거래소 코스닥 프리보드	2억원 미만	0.5%	100만원 미만	0.5%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0.45%+100,000원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0.145%+1,200
		5억원 이상	0.40%+350,000원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0.140%+1,500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0.130%+2,000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0.10%
				1억원 이상	0.08%
선물	KOSPI/스타지	5억원 미만	0.05%	일률적용	0.01%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0.045%+25,000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0.040%+75,000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0.035%+325,000		
		100억원 이상~150억원미만	0.025%+1,325,000		
		150억원 이상	0.015%+2,825,000		
옵션	KOSPI지수	1,000만원 미만	1.50%	약정금액기준 수수료율 체계,매매건수기준 수수료율 체계 중 고객 선택	
		1,000만원 이상~5,000만원미	1.0%+50,000	약정금액기준 수수료율 체계	
				1,000만원 이하	0.50%
				1,000만원 초과	0.30%
				매매건수기준 수수료율 체계(월단위 적용으로 구간별 제차적용, 체결건 기준으로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월 50건 이하	0.40%
				월 50건 초과~100건 이하분	0.20%
				월 100건 초과분	0.10%
ARS/Mobile		거래소/코스닥시장 주식은 매매금액에 관계없이 0.2% (프리보드/선물옵션주문 불가)			

\* Mobile : 핸드폰(Q-sign), PDA, 블루칩 등

05.신영증권

구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2억원미만	0.45%	HTS	금액구분없음	0.1%
		2억~5억원미만	0.4% + 100,000원	ARS		0.25%
		5억원이상	0.35% + 350,000원	PDA	1000만원 미만	0.2%
					5000만원미만	0.17%+3,000원
					5000만원이상	0.15%+13,000원
	코스닥시장	금액구분없음	0.40%	HTS	금액구분없음	0.1%
				ARS		0.25%
				PDA	1000만원 미만	0.2%
					5000만원미만	0.17%+3,000원
					5000만원이상	0.15%+13,000원
선물	5억원미만	0.045%	금액구분없음		HTS : 0.01%	
	5억원~10억원미만	0.04% + 25,000원				
	10억원~30억원미만	0.035% + 75,000원				
	30억원이상	0.03% + 225,000원				
옵션	1,000만원 미만	1.50%	1,000만원 미만		HTS : 0.5%	
	1,000만원 이상	1% + 50,000원	1,000만원 이상		HTS : 0.3% + 20,000원	

06.서울증권

구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프리보드 주식워런트증권(ELW)	5억 초과	0.40% + 350,000	-	0.10%
		2억 초과 ~ 5억 이하	0.45% + 100,000		
		2억 이하	0.50%		
KOSPI200 선물 스타지수 선물		-	0.04%	일약정 50억 미만	0.01%
				일약정 50억 이상	0.007%
KOSPI200 옵션 개별주식옵션		-	1.20%	1천만원 이하	0.50%
				1천만원 초과	0.30%

07.한양증권

구분		위탁매매		cyber(HTS)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상장주권 및 프리보드 지정주권 해외주식 예탁증서	2억원 이하	0.50%	100만원 미만		0.15%+1,500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0.45%+100,000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0.12%+1,000
		5억원 초과	0.4%+350,000	1,000만원 이상		0.09%+500
KOSPI200 선물 및 스타지수 선물		5억원 미만	0.045%	금액구분 없음		0.01%
		5억원 이상~10억원 이상	0.040%+25,000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0.035%+75,000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0.030%+225,000			
		50억원 이상	0.020%+725,000			
KOSPI200 옵션		1000만원 미만	1.50%	(개인위탁자의 경우)		
				요일1	5,000만원 미만	0.50%
		5,000만원~1억원	0.35%			
		1억원~5억원	0.25%			
		5억원~10억원	0.15%			
		10억원 이상	0.075%			
		1000만원 이상	1.00%+50,000	요일2	금액구분 없음	0.50%
				(법인위탁자의 경우) 금액구분 없음		

주1) 상장주권 :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 주식워런트증권(ELW)포함

주2) 무선주문단말기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 금액 구분 없이 0.25%

프로그램매매의 경우 : 금액 구분 없이 0.1%

주3) 요율2의 경우 월 수탁수수료수입 1천만원 초과이후 발생하는 매매거래대금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함(단, 협회비 및 매매수수료는 위탁자 부담)

08.메리츠증권

구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5천만원 미만	0.50%	300만원 이하	0.20%+1,000원
		5천만원초과~1억이하	0.45%+25,000원	300만원초과~1천만원이하	0.14%
		1억초과~2억이하	0.43%+45,000원	1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0.13%
		2억초과~5억이하	0.40%+105,000원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0.10%
		5억원 초과	0.35%+355,000원	1억초과~5억이하	0.09%
	코스닥시장	1천만원이하	0.50%	5억초과	0.08%
		1천만원초과~5천만이하	0.45%+5,000원		
		5천만원초과~1억이하	0.43%+15,000원		
		1억초과~2억이하	0.40%+45,000원		
		2억초과	0.38%+85,000원		
프리보드	금액구분없음	0.40%			
채 권		일반	0.10%	1,000만원 미만	0.40%
			0.20%		
			0.30%		
		전환사채	0.30%		
		소액국공채	0.60%	1,000만원 이상	0.30%
KOSPI 200 선 물		15억원 미만	0.04%	금액구분 없음	0.008% (법인은 0.01%)
		20억원 미만	0.03%+15만원		
		25억원 미만	0.025%+25만원		
		36억원 미만	0.02%+37.5만원		
		36억원 이상	0.03%		
옵 션		1,000만원 미만	1.20%	1,000만원 미만	0.40%
		1,000만원 이상	1%+2만원	1,000만원 이상	0.30%
개별 주식 옵 션	일반 (개인)	1,000만원 미만	1.20%	금액구분 없음	0.30% (imeritz.net)
		1,000만원 이상	1%+2만원		
	일반 (기관)	5,000만원 미만	0.50%		
		5,000만원 이상	0.25%+12.5만원		
	권리행사	거래소위탁매매수수료율과 동일			

09.우리투자증권

구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1천만원 미만	0.50%	0 ~ 50만원 미만	0.50%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0.45%+5,000원	50만원 ~ 1백만원 미만	0.18%+700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43%+15,000원	1백만원 이상 ~ 5백만원 미만	0.17%+800원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0.40%+75,000원	5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0.16%+1,000원
		5억원 이상	0.35%+325,000원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0.14%+1,200원
	프리보드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0.40%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0.13%+2,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11%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0.10%
선물	KOSPI 200/ 스타지수선물	5억원 미만	0.045%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0.01%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0.040%+25,000원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0.035%+75,000원		
		2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0.030%+175,000원		
		50억원 이상	0.025%+425,000원		
옵션	KOSPI 200 / 개별주식옵션	1천만원 미만	1.50%	1천만원 미만	0.40%
		1천만원 이상	1.0%+50,000원	1천만원 이상	0.30%

※기타 온라인매매 : ARS, mTrading, PDA 등

거래 상품		거래 금액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2백만원 미만	0.20% + 500원
		2백만원 이상	0.20%
선물	KOSPI 200	거래금액에 관계 없음	0.02%
옵션	KOSPI 200	거래금액에 관계 없음	0.50%

※ WM Wrap수수료

구분		평잔	연간기본수수료	연간 성과수수료
주식형 자 산	주식투자형	1억원 이하	2.00%	분기 KOSPI변동율 + 0.75% 초과수익금액의 25%를 분기단위 후취 (단, 절대수익이 분기 2%이상 달성시에만 초과수익금액에 부과)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1.8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60%	
		5억원 초과	1.40%	
	시스템투자형	1억원 이하	2.00%	금액별 체차 적용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80%	
		5억원 초과	1.60%	
채권형 자 산	주식,채권,시스템형	10억원 이하	0.10%	금액별 체차 적용
		10억원 초과	0.05%	
	연금형	-	0.30%	-
펀드형 WRAP		-	주식형 자산 1.30%, 채권 및 현금성 자산 0.40% (판매보수 없음. 단, 운용 및 기타보수 별도)	
ELW형 WRAP		-	보수형 1.39%, 안정형 1.47%, 적극형 1.56% (단, 유리 위너파생상품형 운용 및 기타보수 별도 (합 0.638%))	

※ 총수수료(연간 기본수수료+성과 수수료)는 연 6%의 상한선 적용

- 연간 기본수수료는 각 평잔금액 구간에 따라 체차적용

- 성과 수수료는 분기단위 후취

# 10.부국증권

구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2억이하	0.45%	1억이하	0.10%
		2억초과5억이하	0.40%+100,000	1억초과	0.08%
		5억초과	0.35%+350,000		
	코스닥시장	금액구분없음	0.40%	1억이하	0.10%
				1억초과	0.08%
선물		5억이하	0.045%	금액구분없음	0.01%
		5억초과10억이하	0.040%+25,000		
		10억초과30억이하	0.035%+75,000		
		30억초과	0.030%+225,000		
옵션		1천만원이하	1.20%	금액구분없음	0.30%
		1천만원초과	1.0%+20,000		

## 11. 브릿지증권

구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2억 이하	0.45%	1천만원 미만	0.15%(최저 1,000원)
		2억 ~ 5억	0.40%+100,000원	1천만원 이상	0.10%
		5억 초과	0.35% + 350,000원		
	코스닥시장	금액 구분없이	0.40%	금액 구분없이	0.1%(최저 1,000원)
선물		5억 이하	0.045%	금액 구분없이	0.01%(최저 1,000원)
		5억 ~ 10억	0.040% + 25,000원		
		10억 ~ 50억	0.035% + 75,000원		
		50억	0.030% + 225,000원		
옵션		1천만원 미만	1.50%	1천만원 미만	0.5%(최저 1,000원)
		1천만원 이상	1.00% + 50,000 원	1천만원 이상	0.30%



## 12.하나증권

구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2억원이하	0.50%	1천만원미만	0.1% + 2,000원
		2억원초과 5억원이하	0.45% + 100,000원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0.10%
		5억원초과	0.40% + 350,000원	5천만원 이상	0.08%
선물		5억원미만	0.05%	금액구분 없음	0.010%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0.045% + 25,000원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0.040% + 75,000원		
		30억원이상 50억원미만	0.035% + 225,000원		
		50억원이상	0.030% + 475,000원		
옵션		500만원미만	1.50%	금액구분 없음	0.500%
		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1.300% + 10,000원		
		2,000만원이상	1.000% + 70,000원		

\* 콜센터(거래소, 코스닥 : 0.35%+5,000원, 선물 : 0.040%, 옵션 : 1.200%)

\* ARS(거래소, 코스닥 : 0.20%+2,000원)

### 13.현대증권

구분			
주식	1.상장주권(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외국주식예탁증서		
	2억원 이하		거래대금의 0.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거래대금의 0.45%+100,000원
	5억원 초과		거래대금의 0.4%+350,000원
	2.프리보드 지정주식		매매거래대금의 0.4%
채권	1.일반채권		
	잔존기간 1개월 미만		없음
	잔존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매매거래대금의 0.1%
	잔존기간 1년이상 2년 미만		매매거래대금의 0.2%
	잔존기간 2년 이상		매매거래대금의 0.3%
	2.소액채권		매매거래대금의 0.6%
	3.주식관련사채권		매매거래대금의 0.3%
온라인	HTS, 인터넷	100만원 미만	거래대금의 0.19%+500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거래대금의 0.19%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거래대금의 0.17%+500원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거래대금의 0.15%
		3,000만원 이상	거래대금의 0.09%
	ARS		거래대금의 0.25%
	MTS		거래대금의 0.20%
주가지수선물	일반거래		거래대금의 0.04%
	차익거래 및 프로그램매매		거래대금의 0.02%
	온라인 거래		거래대금의 0.01%
주가지수옵션	일반거래		거래대금의 0.6%
	차익거래 및 프로그램매매		거래대금의 0.4%
	온라인 거래	1,000만원 이상	0.30%
		1,000만원 미만	0.40%
주식워런트증권	일반거래		거래대금의 0.30%
	온라인 거래		거래대금의 0.07%

14. 한화증권

구분		일반 위탁매매		HI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 식	거래소시장	2억원 미만	0.50%	50만원 미만	0.50%
		2억원이상~5억원미만	0.45%+100,000	50만원이상~1천만원미만	0.12%+1,000
		5억원 이상	0.45%+350,000	1천만원 이상	0.10%
	코스닥시장	2억원 미만	0.50%	(거래소, 코스닥 구분 없음)	
		2억원 이상~5억원미만	0.45%+100,000		
		5억원 이상	0.45%+350,000		
선 물	KOSPI200선물	5억원 미만	0.50%	거래금액 관계없이	0.01%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0.045%+25,000		
		10억원 이상~50억원미만	0.040%+75,000		
		50억원 이상	0.035%+325,000		
	KOSDAQ50선물	거래금액 관계없이	0.05%		0.03%
옵 션	KOSPI200옵션	1천만원 미만	1.30%	거래금액 관계없이	0.30%
		1천만원 이상	1.0%+30,000		
	KOSDAQ50옵션	1천만원 미만	1.30%		
		1천만원 이상	1.0%+30,000		

# 15.신흥증권

	일반 위탁매매		HTS (인터넷 PC 등)	
	거래금액	수수료율	거래금액	수수료율
주식 (거래소/ 코스닥/ 프리보드/ 단일가거래)	2억원 이하	0.45%	50만원 이하	0.15%+1천원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0.40%+10만원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0.15%+500원
	5억원 초과	0.35%+35만원	2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0.15%
			500만원 초과	0.10%
선물	5억원 이하	0.045%	거래금액 무관	0.01%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0.04%+2.5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0.035%+7.5만원		
	30억원 초과	0.03%+22.5만원		
옵션	1천만원 이하	1.00%	2천만원 이하	0.40%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0.8%+2만원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0.30%
	3천만원 초과	0.5%+11만원	3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0.20%
			1억원 초과	0.15%

16.유화증권

구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2억원이하	0.45%	100만원이하	0.30%
		2억원초과~5억원이하	0.4%+100,000	100만원초과~1천만원미만	0.15%
		5억원초과	0.35%+350,000	1천만원이상	0.10%
		단주매매	0.45%		
	코스닥시장	구분없음	0.40%	100만원이하	0.30%
				100만원초과~1천만원미만	0.15%
				1천만원이상	0.10%
선물		5억원미미만	0.045%		0.01%
		5억원이상~10억원미만	0.04%+25,000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0.035%+75,000		
		50억원이상	0.03%+325,000		
옵션		1천만원 이하	1.50%		0.50%
		1천만원 초과	1%+50,000		

17. 동양종금증권

구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개인	2억원 이하	0.50%	정률제 5백만원 미만 0.14%+₩1,000 5백만원 이상 0.14% ~ 1천만원 미만 0.10% 1천만원 이상 0.08% ~ 2천만원 미만 0.06% 2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0.45%+100,000		
			5억원 초과	0.4%+350,000		
		법인	2억원 이하	0.45%	고정제 PDA 주문 0.13%  MyFree클럽 월 누계 1억5천만원이하 0.20% 월 누계 1억5천만원초과분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0.4%+100,000		
			5억원 초과	0.35%+350,000	동양팩스클럽, 동양와우클럽 관리점 은행계좌 0.1% 관리점 지점계좌 0.2%	
선물	KOSPI200	5억원 이하	0.0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045%+25,000	HTS, PDA 0.002% 고수, X-Ray 0.005% 동양팩스클럽 동양와우클럽 0.01%		
		10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0.04%+75,00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0.035%+200,000			
		50억원 초과	0.03%+450,000			
	스타지수	5억원 이하	0.0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0.045%+25,000	HTS 0.002%		
		10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0.04%+75,00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0.035%+200,000			
		50억원 초과	0.03%+450,000			
옵션	KOSPI200	1천만원 이하	1.50%	HTS, PDA 0.15% 고수, X-Ray 0.18% 동양팩스클럽 동양와우클럽 0.3%		
		1천만원 초과	1.0%+50,000			
	개별주식옵션	1천만원 이하	1.50%	HTS 0.15% 고수 0.25% 동양팩스클럽 동양와우클럽 0.3%		
		1천만원 초과	1.0%+50,000			

18.SK증권

구 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2억원 이하	0.50%	200만원 이하	0.15%+1천원
				200만원~500만원	0.14%+500원
				500만원~1천만원	0.14%
				1천만원~5천만원	0.13%
				5천만원~1억원	0.12%
		2억원~5억원	0.45%+10만원	1억원~5억원	0.10%
		5억원 초과	0.40%+35만원	5억원~100억원	0.08%
		단 주	0.50%	100억원 초과	0.05%+1백만원
선 물		5억원 미만	0.05%	전 체	0.01%
		5억원~10억원	0.045%+25,000원		
		10억원~50억원	0.040%+75,000원		
		50억원 이상	0.035%+325,000원		
옵 셴		1천만원 미만	1.50%	1천만원 미만	0.40%
		1천만원~3천만원	1.0%+5만원	1천만원 이상	0.30%
		3천만원 이상	0.5%+20만원		

※ ARS를 통한 매매수수료율은 0.25%

19.KGI증권

구 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2억원 이하	0.45%	-	-
		2억원 초과~5억원이하	0.40%+100,000원		
		5억원 초과	0.35%+350,000원		
	코스닥시장	구분없음	0.40%		
KOSPI200 선물		5억원 이하	0.045%	-	-
		5억원 초과~10억원이하	0.040%+25,000원		
		10억원 초과~30억원이하	0.035%+75,000원		
		30억원 초과	0.030%+225,000원		
KOSPI200 옵션		1천만원 이하	1.3%	-	-
		1천만원 초과~3천만원이하	1%+30,000원		
		3천만원 초과	0.5%+180,000원		
KOSDAQ50 선물		취급하지 않음	-	-	-
KOSDAQ50 옵션		취급하지 않음	-	-	-



20.NH투자증권

구 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 시장	5억원초과	0.4%+350,000원	1억원이상	0.025%
		2억원초과~5억원이하	0.45%+100,000원	5천만원이상~1억미만	0.035%
		매매대금 2억원이하	0.50%	1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	0.045%
	코스닥 시장	-	0.40%	50만원이상~1천만원미만	0.05%
				50만원미만	0.5%
				(장내, 코스닥 동일)	최저200원
선 물		5억원이하	0.05%	5억원이하	0.01%
		5억원초과~10억원이하	0.045%+25,000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0.035%+125,000원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0.030%+275,000원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50억원초과	0.025%+525,000원	50억원초과	
옵 셴		1천만원이하	1.30%	1천만원이하	0.20%
		1천만원초과~2천만원이하	1.0%+30,000원	1천만원초과~2천만원이하	
		2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	0.7%+90,000원	2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	
		3천만원초과	0.5%+150,000원	3천만원초과	

## 21.삼성증권

### (1) 주식(거래소/코스닥/제3시장 주식, 수익증권, 신주인수권증권)

#### (가) 지점/Fn Family 센터주문

1) 2억원 이하 : 0.5%

2)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0.45%+100,000원

3) 5억원 초과 : 0.4%+350,000원

\* 단, 제3시장 주식의 지점/Fn Family 센터 주문 수수료율은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0.4% 적용

#### (나) 홈트레이딩 주문

거래금액	수수료
1천만원 미만	0.15%+1,500원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0.13%+3,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0.12%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10%
3억원 이상	0.08%

#### (다) 무선통신서비스 주문

1) 1천만원 미만 : 0.15%+1,500원

2)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0.13%+3,000원

3)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12%

4)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0.1%

5) 3억원 이상 : 0.08%

#### (라) ARS 주문

1) 1천만원 이하 : 0.25%

2)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0.23%+2,000원

3) 5천만원 초과 : 0.2%+17,000원

#### (마) 최저수수료율

: 일반정수율을 적용하는 계좌에 대하여 동일인의 동일 종목에 대한 매매(매도, 매수를 구분함)  
거래대금의 합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아래의 수수료를 따름

구분	수수료
지점/FnFamily센터주문	0.50%
홈트레이딩주문	
ARS주문	
무선통신서비스(MTS) 주문	

## (2) 선물

### (가) 지점/Fn Family 센터주문

#### 1) KOSPI200지수선물

가) 5억원 이하 : 0.05%

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0.045% + 25,000원

다) 10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0.04% + 75,000원

라)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0.035% + 200,000원

마) 50억원 초과 : 0.03% + 450,000원

2) 스타지수선물 : KOSPI200지수선물과 동일

### (나) 온라인주문

1) KOSPI200지수옵션 : 0.01%

2) 스타지수선물 : 0.01%

## (3) 옵션

### (가) 지점/Fn Family 센터주문

#### 1) KOSPI200지수옵션

가) 1천만원 이하 : 1.5%

나) 1천만원 초과 : 1.0% + 50,000원

#### 2) 개별주식옵션

가) 옵션매매 수수료 : 약정금액의 1.5% 정률 적용

나) 권리행사시 실물결제수수료 : 주식 일반계좌 징수율과 동일

### (나) 온라인 주문

#### 1) KOSPI200지수옵션

가) 1천만원 이하 : 0.5%

나) 1천만원 초과 : 0.3%

2) 개별주식옵션 : KOSPI200지수옵션과 동일

22.동부증권

구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2억이하	0.45%	지점개설계좌	0.10%
		2억초과~5억이하	0.4%+10만원	은행개설계좌	0.024%
		5억초과	0.35%+35만원		
	코스닥시장	2억이하	0.45%	지점개설계좌	0.10%
		2억초과~5억이하	0.4%+10만원	은행개설계좌	0.024%
		5억초과	0.35%+35만원		
선물	5억이하	0.05%	지점개설계좌	0.01%	
	5억초과~10억이하	0.04%+2만5천원	은행개설계좌		
	10억초과~30억이하	0.035%+7만5천원			
	30억초과	0.03%+22만5천원			
옵션	매매대금	1%	지점개설계좌	0.10%	
			은행개설계좌	0.10%	

### 23. 한누리투자증권

구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 시장	2억원 이하	거래대금*0.45%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거래대금*0.4%+100,000		
		5억원 초과	거래대금*0.35%+350,000		
	코스닥 시장	2억원 이하	거래대금*0.45%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거래대금*0.4%+100,000		
		5억원 초과	거래대금*0.35%+350,000		
선물		거래금액*0.04%			
옵션		거래금액*1.2%			

24.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구 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2억원이하	0.50%	해 당 사 항 없 음	
		2억원초과 5억원이하	0.45%+100,000원		
		5억원초과	0.4%+350,000원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의 0.4%		해 당 사 항 없 음	
선 물		거래대금의 0.04%		해 당 사 항 없 음	
옵 셴		국내	거래대금의 1.5%	해 당 사 항 없 음	
		국외	거래대금의 1.0%		

25.푸르덴셜투자증권

구 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2억원 이하	0.5 %	1,000만원 이하	0.15%
		2억원 초과	0.40 % + 100,00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10%
				1억원 초과	0.07%
	코스닥시장	2억원 이하	0.5 %	1,000만원 이하	0.15%
		2억원 초과	0.40 % + 100,00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10%
				1억원 초과	0.07%
선 물		5억원 이하	0.045%	50억원 이하	0.007%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0.04% + 25,000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0.035 % + 75,000		
		2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0.03 % + 175,000	50억원 초과	0.003%
		50억원 초과	0.025 % + 425,000		
옵 셴		1천만원 이하	1.5 %	단일적용	0.30%
		1천만원 초과	1 % + 50,000		

26.CJ투자증권

구 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 / 코스닥시장	2억 미만	0.50%	10만원 미만	0.50%
		2억이상~5억미만	0.45%+10만	10만원 ~ 300만원 미만	0.14%+1,000원
		5억 이상	0.4%+35만	300만원 ~ 500만원 미만	0.12%+1,500원
				500만원 이상	0.10%
선 물		5억 미만	0.05%	없음	0.01%
		5억~10억미만	0.045%+25,000원		
		10억~50억미만	0.04%+75,000원		
		50억 이상	0.035%+325,000원		
옵 셴		1천만 미만	1.50%	1천만원 미만	0.50%
		1천~5천만미만	1%+50,000원	1천만원 이상	0.30%
		5천만 이상	0.5%+300,000원		



27.미래에셋증권

구 분	영업점	HTS	PDA	콜센터	ARS, 핸드폰 무선단말기
거래소, ELW	2억원 이하 0.45%	0.029%	0.12%	0.29%	0.1%
	2억원 - 5억원 0.40%+100,000원				
	5억원 초과 0.35%+350,000원				
코스닥시장, 제3시장	0.40%				
선 물	0.03%	0.003%	0.01%	0.03%	-
옵 션	1%	0.2%	0.3%	1%	-
개별주식옵션	1%	0.2%	-	1%	-
스타지수선물	0.03%	0.003%	0.01%	0.03%	-

## 28.키움닷컴증권

구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해당사항 없음		금액 관계없이 동일	0.025%
	코스닥시장			금액 관계없이 동일	0.025%
선물				금액 관계없이 동일	0.003%
옵션				금액 관계없이 동일	0.15% (0.2%)

주) 기타 : 주식수수료 : ARS(0.15%) / 무선통신(0.08%)

콜센터(주식:0.3%, 선물:0.03%, 옵션:1.0%, 제3시장:0.5%, ECN:0.3%)

29. 한국투자증권

가. 일반(OFF-LINE) 수수료율

구 분	일반거래 징수율
주식장내, 코스닥시장	2억미만 : 0.50%
	2억이상~5억미만 : 0.45%+10만원
	5억이상 : 0.40%+35만원
전환사채, 채권장내매매	3개월미만 : 0.00%
	3개월이상~1년미만: 0.10%
	1년이상~2년미만 : 0.20%
	2년이상 : 0.30%
주가지수옵션 및 개별주식옵션	1천만원이하 : 1.5%
	1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 1.0%+5만원
	3천만원초과 : 0.5%+20만원
프리보드	0.40%
주가지수선물	5억이하 : 0.045%
	5억초과~10억이하 : 0.040%+2.5만원
	10억초과~20억이하: 0.035%+7.5만원
	20억초과~50억이하: 0.030+17.5만원
	50억초과 : 0.025%+42.5만원
스타지수선물	5억이하 : 0.045%
	5억초과~10억이하 : 0.040%+2.5만원
	10억초과~20억이하: 0.035%+7.5만원
	20억초과~50억이하: 0.030+17.5만원
	50억초과 : 0.025%+42.5만원
ELW	2억미만 : 0.50%
	2억이상~5억미만 : 0.45%+10만원
	5억이상 : 0.40%+35만원

나. ON-LINE수수료율

구 분	징수율
주식장내/외, 코스닥시장, 프리보드	10주미만이고 50만원 미만인 매도주문 체결시: 0.5%
	3백만원미만 : 0.13%+2,000원
	3백만원이상~3천만원미만: 0.13%+1,500원
	3천만원이상~1억원미만 : 0.12%
	1억원이상~3억원미만 : 0.10%
	3억원이상 : 0.08%
	단, Wise club은 별도 수수료체계 적용
주가지수선물	0.01%
주가지수옵션	1천만원이상 0.3%
	1천만원미만 0.4%
개별주식옵션	1천만원이상 0.3%
	1천만원미만 0.4%
스타지수선물	0.01%
ELW	50만원미만 : 0.5%
	50만원이상~3백만원미만 : 0.13%+2,000원
	3백만원이상~3천만원미만: 0.13%+1,500원
	3천만원이상~1억원미만 : 0.12%
	1억원이상~3억원미만 : 0.10%
	3억원이상 : 0.08%
Wise club	주목건당 이용료(500원)+체결건당수수료(6,500원) 단, 유관기관 제비용 별도
ARS	주식장내/외 코스닥시장 신주인수권부시장 프리보드 0.25%

### 30. 대한투자증권

		일반 위탁매매		HT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거래소 시장	2억미만	0.50%	기준약정 (분기적용) 신규고객 및 1억이상 1천만원이상~1억원미만	0.05%  0.07%
		2억 이상~5억미만	0.45%+10만원		
		5억원 이상	0.40%+35만원		
	협회중개시장		0.40%		
선물		5억미만	0.05%		0.01%
		5억이상~10억미만	0.045%+25천원		
		10억이상~30억미만	0.04%+75천원		
		30억이상	0.035%+225천원		
옵션		1천만원미만	1.20%	3천만원미만	0.40%
		1천만원이상	1.00%	3천만원이상	0.30%

### 31.도이치증권

구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2억원 이하	0.50%		
		2억원초과~5억원이하	0.45%+100,000		
		5억원 초과	0.4%+350000		
	코스닥시장	약정대금	0.40%		
		약정대금	0.40%		
		약정대금	0.40%		
선물		약정대금	0.025%		
		약정대금	0.025%		
		약정대금	0.025%		
옵션		약정대금	1.50%		
		약정대금	1.50%		
		약정대금	1.50%		

### 32.이트레이드증권

구 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금액관계 없음	0.30%	금액 관계없이 HTS, JTS, WEB 0.024%, ARS 0.10%, 무선단말기 0.08%, PDA 0.12%	
	코스닥시장	금액관계 없음	0.30%		
	제 3 시 장	금액관계 없음	0.30%		
선 물		금액관계 없음	0.03%	금액 관계없이 HTS, JTS, WEB 0.003%	
옵 션		금액관계 없음	1.00%	금액 관계없이 HTS, JTS, WEB 0.10%	

### 33.매일린치증권

구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2억원 이하	0.50%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0.45%+100,000		
		5억원 초과	0.40%+350,000		
		협의수수료 가능			
	코스닥시장	기본수수료	0.40%	해당사항없음	
		협의수수료 가능			
선물	기본수수료	약정금액의 0.02%			
	협의수수료 가능				
옵션	기본수수료	약정금액의 0.50%			
	협의수수료 가능				

34.코리아RB증권

구 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2억원 미만	0.50%	매매거래대금	0.10%
		2억원이상 - 5억원이하	0.45%+100,000원		
		5억원 초과	0.4%+350,000원		
	코스닥시장	매매거래대금	0.40%		
선 물		5억원 미만	0.05%	매매거래대금	0.01%
		5억원이상 - 10억원미만	0.045% + 25,000원		
		10억원이상-25억원미만	0.04% + 75,000원		
		25억원이상-50억원미만	0.035% + 200,000원		
		50억원 이상	0.03% + 450,000원		
옵 셴		일천만원 미만	1.50%	매매거래대금	0.50%
		일천만원 이상	1.0% + 50,000원		
		계약당	2,500원	계약당	2500원



### 35.리딩투자증권

구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1억원이하	0.50%	1백만원이하	1,000
		1억원초과~5억원이하	0.40% +100,000		0.1%+1,000 0.2%+1,000
		5억원초과~10억원이하	0.30% +600,000	1백만원초과	0.1% ~ 0.3%
		10억원초과~50억원이하	0.20% +1,600,000		
		50억원초과	0.15% +4,100,000		
	코스닥시장	1억원이하	0.40%	1백만원이하	1,000
		1억원초과~5억원이하	0.35% +50,000		0.1%+1,000 0.2%+1,000
		5억원초과~10억원이하	0.30% +300,000	1백만원초과	0.1% ~ 0.2%
		10억원초과~50억원이하	0.20% +1,300,000		
		50억원초과	0.15% +3,800,000		
선물	5억원이하	0.040%	0.004% (약정금액에 대해서 단일수수료를 적용)		
	5억원초과~10억원이하	0.035% +25,000			
	10억원초과~50억원이하	0.030% +75,000			
	50억원초과~100억원이하	0.025% +325,000			
	100억원초과	0.020% +825,000			
옵션	1천만원이하	1.50%	0.15% (약정금액에 대해서 단일수수료를 적용)		
	1천만원초과~2천만원이하	1.00% +50,000			
	2천만원초과	0.50% +150,000			

주1) 상장/코스닥 장외단주 위탁수수료율 : 일반 0.5%, HTS 0.15%+1천원  
프로그램매매 : 0.2%

### 36.비엔지증권

구 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2억원 이하	0.50%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0.45% + 100,000		
		5억원 초과	0.40% + 350,000		
	코스닥시장	약정대금	0.40%		
선 물		5억원 이하	0.05%	순입금 1억원 미만	0.001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0.045% + 25,000	순입금 1억원 이상 ~5억원미만	0.0012%
		10억원초과~30억원 이하	0.040% + 75,000	순입금 5억원이상	0.0008%
		3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0.035% + 225,000		
		50억원 초과	0.03% + 475,000		
옵 셴		1,000만원 이하	1.50%	순입금1억원 미만	0.075%
		1,000만원 초과	1.0% + 50,000	순입금 1억원이상~5억원미만	0.040%
				순입금 5억원이상	0.026%

### 37. 한국증권중개

구분		일반 위탁매매		HTS (인터넷, PC 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거래소시장	2억원 이하	0.50%	A원 이하	해당사항없음
		2억원초과 ~ 5억원이하	0.45%+100,000	A원 ~ B원	
		5원 초과	0.4%+350,000	B원 초과	
	협회중개시장	금액에 상관없음	0.40%	A원 이하	
				A원 ~ B원	
				B원 초과	
선 물		해당사항없음	A원 이하		
			A원 ~ B원		
			B원 초과		
옵 션			해당사항없음	A원 이하	
				A원 ~ B원	
				B원 초과	

38.비엔피파리바증권

구분		일반위탁매매		HTS(인터넷,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2억원 이하	0.5.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45%+100,000		
		5억원 초과	0.40%+350,000		
	코스닥시장		0.40%		
선물					
옵션					

### 39.CLSA코리아증권

구 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2억원이하	0.45%		
		2억원초과~5억원이하	0.4% + 100,000		
		5억원초과	0.35% + 350,000		
	코스닥시장	약정금액에 구분없이	0.40%		
선	물	약정금액에 구분없이	0.04%		
옵	선	약정금액에 구분없이	1%		

#### 40. 맥쿼리증권

구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2억원이하	0.50%	해당사항없음	
		2억원초과~5억원이하	0.45% + 350,000		
		5억원초과	0.40% + 350,000		
	코스닥시장	약정금액	0.40%		
선물		해당사항없음			
옵션		해당사항없음			

#### 41.제이피모간증권

구분		위탁매매	
		수수료율	
주식	거래소	2억원이하	0.5%
		2억원초과 ~ 5억원이하	0.45%+100,000원
		5억원초과	0.4%+350,000원
	KOSDAQ	거래 금액의 0.4%	
선물		거래 금액의 0.04%	
옵션	내국인 개인	전월 거래대금 누계 5억이상	1.25%
		전월 거래대금 누계 5억미만	1.50%
	내국인 개인을 제외한 그 밖의 고객		1.50%
채권	일반채권	잔존기간 1년 미만	0.1%
		잔존기간 1년이상 ~ 2년미만	0.2%
		잔존기간 2년 이상	0.3%
	전환채권	거래 금액의 0.3%	
	소액채권	거래 금액의 0.6%	

42.슈브르증권

구 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 시장	2억원 이하	0.5%	2억원 이하	좌 동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0.45%+100,000원	2억원 초과	
		5억원 초과	0.4%+350,000원	5억원 초과	
	코스닥 시장	2억원 이하	0.4%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5억원 초과	
선 물		2억원 이하	0.04%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5억원 초과	
옵 셴		2억원 이하	0.6%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5억원 초과	



43.다이와증권

구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2억 이하	0.50%		
		5억 이하	0.45%+100,000		
		5억 초과	0.40%+350,000		
	코스닥시장	일률적으로 적용	0.40%		
선물					
옵션					

#### 44.바클레이즈증권

구 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0.40%		
	코스닥시장		0.40%		
선 물					
옵 셴					

45.유비에스증권

구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2억원 이하	매매가액의 0.5%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매매가액의 0.45%+100,000		
		5억원 초과	매매가액의 0.4%+350,000		
	코스닥시장	2억원 이하	매매가액의 0.4%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매매가액의 0.4%		
		5억원 초과	매매가액의 0.4%		
선물		계약당	7,500원		
옵션		2억원 이하	매매가액의 1%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매매가액의 1%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매매가액의 1%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매매가액의 1%		
		100억원 초과	매매가액의 1%		

46.노무라증권

구 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2억원 이하	0.50%		
		2억원초과~5억원이하	0.45%+100000		
		5억원 초과	0.4%+350000		
	코스닥시장	거래매매대금	0.40%		
선 물					
옵 셴					

47.ABN압로증권

구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2억원이하	0.50%		
		2억원이상~5억원이하	0.45%+10만원		
		5억원초과	0.4%+35만원		
	코스닥시장	금액구분없음	0.40%		
선물		금액구분없음	0.00084%+80원		
옵션		금액구분없음	0.113%		

48.모건스탠리증권

구 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2억원 이하	0.50%	해당사항없음	
		2억원 초과~5억원이하	0.45%+100,000		
		5억원 초과	0.40%+350,000		
	코스닥시장	금액구분 없음	0.40%		
선 물		금액구분 없음	0.04%		
옵 셴		금액구분 없음	3%		

49.크레디트스위스증권

구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1) 종목별 매매거래대금을 구간별로 차등적용		해당사항 없음	
		2억원 이하	0.50%		
		2억원초과5억원 이하	0.45%+KRW100,000		
		5억원초과	0.40%+KRW350,000		
		(2) 매매대금의 0.50% 이하로 적용			
	(1) 과 (2)중 고객이 계좌개설시 선택				
	코스닥시장/제3시장	일반	0.40%		
선물	코스피200지수선물	일반	0.02%		
	스타지수선물	일반	0.04%		
코스피200지수 옵션		일반	1.20%		

50.에스지증권

구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거래소시장	일반적인경우			
		2억원 이하	0.5%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0.45% +100,000 원		
		5억원 이상	0.4%+350,000 원		
		고객의 거래규모에 따라	0.005%~0.45%		
	코스닥시장	일반적인경우			
		2억원 이하	0.5%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0.45% +100,000 원		
		5억원 이상	0.4%+350,000 원		
		고객의 거래규모에 따라	0.01%~0.45%		
선 물		0.002%			
옵 셴		0.065%			
주 식 옵 셴		0.065%			
STAR 선 물		0.002%			



51.골드만삭스증권

구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2억원미만	0.5%	해당사항 없음	
		2억원이상 ~ 5억원미만	0.45% + 100,000		
		5억원이상	0.4% + 350,000		
	코스닥시장	2억원미만	0.4%	해당사항 없음	
		2억원이상 ~ 5억원미만	0.4%		
		5억원이상	0.4%		
선물	매매거래대금	0.05%	해당사항 없음		
옵션	매매거래대금	1.5%	해당사항 없음		

## 52.리먼브러더스증권

구 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금액구분 없음	0.40%	해당사항 없음	
	코스닥시장	금액구분 없음	0.40%		
선	물	금액 구분 없음	0.02%		
옵	선	금액 구분 없음	0.50%		

53. 홍콩상하이증권

구분		일반위탁매매		HTS (인터넷, PC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식	유가증권시장	2억원이하	0.50%		
		2억원초과~5억원이하	0.45%+100,000		
		5억원초과	0.4%+350,000		
		기타회사가 정한금액	기타요율		
	코스닥시장	2억원이하	0.40%		
		2억원초과~5억원이하	0.40%		
		5억원초과	0.40%		
		기타회사가 정한금액	기타요율		
선물					
옵션					

54. KIDB 채권중개

		일반 위탁매매		HTS (인터넷, PC 통신 등)	
		금액구분	수수료율	금액구분	수수료율
주    식	거래소시장	A원 이하	해당사항없음	A원 이하	해당사항없음
		A원 ~ B원	-	A원 ~ B원	-
		B원 초과	-	B원 초과	-
	협회중개시장	A원 이하	-	A원 이하	-
		A원 ~ B원	-	A원 ~ B원	-
		B원 초과	-	B원 초과	-
선 물		A원 이하	-	A원 이하	-
		A원 ~ B원	-	A원 ~ B원	-
		B원 초과	-	B원 초과	-
옵 션		A원 이하	-	A원 이하	-
		A원 ~ B원	-	A원 ~ B원	-
		B원 초과	-	B원 초과	-

## 5. 상호저축은행 관련(2003년~2006년 8월 현재)

### 5-1. 합병, 제3자 인수, 퇴출을 당한 저축은행 사례

□ 합병, 계약이전, 퇴출 저축은행 현황 (2003년~2006년 8월)

저축은행명	구분	날짜
(인천)경인저축은행	인가취소	2003.1.24
(경북)김천저축은행	인가취소	2003.10.27
(경북)한나라저축은행	인가취소	2004.11.12
(서울)삼환저축은행	합병 (→미래저축은행)	2005.3.14
(부산)한마음저축은행	계약이전 (→부산솔로몬저축은행)	2005.7.22
(경남)아림저축은행	계약이전 (→예가람저축은행)	2005.8.26
(서울)한중저축은행	계약이전 (→예가람저축은행)	2005.8.26
(부산)플러스저축은행	인가취소	2006.1.25
(부산)인베스트저축은행	계약이전 (→파랑새저축은행)	2006.5.26

5-2. 2006년 개인대출한도를 확대한 이유, 확대금액, 대출한도  
확대로 인한 파급효과, 2003년 이후 연도별 개인대출한도  
조정내역

□ 개인대출한도 확대사유, 금액, 파급효과

- 개인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3억원)는 '00년 6월 설정된 것으로 그간 경제규모의 확대<sup>1)</sup>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 저축은행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이용자에게도 큰 불편을 초래<sup>2)</sup>

1) GDP : 529.5조원('99년) → 806.6조원('05년)

2) 10억 이상의 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저축은행으로부터 3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저축은행 고객이 타 금융권으로 이탈

-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에 대한 동일인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시행일 '06.8.4.)
- 동 한도 확대 이후 불과 1개월이 지나 그 파급효과를 측정하기는 곤란하나 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충을 통해 장기적인 재무상황이 개선되고 저축은행 이용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

□ 2003년 이후 연도별 개인대출한도 조정내역 : 없음

5-3. 2006년 법인대출한도를 확대한 이유, 확대금액, 대출한도 확대에 따른 대출증가예상액, 2003년 이후 연도별 법인 대출한도 조정내역

□ 법인대출한도 확대사유, 금액, 대출증가 예상액

- 경제규모 확대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저축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이 충분함에도 법인대출 금액한도(80억원)로 인해 자금지원이 곤란

\* 저축은행 평균 자기자본 : 74억원('06.6.) → 264억원('06.6.)  
GDP : 529.5조원('99년) → 806.6조원('05년)

- 타 금융회사와 달리 자기자본 대비 한도(20%) 외에 별도의 금액기준(80억원)이 설정되어 있어 이중규제라는 비판

- 동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중 금액기준(80억원)을 폐지

- 동 금액기준 폐지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저축은행\*에 한해 적용토록 규정

\* 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 법인대출한도 80억원을 초과하여 대출이 가능한 저축은행은 21개사에 불과하고 자기자본에 의한 제한이 존치되고 있으며, 컨소시엄 형태 대출이 한도확대에 따라 단독대출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출증가액은 크지 않을 전망

□ 2003년 이후 연도별 법인대출한도 조정내역 : 없음

#### 5-4. 부실우려에도 불구하고 2006년 개인대출과 법인대출을 조정한 사유

□ 개인 및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 조정은 경제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저축은행의 영업력을 개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음

○ 또한, 저축은행의 본연의 목적인 서민 및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측면도 있었음

□ 대출한도 확대에 따른 부실 가능성은 보완대책을 통해 최소화하였는 바,

○ 개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최소한(3억원 → 5억원)으로 확대하였고

○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자기자본의 20% 기준을 준치하는 한편, 80억원 금액기준 배제도 우량저축은행\*에 한해 인정

\* BIS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 따라서 금번 대출한도 조정으로 인한 저축은행의 부실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사료됨



## 6. 자산규모 50대 상호저축은행별 대출자산 구성내역과 구성비율

□ 자산 상위 50개 상호저축은행 담보·신용대출 현황

“<붙임\_담보대출,신용대출> 참고”

□ 자산 상위 50개 상호저축은행 PF대출·주택담보대출 현황

“<붙임\_PF대출,주택담보대출> 참고”

<붙임\_담보대출,신용대출>

**상호저축은행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현황**

(단위 : 억원)

금융회사명	지역	2003년06월		2004년06월		2005년06월		2006년06월	
		담보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솔로몬	서울	1,105	3,702	1,803	7,100	7,513	6,627	15,179	4,902
제일	서울	5,181	4,888	7,620	5,259	10,945	3,865	13,006	4,351
HK	서울	6,395	8,634	7,675	8,500	8,169	9,337	10,206	6,297
한국	서울	3,135	1,751	6,206	2,063	9,226	2,812	10,259	1,888
부산	지방	6,105	1,133	6,251	2,330	7,239	3,133	7,546	4,037
부산2	지방	2,135	1,078	2,355	1,496	2,607	3,359	2,720	6,344
토마토	수도권	1,746	1,598	4,056	1,224	5,990	1,105	10,248	570
경기	수도권	1,644	793	2,394	1,081	2,699	1,057	7,140	1,258
진흥	서울	2,917	1,417	4,364	1,262	6,544	1,956	7,781	1,748
미래	지방	836	720	1,740	775	3,527	1,930	5,110	2,904
신한국	수도권	4,075	2,414	4,669	3,007	6,466	1,884	8,406	1,225
부산솔로몬	지방	0	0	0	0	0	0	6,941	2,498
현대스위스	서울	1,975	3,938	3,117	3,382	3,764	3,908	4,897	3,161
푸른	서울	1,636	4,000	2,287	3,143	3,296	3,803	5,787	2,593
전일	지방	2,575	2,088	3,955	1,733	4,650	2,193	5,127	2,459
대전	지방	1,592	1,996	2,807	1,919	4,208	2,222	5,099	2,052
한국투자	지방	1,756	1,126	2,624	774	3,583	719	5,372	385
삼화	서울	459	1,831	820	2,409	738	2,836	2,624	3,779
프라임	서울	1,946	633	3,137	590	3,544	569	4,965	1,581
동부	서울	2,371	1,010	3,594	676	4,317	347	5,029	192
서울	서울	1,880	1,260	2,142	2,197	3,129	1,526	3,956	1,430
흥익	지방	978	1,149	1,075	2,451	1,094	3,577	3,116	2,836
하나로	지방	1,609	1,316	2,629	1,128	3,751	1,092	3,931	1,144
한서	수도권	2,117	1,196	2,775	916	3,948	660	4,724	691
현대스위스이	서울	1,349	904	2,074	922	3,428	1,056	3,059	1,615
에이스	수도권	1,303	521	1,916	677	1,955	1,946	2,411	2,663
부산고려	지방	993	312	2,473	271	3,225	302	4,511	313
푸른2	서울	1,346	971	1,877	535	2,822	535	4,317	363
새누리	수도권	1,618	928	2,356	1,167	2,532	1,396	3,265	1,358
한신	서울	3,822	551	2,267	308	1,986	672	2,578	414
제이원	서울	904	2,214	1,741	2,359	2,405	1,798	2,630	1,289
으뜸	지방	1,293	990	1,463	1,191	1,996	1,689	2,315	2,022
좋은	수도권	1,454	1,514	1,600	2,004	2,068	2,207	2,032	2,701
신안	서울	356	723	678	468	898	723	2,198	1,312
교원나라	서울	1,362	2,116	1,000	1,737	1,691	670	2,208	810
우리	지방	998	723	2,153	591	2,707	497	2,680	499
대영	서울	1,038	627	1,259	726	1,439	704	2,973	614
영풍	서울	468	695	1,199	527	2,045	402	3,066	295
부민	지방	2,644	939	2,791	861	2,474	651	2,742	364
상업	지방	978	1,329	1,459	837	1,485	1,148	1,713	1,197
엠에스	지방	1,083	641	1,416	455	1,623	86	1,922	78

금융회사명	지역	2003년06월		2004년06월		2005년06월		2006년06월	
		담보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대출
도민	지방	1,235	308	1,447	244	1,976	274	2,016	221
인성	수도권	1,043	614	1,599	432	2,029	373	2,492	396
삼신	수도권	1,073	378	1,515	258	1,840	211	2,372	138
분당	수도권	309	94	371	155	978	399	1,895	792
유니온	지방	553	376	1,102	421	969	543	1,214	529
남양	수도권	958	651	1,252	565	1,590	536	2,134	264
창업	지방	727	655	766	581	808	813	748	1,048
민국	서울	311	588	463	473	759	479	1,486	427
세람	수도권	1,041	255	1,351	234	1,544	268	1,986	158
서울계		39,954	42,451	55,323	44,635	78,657	44,624	108,203	39,063
수도권계		18,382	10,955	25,854	11,721	33,640	12,042	49,105	12,215
지방계		28,091	16,879	38,504	18,057	47,922	24,227	64,822	30,930

<불입 -PF대출, 주택담보대출>

상호저축은행 PF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현황

(단위 : 억원)

저축은행명	지역	03.6.말		04.6.말		05.6.말		06.6.말	
		PF대출	주택담보대출	PF대출	주택담보대출	PF대출	주택담보대출	PF대출	주택담보대출
솔로몬	서울	959	733	1,421	1,411	2,821	1,774	8,492	1,813
제일	서울	265	180	910	351	2,780	445	3,305	329
HK	서울	599	670	2,236	1,002	2,335	1,961	1,132	2,264
한국	서울	0	0	4,760	1,142	5,140	1,367	6,170	1,353
부산	지방	867	330	2,463	187	3,010	345	4,373	309
부산2	지방	274	14	602	28	1,726	89	3,126	120
토마토	수도권	80	0	379	83	291	162	388	146
경기	수도권	829	47	1,334	212	1,325	540	3,669	1,331
진흥	서울	2,318	0	3,147	526	3,811	649	4,885	686
미래	지방	0	365	0	886	104	1,192	1,199	1,189
신한국	수도권	0	0	522	2,744	1,107	3,108	698	4,567
부산솔로몬	지방	0	0	0	0	0	0	4,693	767
현대스위스	서울	582	85	759	103	1,459	60	1,952	36
푸른	서울	247	597	360	1,119	1,170	1,190	2,043	808
전일	지방	391	36	540	95	696	111	838	147
대전	지방	0	262	207	548	461	780	645	408
한국투자	지방	0	514	70	620	256	2,119	95	3,755
삼화	서울	0	28	368	462	778	425	1,243	414
프라임	서울	0	137	0	224	452	248	1,895	190
동부	서울	40	306	144	419	150	384	436	583
서울	서울	110	22	513	66	713	49	1,370	24
홍익	지방	0	39	207	70	802	82	957	226
하나로	지방	898	150	1,865	137	2,795	111	3,007	153
한서	수도권	173	457	183	794	67	1,801	68	1,912
현대스위스이	서울	172	57	467	152	1,557	110	1,430	78
에이스	수도권	0	273	0	325	244	307	826	208
부산고려	지방	0	735	0	2,112	0	2,874	0	3,903
푸른2	서울	0	129	265	145	426	316	954	377
새누리	수도권	74	103	638	102	586	146	1,056	251
한신	서울	0	24	0	31	90	13	80	25
제이원	서울	75	69	135	233	376	277	436	190
으뜸	지방	52	204	110	231	302	159	397	172
좋은	수도권	30	78	65	216	50	276	100	522
신안	서울	58	25	70	30	212	36	1,364	38
교원나라	서울	20	33	134	71	117	152	184	263
우리	지방	0	44	34	699	34	1,117	148	1,009
대영	서울	0	66	333	245	297	386	429	304
영풍	서울	0	82	0	211	106	326	636	497
부민	지방	0	560	0	810	0	926	92	1,351
상업	지방	0	370	80	375	110	325	160	313
엠에스	지방	0	439	0	639	0	659	0	931
도민	지방	0	189	0	243	0	309	0	277
인성	수도권	0	293	5	609	3	702	168	488
삼신	수도권	0	114	0	219	20	428	106	534
분당	수도권	0	166	0	198	0	266	0	318

저축은행명	지역	03.6.말		04.6.말		05.6.말		06.6.말	
		PF대출	주택담보 대출	PF대출	주택담보 대출	PF대출	주택담보 대출	PF대출	주택담보 대출
유니온	지방	61	222	231	599	215	506	391	510
남양	수도권	0	43	22	56	29	65	205	67
창업	지방	0	30	0	30	0	62	190	59
민국	서울	84	19	171	58	175	67	670	47
세람	수도권	10	32	35	36	42	60	95	108
서울계		5,529	3,262	16,193	8,001	24,964	10,235	39,106	10,319
수도권계		1,196	1,606	3,183	5,594	3,764	7,861	7,379	10,452
지방계		2,543	4,503	6,409	8,309	10,511	11,766	20,311	15,599

\* 일부 상호저축은행 '03.6.말 현재 자료 미보유

